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제1권
I

조앤·K· 롤링 지음 | 김혜원 옮김

문학수첩

도서명: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제 1 권 상

저자명: 조앤.K.롤링

역자명: 김혜원

출판사명: 문학수첩

출판년도: 2000 년

출판사 전화: 02-790-5999

목자본의 페이지:236

입력자명: 스캔입력

교정자명: 문헌정보팀

제작: 부산맹인복지관 문헌정보팀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 3 동 1254-3

전화: 338-0017-9

차례

제 1 장 살아남은 아이

제 2 장 사라진 유리창

제 3 장 이상한 편지들

제 4 장 사냥터지기 해그리드

제 5 장 다이애건 앨리

제 6 장 9 와 4 분의 3 번 승강장

제 7 장 마법의 모자

제 8 장 마법의 약 선생님

제 9 장 한 밤의 결투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 상

제 1 장 살아남은 아이

프리벳가 4 번지에 살고 있는 더즐리 부부는 자신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이하거나 신비스런 일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다. 아니, 그런 터무니없는 것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다.

더즐리 씨는 그루닝스라는 드릴 제작 회사의 중역이었다. 그는 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이 뿔뿔히 찢어 몸집이 큰 사내로, 코밑에는 커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더즐리 부인은 마른 체구의 금발이었고, 목이 보통사람보다 두 배는 길어서, 담 너머로 고개를 쪽 빼고 이웃 사람들을 몰래 훑쳐보는 그녀의 취미에는 더없이 제격이었다.

더즐리 부부에게는 두들리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두들리처럼 착한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더즐리 부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건 포터 부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혹시 누구라도 포터 부부에 대해 알아낸다면 더즐리 부부는 아마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포터부인은 더즐리 부인의 동생이었지만, 그들은 몇 년째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사실 더즐리 부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그 엉터리 같은 동생남편이 더즐리 집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가 갑자기 이 근처에 나타나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댈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더즐리 부부는 포터 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적도 없었다. 이 아이는 더즐리 부부가 포터 부부를 멀리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은 두들리가 그런 아이와 어울리지 않길 바랐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세상에 금방 기이하고 신비스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난 그 우중충하고, 흐린 화요일에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더즐리 씨는 전형적인 직장인 풍의 무미건조한 넥타이를 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고, 더즐리 부인은 악악 울어대는 두들리를 힘겹게 아기용 의자에 앉히며 신나게 남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들은 커달란 황갈색 부엉이가 날개를 퍼덕이면 창문 옆으로 날아가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8시 30분에 더즐리 씨는 서류가방을 집어 들고 더즐리 부인의 볼에 가볍게 키스한 뒤, 두들리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두들리가 짜증을 부리며 밥그릇을 벽에다 던져 버리는 바람에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귀여운 녀석'

더즐리 씨는 집을 나서면 좋아서 걸걸 웃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후진해서 4번지를 빠져 나왔다.

그가 처음으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도로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도를 읽고 있었다.

순간, 더즐리 씨는 자신이 방금 전에 본 것이 뭔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려고 고개를 꺾 돌려 뒤를 돌아다보았다.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프리벳가 모퉁이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근처에 지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햇빛 때문임이 분명했다. 더즐리 씨는 눈을 몇 번 깜박거리고 뒤 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고양이도 그를 바라보았다. 더즐리씨는 길모퉁이를 돌면서 백미러에 비친 고양이를 계속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이제 '프리벳가'라는 표지판을 읽고 있었다..... 아니, 그 표지판을 보고 있었다. 고양이는 지도나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더즐리 씨는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머리 속에서 고양이 생각을 지워 버렸다. 시내 쪽으로 운전해 가는 그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그 날 드릴의 대량 주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시내에 거의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드릴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늘 겪는 혼잡한 교통 때문에 거의 정지해 버린 차안에 앉아있던 그는 유난히 이상한 웃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망토를 입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젊은애들이나 입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런 웃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새로운 패션을 아주 한심스럽게 여겼다. 손가락으로 따각따각 핸들을 두드리던 그에게 우연히 이런 이상한 웃을 입은 사람들이 떼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더즐리 씨는 그들 중 두 명은 전혀 젊지도 않다는 걸 알고 몹시 화가 났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저 남자는 왜 에메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는 거지?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다음 순간 더즐리씨는 이것이 어쩌면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이 사람들은 모금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더즐리 씨는 몇 분 뒤 그루닝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다시 드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9층 사무실에서 더즐리씨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등을 대고 앉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오전 내내 드릴 생각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음에도 불구하고, 부엉이들이 계속 하늘에서 머리 위로 쏜살같이 덮쳐 오자, 사람들은 기가 막힌 듯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밤에도 부엉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더즐리 씨는 평상시와 똑같이, 부엉이가 없는 아침을 보냈다. 그는 직원 다섯 명에게 소리 소리를 질러댔으며, 중요한 전화 몇 통을 걸어 약간 더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리를 쭉 뻗으면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에 건포도 롤빵을 사러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점심 시간까지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는 빵집 옆에서, 오전 내내 까맣게 잊고 있던, 망토를 입고 서 있는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들을 보는 게 불쾌했다. 이들 역시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모금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빵집에서 커다란 도넛 봉지를 들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들이 주고받는 몇 마디를 듣게 되었다.

"포터 부부 말야, 맞아, 나도 그 말 들었어....."

".....그래, 그 집 아들 해리....."

더즐리씨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마치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돌아보았지만, 생각을 고쳐 먹었다.

그는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사무실로 달려가, 비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서 문을 광 닫고는 수화기를 들고 부리나케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거의 다

돌렸을 때 마음을 바꿨다. 그는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면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이렇게 멍청할 데가. 포터는 그렇게 특별한 성씨가 아니다. 포터라는 성에 해리라는 아들을 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조카 이름이 해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애의 이름은 하비일지도 모르다. 아니면 해럴드일지도 그러니 동생 애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아내를 괜히 걱정시킬 필요가 없었다. 사실 아내를 탓할 일은 아니었다. 자기에게도 그런 여동생이 있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망토를 입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런 그 날 오후 내내 드릴 생각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다섯 시가 되자 근심에 싸여 건물을 나서던 그는 그만 문 바로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과 부딪치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광마른 노인이 발부리에 걸려 거의 넘어질 뻔하지, 그는 툭툭거리면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이 보랏빛 망토를 입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몇 초가 지나서였다.

그 노인은 땅바닥에 넘어질 뻔했는데도, 전혀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얼굴 가득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할 것 없소이다. 선생. 오늘은 무슨 일을 당해도 화가 나지 않을 테니 말시오! 기뻐하시오, 그 사람이 마침내 사라졌다오! 이렇게 기쁜 날에는 당신과 같은 '머글'들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더즐리 씨를 포옹하더니 저쪽으로 가 버렸다.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느닷없이 포옹을 받은 더즐리 씨는 땅에 뿌리가 박힌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는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머글'로 불렸던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주차해 놓았던 차로 달려가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에도 그저 모든게 다 상상속의 일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전에도 한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상상이라는 것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벳가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얼룩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그이 기분을 더욱 심란하게 했다.

고양이는 이제 자기 집 정원 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 고양이가 아침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양이라고 확신했다. 그 고양이의 눈 주위에는 똑같은 얼룩무늬가 있었다.

"저리 가!"

더즐리 씨가 크게 소리쳤다.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그저 그를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고양이들은 다 저런가, 더즐리 씨는 생각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더즐리 부인은 즐겁게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옆집 부인이 딸애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고 있으며, 두들리가 새로운 단어('싫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한참을 떠들었다.

더즐리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두들리가 잠들었을때에다, 그는 간신히 거기로 가서 저녁 뉴스의 마지막 보도를 들을 수 있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의 부영이가 오늘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곳곳의 조류 관찰자들이 전해 왔습니다. 부영이는 보통 밤에 사냥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침해가 떠오른 이후로 수백 머리의 부영이가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영이가 왜 갑자기 낮과 밤을 바꾼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는 한 번 씩 웃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짐 맥커핀에게 넘겨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밤도 많은 부영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까, 짐?" "글쎄요 테드" 기상 예보 관이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부영이뿐만이 아닙니다. 켄트 요크셔 던디와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제가 어제 예보했던 비 대신, 별뿔별이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전화로 전해 왔습니다. ! 아마도 사람들이 한밤의 핼불 축제를 일찍 열고 있는 듯합니다. 그 축제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밤에는 확실히 비가 올 겁니다" 더즐리 부인이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왔다.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말해야만 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저..... 페투니아, 당신 최근에 동생 소식 못 들었소?" 예상했던 대로 더즐리 부인은 몹시 화를 냈다. 평상시에는 그들은 그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걸 잊으려 애쓰며 살았기 때문이다.

"아뇨"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왜요?

뉴스에 우스꽝스런 얘기가 나와서. 더즐리 씨는 우물 우물했다. 부엉이니... 별똥별이니... 그리고 오늘 시내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세요? 더즐리 부인이 얼른 맞받아 쳤다.

글쎄, 난 그저... 어쩌면... 그게 말이야... 그 집 식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야.

더즐리 부인은 입을 오므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더즐리씨는 그녀에게 포터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말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러다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그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 집 아들 말야... 그 애도 지금쯤 두들리 나이쯤 됐겠지, 안그래? 그럴겠죠. 더즐리 부인이 콧방귀를 꺼며 말했다.

그 애 이름이 뭐랬지? 하워드지?

아 그랬지, 더즐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그 화제에 대해 더 이상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즐리 부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더즐리 씨는 살금살금 침실 창가로 걸어가 앞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고양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다. 고양이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프리벳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포터 부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만일 포터 부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들어난다면...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더즐리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더즐리 부인은 금방 잠들었지만, 더즐리 씨는 뜯눈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설사 이런 일들에 포터 부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네 집 근처로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한결 위안이 되었다. 포터 부부는 더즐리 부부가 자기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해도 자신과 페투니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그의 생각은 얼마나 턱없이 잘못되었던가.

더즐리 씨가 불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담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는 졸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고양이는 프리벳가 저쪽 모퉁이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조각품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옆길에서 자동차 문이 광 달하는 소리가 났을 때도 부엉이 두 마리가 머리 위로 급습해 왔을 때도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고양이는 자정이 될 때까지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던 길모퉁이에서 마치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소리없이 갑자기 사람 한가 나타났다. 고양이가 꼬리를 움찔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프리벳가에서는 한번도 본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허리띠를 덮을 만큼 길게 자란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보아 나이가 매우 많은게 분명했다. 그는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보랏빛 망토에 침쇠가 달린 굵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하늘빛 파란 눈은 반달 모양의 안경 뒤에서 광채를 내고 있었고, 코는 길게 구부러져 있어서, 적어도 두 번은 부러졌을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버스 덤블도어였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곳에 막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망토를 뒤지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길 저쪽에서 여전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킬킬 웃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는 안주머니에서 찾고 있던 걸 발견했다. 그것은 은빛 라이터처럼 보였다. 그는 뚜껑을 탁 하고 열더니 공중으로 치켜올려 찰칵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러자 조그맣게 펄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로등이 꺼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찰칵하자 그 다음 가로등이 깜박거리며 나가 버렸다. 그가 그렇게 가로등 끄기를 열두번 하자, 이제 그 거리에 남아 있는 불빛이라곤 바늘로 꼭 질러둔 것처럼 작게 보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의 두 눈뿐이었다. 만약 지금 창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언제나 흥밋거리를 찾아

말뚱말뚱 빛나는 눈을 가진 더즐리 부인조차도, 저 아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덤블더어는 그 라이터 모양의 것을 다시 망토 안으로 밀어 넣고 4 번째 쪽으로 내려가 담벼락 위 고양이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고양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줄 알았소, 맥소나걸 교수"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 얼룩 고양이에게 미소를 지었을때는 이미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에 그 고양이 눈 주위에 있던 바로 그 얼룩무늬 모양의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는 다소 불임성이 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 역시 망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망토는 에메랄드빛이었다. 그녀의 까만 머리는 돌돌 말려서 틀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녀가 물었다.

"이봐요 교수, 난 그렇게 뽀뽀이 앉아 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도 벽돌 담 위에 온종일 앉아 있었다면 그렇게 뽀뽀해졌을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온종일이라고요? 그럼 축하할 거들도 없었겠구려? 난 여기 오는 길에 축제와 파티를 수십번 거쳤을 거요" 맥고나걸 교수는 화가 난 듯이 흠 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아 그러시겠죠, 모두가 축제 기분에 젖어 있군요, 좋아요" 그녀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조금 더 조심하는게 좋을 거예요, 그래선 안 돼요, 머글들조차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 챘단 말이에요, 그들의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다구요." 그녀는 다시 더즐리 부부의 어두운 거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전 그 뉴스를 들었어요. 부영이 떴으며..... 별뿔별..... 글썽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었다구요. 캔트 지방에는 별뿔별이 떨어졌어요..... 그건 분명 데달루스 디글이 한 짓일 거예요. 그는 분별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지난 11년간 축하할 게 지독히도 없었잖소. 저도 그건 알아요. 맥고나걸 교수가 흥분해서 대꾸했다. 하지만 그게 축제 기분에 젖어 있을 이유는 못돼요, 사람들은 흰한 대낮에 거리에서 심지어 머글 옷도 입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 수군댔어요.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다구요. 그녀는 이부분에서 덤블더어가 무슨 말을 해 주길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드를 결눈질로 날카롭게 쏘아보았지만, 그가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말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자마자 바로 그 날로 머글들이 우리 모두에 대해 알아낸다면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사라진 거겠조 덤블도어교수님? 그런 것 같소. 덤블도어가 말했다. 우린 고맙게 여겨야 할게 많아요. 레몬 샤베트 드시겠소? 뭐라구요? 레몬 샤베트 말ियो.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머글들이 먹는 일종의 디저트오 아니 됐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지금은 레몬 샤베트 같은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봐요 교수, 당신같이 분별있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불러도 되지 않겠소? 이 보든 그 사람 타령은 말도 안 돼요 11년 동안 난 사람들에게 그를 그이 이름인 볼드모트로 부르도록 설득해 왔소 맥고나걸 교수는 움찔했지만, 덤블도어는 서로 붙어 있는 레몬 샤베트를 떼어 내는 데 정신이 팔려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모든게 너무나 혼란스러워 질거요, 난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겠조 맥고나걸 교수는 반은 화가 나고 반은 감탄한 듯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달라요 교수님은 그 사..... 아 좋아요.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치켜세우지 말아요. 덤블도어는 태연하게 말했다. 볼드모트는 내가 결코 갖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저 교수님이 너무 뭐랄까.. 점잖아서 그런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게 천만 다행이요. 폼프리 부인이 내가 새로 장만한 방한용 귀 가리개가 망드에 든다고 마란 이후 이토록 얼굴이 빨개져 본 적은 한번도 없었소.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더어를 한번 날카롭게 쏘아본 뒤 말했다. 부영이들은 떠도는 소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이 마침내 그 어둠의 힘을 저지했는지? 맥고나걸 교수는 마침내 온종일 차갑고 딱딱한 담 위에 앉아 기다렸던 진짜 이유인 가장 논의하고 싶었던 요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녀는 고양이로 변신해 있던 때에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지금처럼 떨어질 듯한 눈초리로 덤블더어를 바라보았던 적이 없었다. 모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그녀는 확실히 덤블도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까지는 믿지 않을 것이다. 덤블도어는 그러나 레몬 샤베트를 하나 더 먹기로 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지난 밤에

볼드모트가 고드릭 골짜기에 나타났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포터 부부를 찾아서요 소문에 의하면 릴리와 제임스 부부가..... 죽었대요 덤블도어는 머리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숨이 막혔다. 릴리와 제임스가요.....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요. 알버스..... 덤블도어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아요. 알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위로했다. 말을 계속하는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가 포터 부부의 아들 해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이지 못했대요. 그가 그 작은 꼬마를 죽이지 못했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해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볼드모어의 힘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그가 사라진 거래요... 덤블도어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게 사실인가요? 맥고나걸 교수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몸쓸 짓이란 짓은 다 했던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그가 작은 꼬마 하나를 죽이지 못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그저 어안이 병병할 뿐이에요..... 그를 막으려고 그렇게 갖은 수단을 다 썼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리가 살아 남은 것죠? 우리 그저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덤블도어 말했다. 아마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요. 맥고나걸 교수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꺼내 안경 밑으로 눈물을 가벽게 닦아 냈다. 덤블도어는 시끄럽게 코르 쿵쿵대며 호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시간을 보았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시계였다. 그 시계에는 열 두 개의 바늘이 있었지만 숫자는 없었다. 대신에 작은 행성들이 시계 가장자리를 돌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시계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해그리드가 낮은군. 내가 여기에 올 거라는 말을 물론 그에게 들었겠군요? 맞아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왜 하고 많은 곳중에서 하필 이곳에 오신 거죠? 난 해리를 그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데려다 줄고 온 거라오. 이제 해리에겐 친척이라곤 그들뿐이잖소. 설마... 설마 여기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4번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그럴 순 없어요. 전 저들을 온조일 지며보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들에겐 아주 못된 아들이 있다구요. 전 그 애가 저 길을 걸어가는 내내 사탕을 사 달라고 소리소리지르며 엄마를 발로 차는 걸 보았어. 해리 포터가 이런 곳에 와서 살다니요. 하지만 해리에겐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의 이모아 이모부는 해리가 크면 모든 걸 설명해 줄수 있을 거요. 내가 그들에게 줄 편지 한 통을 써 두었어요. 편지 한 통이라구요. 맥고나걸 교수가 다시 담 위에 앉으면서 힘없이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걸 편지 한통으로 다 설명할수 있다고 생각하게요? 이 사람들은 해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애는 유명해질거예요 전설이 되겠조 전 오늘이 장애에 해리 포터의 날로 알려진다 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해리에 대해 쓰여진 책들도 나올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해리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거요. 덤블도어가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라도 우쭐대게 될 거요. 겉고 말하기도 전에 유명해졌으니 말ियो 자신은 기억나지도않는 일로 유명해졌으니 말ियो 그러니 그 애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돌때까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라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낫다고 생각지 않소? 맥고나걸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는지 침을 꿀꺽 삼킨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맞아요. 물론 교수님 말이 옳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 오죠 덤블도어? 그녀는 덤블도어가 해리를 만토 밑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 듯 갑자기 그이 망토를 주의깊게 살폈다. 해그리드가 데려올 거요 해그리드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난 해그리드에게 내 목숨이라도 맡길거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제 말은 그의 본성이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맥고나걸 교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나 해그리드가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는 종종 실수를..... 아니 저건 뭐죠? 나직이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그들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찾아 길 이쪽 저쪽을 살피고 있는 동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둘 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소리는 갑자기 굉음으로 변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거대한 오토바이 한 대가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 있는 길 위에 사뿐히 내렸다. 그 오토바이가 거대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키는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였으며 몸집은 적어도 다섯배는 되었다. 한마디로 그는 굉장히 컸으며 아주 거칠게 보였다. 술이 많은 뒤통 긴 머리카락과 수영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쓰레기통 뚜껑만 했고, 가죽 장화를 신고 있는 발은 아기 돌고래 같았다. 그는 근육이 불거져 나온 양팔에 담요로 싼 뭉치를 안고 있었다. 해그리드 덤블도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마침내 왔군,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소? 거인은 오토바이에

조심스럽게 내리며 말했다. 빌렸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 시리우스 블랙이 빌려 줬어요 여기 해리를 데려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소? 네 집은 거의 부서졌지만, 머글들이 떼지어 몰려들기 전에 애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죠. 애는 브리스톨 상공을 날아오는 동안 잠들어 버었어요. 덤블도어와 맥고나걸 교수는 돌돌 말린 담요 쪽으로 허리를 굽혔다. 그 안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새까만 머리카락 밑 이마에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볼 수 있었다. 이게 저..... 맥고나걸 교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에겐 이 흉터가 영원히 남아 있을 거요 흉터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나요? 덤블더어? 혹 할수 있다 해도 난 하지 않을 거요. 흉터가 때로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오. 내게도 왼쪽 무릎 위에 꼭 런던 지하철처럼 생긴 흉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그르고..... 애를 이리 주시오. 해그리드. 이일을 빨리 끝마치는게 좋겠소. 덤블도어가 해리를 두 팔로 안고 더즐리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어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해그리드가 부탁했다. 해그리드는 해리에겐 커다랗고 수염이 텅수룩한 고개를 숙여 아주 까칠까칠하고 간질거렸을 게 분명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해그리드는 갑자기 상처 입은 개처럼 소리를 길게 뱉으며 우는 소리를 냈다. 췌 맥고나걸 교수가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다. 머글을 깨우겠소 죄.....죄....죄송합니다. 해그리드는 커다란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으며 훌쩍였다. 하지만 전 거.....거..... 견딜수가 없어요..... 릴리와 제임스가 죽었다는게 말예요.... 그리고 가엾은 해를 머글들과 함께 살도록 떼어 놓아야 한다는게 말예요..... 그래 그래요, 이 모든게 슬픈 일이라는 건 알지만, 좀 진정해봐요. 해그리드. 그렇지 않으면 들키고 말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해그리드의 팔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작은 소리로 말하는 동안, 덤블도어는 낮은 정원 담을 넘어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현관의 층층대에 해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망토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해리를 싼 담요 안에 끼워 넣고는 두 사람이있은 곳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서 그 작은 담요 뭉치를 바라 보았다. 해그리드의 어깨는 들쭉거리고 있었고, 맥고나걸 교수는 눈을 몹시 깜박였으며, 덤블도어의 눈에서는 한때 빛을 발했던 광채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자. 덤블도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됐군., 우리 이제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소 우리도 가서축제에 합류하는 게 좋겠소 그러죠. 해그리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시리우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 줘야 겠어요. 안녕히들 가세요.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면서, 해그리드는 오토바이에 휙 올라타고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는 광음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또뵈시다. 맥고나걸 교수. 덤블도어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까닥여 보였다. 맥고나걸 교수는 대답 대신 코를 킁 풀었다. 덤블도어는 돌아서서 길 저쪽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길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은빛 라이터를 꺼냈다. 그가 그것을 한번 찰칵 하자 가로등의 전구열 두 개가 금방 다시 켜지면서 프리벳가는 갑자기 오렌지 빛으로 밝아졌다. 길 저쪽 모퉁이에서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걸어가는게 보였다. 그리고 4 번지 문간에 놓여 있는 그 담요 뭉치도 보였다. 행운을 빈다, 해리. 덤블도어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책 돌아서서 망토를 한 번 휘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잉크빛 하늘 아래 조용히 그리고 깔끔하게 놓여 있는 프리벳 도로의 산뜻한 울타리, 놀라운 일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곳에 살짝 미풍이 일었다. 해리 포터는 깨지도 않고 담요 속에서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옆에 있는 편지를 움켜쥐고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자신이 유명하다는 사실도 모른채 자신이 몇 시간 뒤 면 빈 우유병을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연 더즐리 부인의 비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다음 몇 주 동안 이종사촌 두들리에게 찌리고 꼬집힐 거라는 사실도 모른채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 그는 물론 바로 이 순간, 방방곡곡에서 비밀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장엄한 목소리로 살아남은 아이해리 포터를 위해 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제 2 장 사라진 유리창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 문간에서 조카를 발견한 뒤 거의 10 년이 지난 오늘도 프리벳가는 전혀 변한게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잘 정돈된 앞마당 위로 떠올라 더즐리 씨네 정문의 4 번지라고 TM 인 빗쇠 장식을 비추었고, 햇빛은 더즐리 씨가 부엉이에 대한 불길한 뉴스를 보았던 그 날 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의 거실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 들었다. 단지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 있는 사진들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10 년

전에는, 커다란 핑크빛 비치볼처럼 생긴 아기가 작은 방울이 달린 가지각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지만 두들리 더즐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사진들은 뚱뚱한 금발 소년이 박람회장의 로터리에서 자전거를 처음 타고 있는 모습이나, 아버지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에게 안겨 입맞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해리 포터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지금은 잠들어 있었지만, 곧 깨어나야 했다. 페투니아 이모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날의 첫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당장.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이모가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일어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리는 이모가 식당으로 걸어가는 소리와 오븐 위에 프라이팬을 얹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드러누워 지난 밤 꾸었던 꿈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다. 멋진 꿈이었다. 꿈속에서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그런 똑같은 꿈을 꾸 적이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모가 다시 문 밖에 와 있었다. 아직 안 일어났니?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거의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나와서 저 베이컨 좀 지켜봐라 태우지 말고 말이다. 오늘은 두들리의 생일날인 모든게 완벽해야 해. 그러자 해리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너 뭐라고 했니? 이모가 문 저 쪽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들리의 생일..... 어떻게 잊어버릴수 있겠는가? 해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양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양말을 찾아내어 한쪽 양말에 붙어 있던 거미를 떼어 내고 신었다. 해리가 거미에 익숙해 진 건 그가 잠을 자는 계단 밑 벽장에 거미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그는 옷을 입고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두들리의 생일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두들리는 두 번째 텔레비전과 경주용 자전거는 물론이고 평소에 갖고 싶어했던 새 컴퓨터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두들 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경주용 자전거를 갖고 싶어했는지 알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두들리는 아주 뚱보인데다 운동-물론 누군가에게 주먹질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면-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긴 두들 리가 가장 두들겨 패기 좋아하는 대상은 해리였지만, 그는 해리를 놀리기 일쑤였다. 해리는 보기와는 달리 몸이 몹시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어두운 벽장에서 지내서인지 언제나 또래들에 비해 작고 연약했다. 또한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작고 말라 보였던 것은 입은 웃마다 두들리의 낡은 웃인 데다 두들리의 몸집이 그보다 네배나 더 컸기 때문이다. 해리는 가름한 얼굴과,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에 연한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두들 리가 언제나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바람에 부러져서 스카치테이프로 여러겹 이어 붙인 둥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해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단 하나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의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가느다란 흉터뿐이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 흉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도 흉터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이었다. 네 부모가 죽은 자동차 사고 때 다친거란다. 이모는 그렇게 말했다. 다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라. 묻지 마라..... 그건 더즐리 가족과 조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여 Tekl. 버논 이모부가 식당에 들어 왔을 때 해리는 베이컨을 뒤집고 있었다. 머리 좀 빗아라! 아침 인사라도 하듯. 이모부가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대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버논 이모부는 신문 너머로 넘겨다보며 해리에게 머리를 까으라고 소리쳐대곤 했다. 해리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를 훨씬 더 자주 깎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언제나 그렇게 뒤엉켜 자라났다. 두들 리가 이모와 함께 식당에 들어 왔을 때 해리는 달걀을 부치고 있었다. 두들리의 몸집은 버논 이모부만큼이나 커 보였다. 그는 커다란 핑크빛 얼굴에, 목은 거의 없었고, 작고 연한 푸른빛 눈에 술 많은 금발이 살집 두둑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늘어진 아이였다. 페투니아 이모는 종종 두들 리가 아기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해리는 종종 두들 리가 가발을 뒤집어쓴 돼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달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를 식탁에 놓으려 했지만 선물들이 쌓여 있어 놓기가 힘들었다. 두들리는 그 동안 선물 개수를 세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 졌다. 서른 여섯 개네. 그가 엄마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년보다 두 개가 적어. 애야, 마지 아줌마의 선물을 세지 않았잖니, 봐라 그건 엄마와 아빠가 준 이 커다란 선물 밑에 있단다. 하지만 그래도 서른 일곱 개야. 두들리는 화를 참지 못해얼굴이 시뻘게지며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거대한 몸집의 두들 리가 곧 짜증을 부리리라는걸 알았으므로 두들 리가 식탁을 뒤집어 엎을 경우를 생각해 되도록 빨리 먹으려고 베이컨을 입에 마구 쏙서 넣기 시작했다. 페투니아 이모도 그 위험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얼른 이렇게 말했다. 오늘 외출하면 선물을 두 개 더 사 줄게. 그러면 어떨겠니 애야? 선물 두 개 더 그럼너 됐지? 두들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이 힘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서른.....서른..... 서른 아홉 개란다. 애야. 페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맞아 그럼 됐어. 두들리는 털썩 주저 앉아 가장 가까운 선물 꾸러미를 잡았다. 버는 이모부는 흡족해서 싱글싱글 웃었다. 요 녀석은 제 아버를 닮아 돈을 따질 줄 안단 말야. 기특하구나. 두들리 그가 두들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 왔고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으려 간 동안 해리와 버는 이모부는 두들리가 경주용 자전거와 무비 카메라와 원격 조정 비행기와 열여섯 가지 새로운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카메라를 푸는 것을 지켜 보았다.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은 후 화나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돌아 왔을 때 두들리는 포장지를 찢고 금 손목시계를 꺼내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버는 그녀가 말했다. 피그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저 애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녀가 고개로 해리 쪽을 가리켰다. 두들리는 화가 나서 입이 짝 벌어졌지만 해리는 날아갈 듯 기뻐했다. 매년 두들리의 생일날이 되면 그이 부모는 두들리와 친구 하나를 데리고 놀이 공원이나 햄버거 집이나 극장에 갔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과묵한 피그 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그러나 해리는 그 집이 싫었다. 그 집에서는 곳곳에서 양배추 냄새가 났으며, 피그 할머니는 해리에게 매번 자기가 길렀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제 어떡하지? 페투니아 이모는 마치 해리가 이 일을 계획하기라도 한 듯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해리는 피그 할머니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슬퍼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은 티블과 스노이와 포우와 터프티같은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쉽게 슬퍼하지가 않았다. 마지막에 전화해 봐요. 버는 이모부가 말을 꺼냈다. 바보같은 소리 말아요 버는. 마지는 저 애를 싫어한다구요. 더줄리 부부는 마치 해리가 마치 자기들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해리에 대해 종종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당신 친구.... 이본느? 마조르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전 그냥 여기에 있어도 돼요. 해리가 희망을 가지고 제안했다(집에 있으면 기분 전환으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도 볼수 있을 테고 어쩌면 두들리의 컴퓨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페투니아 이모는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게 말이니? 그녀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어질러 놓지 않을게요. 해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고 있지 않았다. 저 애를 동물원에 데려가야 할까 봐요. 페투니아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저 애는 차에 두조 뭐..... 그 차는 새 차야. 저 애를 안에 혼자 놔둘 수 없어..... 그때 두들리가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두들리는 진짜로 우는 게 아니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우는 척 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해리 때문에 네 생일을 망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녀가 아들에게 급히 팔을 뻗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난..... 저 녀석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들리가 가짜로 훌쩍거리며 간간이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은 늘 모든 걸 마.... 망쳐 놓는단 말야. 그는 엄마의 양팔 사이 틈새로 해리에게 심술궂게 씩 웃어 보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쩔 좋아. 큰일 났어요. 그들이왔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두들리의 단짝 친구인 피어스 폴키스가 그의 엄마와 함께 걸어들어왔다. 피어스는 얼굴이 꼭 생쥐처럼 생긴 비쩍 마른 아이였다. 그는 보통 두들리가 아이들을 때리는 동안 글의 팔을 등위로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 두들리는 금방 우는 척하던 걸 멈췄다. 30분쯤 뒤, 해리는 이런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없었지만, 더줄리네 차 뒤에 피어스와 두들리와 함께 앉아 생전 처음으로 동물원으로가고 있었다. 이모와 이모부가 달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출발 직전에, 버는 이모부는 해리를 한쪽 옆으로 데려갔다. 너 이 녀석. 그가 커다란 보랏빛 얼굴을 해리의 얼굴 앞으로 바짝 갖다대며 말했다. 경고하는데, 무슨 짓이든 이상한 짓을 했다간, 크리스마스까지 저 벽장 속에 처박아 둘 테니 알아서 해라.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게요. 정말이예요. 하지만 버는 이모부는 해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긴 지금까지 누구도 믿어 준 적이 없었다. 문제는, 종종 해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더줄리 부부에게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해리가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를 전혀 깎지 않은 것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적이였다. 그러자 페투니아 이모가 마구 화를 내며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서는, 이마의 꿈쩍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 부분만 조금 남겨 놓고 머리를 너무나 바싹 깎아놓은 바람에 해리는 거의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두들리는 해리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고, 해리는 헐렁헐렁한 옷과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안경 때문에 이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를 이런 해괴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또 갈 것을 생각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해리의 머리는 페투니아 이모가

가위로 잘라 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해리는 자신도 머리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란 건지 모르겠다고 애써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 일로 벽장 속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또 한번은, 페투니아 이모가 두들리의 지긋지긋한 낡은 스웨터(작은 털실 방울이 달린 갈색 스웨터)를 해리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옷을 해리의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워 입히려고 하면 할수록 옷이 점점 더 줄어들더니, 마침내 손가락 장갑 인형에나 맞을 정도까지 작아져, 해리갇너혀 입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는 그 옷이 세탁을 잘못해서 줄어든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므로 해리는 다행히 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해리는 학교 급식실 지붕에 올라간 사건 때문에 끔직한 곤란에 빠지기도 했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어느 때쯤 해리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도망다니던 해리가 굴뚝위에 올라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뒤 더즐리 부부는 해리가 학교 건물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잔뜩 화가 나서 쓴 교장 선생님의 편지 한통을 받았다. 그러나 해리는 그저(잠시 벽장문을 통해 버논 이모부에게 큰 소리로 해명했던 것처럼)학교 급식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뒤로 뛰어 내리려 했던 것뿐이었다. 해리는 바람이 그를 반쯤 날아 오르게 한 게 분명하다고 행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잘못될 게 없었다. 두들리와 피어스가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학교나 벽장이나 양배추 냄새가 물씬 나는 피그 할머니의 거실이 아닌 어딘가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상 그 정도는 참아낼 만했다. 버논 이모부는 운전하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매사에 불평하는 걸 좋아했다. 직장 사람들, 해리, 혐의호, 해리, 은행, 해리, 등등이 그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가 문제였다. 미친 놈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다닌단 말야, 불량배들 같으니라구,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앞질러 가자 이모부가 이렇게 내뱉었다. 전 오토바이 꿈을 꿔요. 해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말했다.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버논 이모부는 하마터면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뒹 돌려 콧수염이 달린 커다란 근대 뿌리 같은 얼굴로 해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는 날지 않아. 두들리와 피어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저도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런 그저 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차라리 말하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만일 더즐리 부부가 해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싫어 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꿈이나 혹은 심지어 만화에서 본것일지라도 해리가 어떤 것이 실제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리가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 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 날은 매우 화창한 토요일이었고, 동물원은 많은 가족들로 붐볐다. 더즐리 부부는 입구에서 두들리와 피어스에게만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 주고는 해리를 서둘러 들어가게 하려다가, 미소를 짓고 있던 아이스크림 차의 아가씨가 해리에게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마지못해 해리에게도 싸구려 레몬 사탕 하나를 사 주었다. 해리는 금발이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두들리와 닮아 보이는 고릴라가 머리를 굽적이는 걸 바라보며 사탕을 빨아먹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아침을 보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 되자 두들리와 피어스는 동물구경에 싫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눈치챈 해리는 두들리와 피어스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자기를 때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더즐리 가족과 약간 떨어져서 걸었다. 그들은 동물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두들리가 자시이 시킨 게 크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자, 버논 이모부가 그에게 또다른 걸 사 주었으므로 해리는 두들리가 처음에 시켰던 음식을 먹어야 했다. 나중이야 생각한 것이지만, 해리는 그 모든 일이 끝까지 좋게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들은 파충류 전시관으로 갔다. 전시관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으며, 벽을 따라 조명들이 달린 유리창들이 있었다. 유리창 안쪽에는 온갖 종류의 도마뱀과 뱀이 느릿느릿 기어다니거나 나무와 돌 위로 주르르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다. 두들리와 피어스는 독이 있는 커다란 코브라와 사람도 짓뭇개 버릴 정도로 굵은 비단뱀을 보고싶어했다. 곧 두들리는 바로 근처에서 가장 커다란 뱀을 찾아냈다. 그 뱀은 버논 이모부의 차를 두 번은 감아서 단번에 납작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컸다. 하지만 그때는 왠지 기운이 없어보였다. 사실 그놈은 잠들어 있었다. 두들리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서서, 뿔리를 틀고 잠드려 있는 그 번쩍거리는 갈색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움직이게 해봐. 두들리가 아빠에게 징징대며 졸랐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두르렀지만, 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해봐. 드들 리가 졸라댔다. 버논 이모부가 유리창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쳤지만 뱀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 시시해. 두들리는 이렇게 투덜대더니 급히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것으로 가서 그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뱀이 지루해서 죽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 뱀에겐 하루종일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르려 그를 휘방 놓으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 말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 이곳의 지루함이란,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해리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페투니아 이모밖에 없는 벽장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적어도 해리는 집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닐 수는 있으니까. 뱀이 갑자기 구슬 같은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눈이 해리의 키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뱀이 윙크를 했다. 해리는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나 않은지 살피려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해리도 뱀을 보고 윙크를 했다. 뱀은 고개를 버논 이모부와 두들리 쪽으로 꺾 돌린 뒤 눈을 천장으로 치켜 떴다. 그리고는 해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언제나 저런 녀석이 있단 말야.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해리는 창문을 통해 이렇게 중얼거리기는 했지만, 뱀이 자기 말을 들을 수 있거나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성가실거야. 그러자 뱀이 정말 그럴다는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해리가 물었다. 뱀은 꼬리를 유리창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쿡 찔렀다. 해리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보아 구렁이, 브라질산, 거긴 좋았어? 보아 구렁이가 꼬리로 다시 한 번 표지판을 쿡 찔렀으므로 해리는 다시 자세히 읽어 보았다. 이 뱀은 동물원에서 태어났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브라질에 가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해리 뒤에서 뱀과 해리 모두를 소스라치게 하는 귀청이 터질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두들리, 아저씨, 이리와서 이 뱀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두들 리가 뒤뚱거리며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넌 저리 비켜. 두들 리가 해리의 가슴팍을 퍽 치며 말했다. 갑자기 일격을 받은 해리는 그만 콘크리트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다음 일은 어찌나 빨리 일어났는지 아무도 어떻게 된 건지 보지 못했다.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던 피어스와 두들 리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일어나 앉은 해리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막혔다. 보아 구렁이 우리의 유리창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 커다란 뱀은 얼른 따리를 풀고 마룻바닥으로 기어 나왔다. 파충류관 여기저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뱀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지나갈 때 해리는 뱀이 쉬쉬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브라질이여. 내가간다..... 고마워, 친구. 파충류관 사육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리창은요? 사육사는 계속 말했다. 유리창은 어디로 간 거죠? 동물원 관리자는 페투니아 이모에게 직접 진한 홍차를 끓여 대접하며 계속해서 사과했다. 피어스와 두들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다. 해리가 본 바로는 그 뱀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발뒤꿈치를 장난스럽게 덤석 문 것밖에 없었는데, 버논 이모부의 차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뱀이 자기 다리를 거의 물어뜯을 뻔했다고 말했으며, 피어스는 뱀이 자기를 짓눌러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가 그 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그래 해리? 버논 이모부는 우선 피어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에게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당장 벽장에..... 가서..... 처박혀 있어..... 밥은 없다. 라고 말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 앉자 페투니아 이모는 얼른 달려가 그에게 브랜디 한 잔을 갖다 주었다.

한참 동안이나 어두운 벽장 속에 누워 있으면서, 해리는 시계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는 지금이 몇시인지 혹은 더 더즐리 부부가 잠이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는 감히 식당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먹을 걸 찾지는 못할 것이다. 해리는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아기를 낳을 때부터 죽, 거의 10년 동안 그 비참한 10년 동안 더즐리 부부와 함께 살아왔다. 아니, 사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그 차 안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때로, 벽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마가 타들어 가는 듯하게 아파 오면서 눈부신 초록 불빛과 함께 이상한 영상이 떠오르곤 했다. 해리는 이것이 자동차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초록 불빛은 어디서 온 건지 전서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부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모와 이모부는 부모에 대해 한번도 말해 준 적이 없었고 물론 그가 물어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 집에는 부모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더 어렸을 때 해리는 전혀 모르는 어떤 친척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꾸고 또 꾸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 더즐리 부부가 유일한 친척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로 해리는 거리의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아니 어쩌면 그러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낯선 사람들은 아주 이상했다. 한번은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와 함께 쇼핑을 갔는데, 뽕죽한 보랏빛 모자 쓴 자그마한 남자가 해리에게 인사를 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해리에게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묻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둘러 그 가게를 나와 버렸다.

한번은 버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초록색 옷을 입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해리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며 보이기도 했었다. 또 어떤 날에는 긴 보랏빛 롱코트를입은 대머리 남자가 길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뒤 한 마디 말도 없이가 버리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했던 점은 해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 친구가 한명도 없었다. 드물리 패거리가 낡고 험렁한 옷에 깨진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한 해리 포터를 몹시도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없었고, 어느 누구도 두들리 패거리의 비위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이상한 편지들

브라질 보아 구렁이의 탈출 사건으로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벌을 받았다. 겨우 벽장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여름 방학이 시작되어 있었다. 그 동안에 두들리는 벌써 생일 선물로 받은 새 비디오 카메라를 망가뜨렸고, 원격 조종 비행기는 박살 났으며, 경주용 자전거를 끌고 나가자마자 목바를 짚고 프리벳가를 건너던 피그 할머니를 치어 넘어뜨렸다. 해리는 방학이 시작된 게 기쁘기는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놀러 오는 두들리 패거리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 피어스와 데니스와 말콤, 그리고 고든, 모두 하나같이 몸집이 크고 돌머리였지만, 두들 리가 대장이 된 것은 그가 그들 중 몸집이 가장 크고 제일 멍청했기 때문이다. 해리가 되도록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이리저리 거닐며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새 학기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9월이 오면 해리는 중학교에 갈 것이고, 난생 처음으로 두들리와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두들리는 버논 이모부가 다녔던 사립 학교인 스멜팅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피어스 폴키스도 그 학교에 갈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그 지역 공립학교인 스톤월 중학교에 갈 것이다. 두들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재밌어했다. 스톤월 에서는 입학 첫날에 신입생의 머리를 번기에 밀어 넣는데. 두들 리가 해리에게 말했다. 이층에 가서 연습해 볼래? 싫어. 해리가 말했다. 그 가엾은 번기는 아마 네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끔찍해서 토할지도 몰라. 그리고는 해리는 두들 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벱벱해 하고 있는 사이 얼른 달아났다. 7월 어느날, 페투니아 이모는 해리를 피그 할머니 집에 맡기고 두들 리에게 스멜팅 교복을 사 주기 위해 런던에 갔다. 피그 할머니는 예전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알고보니 피그 할머니는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중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인지 예전처럼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해리에게 텔레비전도 보게 했고, 꼭 몇 년은 묵은 것 같은 이상한 맛이 나는 초콜릿 케이크도 조금 주었다. 그날 저녁, 두들리는 거실에서 새로 산 교복을 입고 가족들앞에서 뽐내며 걸어들어갔다. 스멜팅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은 밤색 연미복에 오렌지색바지를 입고맥고 모자라고 불리는 납작한 밀짚 모자를 썼다. 그 애들은 또 선생님 들이 보지 않을 때 서로 때리려고 마디가 있는 막대기를 갖고 다녔다. 이것이 훗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훈련쯤으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새 반바지를 입고 있는 두들리의 모습을 보자 버논 이모부는 쉼 목소리로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자신의 귀여운 아들 두들 리가 이렇게 멋지고 어른스러워 보일 줄은 몰랐다면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해리는 그러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웃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하마터면 갈비뼈가 두 개쯤 부러질뻔 했다.

다음날 아침 해리가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싱크대의 커다란 금속 물통에서 나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서서 보자 물통 안에는 더러운 냄마조각이 하나 가득 회색빛 물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해리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물었다. 그녀의 입술은 그가 집에 뭔가를 물었을 때 늘 그렇듯이 껍 다물어져 있었다. 네가 입을 새 교복이다. 이모가 말했다. 해리는 그 물통을 다시 들여다 보았다. 어? 해리가 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에 폭 담가 놓으신 거예요? 멍청하긴.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널 주려고 두들 리가 입던 옷을 염색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나면 다른 애들 옷하고 똑같이 보일게다. 해리는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말대꾸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스톤월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마 늙은 코끼리 가족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일 것이다. 두들리와 버논 이모부가 들어오더니, 해리이 새 교복에서 나는 냄새 때문인지 모두 코를 실룩거렸다. 버논 이모부는 평상시처럼 신문을 펴 들었고, 두들리는 이제는 어디나 갖고 다니는 스멜팅 막대로 식탁을 탕 쳤다. 그때 우편함 뚜껑이 열리는 딸깍 하는 소리와 문 앞 발판에 편지들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편지가져오너라, 두들리. 버논 이모부가 신문 너머로 말했다. 해리한테 시켜, 편지 가져 오너라 해리. 두들리더러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 녀석을 스멜팅 막대로 한방 먹여라. 두들리. 해리는 날쌔게 스멜팅 막대를 피해편지를 가지러 갔다. 문앞 발판에는 편지 세 통이 놓여 있었다. 화이트 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논 이모부의 누이, 마지막에 온 우편 엽서와, 청구서처럼 보이는 갈색 봉투 하나, 그리고 해리 앞으로 온 퍼지 한 통이 있었다. 서리 리틀 위닝 프리벳가 4 번지 계단 밑 벽장 해리포터. 누르스름한 양피지로 만들어진 그 봉투는 두툼하고 무거웠으며 주소는 에메랄드빛초록색으로 쓰여져 있었다.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은 해리는 대문자 H가 사자와 독수리와 오소리과 뱀에 둘러 싸여 있는 모양의 보랏빛 밀랍봉인을 보았다.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뭐하는 거냐. 식당에서 버논 이모부가 소리쳤다. 편지 폭탄이라도 있을까 봐 살피고 있는 거냐? 그는 자신이 한 농담에 만족해서 킬킬대고 웃었다. 해리는 식당으로 걸어가는 내내,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는 버논 이모부에게 청구서와 우편 엽서를 건네주고는 앉아서 천천히 그 노란 봉투를 뜯기 시작했다. 버논 이모부는 우편 엽서를 읽었다. 마지가 아프다는군. 그가 페투니아 이모에게 말했다. 상한 조개를 먹었대..... 갑자기 두들 리가 소리쳤다. 아빠, 해리가 뭘 갖고 있어. 해리가 봉토만큼이나 두꺼운 양피지에 쓰여진 편지를 막 펼치려는 순간, 버논 이모부가 그의 손에서 편지를 획 낚아챘다. 그건 제거예요. 해리가 편지를 다시 잡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네 녀석에게 편지 쓸 사람이 어디 있냐? 버논 이모부가 한 손으로 그 편지를 흘끗 보면서 비웃듯이 말했다. 다음 순간, 빨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리고 곧 얼굴이 오래된 포리지처럼 희끄무레해졌다. 페.....페.....페투니아. 그가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두들 리가 그 편지를 잡고 읽으려고 했지만,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의 손이 닿지 못하게 편지를 높이 치켜올렸다. 페투니아 이모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것을 움켜잡고 첫줄을 읽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버논.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버논. 그들은 해리와 두들 리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듯이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시당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두들 리가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의 머리를 세게 탁 때렸다. 나도 좀 보여줘. 두들 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보여주세요. 해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면 말했다. 그런 제편지라구요. 너희 둘 다 나가. 버논 이모부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으며 쉼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 편지 주세요. 해리가 소리쳤다. 나도 보여줘. 두들 리가 졸라댔다. 다 나가라니까. 버논 이모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해리와 두들리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에 내동미치고는 식당 문을 광 닫아 버렸다. 해리와 두들리는 서로 열쇠 구멍으로 이모와 이모부가 하는 말 소리를 들으려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렸다. 그러나 결국 두들 리가 이겼고, 해는 안경을 한쪽 귀에 늘어 뜨린채, 바닥에 바짝 엎드려 문 틈새로 엿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페투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버논. 그 주소를 좀 보세요. 그들이 해리가 어디서 자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집을 감시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감시 영탐, 그럴지도 모르지. 버논 이모부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버논 답장을 써야 할까요? 감시받는 건 정말 싫다고 말해야..... 해리는 버논 이모부의 빛나는 까만 구두가 식당을 천천히 왔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냐.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들이 답장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 그게 좋겠어. 모른체 하는 거야. 하지만.....이런 편지를 집안에 들여 놓을 수는 없어. 페투니아. 우리가 저 앨 받아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위험한 생각 같은 것은 뿌리 뽑아 버리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날 저녁 버논 이모부는 퇴근한 뒤 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그가 해리의 벽장을 찾아온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좁은 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해리가물었다. 제 편지는어디에 있어요? 제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아니다. 잘못 온 것뿐이다. 그래서 태워 버렸다. 버논 이모부가 짹막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잘못 온게 아니예요. 제 벽장으로 온 거라구요. 해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조용히 해. 버논 이모부가 큰 소리로 말하자. 천장에서 거미 몇 마리가 푹 떨어졌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아주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 그래. 해리야. 이 벽장에 대해선 말이다. 네 이모와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네가 이곳에서 지내기에는 점점 더 몸집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 네가 두들리의 이층 침실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왜요? 해리가 물었다. 아무것도 묻지 마. 이모부가 날카롭게 말했다. 네 물건들을 당장 이층으로 가져가라. 더즐리네 집에는 방이 네게 있었다. 하나는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의 방이었고. 하나는 손님(대개 버논의 누이인 마지)방이었으며, 하나는 두들리의 침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들 리가 모든 장난감과 자기 침실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 두는 방이었다. 그러나 해리는 짐이어찌나 없었던지, 단 한번 왔다 가자 벽장 물건들이 다 옮겨졌다. 해리는 침대에 걸터 앉아 주위를 둘러 보았다. 방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부서져 있었다. 한 달 전에 산 비디오 카메라는 두들 리가 언젠가 옆집 개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움직이는 작은 탱크 위에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두들 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발로 짹 밟아 버렸던 첫 번째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었다. 또 한때는 두들 리가 학교에서 진짜 공기총과 맞바꿔 온 앵무새가 살았던 커다란 새장이, 그가 그 위에 주저 앉는 바람에 모서리들이 완전히 일그러진 채 선반위에 올려져 있었다. 다른 선반들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았던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래층에는 두들 리가 영영 울며 자기 엄마에게 마구 고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재가 저기 있는 거 싫어고..... 그 방은 내거야. 나가라고해..... 해리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다리를 쪽 뺀고 누웠다. 어제까지는 벽장이 아니 이층에만 있게 된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편지 없이 이곳에 있으니 차라리 편지를 가지고 벽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때는 평소와 달리 모두가 말이 없었다. 두들리는 소리도 질러 보고, 스멜팅 막대로 아버지를 세게 때리기도하고, 꺾병도 부리고, 엄마를 바로 차고, 자신의 거북이를 온실 지붕에 내동이쳐 보기도 했지만, 방을 되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어제 이맘때를 생각하며 현관에서 편지를 뜯어 보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는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험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침에 우편물이 도착하자 버논 이모부는 애써 해리에게 친절하게 보이려 하면서, 두들리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두들리는 거실을 걸어가는 동안 내내, 스멜팅 막대로 물건들을 툭툭쳤다. 그런데 두들 리가 소리쳤다. 또 왔어요. 프리벳가 4 번지 가장 작은 방, 해리 포토. 로요. 버논 이모부는 숨이 끊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갔고, 해리도 뒤를 바짝 쫓아갔다.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에게 편지를 뺏기 위해 마룻바닥에서 씨름을 벌려야만 했다. 사실 그몸싸움을 더 어렵게 했던 것은 해리가 버논 이모부의 목 주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스멜팅 막대로 엄청 얻어 맞는 몇분간의 혼란스런 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편지를 손에 움켜쥔 채 똑바로 일어서서 숨을 헐떡였다. 제 벽장으로 아니 네 방으로 가라. 그가 씨근거리며 해리에게 명령했다. 두들리 너도 들어가라. 어서. 해리는 방에서 왔다갔다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가 벽장에서 이사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편지를 또다시 보낼 거라는 뜻일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리라.. 그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자명종이 울렸다. 해리는 자명종을 얼른 끄고 조용히 옷을 갈아 입었다. 더즐리 가족이 깰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등 하나 켜지 않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해리는 프리벳가 모퉁이에서 우편배달부를 기다렸다가 4 번지로 오는 편지를 먼저 받을 생각이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현관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그의 가슴이 쿵쿵쿵쿵 두 방망이질을 했다. 아으으.... 해리는 깜짝 놀랐다. 현관문 앞 발판에서 뭔가 크고 물컹한 것을 밟았던 것이다. 뭔가 살아있는 것을. 이층의 전등이 딸까하고 켜졌고, 해리는 그 커다랗고 물컹한 것이 이모부의 얼굴이라는 걸 알았다. 해리가 편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버논 이모부가 현관문 앞에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해리에게 30 여 분간 고향을 쳐댄 뒤, 차 한잔 타오라고 시켰다. 해리는 불쌍하게 발을 질질 끌며 식당으로 걸어갔고, 그가 돌아 왔을 때는 우편물이 이미 도착해 버논 이모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주소와 성명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편지 세 통을 볼수 있었다. 전..... 해리가 말을 꺼냈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이 눈앞에서 그 편지들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버논 이모부는 그날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우편함에 못질을 했다. 이것 좀 봐. 그는 입에 못을 하나 가득 문 채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설명했다. 그들이 편지를 배달할 수 없으면 포기하겠지. 난 이방법이 먹혀들 것 같지 않아요. 버논.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기묘하게 움직인단 말야. 페투니아. 그들은 당신이나 나와는 달라.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가 막 가져다 준 과일 케이크 조각으로 못을 때려 박으려고 하면서말했다.

금요일에는 해리에게 열두 통 정도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들은 우편함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지거나 문 옆 틈에 끼워졌고, 심지어 몇 통은 아래 층 욕실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억지로 쑥셔 넣어지기까지 했다. 버논 이모주는 또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모두 태운 뒤 망치와 못을 가져와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앞문과 뒷문 주위의 틈새들을 널빤지로 다 막아 버렸다. 그는 못질을 하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툴립 꽃 사이를 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움찔움찔했다.

토요일에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다. 우유 배달부가 거실 창문으로 페투니아 이모에게 건네준 스물네개의 달걀 속에 해리 앞으로 온 스물 네통의 편지가 돌돌 말린 채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몹시 화를 내며 우체국과 우유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 할 사람을 찾고 있는 동안, 페투니아 이모는 편지들을 믹서기에 넣어 갈아 버렸다. 너 같은 녀석에게 이렇게 애타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두들리도 놀라서 해리에게 물었다.

일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은 버논 이모부는 피로에 지치고 다소 아파 보이기까지 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없지. 그는 회심의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마멀레이드 잼을 빵에 바르지 않고 신문에 퍼 발랐다. 오늘은 그 빌어먹을 편지들이 오지 않겠지.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무언가가 식당 굴뚝으로 핑하고 내려 오더니 그의 뒤통수를 세게 쳤다. 그리고는 벽난로에서 마치 총알처럼 3,40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내렸다. 더즐리네 가족이 모두 머리를 책 속이는 순간, 해리는 편지 하나를 잡으려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 나가. 나가라니까. 버논 이모부가 해리의 허리를 잡고 거실로 던져 버렸다.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 리가 손으로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도망쳐나가자 버논 이모부가 문을 광 닫았다. 그러나 그들은 편지들이 여전히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벽과 마루로 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버논 이모부가 태연한 척하려고 애쓰는 한편 코밑 수영을 한 움큼 뿜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5분 내로 떠날 준비를 해. 여행을 떠날 테니까. 옷가지만 조금 싸. 잔소리 말고. 수영이 반쯤 없어져 버린 그의 모습이 어찌나 험악스럽게 보였던지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10 분뒤 그들은 널빤지가 쳐진 문을 비틀고 나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냈다. 두들리는 뒷자석에서 코를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두들 리가 가방에 텔레비전과 VCR 과 컴퓨터를 집어넣자, 그것들을 모두 어떻게 가져가냐며 이모부가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기 때문이다. 버논 이모부는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페투니아 이모조차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가끔씩 차를 급회전시켜 한참 동안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곤 했다. 그들을 따돌려야 해..... 따돌려야 해..... 그는 급회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달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두들리는 울부짖으며 악을 썼다. 그에게 그렇게 힘든 날은 난생 처음이었다. 배는 고플 대로 고팔으며 보고 싶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섯 개나 놓쳤고, 외계인을 신나게 날려 버리는 컴퓨터 게임도 한번 하지 못했다. 버논 이모부는 마침내 대도시 변두리에 있는 음산해 보이는 여관에 이르러서야 차를 멈췄다. 두들리와 해리는 2 인용 침대에서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시트를 함께 덮고 잤다. 두들리는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며 잠들었지만, 해리는 자지 않고 창턱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녹녹한 콘플레이크와 차가운 강통 토마토를 얹은 토스토로 아침을 때웠다. 그들이 막 식사를 마쳤을 때 여관 주인이 다가왔다. 실례하지만, 여기 혹시 H. 포터씨가 계신가요? 프런트 데스크에 이런 게 수백 장이나 있어서 말이에요. 주인은 그들이 초록색 잉크로 쓰여진 주소를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치켜올렸다. 코크워스 레일뷰여관, 17 호 H 포터. 해리가 그 편지를 잡자 버논 이모부가 그의 손을 탁 쳤다. 주인이 뻘히 쳐다보았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버논 이모부가 얼른 일어서서 주인을 따라 프런트 데스크로 가며 말했다.

그냥 집으로 가는데 낯지 않을까요 여보? 몇시간 뒤 페투니아 이모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을 거냈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 같지않았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버논 이모부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내려서 주위를 휘 둘러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뒤, 다시 차를 타고 나왔다. 발 한가운데서도 흔들다리 중간쯤에서도 주차빌딩 꼭대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빠 머리가 좀 이상해 진 거 아냐? 그날 오후 늦게 두들 리가 멍청하게도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는 해변가에 차를 세우더니 가족들을 모두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빗방울이 차 지붕을 때렸다. 두들 리가 코를 훌쩍이며 울었다. 오늘은 월요일이야. 두들 리가 자기 엄마에게 징징거리며 말했다. 오늘 밤엔 위대한 훔베르토를 한단 말야. 텔레비전 있는 곳으로가. 월요일. 일 말을 듣자 해리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만일 오늘이 월요일이라면. 두들리는 무슨 요일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은 믿을 만했다. 그러면 화요일인 내일은 해리의 해리의 열한번째 생일이었다. 물론, 그의 생일은 재미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작년에는 더즐리네 가족이 그에게 선물로 코트 옷걸이 하나와 버논 이모부가 신던

낮은 양말을 주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생일이란 특별한 날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는 기다랗고, 알պ한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무엇을 샀느냐는 페투니아 이모의 물음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다. 그가 말했다. 자 모두 나와. 차 밖은 매우 추웠다. 버논 이모부는 손가락으로 바다 저 멀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바위 꼭대기에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곳엔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버논 이모부가 기분이 매우 좋은 듯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이분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배를 빌려 주시기로 했다. 이빨이 다 빠진 노인 하나가 다소 심술궂게 씩 웃으며 느릿느릿 그들에게로 걸어오더니 저 아래 잿빛 바다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낮은 배 한 척을 가리켰다. 내가 이미 약간의 비상 식량을 준비해 뒀으니 모두 출발하자.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배를 타자 몹시 추웠다. 차가운 물살과 빗물이 목줄기를 타고 슬금슬금 흘러내렸고, 냉랭한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려댔다. 한 시간쯤 뒤 그 바위에 다다르자 버논 이모부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앞장서서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으로 향해 갔다. 오두막 안은 끔찍했다. 해초 냄새가 심하게 나는 데다, 나무벽 틈새로는 바람이 쐬쐬 불고 있었고 벽난로는 축축하고 텅비어 있었다. 방도 하나 뿐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준비했다는 비상 식량은 알고 보니 과자 네봉지와 바나나 네 개가 다였다. 그는 과자 봉지들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그저연기를 내며 오그라들 뿐이었다. 자. 이제 저 편지 몇 통을 이용해 볼까? 버논 이모부가 기분 좋게 말했다. 이모부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그누구도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이런 폭풍 속을 뚫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분명했다. 해리도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라고 여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자 기운이 빠졌다. 밤이 되자, 예보된 대로 폭풍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댔다. 높은 파도에서 부서진 물보라가 오두막 벽을 사정없이 때렸고, 성난 바람은 더러운 창문들을 뒤흔들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방에서 곱광내 나는 담요 몇 장을 찾아내 두들 리가 잘 수 있도록 좀먹은 소파에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와 버논 이모부가 울퉁불퉁한 침대가 있는 방에 들어가 버리자 혼자 남은 해리는 마룻바닥 중 그나마 덜 딱딱한 곳을 찾아, 가장 얇고 가장 낮은 담요를 덮고 몸을 웅크리려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폭풍은 점점 더 사나워졌다. 해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추위로 오들오들 떨면서 불편한 자세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는 그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났다. 두들리의코고는 소리는 한밤중에 시작된 낮게 우르르거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버렸다. 소파 가장자리로 축 늘어진 살찐 두들리의 손목에 채워진 야광 시계는 10 분만 있으면 해리가 열한 살이 된다는 걸 말해 주었다. 해리는 누워서 자신의 생일이 짹짹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더즐리네 가족이 기억이나하고 있을지, 편지를 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5 분 남았다. 해리는 바깥에서 무언가가 빼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무너져 버리는 게 오히려 따뜻할지도 몰랐다. 이제 4 분, 어쩌면 프리벳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편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하나쯤은 훔칠 수 있을지도 몰랐다. 3 분 파도가 저렇게 세게 바위를 때리는 걸까? 그런데(2 분)저 우두둑우두둑 부서지는 소리는 뭐지? 바위가 부서져 바다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 이제 1 분 뒷면 근 열한살이 될 것이다. 30 초..... 20 초..... 10 초..... 9 초..... 두들리를 깨워 약을 올려 주는 게 어떨까. 3..... 2..... 1..... 쿵 오두막이 통째로 흔들렸다. 해리는 곳곳이 일어나 앉아 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노코를 하고 있었다.

제 4 장 사냥터지기 해그리드

쿵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갑자기 두들리가 눈을 떴다.

"어디선가 대포 소리가 났는데?" 잠에서 덜 깬 채로 그가 물었다.

그리고는 그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자, 버논 이모부가 혈레벌떡 방에서 나왔다. 그는 손에 라이플 총을 들고 있었다. 이제야 그가 가져온, 기다랗고 얇은 꾸러미 속에 들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구야?"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경고하는데, 우리 총을 갖고 있다!"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쿵!

문을 어찌나 세게 쳤던지 경첩이 툭 빠지면서 귀청이 터질듯한 소리를 내며 문짝이 마룻바닥으로 쓰러져 버렸다.

문간에는 거인 한 명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얼굴은 텅수룩하고 긴 갈기 같은 머리털과 제멋대로 헝클어진 수염으로 거의 가려져 있지만, 머리털 밑에서 마치 딱정벌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눈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거인은 천장에 달을락 말락 한 머리를 숙이고 오두막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굽혀 문짝을 집어들더니 아주 쉽게 문틀에 다시 끼웠다. 바깥의 폭풍소리가 다소 찾아들었다. 거인이 고개를 돌려 모두를 바라보았다.

"차라도 한잔 끓여 마시는 게 어떨겠수? 수월한 여행이 아니었거든....." 그는 두들리가 겁에 질려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소파로 성큼 성큼 다가갔다.

"저리 가라, 똥보야."

두들리는 앙앙 울며 달아나더니 버논 이모부 뒤에서 무서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그의 엄마 뒤로 가 숨었다.

"해리가 여기 있군!"

거인이 말했다. 무시무시하고 험상궂게 생긴 야만인 같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본 해리는, 그 톱 불거진 눈이 미소로 주름지는 걸 보았다.

"지난번에 보았을 땐 갓난아이였는데. 아빠를 쏙 빼닮았군. 하지만 눈은 엄마와 똑같구나."

거인이 말하자, 버논 이모부가 귀에 거슬리는 우스꽝스런 소리르 냈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선생!"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을 하고 있는 거요!" "입 닥치시오, 더즐리, 똥쓸 사람 같으니라구."

거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소파 뒤로 가서 버논 이모부의 손에서 총을 뺏아 빼더니 마치 고무줄을 다루듯 손쉽게 구부려 매듭을 지은 다음 방구석으로 던져 버렸다.

버논 이모부는 또 한 번 생쥐가 교미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어쨌든, 해리." 거인이 더즐리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여기 선물을 가져 왔단다. 좀 짜부라지기는 했지만, 맛을 괜찮을 거다." 거인은 까만 코트 안주머니에서 약간 짓눌린 상자 하나를 꺼냈다. 해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록색으로 '해피 버스데이 해리'라고 쓰여진 질척질척한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 있었다.

해리는 거인을 올려다 보았다.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입 안에서 맴돌기만 했다. 그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세요?"

거인이 싱글벙글 웃었다.

"그래, 내 소개를 하지 않았군. 루베우스 해그리드야.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지." 그는 엄청나게 큰 손을 쏙 내밀더니 해리의 팔을 잡고 흔들며 악수를 했다.

"그럼 차를 마셔 볼까?" 그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뭐 좀 독한 술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거인은 오그라든 과자 봉지들이 흩어져 있는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쪽을 쳐다보더니 콧김을 훑 내뿜었다. 그는 벽난로로 허리를 굽혔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후 그가 돌아오자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축축한 오두막은 금방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해리는 마치 더운 물이 담긴 욕조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 오는 것을 느꼈다.

거인은 그의 무게 때문에 푹 꺼진 소파고 다시 돌아가 앉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구리 주전자며, 짜부라진 소시지며, 꼬치, 찻주전자, 이 빠진 머그잔 몇 개, 그리고 차를 끓이기 전에 마실 호박색 액체가 든 병까지 갖가지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두막은 곧 소시지의 지글지글대는 소리와 냄새로 진동했다. 그 거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꼬치에서 통통하고 기름기가 좌르르 흐르는, 살짝 탄 소시지 여섯 개를 빼내자, 두들리가 입맛을 다시며 먹고 싶어 안달을 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사람이 주는 것에 손대지 마라, 두들리."

거인이 험악하게 말했다.

"당신네 똥보 아들에게는 더 이상 기름기가 필요하지 않을테니 걱정 마시오, 더즐리." 그 소시지들은 해리에게 건네졌고, 해리는 너무 배가 고파 몹시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인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 설명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으므로, 마침내 해리가 말을 꺼냈다.

"죄송한데요, 전 아직도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거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손등으로 입을 훔쳤다.

"해그리드라고 부르렴." 그가 말했다. "모두들 그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말했지만, 난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란다. 너도 물론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 봤겠지만,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저, 아뇨."

해리가 우물우물했다.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죄송하다구?" 해그리드가 저만치 뒷걸음질을 친 더즐리 가족 쪽으로 고개를 돌려 뺨히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란다! 난 네가 편지를 받지 못하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호그와트에 대해서조차 몰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 네 부모님이 그 모든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니?" "무얼요?"

해리가 물었다.

"무얼요라니?" 해그리드가 몹시 화가 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 잠깐만 기다려라!" 그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화가 날 대로 난 것 같았다. 더즐리네 가족은 잔뜩 겁에 질려서 벽 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었다.

"말해 보시오." 해그리드가 더즐리 가족에게 으르렁거렸다. "이 아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요?" 해리는 그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학교에도 다녔고, 성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말이다.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해리가 말했다. "전 수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손만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말은 우리 세계에 대해서 말이다. 너의 세계. 나의 세계. 너의 부모님의 세계." "무슨 세계인데요?"

해그리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더즐리!"

그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버논 이모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구시렁구시렁거리며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해그리드가 타는 듯한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넌 네 엄마와 아빠에 대해 알아야만 해." 그가 말했다. "내 말은, 네 부모님이 유명하시다는 말이야. 너도 유명하고." "뭐라고요? 제, 제 엄마와 아빠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어떻게....." 해그리드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네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지?"

그때 버논 이모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만!" 그가 명령했다. "이제 그만 하시오, 선생! 그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는 건 허락하지 않겠소!" 버논 더즐리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었더라도 지금 해그리드의 성난 눈길 앞에서는 아마 움찔했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단 말ियो? 덤블도어가 이 아이를 위해 남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यो? 나도 거기에 있었소! 덤블도어가 그 편지를 놓는 걸 똑똑히 보았던 말ियो, 더즐리! 그런데 당신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저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단 말ियो?" "제게 뭘 보여 주지 않았단 거죠?"

해리가 몹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만!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안 돼!"

버논 이모부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페투니아 이모는 겁이 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신들은 저리 꺼져. 해리, 넌 마법사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오두막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와 씹씹 불어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네가 뭐라고요?"

해리는 놀라서 숨이 막혔다.

"마법사라니까." 해그리드가 그의 무거운 체중 때문에 더 폭 주저앉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마법사지. 내 말은, 약간 훈련만 받는다면 말야. 한때는 너도 약간 훈련받은 적이 있었어. 네 엄마와 아빠가 그러신데, 너야 어려하겠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해리는 마침내 손을 뻗어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바다, 바위 위의 오두막, 마루, H. 포터라고 주서가 적힌 누르스름한 봉투를 잡았다. 그는 편지를 빼내어 읽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장 : 알버스 덤블도어 (멀린{{}} 멀린 : 아서 왕 이야기에 나오는 요술쟁이 노인이며 예언자}} 1등급 훈장, 위대한 마법사, 최고 거물, 국제 마법사 연합회 회장)
친애하는 포터 씨에게,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필요한 모든 비품 목록을 동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7월 31일까지 당신의 부영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감 미네르바 맥고나걸

해리의 머리 속에는 온갖 물음들이 두서없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부터 물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그는 더듬더듬 물었다.
"제 부영이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이제야 생각나네." 해그리드가 짐마차를 끄는 말도 때려눕힐 정도로 세계 이마를 탁 치더니, 코트 속의 또 다른 주머니에서 이번에는 조금 성난 것처럼 보이는 진짜 살아 있는 부영이 한 마리와 기다란 깃펜과 돌돌 말린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혀를 질근질근 깨물며 짧은 편지를 휘갈겨 썼다.

친애하는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내일 해리를 데리고 가서 물품들을 사겠습니다.
날씨가 험악하군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해그리드

해그리드는 그 편지를 둥글게 말아 부영이의 부리에 꼭 물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 부영이를 폭풍 속으로 날려 보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일이 그저 전화에 대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보통이라는 듯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해리는 자신이 입을 헤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얼른 다물었다.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해그리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버논 이모부가 여전히 잿빛이 된 얼굴로 매우 화난 표정을 지으며 난롯가로 걸어갔다.
"저 애는 가지 않을 거요."
버논 이모부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해그리드가 툴툴거렸다.
"나도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머글이 저 아이를 못 가게 막는 걸 좀 봤으면 좋겠소." 그가 말했다.
"머..... 뭐요?" 해리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머글 말이구나."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건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란다. 그리고 내가 본 머글들 중에서도 가장 못된 머글의 집에서 네가 자랐다는 게 너의 불행이었지." "해리를 받아들일 때 우린 저 터무니없는 짓을 중단시키겠다고 맹세했소."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저 애에게서 그걸 없애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말이오! 마법사라니, 기가 차서 원!" "아셨단 말이에요?" 해리가 물었다. "제가 마법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페투니아 이모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고 말고! 내 빌어먹을 여동생이 마법사인데, 네가 아닐 턱이 있겠니? 맙소사, 네 엄마도 꼭 저런 편지를 받고 저 학꾼가 뭔가 하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주머니에 개구리 알을 잔뜩 넣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는, 찻잔을 쥐로 변하게 했었지. 네 엄마의 정체를 꿰뚫어보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미치광이었지! 하지만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끔찍하게도, 이것도 릴리, 저것도 릴리, 그저 릴리만 찾으셨지. 그분들은 가족 중에 마법사가 있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계속 고함을 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모든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뒤 네 엄마는 학교에서 포터를 만나 함께 떠났고 결혼을 해서 너를 낳았지. 물론 난 너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 똑같이 이상하고, 똑같이 비, 비정상적이고, 그 뒤 네겐 안 된 일이었지만,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를 떠맡게 된거라구!"해리의 낯빛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런 식으로 끝장나 버렸다뇨?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교통 사고라고!" 해그리드가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 뛰며 고향으로 치자 더즐리 가족은 허둥지둥 한쪽 구석으로 달아났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가 어떻게 교통 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거요? 그건 모욕이야! 수치라고! 마법사 세계의 아이들은 누구나 해리 포터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 "그렇다면 왜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덤블도어가 나한테 널 이해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난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단다. 오, 해리, 내가 네게 이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 줘야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호그와트에 갈 수 없으니까 말야."근는 더즐리 가족을 사나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게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잘 들어, 난 네게 모든 걸 말해 줄 수는 없어. 그건 굉장한 수수께끼거든. 대강 말하자면....."그는 앉아서 잠시 동안 벽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야, 어떤 사람이 있었어. 우리 세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의 이름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지만 말야....." "누군데요?"

"글쎄, 웬만하면 그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아. 누구나 다 그럴지." "왜요?"

"그냥 그러지 않는게 좋다고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해리, 사람들은 여전히 겁먹고 있어. 제기랄, 이거 되게 어렵군. 이봐, 아주 못되게 변해 버린 마법사가 있었어. 굉장히 나쁜 마법사였지. 아주 아주. 그 이름은....."해그리드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쓸 수는 있으세요?" 해리가 넌지시 재촉했다.

"아니, 글로 써도 안 돼. 좋아. 볼드모트야." 해그리드는 진저리를 쳤다.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게 하지 마. 어쨌든, 이, 이 마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쯤 전에, 추종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그리고 찾기도 했어.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힘의 일부를 원했기 때문이지. 그래,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 암울한 시대였어, 해리.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이상한 마법사들과는 감히 친해지기도 못했어.....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가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어. 물론,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죽였어. 끔찍하게 말야. 가장 안전한 곳 가운데 하나는 호그와트였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 하는 덤블도어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학교는 감히 점령하려고 하지 못했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말야.

네 엄마와 아빠는 내가 아는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젊었을 때는 호그와트 최고의 소년 소녀였지! 알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왜 그 전에 네 엄마 아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야..... 어쩌면 그들이 덤블도어와 너무 가까워서 어둠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는 그들을 설득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그들을 없애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10년 전 할로윈 데이 (모든 성인의 날 전야. 10월 31일 : 옮긴이)에 너희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에 그가 나타났다는 거야. 넌 한 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는 너희 집으로 와서는, 그리고는....."해그리드는 갑자기 아주 더럽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손수건을 꺼내 경적 소리만큼이나 크게 코를 킁 풀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슬퍼서 말야. 네 엄마와 아빠처럼 좋은 분들은 없었어. 그리고는, 이건 정말 수수께끼인데 말야, 그는 너도 죽이려고 했거든.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었겠지. 아니면 그 당시엔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았던지. 그런데 너는 죽이지 못했어. 네가 어떻게 이마에 그런 흉터를 갖게 된 건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니? 그건 평범한 흉터가 아냐. 그건 네게 강력하고 사악한 자주가 미쳤을 때 생겨난 흉터야. 네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날려 버렸던 그 저주 말야. 하지만 그게 네게는 듣지 않았어. 네가 유명해진 건 바로 그 때문이야, 해리. 그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살아 남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너말고는 하나도. 그는 맥키노 가족이나, 본 가족, 프레웨트 가족 등 당대 최고의 마법사들도 몇 명 죽였어. 그런데 갓난아이에 불과했던 네가 살아 남은 거야."이 이야기를 듣는 해리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해그리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해리는 눈부시게 밝은 초록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불빛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오만하고, 차갑고, 잔인한 웃음소리를.

해그리드는 해리를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덤블도어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폐허가 된 집에서 널 데려왔지. 그리고 널 이 사람에게 데려온.....""허튼 소리 작작해."

버논 이모부가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움찔했다. 더즐리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확실히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해그위드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 잘 들어라." 그가 무성누 어투로 해리에게 말했다. "네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해리. 그리고 네 부모에 관해서는, 글썄,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었지,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볼 때 네 부모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은 한결 더 살기 좋을 거다. 그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과 몰려다녔기 때문에 그 모든 화를 자초한 거야. 난 그들이 그렇게 비명횡사 하리란 걸 다 알고 있었어....."그러나 그 순간, 해그리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코너 속에서 낡은 대로 낡은 핑크빛 우산을 꺼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칼인 양 버논 이모부에게 들이대면서 말했다. "경고하는데, 더즐리. 한 마디만 더 했다가....."수염 난 거인에게 우산 끝으로 찔릴 위험에 처하자, 버논 이모부의 용기는 다시 꺾이고 말았다. 그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입을 꼭 다물었다.

"좀 낮군."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씩씩거리며 소파에 다시 앉았다. 소파는 마침내 거의 마룻바닥까지 폭 꺼져 버렸다.

한편, 해리는 아직도 묻고 싶은 게 수백 가지나 있었다.

"그런데 볼드....., 아차,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질문 잘했어, 해리. 사라져 버렸지. 없어진거야. 너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날 밤에 말야. 그건 널 더 유명해지게 했지.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야. 그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는데 왜 사라진걸까?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돼.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거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저 밖에 살아 있다고 하지. 때를 기다리면서 말야.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왔거든. 일부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어. 그가 다시 돌아올거라면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겠지.

우리들 대부분은 그가 저 밖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 계속 버티 나가기엔 너무 약해졌다는 거지. 너의 무언가가 그를 끝장냈기 때문이야, 해리. 그날 밤 그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난 그게 뭔지 몰라.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너의 어떤 능력이 그를 곤란에 빠뜨린 게 분명해, 맞아."해그리드는 온정과 존경의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지만, 해리는 기쁘거나 자랑스럽다기 보다는 굉장한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법사라고? 내가? 내가 어땠게 그럴 수 있을까? 난 지금까지 두들리에게 맞고,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다. 만일 내가 정말로 마법사라면, 그들이 나를 벽장 속에 가두려고 할 때마다 왜 사마귀투성이의 두꺼비로 변해 버리게 하지 않았겠는가? 만일 내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와 싸워 이겼다면, 두들리가 어떻게 마치 축구공처럼 밤낮 나를 발로 찔 수 있었을까?"해그리드."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제 생각엔 뭔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마법사라뇨. 제가 마법사라니 당치도 않아요."놀랍게도, 해그리드가 킁킁 웃었다.

"마법사가 아니라고? 네가 겁에 질렸거나 화가 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

없었니?"해리는 벽난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해리가 화났을 때는 언제나 이모와 이모부를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두들리 패거리에게 쫓길 때는 웬일인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저 우스꽝스런 대머리를 하고 학교에 갈 것을 걱정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주 최근에 두들리가 때렸을 때는, 복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멋지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가? 또 보아 구렁이를 부추겨 두들리를 공격했던 일도 있었다..... 해리가 미소를 머금고 해그리드를 다시 바라보자, 해그리드도 그랬을 거라는 표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니?"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리 포터, 마법사가 아니라고? 기다려 봐, 넌 곧 호그와트에서 유명해질 테니까." 그러나 버논 이모부는 절대 싸워 보지도 않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다.

"저 애를 거기에 보내지 않겠어." 그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저 애는 스톤월 중학교에 갈 거고 그걸 고맙게 여겨야 해. 편지를 보니 저 애에게 마법서며 요술지팡이 같은 온갖 잡동사니만 필요하더군....." "해리가 가겠다면, 당신과 같은 대단한 머글도 막을 수가 없을 거요." 해그리드가 으르렁댔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부부의 아들이 호그와트에 가는 걸 막겠다고! 미친 자식, 해리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입학 명단에 실려 있었소. 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법학교에 가는 거요. 거기서 7년을 보내고 나면 애는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거요. 그렇게 되기 위해 해리는 같은 부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호그와트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신 알버스 덤블도어 밑에서 기도를 받게 될거요....." "난 저 애에게 마술이나 가르치기 위해 그 이상한 늙은이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겠소!" 버논 이모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도를 넘어서 버렸다. 갑자기 해그리드가 우산을 잡더니 그것을 머리 위로 빙빙 돌렸다.

"절대로....."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 앞에서..... 알버스....."

덤블도어를..... 모용하지마!" 그는 공중에서 휘두르던 우산을 두들리에게 들이댔다. 보라색 불빛이 번쩍 하면서 폭죽 소리가 나느라 했더니, 깉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다음 순간, 두들리가 양손으로 살찐 엉덩이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그리고 두들리가 그들에게로 등을 돌렸을 때, 해리는 또르르 말린 돼지 꼬리가 두들리 바지에 난 구멍 밖으로 빼죽이 나와 있는 걸 보았다.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 버논 이모부는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를 옆 방으로 잡아 끈 뒤, 해그리드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문을 광 닫았다.

해그리드는 우산을 내려다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후회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마법이 잘 듣지 않았어. 그 녀석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너무나 돼지 같아서 더 이상 손댈 게 없었던 것 같아." 그가 짙은 눈썹 밑으로 해리를 슬쩍 보았다.

"호그와트에 있는 사람들에게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고맙겠다." 그가 말했다. "나, 어, 마법을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엄격히 말해서 말야 난 너를 찾아내 네게 편지를 전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내가 딱 알맞기 때문이라는 게 그 한가지 이유지....." "왜 마법을 부리지 못하는 건데요?" 해리가 물었다.

"어, 뭐랄까. 나도 호그와트에 있긴 하지만, 난, 어, 솔직히 말하면 쫓겨났어. 내가 3 학년 때. 그들이 내 요술지팡이를 두 동강 내 버렸지. 하지만 덤블도어가 나를 사냥터지기로 머물게 하셨어. 덤블도어는 훌륭한 분이야." "왜 쫓겨나신 건데요?"

"늦었다. 우린 내일 할 일이 많아." 해그리드가 소리 높여 말했다. "시내로 가서 네 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야 해." 그는 두꺼운 까만 코트를 벗어 해리에게 주었다.

"이걸 덮고 자도록 해." 그가 말했다. "코트가 조금 꿈틀거려도 신경 쓰지 마. 어느 주머니엔가 아직도 겨울잠쥐 두어 마리가 있는 것 같거든."

제 5 장 다이애건 앨리

그 다음날 아침 해리는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꿈이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그리드라는 거인이 와서 내가 마법학교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꿈을 꾸 거야. 눈을 뜨면 난 벽장 속에 있을거야." 갑자기 푹푹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페투니아 이모가 노크하고 있군.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그 멋진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똑. 똑. 똑.

"좋아." 해리는 중얼거렸다. "일어나야지."

그런데 일어나 앉자, 해리의 몸에서 해그리드의 무거운 코트가 툭 떨어졌다. 그는 그제서야 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밤 사이 폭풍이 멈추었던지, 오두막에는 어느새 햇빛이 가득했고, 해그리드는 푹 꺼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보니 부엉이 한 마리가 부리에 신문을 물고 발톱으로 창문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해리는 너무나 기빠 부리나케 기어나갔다. 마치 가슴속에서 커다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곧장 창문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부엉이가 얼른 날아 들더니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해그리드의 머리맡에 신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마룻바닥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해그리드의 코트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

해리는 손을 내저어 부엉이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부엉이는 부리로 그를 사납게 물고는 계속해서 코트를 쏘아댔다.

"해그리드!" 해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부엉이가....." "심부름 값을 줘야지."

해그리드가 소파에 얼굴을 파묻은 채 툭툭거렸다.

"뭐라구요?"

"그 녀석은 신문 배달료를 받겠다는 거야. 주머니를 뒤져 봐." 해그리의 코트에는 온통 주머니밖에 없는 것 같았다. 열쇠꾸러미가 나왔고, 총알, 구슬, 박하사탕, 차 봉지까지 나온 뒤에야..... 마침내 해리는 이상하게 생긴 동전 한줌을 꺼냈다.

"5 닛을 줘." 해그리드가 아직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닛이라뇨?"

"청동으로 만든 작은 동전 말야."

해리가 작은 청동 동전 다섯 개를 세자, 부엉이는 기다렸다는 듯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가 매달린 다리를 쭉 내밀었고, 그 안에 돈을 집어넣자마자 열린 창문으로 핵 날아가 버렸다. 해그리드는 큰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한 뒤,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켜다.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해리. 오늘은 할 일이 많거든. 런던까지 가서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야 해." 해리는 그 마법사 동전을 뒤집어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희망이 단숨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저, 해그리드?"

"응?"

해그리드가 큼지막한 부츠를 잡아당겨 신으며 말했다.

"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 버논 이모부가..... 마법을 배우는 데는 돈을 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걱정 마." 해그리드가 일어서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네 부모님이 네게 유산을 한푼도 남겨 두시지 않았을 것 같니?" "하지만 우리가 살던 집이 다 부서졌다면....."

"사람들은 금은 집 안에 보관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먼저 그린고트부터 둘러야겠군.

마법사들의 은행 말야. 소시지 하나 먹어. 식었어도 먹을 만해. 그런데 네 생일 케이크를 조금 먹어도 될까?" "마법사들에게도 은행이 있어요?"

"그린고트 하나뿐이야. 도깨비가 운영하지."

해리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소시지 조각을 떨어뜨렸다.

"도깨비라구요?"

"그래, 그러니까 그 은행을 털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란 말이야. 도깨비들 일에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해리. 네가 뭔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그린고트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어. 호그와트를 빼면 말야. 사실, 난 어쨌든 그린고트에 좀 가봐야 해. 불일이 있어서 말야.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호그와트 일로." 해그리드가 으스스대며 어깨를 세웠다. "그분은 중요한 일은 언제나 날 시키거든. 너를 데려가거나, 그린고트에서 뭘 가져 오거나 뭐 그런 것 말야. 그분이 날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야. 다 챙겼니? 그럼, 가자." 해리는 해그리드를 따라 바위 위로 나왔다. 하늘은 이제 티 없이 맑았고 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버논 이모부가 빌렸던 배는 폭풍으로 바닥에 물이 가득 고인 채 그 자리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해리가 또 다른 배가 있나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날아왔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날아왔다구요?"

"그래, 하지만 돌아갈 땐 이걸 타고 갈거야. 너를 찾았으니 마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배에 자리를 잡자, 해리는 해그리드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도 노를 저어 가는 건 좀 창피한 일인 것 같군." 해그리드는 해리를 또 한 번 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저, 조금나 더 속도를 낸다면, 호그와트에는 비밀로 해줄래?" "물론이죠." 해리가 마법을 더 많이 보고 싶어 얼른 대답했다. 해그리드가 핑크빛 우산을 다시 쪽 내밀고, 배 옆구리를 두 번 탁탁 치자 배가 갑자기 육지 쪽으로 내달렸다. "그린고트를 터는 것이 왜 미친 짓이라는 거죠?"

해리가 물었다.

"마법 때문이지." 해그리드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금고실을 지키는 용들이 있대. 그리고 그린고트까지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린고트는 런던 지하 수백 킬로미터 되는 곳에 있거든. 지하철 저 밑이지. 뭔가를 간신히 손에 넣어다 해도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굶어죽고 말 거야." 해리는 해그리드가 《예언자 일보》를 읽고 있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해리는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는 방해받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걸 버논 이모부를 보아서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참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는 묻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건 난생 처음이었다.

"마법부가 또 일을 망쳐 놓았군." 해그리드가 신문을 넘기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법부가 있어요?" 해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물론이지."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물론 덤블도어가 마법부 장관이 되길 바랐지만, 그분이 호그와트를 떠나려 하지 않아서, 코넬리우스 퍼지 노인이 장관 직을 맡으셨지. 아주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조언을 구하느라, 아침마다 덤블도어에게 수십 마리의 봉어이들을 보내지." "그런데 마법부는 어떤 일을 하죠?"

"글쎄, 주요 임무는 나라 이곳저곳에 아직도 마녀와 마법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머글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왜요?"

"왜냐구? 해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마법을 알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저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바로 그때 배가 항구 벽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해그리드는 신문을 접었고, 그들은 힘겹게 돌계단 위로 올라가 거리고 나갔다.

그들이 작은 마을을 지나 기차역으로 걸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해그리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었다. 해그리드는 모퉁 사람보다 키가 두 배는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저것 봐, 해리. 머글들이 만들어 낸 저 건물들 말야, 거참."

하며 주차 시간 자동 표시기 같은 아주 평범한 것들을 가리키며 계속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다.

"해그리드." 해리가 쫓아가느라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린코트에 용들이 있다고

했죠?" "뭐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난 용을 갖고 싶어." "용을 갖고 싶다고요?"

"난 어렸을 때부터 용이 갖고 싶었어. 자, 가자."

그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 5분 뒤에 출발하는 런던행 기차가 있었다. 해그리드는 '머글 돈'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해리에게 수표를 주어 기차표를 사게 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들을 훨씬 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그리드는 두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밝은 노란색의 서커스 천막 같은 것을 뜨고 있었다.

"편지 갖고 있지, 해리?" 그가 바늘 땀 수를 세며 물었다.

해리는 주머니에서 양피지 봉투를 꺼냈다.

"좋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거기에 네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이 다 적혀 있어." 해리는 그 전날 밤에는 미처 읽지 못했던 두 번째 종이를 펼쳐 들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복

1학년 학생들이 필요한 것:

1. 무늬 없는 긴 망토 세 벌(검정색)
2. 일상용 뾰족한 모자 하나(검정색)
3. 보호 장갑(용 가죽이나 그와 유사한 것)
4. 겨울 망토 하나(검정색에 은색 단추)

*학생들의 모든 옷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붙이기 바랍니다.

교과서

모든 학생들은 다음 책을 한 권씩 준비하기 바랍니다:

《표준 마법서(1학년)》, 미란다 고시오크 지음

《마법의 역사》, 바틸다 백셋 지음

《마법 이론》, 아달버트 와플링 지음

《초보자를 위한 변신술 지침서》, 에메릭 스위치 지음 《1000 가지 마법 약초와 곰팡이》, 필리다 스포어 지음 《마법과 마법의 약》, 아르세니우스 지거 지음

《기이한 짐승들과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뉴트 스캐맨더 지음 《어둠의 힘》, 쿠웬틴 트럼블 지음

다른 용품

요술지팡이 하나

큰 냄비 하나(양은, 표준 사이즈 2 호)

우리나 크리스탈 약병 하나

망원경 하나

낚시 저울 하나

*학생들은 부엉이나 고양이, 혹은 두꺼비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첫 1년 동안은 학생들 개개인 빗자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런던에서 살 수 있어요?"

해리가 놀라서 큰 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

해그리드가 답했다.

해리는 런던에 가 본 적이 없었다. 해그리드는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분명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에는 익숙지 않은 듯했다. 그는 지하철 개찰구에 몸이 갇혔는가 하면, 자리는 너무 비좁고 기차는 너무 느리게 간다며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댔다. "난 머글들이 마법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야." 그가 가게가 죽 늘어선 북적거리는 도로까지 연결된 망가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며 이렇게 불평했다. 해그리드는 그 큰 몸집으로 어찌나 쉽게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가는지, 해리는 그저 해그리드 뒤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서점과 레코드 가게와 햄버거 가게와 극장을 지나 갔지만 요술지팡이를 파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이 곳은 그저 보통 사람들로 붐비는 평범한 거리에 불과했다. 저 아래 땅속에는 정말로 마법사의 황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까? 마법서와 빗자루를 파는 가게가 정말로 있거나 한 걸까? 이 모두가 혹시 더즐리 가족이 꾸며 낸 장난을 아닐까? 해리가 만일 더즐리 가족에게 유머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곳이로군." 해그리드가 발을 멈추며 말했다. "리키 콜드런. 아주 유명한 곳이지." 그곳은 아주 작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술집이었다. 해그리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다면, 해리는 그 술집이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급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리키 콜드런을 볼 수 없기라도 한 듯, 대형 서점이나 그 반대편의 레코드 가게만 훑어보았다. 사실 해리는 자신과 해그리드만 이 술집을 볼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이 말을 하기도 전에 해그리드는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유명한 장소치고는 그곳은 아주 어둡침침하고 지저분했다. 노파 몇 명이 한쪽구석에 앉아 아주 작은 술잔으로 백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은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뾰족한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 하나는, 대머리에다 꼭 호두처럼 생긴 이빨 빠진 늙은 바텐더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들이 걸어 들어가자 웅성대던 소리가 딱 멈췄다. 모두

해그리드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바텐더는 술잔으로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늘 마시던 걸로 하겠소, 해그리드?"

"마실 수 없어, 톰, 호그와트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 해그리드가 대답하며 커다란 손으로 해리의 어깨를 탁 치는 바람에, 해리는 무릎이 휘청거렸다.

"아아." 바텐더가 해리를 뻘히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애가..... 그럼 이 애가.....?" 리키 콜드런이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런." 늙은 바텐더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 포터..... 이렇게 영광스러울 데가." 그는 허둥지둥 바 뒤편에서 나와, 급히 해리에게 다가가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해리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포터 군, 돌아온 걸 환영해."

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담뱃대를 물고 있던 노파는 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계속 뻘뻘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서 드르륵드르륵 의자가 마루를 긁어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어느새 리키 콜드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리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도리스 크룩포드네, 포터 군, 마침내 자네를 만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너무나 자랑스럽네, 포터 군,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야." "언제나 자네와 악수를 하고 싶었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군." "반갑네, 포터 군, 뭐라 말할 수가 없군, 디글일세, 데달루스 디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해리가 이렇게 말하자 흥분한 나머지 데달루스 디글의 뺨쪽한 모자가 벗겨져 떨어졌다. "언젠가 어떤 가게에서 제게 인사를 하셨죠." "기억을 하는구만!" 데달루스 디글이 모두를 둘러보며 외쳤다. "들었나? 이 애가 날 기억한다구!" 해리는 다시 계속해서 악수를 했다. 도리스 크룩포드는 몇 번이고 다시 왔다.

얼굴이 창백한 한 젊은 남자가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의 한쪽 눈은 씰룩씰룩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퀴렐 교수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 퀴렐 교수님은 호그와트에서 널 가르쳐 줄 선생님들 중 한분이셔." "포..... 포..... 포터!" 퀴렐 교수는 해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자네를 마..... 만나다니 이..... 이렇게 기..... 기쁩 데가." "퀴렐 교수님은 어떤 마법을 가르치시나요?"

"어..... 어..... 어둠의 마법을 막는 바..... 방어술이지." 퀴렐 교수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듯 비밀스럽게 말했다. "그게 피.....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 아니겠지, 포..... 포..... 포터?" 그는 초조하게 웃었다. "준비물은 모두 잘 채..... 챙겨가야 할걸? 난 흡혈귀에 관한 새 채..... 책을 좀 찾아야 해." 바로 그 말을 할 때 그의 모습은 좀 으스스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퀴렐 교수가 계속해서 해리를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에게서 빠져나오는 데는 거의 10 분이 걸렸다. 마침내 해그위드는 왈카지꼴하게 떠돌어대는 사람들 너머로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야만 해. 살 게 많아. 자, 해리."

도리스 크룩포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리와 악수를 했다. 해그리드는 술집을 빠져나와 쓰레기통과 잡초 몇 포기말고는 아무것도 없니, 벽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안마당으로 나왔다. 해그리드는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내가 말했지? 넌 유명하다고 말야. 퀴렐 교수님조차 너를 만나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잖아.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그분은 원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늘 그렇게 긴장하시나요?"

"어, 그래. 가엾은 분이네. 하지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책을 보면서 연구하실 때는 꽤 좋았는데,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셨다가 1년 만에 그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둠의 숲'에서 흡혈귀를 만나셨대. 그리고 어떤 심술궂은 마녀와 약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나 봐. 그 이후론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대.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도 무서워하고 말야. 그런데, 내 우산이 어딴지?" 흡혈귀? 마녀? 해리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동안 해그리드는 담에 기대어 있는 쓰레기통 위쪽의 벽돌 수를 세고 있었다.

"위로 세 개..... 가로로 두 개....." 그가 중얼거렸다. "좋았어, 뒤로 물러서, 해리." 그는 우산 끝으로 담을 세 번 탁탁탁 두드렸다.

그러자 그가 두드린 벽돌이 흔들흔들하더니, 가운데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나타나 점점 더 넓어졌고 잠시 뒤엔 좀 빠돌어지긴 했어도 아주 멋진, 그리고 해그리드가 빠져나가기에도 충분히 큰 통로가 생겼다.

"다이애건 앨리에 온 걸 환영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고 있는 해리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다. 그들은 그 통로를 지나갔다. 어깨 너머로 훑듯 바라본 해리는 통로가 다시 순식간에 오그라들어 딱딱한 벽이 되는 걸 보았다. 태양이 바로 옆 가게에 쏟아 둔 큰 냄비들 위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접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롯해 각종 크기의 청동, 놋쇠, 양은, 은 냄비들이 죽 진열되어 있었다. "그래, 너도 하나는 있어야 할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돈을 찾아야 해." 해리는 눈을 여덟 개쯤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걸어가며 가게며, 가게 바깥에 놓인 물건들이며, 쇼핑하는 사람들 등 모든 걸 한꺼번에 보려고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돌렸다. 약국 앞에 서 있던 어떤 살찐 여자는 그들이 지나가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의 간이 온스당 17 시클이라니. 미친놈들....."

'이이롭스 부엉이 백화점'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한 어두컴컴한 상점에서 황갈색 부엉이, 외양간 부엉이, 눈 부엉이 등, 부엉이들이 부엉부엉 우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리 또래의 남자아이 대여섯 명이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빗자루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것 봐." 해리는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하는 말을 들었다. "가장 빠른 님부스 2000 을 새로 들여놓았네." 그곳엔 긴 망토를 파는 상점이며, 망원경과 은으로 만든 이상한 기구를 파는, 해리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상점들이 있었는데, 창가에는 박쥐의 비장과 뱀장어 눈알이 가득 담긴 드럼통과, 마법서, 깃펜, 양피지 두루마리, 약병, 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공 등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그린고트가 저기 있군."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들은 다른 작은 상점들 위로 우뚝 솟아 있는 새하얀 건물로 다가갔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 문 옆에 서서, 진홍색과 황금빛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래, 그게 바로 도깨비야." 하얀 돌계단을 따라 그 도깨비에게 걸어가며 해그리드가 나직이 말했다. 그 도깨비는 해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작았다. 해리는 그 도깨비가 영리해 보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뾰족한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주 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 도깨비가 인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은빛이 나는 두 번째 문 앞에 와 있었다.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들어오시오, 낯선 이여, 하지만 명심하시오.

탐욕의 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하여 얻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 죄과를 치르게 될 것이오.

그러니 만일 우리의 마룻바닥 밑에서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보물을 찾게 된다면, 도둑이여, 경고하노니, 주의하시오.

그곳에서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은빛 문을 지나가자 문 양 옆에 있던 도깨비 두 명이 그들에게 인사했고, 그들 앞에는 넓은 대리석 홀이 나왔다. 100 명이 넘는 도깨비들이 기다란 카운터 뒤편의 높은 의자에 앉아 회계장부에 원가를 갈겨 쓰고 있거나, 놋쇠 저울로 동전 무게를 달거나, 확대경을 눈에 끼고 보석을 감정하고 있었다. 홀로 통하는 문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고, 그보다 더 많은 도깨비들이 사람들을 이 문 저 문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그리드와 해리는 카운터로 향했다.

"안녕하시오." 해그리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도깨비에게 말했다. "우린 해리 포터씨의 금고에서 돈을 좀 꺼내려고 왔소.""열쇠는 있소, 선생?"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요." 해그리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카운터 위에다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고 케케묵은 강아지용 비스킷 한 줌을 도깨비의 장부 위에 쏟아 놓자, 그 도깨비가 코를 찔룩거렸다. 해리는 오른쪽에 있는 도깨비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석단만큼이나 큰 루비를 산더미처럼 쏟아놓고 차례차례 무게를 다는 걸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찾았다." 해그리드가 마침내 찌그마한 황금빛 열쇠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도깨비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맞는 것 같군요."

"여기 덤블도어 교수님의 편지도 가져왔소." 해그리드가 가슴에 손을 짚 펴고,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그건 713 번 금고에 있는 그것에 관한 것이오." 도깨비는 편지를 주의 깊게 읽었다.

"알겠소." 그가 편지를 해그리드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사람을 시켜 금고 두 곳으로 안내하겠소. 그림흑!" 그림흑은 또 다른 도깨비였다. 해그리드는 일단 강아지용 비스킷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해리와 함께 그림흑을 따라 홀로 통하는 문 가운데 하나로 향했다.

"713 번 금고에 있는 그것이라는 게 뭐죠?" 해리가 물었다.

"말할 수 없어." 해그리드가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비밀이거든."

호그와트의 비밀이지. 덤블도어 교수가 날 믿고 일을 맡긴 건데 네게 그걸 말하면 난 파면당할 거야." 그림흑이 문을 열었다. 더 많은 대리석이 있으리라 예상했던 해리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햇불로 밝혀진 좁다란 석조 통로에 들어와 있었다. 그 통로에는 아래쪽으로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철로가 있었다. 그림흑이 휘하고 휘파람을 불자, 작은 궤도차가 트랙을 타고 그들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왔다. 해그리드가 어렵사리 올라탔고, 그들이 오르자마자 궤도차가 출발했다.

처음에 그들은 꼬불꼬불한 미로를 지나갔다. 해리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중간 분기점, 오른쪽, 왼쪽하며 기억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덜컹거리는 궤도차는 그림흑이 운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맞바람 때문에 눈이 시렸지만, 해리는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있었다. 한번은, 어떤 통로 끝에서 폭발하는 불빛을 본 것 같아 혹시 용인가 보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너무 늦고 말았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종유석과 석순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자란 지하 호수를 지나,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갔다.

"난 정말 모르겠어요." 해리가 궤도차의 소음 너머로 해그리드에게 소리쳤다. "종유석과 석순이 어떻게 다르죠?" "종유석에는 '종'자가 들어 있잖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묻지 마, 멀미가 날 것 같으니까." 그의 얼굴은 아주 창백해 보였다. 궤도차가 마침내 통로 벽에 나 있는 작은 문 옆에 멈춰 서자, 해그리드는 얼른 내려 무릎을 후들거리며 벽에 기대 섰다.

그림흑이 문의 자물쇠를 열었을 때 해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뿌연 초록빛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산더미같이 쌓인 금화가 눈에 들어왔다. 은화도 잔뜩 들어 있었고, 작은 동화 넷도 한 무더기 있었다.

"다 네거야."

해그리드가 미소를 지었다.

몬가 내 거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더줄리 가족은 틀림없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아마 순식간에 빼앗아 갔을 테니까. 그들은 나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며 얼마나 자주 불평을 했던가. 그런데 그동안 내내 엄청난 내 재산이 런던 밑에 깊숙이 묻혀 있었다니.

해그리드는 해리가 그 중 일부를 가방에 담는 걸 도와주었다.

"금화는 갈레온이야." 그가 설명했다. "1 갈레온은 17 은 시클이고 1 시클은 29 닛이니까."

그러면 충분해. 좋아. 두 학기 정도 보내는 데는 그거면 충분할 테니, 나머지는 여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자." 그는 그림흑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713 번 금고로 갑시다. 그런데 좀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궤도차는 한 속도로만 움직여요." 그림흑이 말했다.

그들은 이제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움푹달싹도 할 수 없는 좁은 모퉁이를 휩 몰자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궤도차가 지하의 좁은 터널을 덜컹거리며 지나갈 때, 해리가 저 아래 어두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몸을 옆으로 기울이자, 해그리드가 위험하다면 목덜미를 핵 잡아당겼다.

713 번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다.

"뒤로 물러서시오."

그림흑이 으스스대며 말했다. 그가 기다란 손가락 하나로 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문이 스르르 녹아 내렸다.

"그린고트 도깨비 이외에 누구라도 이렇게 했다간, 문으로 빨려 들어가 안에 갇히고 말거요." 그림흑이 말했다.

"누가 안에 들어왔는지 얼마나 자주 살피죠?"

해리가 물었다.

"10 년에 한 번씩."

그립흑이 다소 불쾌하게 씩 웃으며 말했다.

해리는 이 1급 금고 안에 무언가 정말로 굉장한 것이 들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 굉장한 보석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금고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다보자 누런 종으로 싼 더러운 작은 꾸러미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해그리드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코트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다. 해리는 그것이 뭘까 몹시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자, 이 지긋지긋한 궤도차를 타고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땐 내게 말 걸지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멀미가 안 날 것 같으니까." 해그리드가 말했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달리는 궤도차를 타고 나온 뒤 그들은 그린고트 밖에서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박이며 서 있었다. 해리는 돈이 가득 든 가방을 갖게 되자 이제 어디로 먼저 가야할지 몰랐다. 그는 비록 몇 갈레온이 1 파운드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이 지금, 평생 가졌던 돈보다 더 많은 돈 - 두들리가 가져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 을 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선 교복을 사는 게 좋겠다." 해그리드가 고개로 '말킨 부인의 망토'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런데 해리, 리키 콤드런에 잠깐 가서 한잔만 하고 와도 괜찮겠니? 그린고트의 고속 궤도차는 언제 타도 끔찍하단 말야." 그가 아직도 멀미를 하는 것같이 보였으므로, 해리는 다소 겁이 났지만 해그리드를 보내고 혼자서 말킨 부인의 가게로 갔다. 말킨 부인은 땡땡막한 마녀였는데, 연한 자줏빛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도 호그와트니?" 해리가 막 말을 꺼내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여기 많이 있단다. 실은, 또 다른 아이가 지금 막 입어보고 있지." 가게 안쪽에서는 또 다른 마녀가 발판 위에 서 있는 창백하고 가름한 얼굴을 가진 남자아이의 긴 검정 망토를 핀으로 꽃고 있었다. 말킨 부인은 해리를 그 옆에 있는 발판에 세우고 긴 망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씌워 입히고는 적당한 길이에서 핀을 꽃기 시작했다.

"안녕." 남자애가 말했다. "너도 호그와트니?"

"응." 해리가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옆 가게에서 내 책을 사고 계시고 엄마는 길가에서 요술지팡이를 보고 계셔." 남자애가 말했다. 그 아이는 따분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 다음에 난 엄마 아빠와 함께 경주용 빗자루를 보러 갈 거야. 왜 첫 해는 자기 빗자루를 가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난 아빠를 졸라서 하나를 몰래 사 작고 들어갈거야." 해리는 꼭 두들리는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넌 빗자루 있니?" 그 남자애가 계속해서 물었다.

"아니." 해리가 말했다.

"퀴디치는 해본 적 있어?"

"아니." 해리는 퀴디치라는 게 도대체 무얼까 의아해하며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

"난 해봤어. 아빠는 내가 만약 우리 기숙사 대표로 뽑히지 않는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말야. 그러데 난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 "아니." 해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졌다.

"하긴,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난 내가 우리 가족 모두가 생활했던 슬리데린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후플푸프에는 절대로 배정받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난 그냥 나와 버릴 것 같아. 너라면 안 그러겠니?" "응." 해리는 자신이 뭔가 좀더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좀 봐!"

그 남자애가 갑자기 정문 창문 쪽을 향해 턱짓을 하며 외쳤다. 해그리드가 가게 밖에 서 있었다. 그는 해리를 보며 씩 웃으면서 손에 든 두 개의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며, 이것 때문에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손짓을 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해그리드야. 호그와트에서 일하시지."

해리는 뭔가 그 남자애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기뻐서 얼른 말했다.

"아하." 그 남자애가 말했다. "나도 이름은 들어 본 적 있어. 저 사람은 일종의 하인이야, 안 그러니?" "그는 사냥터지기야."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그 남자애가 점↔점 더 싫어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난 저사람이 야만인이라고 들었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오두막에 사는데, 가끔 술에 잔뜩 취해서는 마법을 부리려고 하지만 침대에 불을 질러 놓기가 일쑤래." "내가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이야."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 그 남자애가 약간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너와 함께 있는거지? 네 엄마와 아빠는 어디에 계셔?" "그분들은 돌아가셨어." 해리가 짧게 말했다. 해리는 이 아이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오, 미안." 그러나 그 아이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따.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셨겠지, 안 그래?" "그래, 마법사셨어."

"난 그 학교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그들은 우리와 다르거든. 우리의 풍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호그와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봐. 난 그들이 마법사 가족 속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풍습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는 성이 뭐니?" 하지만 해리가 막 대답하려던 찰나, 말킨 부인이 말했다.

"다 됐다, 애야."

그러자 해리는 그 남자아이에게 말을 하다 말아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발판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그럼, 호그와트에서 보자."

그 아이가 질질 끌며 천천히 말했다.

망토 가게에서 나온 해리는 말없이 해그리드가 사 온, 땅콩 가루가 박힌 초콜릿 랍스베리 아이스크림만 먹었다.

"왜 그러니?" 해그리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녜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양피지와 깃펜을 사러 가게에 잠깐 들렀다.

해리는 쓰고 있는 동안에 색깔이 변하는 잉크를 발견하자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그 가게를 나오며 그가 해그리드에게 물었다. "해그리드, 쿼디치가 뭐예요?" "아차, 해리, 난 네가 아직 많은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깜박한단 말야. 쿼디치도 모르고 있었구나!" "제 기분은 더 엉망으로 만들지 마세요." 해리가 말했다. 그는 해그리드에게, 말킨 부인 가게에서 만난 그 창백한 아이에 대해 말했다.

"..... 그 아인 머글 갖고 출신들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넌 머글 가족 출신이 아냐. 만일 그 애가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애의 부모가 마법사라면 그 애 틀림없이 네 이름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야. 너도 리키 콜드런에 있는 사람들이 널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어쨌든, 그 애가 뭘 알겠지, 내가 만난 최고의 마법사 중 몇몇은 오랫동안 머글들 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 네 엄마를 봐! 그리고 네 엄마가 어떤 언니를 가졌는지 보라구!" "그런데 쿼디치는 뭐죠?"

"그건 우리의 스포츠야. 마법사들의 스포츠. 그건 머글 세계에서야 축구와 같아. 누구나 쿼디치를 하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하는 건데 공이 네 개 있어. 하지만 경기 규칙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그리고 슬리데린과 후플푸프는 뭔데요?"

"학교 기숙사 이름이야. 네 개가 있지. 모두들 후플푸프는 바보 천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들 하긴 하지만....." "그럼 전 틀림없이 후플푸프에 들어가겠군요."

해리가 침울해져서 말했다.

"슬리데린보다는 후플푸프가 더 좋아." 해그리드가 운밀하게 말했다.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마법사 마녀는 단 한명도 없거든. 그 사람도 슬리데린 출신이었지." "볼....., 죄송해요. 그 사람도 호그와트에 있었어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들은 해리의 교과서를 사기 위해 '플러리시와 블러트'라는 서점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큰 가족으로 장정된 책에서부터 책 표지가 실크로 만들어진 우표 크기만한 책,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 찬 책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책까지 선반들이 온통 책으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두들리조차도 아마 몇 가지 책에는 흥분해서 손이 저절로 뻗어 갔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빈딕투스 비리디안 교수가 쓴 《저주 내리기와 저주 풀기: 탈모, 흐느적흐느적 다리, 혀 묶어 버리기 등 최신 복수법으로 친구를 매혹시키고 적을 정신나하게 하기》라는 제목의 책 앞에서는 해리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야 했다.

"두들리를 굶려 줄 방법을 알아내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머글들 세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법을 쓰지 말아야 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네가 두들리에게 마법을 써먹으려고 해도 지금은 잘 듣지 않을거야.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해." 해그리드는 황금 냄비는 사지 못하게 했지만 (모록에는 '양은 냄비'라고 되어 있어), 약 혼합물의 무게를 다는 멋진 저울과 접을 수 있는 청동 망원경은 하나씩 사게 했다. 그 뒤 그들은

약재상(藥材商)에 들렀는데 그곳은 상한 달걀과 썩은 양배추를 합한 것 같은 끔찍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활했다. 마룻바닥에는 끈적끈적한 재료가 담긴 통들이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약초며 말린 뿌리며 밝은 분말가루 병들이 죽 세워져 있었다. 또 천장에는 깃털 더미와, 동물의 송곳니와 발톱들이 뒤섞여 매달려 있었다. 해그리드가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에게 해리가 쓸 만한 좀 기본적인 약 성분들이 있는지 묻는 동안, 해리는 하나에 21 갈레온 하는 은으로 만들어진 유니콘 뿔과 한 국자에 5 닢 하는 까맣게 반짝이는 조그마한 딱정벌레 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약재상을 나와서, 해그리드는 해리의 목록을 다시 한 번 살폈다.

"이제 요술지팡이만 남았군. 아참, 아직 생일 선물을 사 주지 않았구나." 해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

"그건 나도 알아. 말해 줄까, 난 네게 동물을 사 줄 거야. 두꺼비는 아냐. 두꺼비는 이미 오래 전에 유행이 지났거든. 그리고 난 고양이도 좋아하지 않아. 고양이만 보면 난 재채기를 하니까 말야. 난 네게 부엉이를 한 마리 사 줄거야. 애들은 모두 부엉이를 갖고 싶어하지. 굉장히 쓸모 있거든.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모든 점에서 말야." 20 분쯤 뒤 그들은 어둡고 바스락거리는 날개 소리로 가득찬, 보석처럼 빛나는 눈들이 깜박대고 있는 이이롭스 부엉이 백화점 문을 나섰다.

해리의 손에는 이제 눈처럼 새하얀 예쁜 부엉이 한 마리가 머리를 날개 밑에 묻고 잠들어 있는 커다란 새장이 들려 있었다. 해리는 꼭 퀴렐 교수처럼 더듬거리며 계속 고맙다고 했다.

"천만에."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더즐리네 가족에게서 선물을 별로 받은 것 같지 않아서 말야. 이제 올리밴더스에만 가면 되는군. 요술지팡이를 파는 곳은 거기 뿐이거든. 난 최고의 요술지팡이를 사야해." 요술지팡이라..... 이거야말로 해라가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었다.

마지막 가게는 생각보다 비좁고 초라했다. 문에 쓰여진 '올리밴더스: 기원전 382년부터 좋은 요술지팡이를 만들어 온 장인'이라는 황금빛 글자가 벗겨지고 있었다. 먼지투성이의 창가에는 색 바랜 보랏빛 쿠션 위에 요술지팡이가 한 개 놓여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깊숙이 어딘가에 있는 종이 딸랑거렸다. 자그마한 가게 안에는 영성한 의자 하나만 덜렁 놓여 있어서, 해그리드는 거기에 걸터앉았다. 해리는 마치 매우 엄격한 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막 떠오른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억누르며, 대신 천장까지 깔끔하게 쌓여 있는 수천 개의 가느다란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에선지, 목덜미가 따끔따끔 아파왔다. 이 안에 있는 먼지와 정적이 어떤 신비한 마법으로 따끔거리게 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시오."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해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그리드도 놀란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약해 빠진 의자에 앉아 있던 그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이다.

그들 앞에는 어느새 한 노인이 서 있었는데, 옅은 빛깔의 둥그런 눈은 어둠 속에서 마치 두 개의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해리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오, 그래." 그 노인이 말했다. "그래, 그래. 자넌 곳 만나리라 생각했지. 해리 포터."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엄마 눈을 닮았구나. 네 엄마가 요술지팡이를 사러 처음 여기 온 게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버드나무로 만들어져서 한 번 휘두르면 확 하고 소리나는 26 센티미터짜리 지팡이었지. 마법에 쓰기에는 아주 좋은 지팡이었단다." 올리밴더 씨가 해리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해리는 전혀 깜박이지 않는 그의 은백색 맑은 눈이 어쩐지 소름 끼쳤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마호가니 지팡이를 가장 좋아했지. 28 센티미터짜리였다. 잘 휘었지.

힘이 약간 더 세서 변신하는 데는 최고였단다. 글썄, 뭐랄까. 네 아버지 그걸 가장 좋아하셨단다. 그건 물론 마법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지팡이였단다." 올리밴더 씨는 해리와 코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는 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올리밴더 씨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해리의 이마에 난 번개 모양의 흉터를 만졌다.

"바로 내가 깎은 지팡이 때문이란단. 미안하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34 센티미터. 주목(朱木)으로 만들어진 거지. 강력한 아주 강력한 요술지팡인데, 잘못된 사람 손에 넘어갔어..... 그 요술지팡이가 세상에 나와 어떤 짓을 하리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노인은 고개를 젖더니 해그리드를 발견했다. 해리는 한시름 놓았다. "루베우스! 루베우스 해그리드 아닌가!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네..... 오크, 40 센티미터, 약간 휘는 것, 맞지?" "그렇습니다, 맞아요."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것도 좋은 지팡이었지. 그런데 자네가 쫓겨날 때 그들이 그걸 반으로 똑 부러뜨렸지 아냐?" 올리밴더씨가 갑자기 무성누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 네. 그러했어요, 맞아요." 해그리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말했다. "하지만 전 아직도 그 부러진 조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가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걸 사용하진 않나?"

올리밴더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 아뇨." 해그리드가 얼른 대답했다. 해리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핑크빛 우산을 꺾 움켜쥐는 걸 보았다.

"흠." 올리밴더 씨가 해그리드를 날카로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럼, 자, 포터 군. 어디 좀 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은빛 점들이 표시되어 있는 기다란 줄자를 꺼냈다. "어느 쪽에 지팡이를 찔 거지?" "저, 전 오른손잡이예요." 해리가 말했다.

"팔을 쭉 뻗어 봐, 그렇지."

그는 해리의 어깨에서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잰 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어깨에서 마룻바닥까지, 무릎에서 겨드랑이까지 그리고 머리 둘레를 잰다. 그는 길이를 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리밴더 지팡이 중심에 모두 강력한 마법의 물질이 들어 있네, 포터 군. 우리 지팡이엔 유니콘 털과, 불사조 꼬리 깃털이 사용되고, 용의 심장이 담겨 있다네. 올리밴더 요술지팡이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유니콘이나, 용이나, 불사조 같은 것이 서로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지팡이는 다른 마법사가 만든 지팡이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지." 해리는 불현듯 줄자가 자기 혼자서 움직이며 자신의 콧구멍 사이를 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리밴더 씨는 선반 주위를 날아다니며 상자들을 꺼내고 있었다.

"그만하면 됐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줄자가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러면, 포터 군. 이걸 한 번 써 보지. 너도밤나무와 용의 심장이야. 23 센티미터고. 멋지고 유연하지. 그냥 한번 손에 쥐고서 휘둘러 보게." 그러나 해리가 그 지팡이를 가져가 (멍청한 기분을 느끼며) 약간 휘둘러 보려고 하자마자 올리밴더 씨가 그걸 손에서 획 채갔다.

"단풍나무와 불사조 깃털. 18 센티미터. 탄력이 아주 좋지. 자 해 보게....." 해리는 휘둘러 보려고 했지만, 지팡이를 거의 들어올리지도 못하자 올리밴더 씨가 얼른 가져갔다.

"아니, 아니. 여기 흑단(黑檀)과 유니콘 털에 20 센티미터, 잘 휘지. 자, 한 번 해봐." 해리는 몇 번이고 계속 시도했다. 해리는 도대체 올리밴더 씨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다. 한 번씩 휘둘러 본 지팡이들이 그 약해빠진 의자 위에 점점 더 높이 쌓이고 있었지만, 올리밴더 씨는 선반에서 새로운 지팡이를 더 많이 꺼내 올수록 점점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까다로운 손님이야, 인 그런가? 하짐잔 걱정 말레, 여기 어딘가에서 꼭 들어맞는 걸 찾게 될 테니까. 혹시 그러면 말야. 그렇지, 좀 별난 걸 찾아봐는 게 어떨까?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 깃털에 28 센티미터,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유연한 것으로 말야." 해리는 그 지팡이를 잡았다. 그는 손가락에서 갑자기 온기를 느꼈다. 그가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가 먼지투성이의 공기를 가르며 획 휘두르자, 지팡이 끝에서 마치 불꽃놀이처럼 빨갛고 노란 불꽃이 튀며, 반짝이는 작은 점들이 춤추듯 벽 위에 흩뿌려졌다.

해그리드는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고 올리밴더는 큰 소리로 외쳤다. "브라보! 그렇지, 좋았어. 그런데 말야. 정말로 이상하군..... 정말로 이상해....." "죄송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올리밴더 씨는 창백한 눈길로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내가 만든 지팡이들은 모두 기억하네, 포터 군. 하나 하나 다. 자네 지팡이처럼 불사조의 깃털이 있는 지팡이가 꼭 하나 더 있었다네. 이 지팡이가 자네한테 가게 된다는 게 정말로 이상해. 왜냐하면 그 형제 지팡이가 바로 자네에게 그 흉터를 냈거든."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34 센티미터. 주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이상해. 기억하나, 지팡이가 마법사를 선택한다는 걸 말야..... 내가 볼 때 우린 자네에게서 굉장한 일을 기대해야 할 것 같네, 포터 군..... 무엇보다도, 이름을 불러서는 안될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일을 했네, 끔찍한 일이었지, 그래, 하지만 굉장했어."해리는 몸이 오싹했다. 그는 올리밴더 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해리는 그 지팡이 값으로 황금 갈레온 일곱 개를 냈고, 올리밴더 씨는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해리와 해그위드가 다시 벽을 뚫고, 다이애건 앨리의 텅빈 리키 골드런으로 향했을 때 하늘에는 늦은오후의 태양이 낮게 걸려 있었다.

해리는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철에 온갖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짐 꾸러미들을 들고 탄 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해리의 무릎에 놓인 새장에서는 새하얀 부엉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 또 한 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패딩턴 역으로 나왔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어깨를 탁 쳤을 때에야 비로소 여기가 어딘지 알았다. "기차가 떠나기 전에 뭐 좀 먹을 시간이 있겠군."해그리드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해리를 햄버거 가게로 데려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해리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다. 웬일인지 모든 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

"괜찮니, 해리? 말이 없구나."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이렇게 멋진 생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햄버거를 먹었다.

"모두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리키 골드런에 있는 사람들과, 쿨렐 교수님과, 올리밴더 씨 모두..... 하지만 난 마법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서 굉장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난 유명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볼드....., 죄송해요, 제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 몰라요."해그리드가 탁자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는 제멋대로 난 수업과 눈썹 너머로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 해리. 넌 금방 배우게 될거야. 호그와트에서는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잘할 거야. 그저 침착하기만 하면 돼. 어렵다는 건 알아. 넌 선택받은 마법사야. 그렇게 되기란 힘들지. 하지만 넌 호그와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거야. 나도 그랬거든. 사실 지금도 그렇고 말야."해그리드는 해리가 더즐리 가족에게로 돌아갈 기차를 타는 걸 도와준 뒤,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표야." 그가 말했다. "9월 1일, 킹스 크로스 역이야. 모든 건 표에 다 써 있어. 더즐리네 가족과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부엉이로 내게 편지를 보내. 부엉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 그럼 또 보자, 해리."기차가 역을 빠져나갔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를 지켜보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문에다 코를 바짝 갖다 댔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해그리드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제 6 장 9 와 4 분의 3 번 승강장

해리가 더즐리 가족과 보낸 마지막 한 달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사실, 두들리는 이제 해리를 어찌나 무서워했던지 한방에 있으려 하지도 않았고,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는 해리를 벽장 속에 가두지도,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해리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반쯤은 무섭기도 하고, 반쯤은 화가 나기도 했으므로, 그들은 마치 해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많은 면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좋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약간 침울해 졌다.

해리는 자기 방에서 갓 사온 부엉이와 함께 지냈다. 그는 부엉이를 《마법의 역사》에서 발견한 헤드위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교과서들은 아주 재미있었다. 해리는 침대에 누워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고, 헤드위그는 열린 창문으로 휙 날아갔다 휙 날아오곤 했다. 페투니아 이모가 더 이상 청소를 하러 들어오지 않는 게 천만대행이었다. 왜냐하면

헤드위그가 계속해서 죽은 쥐들을 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밤마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리는 벽에다 붙여 놓은 달력에 체크를 했다. 9월 1일까지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이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자, 해리는 이모와 이모부에게 다음날 킹스 크로스 역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그들이 텔레비전 퀴즈 쇼를 보고 있는 거실로 내려갔다. 그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두들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저, 버논 이모부?"

버논 이모부가 해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툭툭거렸다.

"저기, 내일 킹스 크로스에 가야 해요, 호그와트에 가려구요." 버논 이모부가 다시 툭툭거렸다.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툴툴. 해리는 그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그가 막 이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기차라니, 마법학교에 가는 것치고는 좀 우스꽝스런 방법이구나. 마법의 카펫에 구멍이라도 났나 보지?"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 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냐?"

"저도 몰라요." 해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으며, 주머니에서 해그리드가 준 기차표를 꺼냈다.

"그냥 11시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서 기차를 타기만 하면 된대요." 해리는 승차권을 읽어 드렸다.

이모와 이모부가 눈이 둥그레졌다.

"몇 번 승강장이라구?"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요."

"허튼 소리 좀 작작해라."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9와 4분의 3번이라는 승강장은 없어." "제표에는 있어요."

"헛소리 마라."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그건 농들의 미친 소리라니까. 두고 봐라. 곧 알게 될테니. 좋아, 킹스 크로스에 데려다 주지. 어쨌든 우리 내일 런던에 가야 하니까, 어려울 건 없다." "런던에 왜 가시는데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며 해리가 물었다.

"두들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다." 버논 이모부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스멜팅 학교에 가기 전에 엉덩이의 저 빨간 부분을 없애야 하니까 말이야."

다음날 아침 해리는 5시에 깼다. 너무 흥분하고 긴장한 탓인지 잠이 별로 오지 않았다. 그는 마법사 망토를 입고 역까지 가고 싶지 않았으므로 일어나서 청바지를 입었다. 옷은 기차에서 갈아입으면 될 것이다. 그는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한 번 호그와트의 목록을 살핀 뒤, 헤드위그가 새장 속에 안전하게 있는지 보고는 방안을 왔다갔다 하며, 더즐리 가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두 시간 뒤, 해리의 커다랗고 묵직한 가방은 더즐리네 차에 실려졌고, 페투니아 이모는 두들리에게 해리 옆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다.

그들은 10시 반에 킹스 크로스에 도착했다. 버논 이모부는 해리의 가방을 손수레 위에 쿡 내려놓은 뒤 직접 밀면서 역으로 들어갔다. 해리가 이걸 이상할 정도로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버논 이모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플랫폼을 바라보며 심술궂게 씩 웃었다.

"자, 저것 봐라. 9번 승강장, 10번 승강장이지. 네 승강장은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구나.?" 물론 그의 말은 옳았다. 한 승강장에는 커다랗게 9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 옆 승강장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지만, 그 중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새 학기 잘 보내라."

버논 이모부는 훨씬 더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두말없이 가 버렸다. 해리는 돌아서서 더즐리 가족이 차를 물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셋은 모두 웃고 있었다. 해리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헤드위그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를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해리는 지나가는 역무원 한 명을 불러 세웠지만, 9와 4분의 3번 승강장 소리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다. 그 역무원을 호그와트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고, 해리가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말하지 못하자, 그는 해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해리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11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 역무원은 그런 기차는 없다고 대답하고는 투덜거리며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 위의 대형 시계에 따르면 호그와트행 기차에 탈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아 있지 않았지만, 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거의 들 수도 없는 커다란 가방을 갖고, 주머니엔 마법사들의 돈을 하나 가득 넣은 채, 커다란 부엉이와 함께 역 한가운데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벽돌을 두드려 다이애건 앨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뭔가 해야만 할 일을 그에게 일러주는 걸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요술지팡이를 꺼내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개찰구를 두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머글들로 가득하겠찌, 물론....."

해리는 책 돌아섰다. 그 사람은 뚱뚱한 여자였는데, 머리카락이 하나같이 새빨간 네 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애들은 모두 해리처럼, 커다란 가방을 앞으로 밀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또 부엉이도 한 마리 갖고 있었다.

해리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안고, 손수레를 밀며 그들을 쫓아갔다.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짝 따라가며 그들이 멈추면 따라서 멈췄다.

"그런데 몇 번 승강장이었지?"

아이들의 엄마가 물었다.

"9와 4분의 3번 승강장." 역시 머리카락이 새빨간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가면 안....." "넌 아직 어리단다, 지니. 그러니 이제 좀 조용히 하렴. 자, 퍼시, 너 먼저 가거라."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가 9번과 10번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혹시 보지 못할까 봐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그 아이가 두 승강장을 나누는 개찰구에 도달하는 순간, 많은 여행객 인파가 앞으로 떼지어 몰려들었고 마지막 배낭이 지나갔을 즈음엔, 그 아인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프레드, 다음은 너다."

그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전 프레드가 아니에요, 조지라고요." 그 소년이 말했다. "정말로 우리 엄마 맞아요? 제가 조지라는 걸 구별하지 못하세요?" "미안하다, 조지."

"장난이었어요, 전 프레드예요."

그 아이가 걸어가며 말했다. 그 아이의 쌍둥이 동생이 그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쳐 말했는데, 정말로 서둘렀는지, 잠시 뒤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도대체 그 아인 어떻게 한 걸까? 이제 세 번째 아이가 개찰구 쪽으로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다 갔을 때, 갑자기 그가 없어졌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실례합니다."

해리가 그 뚱뚱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애야." 그녀가 말했다. "호그와트에 처음이니? 론도 신입생이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막내동이 아들을 가리켰다. 그 애는 키가 호리호리하게 크고 말랐으며, 주근깨투성이에 손과 발이 크고, 코가 길쭉하게 생긴 아이였다.

"네." 해리가 대답했다. "그것 말이에요..... 그거요, 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승강장에 어떻게 오르는지 말이니?"

그녀가 친절하게 말하자,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그녀가 말했다. "그저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에 있는 개찰구로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단다. 부딪힐까 봐 멈추거나 겁먹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지. 멀리면 조금 뛰어가는 게 좋을 거야. 자, 어서 너 먼저 가거라." "저..... 알겠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는 손수레를 밀며 개찰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건 아주 딱딱해 보였다.

해리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9번과 10번 승강장 쪽으로 밀쳤으므로 더 빨리 걸었다. 개찰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손수레는 통제가 되지 않았다. 3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는 부딪힐 준비를 하고 눈을 감았다..... 충돌은 없었다..... 계속 달렸다..... 해리는 눈을 떴다.

사람들이 꼭 찬 승강장 옆에 있는 진홍색 증기기관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 위의 표지판에는 '호그와트 급행열차, 11시'라고 쓰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개찰구가 있었던 곳에, '9와 4분의 3번 승강장'이라고 적힌 철제 아치 통로가 보였다. 해리는 해낸 것이다. 엔진에서 나온 연기가 수다를 떨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떠가는 동안, 각종 색깔의 고양이와 사람들 다리 사이로 요리조리 돌아다녔다. 부엉이들은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와 무거운 가방이 굽히는 소리가 불만스럽다는 듯 부엉부엉 울어댔다.

첫 몇 칸은 벌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창가에 붙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해리는 빈 자리를 찾기 위해 손수레를 밀면서 승강장 아래로 내려갔다. 얼굴이 둥근 아이 옆을 지나쳤을 때, 그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 두꺼미를 또 잃어버렸어요." "어쩔하니, 네빌." 할머니의 한숨짓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새끼줄 모양으로 여러 가닥 뚫아 내린 어떤 남자아이 주변에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몰려 있었다.

"우리도 한번 보자, 리, 자 어서."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상자의 뚜껑을 들추자, 그 안에 있는 뭔가가 털이 많은 기다란 다리를 쑥 내밀었다.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해리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기차 끝에 다 가서야 간신히 빈 칸막이 객실 하나를 찾았다. 그는 먼저 헤드워그를 안에 넣은 뒤 밀치고 나가 기차 문 쪽으로 가방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을 기차 계단 위로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한 계단도 올릴 수가 없었고 발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발을 두 번이나 찢고 말았다.

"도와줄까?"

그건 바로 개찰구에서 따라왔던 그 빨간 머리의 쌍둥이 중 하나였다.

"응, 그래 줘."

해리가 헐떡이며 말했다.

"프레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쌍둥이의 도움으로, 해리의 가방은 마침내 객실 한쪽에 밀어 넣어졌다.

"고마워."

해리가 눈을 덮고 있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그런데 그건 뭐니?"

쌍둥이 중 한 명이 갑자기 해리의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이럴 수가."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너.....?" "맞아, 켄....." 첫 번째 쌍둥이가 말했다. "맞지?" 그가 해리에게 물었다.

"뭐가?" 해리가 물었다.

"해리 포터." 쌍둥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아아." 해리가 말했다. "응. 그래. 난 해리 포터야."

두 소년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으므로, 해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그때, 다행히도 기차의 열린 문으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레드? 조지? 너희들 거기 있니?"

"가요, 엄마."

쌍둥이들은 해리를 다시 한 번 더 본 뒤, 기차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해리는 승강장에 있는 빨간 머리 가족을 지켜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창가에 반쯤 숨어 앉았다. 그 애들의 엄마가 손수건을 꺼냈다.

"론, 코에 뭐가 묻었구나."

막내둥이 남자아이는 달아나려고 얼른 몸을 뺐지만, 애들 엄마는 그 애를 붙잡아 코끝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엄마, 싫어요." 그가 요리조리 피하며 말했다.

"론의 코에 뭐가 묻었다구?" 쌍둥이 중 하나가 물었다.

"조용히 해." 론이 말했다.

"퍼시는 어디 있지?" 그 애들의 엄마가 물었다.

"오고 있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년이 큰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는 벌써 까만 호그와트 망토로 갈아입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은빛 배지에 P라고 써 있는 걸 보았다.

"시간이 없어요,엄마." 그가 말했다. "전 저 앞에 있어요, 반장들이 객실 두 개를 차지했거든요....." "어, 퍼시 형이 반장이란 말야?" 쌍둥이 중 하나가 아주 놀랐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말을 했어야지, 우리 전혀 몰랐잖아." "잠깐, 난 형이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쌍둥이가 말했다.

"한 번....."

"아니 두 번....."

"일 분에 한두 번....."

"여름 내내....."

"야, 시끄러워." 반장이 퍼시가 말했다.

"그런데 퍼시 형은 어떻게 새 망토를 입었지?" 쌍둥이 하나가 말했다.

"반장이니까 그럴지." 그 애들의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다. "자 그럼, 애들아, 학기 잘 보내라. 도착하면 부영이를 보내렴." 퍼시는 엄마가 볼에 입을 맞추자마자 가 버렸다. 그 뒤 그녀는 쌍둥이 쪽으로 돌아섰다.

"자, 너희들 둘, 금년엔 양전하게 굴어라. 만약 부영이가 한 번만 더 와서 네가..... 네가 화장실을 폭파시켜 버렸다거나 뭐 그런 말을 했다간....." "화장실을 폭파시켰다구요? 우리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멋진 아이디어네요, 고마워요, 엄마."

"웃을 게 아냐. 그리고 론을 잘 돌보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론은 저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조용히 해." 론이 다시 말했다. 그 애는 키가 벌써 쌍둥이만 했지만 엄마가 문질렀던 코는 아직도 빨갛다.

"엄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기차에서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해리는 그들이 볼 수 없도록 얼른 뒤로 물러나 앉았다.

"기차역에서 우리 옆에 있던 까만 머리 아이 아시죠?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해리 포터!"

해리의 귀에 그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기차에 가서 봐도 되요? 엄마 제발....."

"벌써 봤잖니, 지니, 그리고 그 가엾은 아이는 네가 동물원에서 열심히 구경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란다. 그런데 정말이니, 프레드? 어떻게 알았니?" "그 아이에게 물어봤죠. 그 아이의 흉터를 봤거든요. 정말로 거기에 있더라구요. 번개 모양으로." "가엾게끔. 그 애가 혼자 있었던 것도 당연하지. 승강장으로 가는 방법을 묻는 개의 모습은 정말 품위가 있어 보였어." "그건 그렇구, 그 애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까요?" 애들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 애에게 물어선 안 된다, 프레드. 절대로 안 돼. 그 애가 입학 첫날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알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서둘러라!"

애들 엄마가 말하자 세 소년이 기차 위로 올라갔다. 그들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엄마에게 작별 키스를 하자, 여동생인 지니가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지니. 부영이들을 많이 보낼게."

"우리가 호그와트 화장실 번기를 보내 줄게."

"조지!"

"농담이에요, 엄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여동생은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기차가 속도를 낼 때까지 따라오다가, 뒤로 물러나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 그 여자아이와 애들 엄마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듯이 집들이 확확 지나갔다. 해리는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객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막내둥이 빨간 머리가 들어왔다.

"여기 앉을 사람 있니?" 그가 해리의 반대편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다른 곳은 다 찼거든." 해리가 고개를 가로젓자 그 아이가 와서 앉았다. 그는 해리를 흘끗 쳐다보고는 보지 않은 척하며 얼른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 애는 코에 여전히 까만 얼룩을 묻히고 있었다.

"야, 론."

쌍둥이들이 돌아왔다.

"잘 들어. 우리 기차 한가운데로 갈 거야. 리 조던이 타란톨라 거미를 갖고

있거든." "알겠어." 론이 웅얼웅얼 말했다.

"해리." 쌍둥이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릴 소개할게. 우리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야. 그리고 이애는 우리 동생, 론이구. 그럼 나중에 보자." "잘 가." 해리와 론이 대답했다. 쌍둥이 형제는 객실 문을 닫고 가 버렸다.

"네가 정말로 해리 포터니?"

론이 불쑥 물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난 프레드와 조지 형이 또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너 정말로 있니.....? 그거 있잖아....." 론이 해리의 이마를 가리켰다.

해리는 그 번개 모양의 흉터를 보여주려고 앞머리를 뒤로 제꼈다. 론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맞아."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난 기억나지 않아."

"전혀?" 론이 몹시 궁금한 듯 물었다.

"글쎄. 초록 불빛이 많았던 건 기억나는데, 그것 말고는 전혀 기억이 안나." "와."

그는 잠시 해리를 뵈히 바라보며 앉아 있더니, 그에게 한 자신의 행동이 겸연쩍은 듯, 얼른 다시 창 밖을 내다보았다.

"네 가족들은 모두 마법사니?"

해리는 론 만큼이나 이 만남을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응, 그래. 그런 것 같아." 론이 말했다. "엄마에겐 회계사인 사촌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그분에 대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럼 넌 이미 마법을 많이 알고 있겠네."

위즐리 가족은 확실히 다이애건 앨리에서 만난 그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말했던 정통 있는 마법사 가족들 중 하나인 게 분명했다.

"난 네가 머글과 함께 살았다고 들었어." 론이 말했다. "머글은 어떤 사람들이니?" "끔찍해.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모와 이모부와 사촌은 그래. 내게도 마법사 형제가 세 명쯤

있었으면 좋겠어." "다섯이야." 론이 말했다. 무슨 이유인지, 그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형제 중에서 호그와트에 가는 건 내가 여섯 번째야. 그래서 주위의 기대가 정말 대단해.

빌 형과 찰리 형은 벌써 졸업했어. 빌 형은 수석 학생이었고 찰리 형은 퀴디치 주장이었어.

그리고 이제 퍼시 형은 반장이야. 프레드와 조지 형은 아주 장난꾸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적은 정말 좋고 아이들은 모두 그 쌍둥이 형들이 정말로 재미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나도

형들만큼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내가 잘한다 해도 별로 대단한 일은 못될 거야. 왜냐하면 형들이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만일 너한테도 형이 다섯이나 있다면 너 역시 절대로 새 걸

가질 수 없을 거야. 난 빌 형의 망토와, 찰리 형의 낚은 지팡이와, 퍼시 형의 늑은 쥐까지

모두 헌 것 뿐이야." 론은 재킷 속으로 손을 넣어 잠자고 있는 살쥔 잿빛 쥐 한 마리를 꺼냈다.

"이 쥐의 이름은 스캐버스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잠에서 거의 깬 적이 없거든. 퍼시 형은 반장이 되었다고 아빠에게서 부엉이를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

그래서 난 대신 스캐버스를 갖게 된 거지." 론의 컛볼이 새빨개졌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부엉이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조금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 역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돈이란 걸 가져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는 론에게,

두들리의 낚은 옷을 입어야 했고 제대로 된 생일 선물 하나 받아 본 적이 없었던 생활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론은 이 말을 듣고 나서야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 그리고 해그리드가 말해 줄 때까지, 난 마법사가 된대거나 부모에 대해서나 볼드모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론은 놀란 나머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러니?" 해리가 물었다.

"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다니!"

론은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난 어느 누구보다도 네가 그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말한 건 용감해 보이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가 아냐."

해리가 말했다. "난 그저 그래선 안된다는 걸 전혀 몰랐을 뿐이라구.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난 배워야 할 게 많아..... 정말이야." 그는 최근에 많이 걱정해 왔던 것에 관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틀림없이 난 학급에서 꼴찌할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머글 갖고

출신들도 많은데 개네도 아주 빨리 배운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 기차는 런던 교외로 빠져나갔다. 이제 기차는 소와 양 떼가 가득한 벌판을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들판과 좁다란

길이 확확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2시 반쯤 바깥 통로에서 달가닥달가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보조개가 움푹 들어간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객실 문을 열고 물었다. "뭐 좀 먹을래, 애들아?" 해리는 아침을 먹지 않았으므로 벌떡 일어났지만, 론은 컵볼이 새빨개져서는 샌드위치를 가져왔다고 중얼거렸다. 해리는 통로로 나갔다.

더즐리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사탕을 사 먹을 돈도 가져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의 주머니는 초콜릿 바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 그러나 그 여자는 초콜릿 바는 갖고 있지 않았다 - 금화와 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온갖 맛이 나는 젤리와, 풍선껌과, 개구리 모양의 초콜릿과, 호박 파이와, 큰 냄비 모양의 케이크와, 감초로 만든 요술지팡이와, 해리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었다. 해리는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걸 조금씩 사고 그 여자에게 은화 11시클과 동화 7넛을 냈다.

해리가 산 것을 모두 객실 안으로 갖고 들어와 빈자리에 쏟아 붓자 론이 뻘뻘 바라보았다. "배고픈가 보구나, 그렇지?"

"죽을 지경이야." 해리가 호박 파이를 크게 한 입 베어 먹으며 대답했다.

론은 둥그런 꾸러미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샌드위치가 네 개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떼어 내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쇠고기 소금절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늘 잊어버리신단 말야." "이거 하나와 바구나." 해리가 파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서....." "넌 이것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 말라 비틀어졌거든." 론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가 얼른 덧붙였다. "알다시피, 우리 다섯 형제 때문에 말야." "자 어서, 파이 하나 먹어." 해리가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와 월 나눠 먹은 적이 없었다. 아니, 실은, 나눠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론과 함께 거기에 앉아, 파이와 케이크와 사탕을 먹는 기분은 정말 괜찮았다(샌드위치는 까맣게 잊어 버렸다).

"이것들은 뭐지?" 해리가 개구리 모양의 초콜릿 상자를 들고서 론에게 물었다. "진짜 개구리는 아니겠지?" 그는 이제 무엇을 봐도 놀랄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론이 말했다. "하지만 카드는 뭔지 봐. 난 아그리파였으면 좋겠어." "뭐라구?"

"아참, 넌 모르겠구나. 초콜릿을 사면,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어. 있잖아, 유명한 마녀나 마법사들의 사진을 모으는 것 말야. 난 500장 정도 모았는데, 아그리파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아직 하나도 없거든." 해리는 개구리 초콜릿 하나를 뜯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 카드엔 어떤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반달 모양의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길고 구부러진 코에, 멋지게 드리워진 은빛 머리카락과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사진 밑에는 '알버스 덤블도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사람이 덤블도어구나!" 해리가 소리쳤다.

"설마 덤블도어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론이 말했다. "나 개구리 초콜릿 하나 먹어도 되니? 아그리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마워....." 해리는 카드를 뒤집어 읽었다.

알버스 덤블도어 / 현 호그와트 교장

수 많은 사람들에게서 현대의 최고 마법사로 인정받는 덤블도어는, 특히 1945년에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물리친 것과, 용의 피를 사용하는 방법 12가지를 발견한 것, 그리고 그의 파트너 니콜라스 플라멜과 함께 연금술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덤블도어 교수는 실내악과 텐핀 볼링을 즐긴다.

해리가 카드를 뒤집어 보자 놀랍게도 덤블도어의 얼굴이 사라지고 없었다.

"얼굴이 없어졌어!"

"원래 그런 거야." 론이 말했다. "다시 올 거야. 아니, 이거 또 마녀 모르거나잖아. 여섯 장이나 있는데..... 너 가질래? 너도 모아 봐." 론의 눈이 아직 남아 있는 개구리 초콜릿 더미 쪽으로 돌아갔다.

"먹어." 해리가 말했다. "머글 세계에서는 사진 속의 사람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 "그래? 뭐냐, 그럼 사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단 말야?" 론은 놀란 것 같았다.

"신기하군!" 해리가 뚫어지게 바라보자 덤블도어가 다시 카드 사진으로 스르르 들어와 그에게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론은 유명한 마녀나 마법사들의 카드를 보는 것보다 개구리 초콜릿을 먹는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해리는 카드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곧 덤블도어와 모르거나뿐만 아니라, 우드크로프트의 헨지스트와, 알베릭 그루니온, 키르케,

파라셀수스, 멀린도 나왔다. 마침내 코를 긁적이고 있는 마법사 클리오드나에게서 눈을 떼고, 갖가지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 봉지를 뜯었다.

"그런 건 조심해야 해." 론이 해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건 온갖 맛이 나는 젤리인데, 그야말로 별의별 맛이 다 있거든. 운이 좋으면 초콜릿이나 페퍼민트나 마멀레이드 같은 맛이 나는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시금치나 간이나 내장 맛이 나는 걸 먹게 될 수도 있어. 조지 형은 한번은 아주 이상한 맛이 나는 걸 먹거었었지." 론은 초록색 젤리를 하나 집어 들고, 유심히 살핀 뒤, 한쪽 귀통이를 조금 베어 먹었다.

"으으으..... 봤지? 양배추 맛이야."

그들은 강낭콩 젤리를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해리는 구운 빵, 코코넛, 구운 콩, 딸기, 풀, 커피, 정어리 맛이 나는 젤리를 먹었고, 심지어는 론이 손도 대지 않는 이상한 회색 젤리를 조금 뜯어 먹기까지 하는 용기를 보였지만, 그건 알고 보니 후추 맛이였다.

이제 창문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지고 있었다. 산뜻한 들판은 사라지고 없었다. 숲과 구불구불한 강줄기와 암록색의 언덕이 보였다.

그때 객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나더니, 해리가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서 지나쳤던, 동그란 얼굴의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그는 잔뜩 울상을 짓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 두꺼비 한 마리 못봤니?" 그들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 애가 울면서 말했다. "잃어버렸어! 그 녀석은 자꾸만 달아나려고 해!" "나타나겠지." 해리가 말했다.

"그러겠지." 그 아이가 불쌍하게 말했다. "그래도, 혹시 두꺼비를 보면....." 그 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 버렸다.

"재는 왜 그까짓 두꺼비 한 마리 갖고 저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론이 말했다. "만약 나한테 그런 두꺼비가 있다면 난 차라리 잃어버린 셈치고 찾아다니지 않을 거야. 나도 스캐버스를 가져왔으니, 할 말은 없지만 말야." 쥐는 아직도 론의 무릎에서 졸고 있었다.

"이 녀석은 언제나 이래. 늘 이렇게 잠만 자고 있거든." 론이 넋더리가 나서 말했다. "어제는 이 녀석을 더 재미있게 보이게 하려고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 마법이 듣지를 않더라구. 보여줄게, 자....." 론은 가방 속을 뒤적거리더니 아주 낡아 보이는 지팡이를 하나 꺼냈다. 그것은 여기저기가 조금 깨져 있었는데 끝에는 뭔가 하얀 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니콘의 머리털이 조금 빠져 나온거야. 어쨌든....." 그가 지팡이를 들어올렸을 때 객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또 두꺼비를 잃어버린 그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아이와 함께였다. 여자아이는 벌써 새 호그와트 망토를 입고 있었다.

"두꺼비 한 마리 본 사람 없니? 네빌이 잃어버렸거든."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 아이는 으스스대는 목소리에, 술이 많은 갈색 머리, 그리고 조금 큰 앞니를 갖고 있었다.

"본 적이 없다고 아까 말했는데." 론이 대답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론의 손에 들리 지팡이를 보고 있었다.

"어머, 너 마법 부리려고 하는 거니? 그럼 한번 해봐."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론은 깜짝 놀랐다.

"어..... 좋아."

론은 목을 가다듬었다.

"햇빛이여, 데이지여, 버터 멜로우여, 이 멍청하고, 살찐 쥐를 노랄게 바꾸어라."

론이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캐버스는 그대로 잤빛인 데다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

"그 주문(呪文)이 확실하니?" 여자아이가 물었다. "글쎄, 썩 훌륭하진 않은데, 안 그래? 나도 연습으로 간단한 주문 몇 개는 해봤는데 다 들었었거든.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마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호그와트에서 온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 물론 난 굉장히 기뻐지만 말야. 난 호그와트가 최고의 마법학교라고 들었거든. 난 교과서를 몽땅 외워 버렸어. 그거면 충분하길 바랄 뿐이야. 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야.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니?" 그녀는 이 모든 말을 아주 빨리 했다.

론을 바라본 해리는 어리벙벙해진 그의 표정으로 보아 론 역시 교과서를 모두 외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도했다.

"론 위즐리야." 론이 우물우물 말했다.

"해리 포트야."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니?"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난 물론 너에 대해 모든 걸 알아. 난 예비 지식용으로 책을 몇 권 더 샀는데 《현대 마법의 역사》와 《어둠의 마법의 변명과 몰락》과 《20 세기의 위대한 마법사 사건》이라는 책에 네가 나와 있었어." "내가?" 해리는 어리둥절해졌다.

"이럴 수가. 난 몰랐니? 내가 너였다면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찾아냈을 거야."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너희들 혹시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 계속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난 그리핀도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거기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 덤블도어도 거기에 있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레번클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건 그렇고, 이젠 네발의 두꺼비를 찾아 보는 게 좋겠다. 너희 둘도 옷을 갈아입는게 좋을 거야. 곧 도착할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두꺼비를 잃어버린 그 아이를 데리고 가 버렸다.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든, 저 여자아이와 같은 기숙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론이 말했다. 그는 지팡이를 다시 가방 속으로 던졌다. "빌어먹을 주문 같으니라구. 그건 조지 형이 가르쳐 준 건데, 형은 틀림없이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거야." "네 형들은 어느 기숙사에 있니?" 해리가 물었다.

"그리핀도르." 론이 다시 침울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와 아빠도 거기 계셨었어.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난 레번클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내가 슬리데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레 바로 볼..... 내 말은, 그 사람이 들어갔던 기숙사지?" "그레." 론이 말했다. 그는 의기소침해진 표정으로 맥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 스캐버스의 수업 끝이 약간 더 밝아진 것 같아." 해리는 론이 기숙사 생각을 떨쳐 버리도록 애쓰면서 말을 걸었다. "그런데 네 형들은 졸업하고 지금은 뭐하니?" 해리는 학교를 마치면 마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찰리 형은 루마니아에서 용을 공부하고 있고, 빌 형은 아프리카에서 그린고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론이 대답했다. "너 그린고트에 대해 들어봤니? 《예언자 일보》엔 어디나 나와 있지만, 네가 머글들과 함께 그곳에 갔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 급 금고를 털려고 했었대." "정말이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하지만 그 사건이 그렇게 대형 뉴스가 되었던 건 바로 그랬기 때문이야.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 우리 아빠는 그린고트까지 손을 뻗은 건 틀림없이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짓을 거라고 하시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해.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들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겁을 먹지." 해리는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그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무서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게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걱정하지 않고 '볼드모트'라고 말할 때가 훨씬 더 편안했었다.

"그런데 넌 어느 퀴디치 팀 팬이니?" 론이 물었다.

"어..... 난 아는 팀이 없어." 해리가 솔직히 말했다.

"뭐라구!" 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면 알게 될거야.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야....." 그리고는 그는 공 네 개와 선수 일곱 명의 위치에 대해 모두 설명하고는, 형들과 함께 가 봤던 유명한 경기들과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빗자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순간, 객실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꺼비를 잃어버린 네빌도, 헤르미온드 그레인저도 아니었다.

남자아이 세 명이 들어왔는데, 해리는 그 중간에 있는 아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아인 바로 말킨 부인의 옷가게에서 본 그 창백한 아이였다. 그 애는 다이애건 앨리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니?" 그가 물었다. "기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해리 포터가 이 객실에 있다고 하던데. 그게 너니, 그래?" "맞아." 해리가 대답했다. 해리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두 명 다 땀말막하고 아주 심술궂게 생긴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은 꼭 보디가드처럼 창백한 아이 양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아참, 이쪽은 크레이브고 이쪽은 고일이야" 그 창백한 아이가 해리가 보고 있는 곳을 살피며 무심코 말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말포이야, 그레이코 말포이." 론은 웃음을 참고 있었던지, 약간 기침 소리를 냈다.

"내 이름이 웃긴다 이거니? 네가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구나. 위들리 가족은 모두 빨간 머리에 주근깨투성이에다, 형편에 맞지 않게 아이들을 턱없이 많이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그는 다시 해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도 곧 어느 마법사 가족이 더 좋은지 알게 될거야, 포터. 나쁜 부류의 아이들과 사귀고 싶지는 않겠지. 난 널 도와줄 수 있어." 그는 해리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해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어떤 아이가 나쁜 부류인지는 나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어, 고마워."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창백한 양볼이 약간 붉어졌다.

"내가 너라면 조심할 거야, 포터." 그가 천천히 말했다. "조금 더 공손하게 굴지 않는다면, 너도 네 부모와 똑같은 꼴이 되고 말거야. 네 부모도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몰랐어. 네가 위즐리 가족이나 저 헤그리드 같은 쓰레기들과 어울리면 가치가 떨어질거야." 해리와 론 모두 벌떡 일어났다.

"그 말 한번 더 해봐." 론이 얼굴이 머리카락만큼이나 빨개져서 말했다.

"그래, 우리와 한 번 붙어보겠다, 이거니?" 말포이가 코웃음을 쳤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았다간....."

해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용감해 보이게 말했던 것은 크레이브와 고일의 몸집이 자기나 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안그러니 애들아? 우리 가져온 음식을 다 먹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조금 남은 것 같으니 말야." 고일은 론 옆에 있는 개구리 초콜릿 쪽으로 손을 뻗었다. 론이 달려들려고 하는 찰나, 고일은 갑자기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어느새 스캐버스가 고일의 손가락 마디 깊숙이 날카로운 작은 이빨을 박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고일이 울부짖으며 스캐버스를 빙빙 돌리자 크레이브와 말포이는 꿈무늬를 뺐고, 스캐버스가 마침내 떨어지면서 창문에 부딪히자, 세 명 모두 줄행랑을 쳤다. 그들은 그 과자 속에 쥐가 더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잠시 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가 마룻바닥에 널브러진 과자들과 스캐버스의 꼬리를 잡고 있는 론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애들 깜짝 놀랐겠지?" 론이 해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스캐버스를 자세히 둘러다보았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녀석이 다시 잠들어 버렸어." 쥐는 정말 다시 잠이 들어 버렸다.

"너 말포이 만난 적 있지?"

해리는 다이애건 앨리에서 그와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그 애의 가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론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사라진 뒤 가장 먼저 우리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대. 그들이 악마의 마법에 걸려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아. 말포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둠의 세계로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론은 헤르미온느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지?" "너희들 빨리 망토로 갈아입는 게 좋겠어. 내가 막 저 앞에서 차장에게 물어봤는데, 거의 다 왔대. 너희들 싸운 건 아니지? 그랬다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을 받게 될거야!" "스캐버스가 싸웠어. 우리는 아냐." 론이 그녀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옷 좀 갈아입게 나가 줄래?" "좋아. 난 그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통로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린애들같이 굴길래 여기에 들어온 것뿐이야." 헤르미온느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렇고, 네 코에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거 알고 있지?" 론은 나가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진한 자주빛 하늘 아래에 산과 숲이 보였다. 기차가 확실히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와 론은 재킷을 벗고 길고 까만 망토를 입었다. 론의 망토는 그에게 약간 짧아서, 그 밑으로 운동화가 보였다.

그때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5 분 뒤 호그와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짐은 따로 학교에 보내질 테니 기차에 그대로 두십시오." 긴장해서인지 해리는 갑자기 위가 비틀렸고, 론의 주근깨투성이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남은 과자를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통로에 떼지어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끼었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멈춰 섰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문 쪽으로 나아가, 작고 어두운 승강장으로 나왔다. 해리는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몸을 떨었다. 잠시 후 등불 하나가 학생들의 머리 위로 깜빡깜빡 움직이며 왔고, 해리는 친근한 목소리를 들었다.

"1 학년들! 1 학년들은 여기로! 저기 있군, 해리?"

털투성이인 커다란 해그리드의 얼굴이 수많은 머리들 위에서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자, 따라와. 1학년들 또 있니? 자, 발밑을 조심해! 1학년들은 날 따르도록!" 그들은 미끄러지고 발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해그리드를 따라 가파르고 좁은 길로 내려갔다. 어느쪽을 보아도 매우 어두웠으므로 해리는 울창한 숲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두꺼비를 계속 잃어버리는 네빌만이 한두 번 콜골 훌쩍거렸을 뿐이다.

"잠시 후면 호그와트를 처음으로 보게 될 거야." 해그리드가 어깨 너머로 크게 말했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자 '우우!' 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좁다란 길이 끝나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시커먼 호수가 나왔다. 맞은편의 높은 산꼭대기에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작은 성채들이 모인 거대한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한 배에 네 명씩." 해그리드가 호숫가에 있는 작은 배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해리와 론이 배에 타자 네빌과 헤르미온느가 따라왔다.

"다 탔니?" 해그리드 자신은 배에 혼자 올라타며 소리쳤다. "자 그럼, 앞으로!" 그리고는 작은 배들이 동시에 잔디처럼 부드러운 호수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모두 머리 위에 있는 그 거대한 성만 뚫어지게 올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성이 서 있는 절벽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절벽이 머리에 닿을 것 같았다.

"머리 숙여!"

첫 번째 배가 절벽에 다다랐을 때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그들은 모두 머리를 꼭 숙였고 그 작은 배들은 절벽 면에 붙어서 넓은 통로를 가리고 있는 담쟁이덩굴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 바로 밑으로 나 있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따라가자, 지한 선착장 같은 곳에 도달했다. 그들은 바위와 자갈들 위로 기어 올라갔다.

"거기 너! 이게 네 두꺼비니?"

아이들에 배에서 다 기어 나오자, 배를 살피던 해그리드가 소리르 질렀다.

"트래버!"

네빌이 너무 기빠서 양손을 뻗으며 외쳤다. 그리곤 그들은 해그리드의 등불을 따라 바위 사이의 통로로 기어 올라가 마침내 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드럽고 축축한 잔디 위로 나왔다.

그들은 빨리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 거대한 오크 문 주위에 모였다.

"모두 다 왔나? 거기 너, 두꺼비 아직 갖고 있지?"

해그리드가 거대한 주먹으로 성문을 쿵쿵 세 번 두드렸다.

제 7 장 마법의 모자

성문이 금방 뚫어지더니 에메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새까만 마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어찌나 엄격해 보였던지 해리는 그녀가 전혀 웃을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입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해그리드가 보고했다.

"고마워요, 해그리드. 여기서부터는 내가 데려갈게요." 그녀는 문을 당겨서 활짝 열었다. 현관 안의 홀이 어찌나 큰지 더즐리네 집이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다. 돌 벽은 그린고트에 있는 것과 같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며, 앞에 있는 장대한 대리석 계단은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돌이 깔린 바닥을 지나갔다. 해리는 오른쪽 현관에서 수백 명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학년들도 도착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홀을 지나 1학년들을 자그마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서로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 다닥다닥 붙어 서서, 맥고나걸 교수를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호그와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인사를 했다. "학기 시작을 축하하는 연회가 곧 시작되겠지만, 연회장에 자리를 잡기 전에, 기숙사 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숙사 배정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은, 같은 기숙사 동료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들과 수업도 함께 듣고, 잠도 같이 자면, 기숙사 학생 휴게실에서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는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래번클로, 그리고 슬리데린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각 기숙사에는 나름대로의 훌륭한 역사가 있으며 각각 다 뛰어난 마녀와 마법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호그와트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은 여러분이 속한 기숙사의 점수를 높일 것이고, 어떤 규칙이든 어기게 되면 감점이 될 것입니다. 학년 말에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기숙사에게 굉장히 영예로운 상인 기숙사 우승컵이 수여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속한 기숙사의 명예를 빛내기 바랍니다.

기숙사 배정식은 몇 분 뒤 전교생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모두 가능한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길 바랍니다."그녀의 눈이 왼쪽 귀밑에서 동여매진 네빌의 망토와 론의 더러운 코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해리는 초조하게 머리카락을 눌하려고 애썼다.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그리고 그녀는 그 방을 나갔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기숙사에는 정확히 어떻게 배정되는 거지?" 그가 론에게 물었다.

"시험을 보겠지. 프레드는 그게 굉장히 아프다고 했지만, 농담일거야."해리는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시험? 전교생 앞에서? 하지만 그는 아직 어떤 마법도 알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그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겁먹을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떠돌어대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만이 이미 암기한 주문을 빠른 속도로 중얼거리며 어느 게 필요할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그렇게 긴장했던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단 한번도. 그는 심지어 선생님의 가발을 파랗게 변하게 했다는 학교 통지서를 더즐리 가족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던 때보다도 더 긴장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금방이라도, 맥고나걸 교수가 들어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얼마 후, 놀라서 30 센티미터쯤 펄쩍 뛰어오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뒤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비명을 질렀다.

"뭐, 뭐야.....?"

해리는 숨이 막혔다. 그의 주위에 있던 아이들도 그랬다. 스무 명 정도의 유령이 뒷벽에서 잇달아 나왔던 것이다. 진줏빛이 나고 약간 투명한 그들은 1학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수도사처럼 생긴 살쥔 유령이 말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 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자구....."프라이어, 피브스에겐 기회를 줄 만큼 주지 않았어? 그는 우리에게 온갖 나쁜 욕설이란 욕설은 다 퍼부었어.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진짜 유령도 아니라구. 어? 그런데 어희들 모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주름 깃옷에 타이즈를 신은 유령이 갑자기 1학년들을 발견하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신입생들이로군!" 뚱뚱한 프라이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정 받으려고 하는 거지?"몇 사람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후플푸프에서 만나길 바래!" 프라이어가 말했다. "내가 있던 기숙사지." "준비 다 됐나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기숙사 배정식이 곧 시작됩니다."맥고나걸 교수가 돌아왔다.

유령들이 하나씩 맞은편 벽으로 동동 떠갔다.

"자, 줄을 서요. 그리고 날 따라와요."

해리는 이상하게도 다리가 납으로 변해 버린 것처럼 무거워진 기분을 느끼며, 론과 함께 황토 빛깔의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아이 뒤에 섰다. 그리고 그 방을 걸어나가 다시 홀을 지난 뒤 이중문을 지나 넓은 연회장으로 갔다.

해리는 그렇게 이상야릇하고 멋진 곳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연회장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네 개의 기다란 테이블 위에 둥둥 떠있는 수천 개의 촛불로 밝혀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반짝이는 황금 접시와 받침 달린 잔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연회장 위에는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긴 테이블이 하나 더 있었다. 1학년들은 선생님들을 뒤에 두고, 재학생들을 향해 일렬로 섰다. 그들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얼굴이 깜박거리는 촛불에 비치어 꼭 창백한 초롱처럼 보였다. 희미한 은빛을 띤 유령들이 학생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해리는 뻔히 바라보는 눈동자들을 피하려고 위를 올려다보았다가 벨벳처럼 까만 천장에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헤르미온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법을 써서 진짜 하늘처럼 보이게 만든거야. 《호그와트 발달사》에서 읽었어." 연회장이 하늘로 뱅 뿔려 있지 않고, 중간에 천장이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1학년들 앞에 조용히 의자 하나를 놓자, 해리는 얼른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의자 위에 뾰족한 마법사 모자 하나를 놓았다. 이 모자는 누덕누덕 기워지고 해진 데다 아주 더럽기까지 했다. 페투니아 이모였다면 집 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어쩌면 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야만 할지도 몰라. 해리는 무턱대고 그런 종류의 시험일 거라고 생각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모두 그 모자에 쏠려 있었다. 잠시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 모자가 씰룩거렸다. 그리고는 모자 테두리 부분의 해진 곳이 입처럼 넓게 벌어지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멋진 모자를 찾을 수 있다면

난 나를 그냥 먹어 버릴 거예요.

까만 종절모를 써도 좋고, 맵시 있고 높은 신사모자도 괜찮아요, 난 호그와트의 기숙사를 배정하는 마법 모자예요, 나는 모든 모자들을 다 덮어 버릴 수 있어요.

당신 머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숙사를 배정하는 마법 모자는 모두 볼 수 있어요

나를 써 봐요 그러면 말해 줄게요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은 그리핀도르에 속할지도 몰라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기사도 정신은

글리핀도르의 특징이죠.

당신은 후플푸프에 속할지도 몰라요, 그곳 사람들은 정의롭고 성실하죠, 참을성 있는 후플푸프 사람들은 진실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현명하고 사려 깊은 래번클로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어요.

또 슬리데린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의 재간꾼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날 써 보세요! 겁내지 말고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아요!

마음 폭 놓고 내 손에 맡겨요(내게 손은 없지만요).

나는 생각하는 모자니까요!

그 모자가 노래를 마치자 연회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자가 네 테이블에 모두 절을 하자 다시 아주 조용해졌다.

"그럼 그저 저 모자를 쓰기만 하면 되는군." 론이 해리에게 속삭였다. "프레드 형을 가만 놔두나 봐라. 형은 계속 트롤(지하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 괴물들, 거인 또는 난쟁이로 묘사됨 : 옮긴이) 같은 괴물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었거든." 해리는 무기력하게 미소지었다.

모자를 쓰는 게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야 훨씬 나았지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모자를 썼으면 했다. 모자가 분류하는 어느 곳에도 자신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감하지도 않고 재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만일 그 모자가 약간 소심한 사람들을 위해 기숙사를 언급했다면, 거기가 바로 자기가 들어갈 기숙사일 것이다.

맥고나걸 교수가 긴 양피지 두루말이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이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으면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보트, 한나!" 금발버리를 딸아 늘인 핑크빛 얼굴의 여자아이가 비틀거리며 줄에서 나와, 바로 그녀의 눈 위까지 덮은 그 모자를 쓰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후플푸프!" 모자가 소리쳤다.

한나가 오른쪽에 있는 후플푸프 테이블로 가서 앉자 그곳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해리는 뚱뚱한 프라이어 유령이 한나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걸 보았다.

"본즈, 수잔!"

"후플푸프!" 모자가 다시 소리치자, 수잔이 쭉쭉 달려가 한나 옆에 앉았다.

"부트, 테리!"

"래번클로!"

이번엔 왼쪽에서 두 번째 테이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몇 명의 래번클로 사람들은 테리가 그들에게 합류하자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 일어서기도 했다.

'브로클허스트, 맨디' 역시 래번클로로 갔지만, '브라운, 라벤더'가 첫 번째 그리핀도르가 되자, 멀리 있는 왼쪽 테이블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해리는 론의 쌍둥이 형들이 휘파람을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벌스트로드, 밀리센트'는 슬리데린이 되었다. 그곳에 대해 나쁜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그들은 왠지 다 심술궂게 생긴 것절머 보였다.

해리는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해리는 옛날에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 팀에 들어갈 때의 일이 생각났다. 해리는 언제나 가장 마지막으로 뽑혔었는데, 그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들 두들리 눈치를 보느라 해리를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핀치 플레츨리, 저스틴!"

"후플푸프!"

해리는 모자가 어떤 때는 즉시 기숙사 이름을 외치고, 어떤 때는 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걸 알아챘다. 해리 바로 뒤에 서 있던 황토 빛깔 머리카락을 가진 '피니간, 시무스'는 의자에 한참동안 앉아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모자가 그리핀도르라고 알려주었다.

"그레인저,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는 거의 달리다시피 의자로 가서 모자를 머리에 폭 눌러썼다.

"그리핀도르!" 모자가 소리쳤다. 그러자 론이 투덜거렸다.

아주 긴장했을 때는 늘 그렇듯이, 해리에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느 기숙사에도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모자를 쓰고 저기에 한참 동안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가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툭 내뱉으면 어떡하지?자꾸만 두꺼비를 잃어버리는 아이인 네빌 롱바텀은 이름이 불려지자, 의자로 걸어가다가 그만 옆에지고 말았다. 네빌의 경우엔 모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모자가 마침내 '그리핀도르'라고 외치자, 네빌이 모자를 쓴 채로 달려 나가는 바람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다시 터벅터벅 돌아와 모자를 다음 차례인 '맥도걸, 모랙'에게 건네야 했다.

말포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자 으스스대며 걸어나가 모자가 머리에 달기도 전에 '슬리데린!'이라며 큰 소리로 소망을 말했다.

말포이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친구들인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합류했다.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문'..... '노트'..... '파킨슨'..... 그리고 쌍둥이 '패틸'자매..... 다음은 '팩스, 샬리 앤'.....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포터, 해리!"

해리가 앞으로 걸어나가자, 쉿 하고 타는 불처럼 갑자기 연회장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포터'라고 했니?"

"해리 포터?"

모자가 눈 위를 덮을 때까지 해리는 연회장을 꼭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걸 보았다. 그 후에는 모자의 까만 내부만이 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음," 그의 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렵군, 어려워. 용기가 가득 차 있군. 불량한 마음은 없고. 재능도 있군, 오 이럴수가, 그래.....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멋진 열망, 거 참 흥미롭군..... 그런데 널 어디에 넣어야 하지?"해리는 의자 가장자리를 꼭 잡고 생각했다. 슬리데린은 아냐. 슬리데린은 아냐.

"슬리데린은 아니라고?"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확실해? 넌 위대해질 수 있어. 여기 네 머리 속에 다 있다구. 슬리데린은 네가 위대해지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야,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니라고? 그럼, 네가 확신한다면..... 그리핀도르가 나올거야!"해리는 모자가 마지막 말을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모자를 벗고

해리는 비틀거리며 그리핀도르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선택되었다는 것과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어찌나 마음이 놓였던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큰 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반장이 퍼시도 일어서서 손을 힘차게 흔들었고,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포터가 우리 기숙사에 왔다! 포터가 우리 기숙사에 왔다!"라고 환성을 질렀다. 해리는 앞서 보았던 주름 깃옷을 입고 있는 유령 맞은편에 앉았다. 그 유령이 그의 팔을 토닥거렸는데, 해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 같은, 오싹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쪽에는 해그리드가 앉아 있었는데, 그와 눈이 마주치자 잘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 보였다. 해리도 씩 웃어주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황금빛 의자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앉아 있었다. 해리는 기차를 타고 올 때 개구리 초콜릿에서 나온 카드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으므로 금방 알아보았다. 덤블도어의 은발은 그 연회장에서 유령들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해리는 리키 콜드런에서 만났던 안절부절못하는 젊은 퀴벌 교수도 발견했다. 큰 자춧빛 터번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주 특이해 보였다.

아직 배정 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론보다 키가 훨씬 더 큰 흑인 아니 '토마스, 딘'은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왔고, '터핀, 리사'는 래번클로가 되었다. 다음은 론의 차례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해리는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으로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모자가 소리쳤다.

"그리핀도르!"

론이 해리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자 해리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크게 박수를 쳤다. "잘했다, 론, 아주 잘했어." 퍼시 위즐리가 '자비니, 블레이즈'가 슬리데린으로 호명되는 사이 아주 점잔을 빼며 해리 너머로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두루마리를 돌돌 만 뒤 모자를 치웠다.

해리는 빈 황금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서야 배가 굉장히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호박 파이를 먹은 지 한참은 된 것 같았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일어서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학생들을 보는 게 더없이 기쁜 듯이, 양팔을 넓게 벌리고, 학생들에게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다. "호그와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바보, 울보, 쓰레기, 모두 모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두 박수 갈채를 보냈다. 해리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저분..... 조금 미쳤어요?" 해리는 미심쩍은 듯 퍼시에게 물었다.

"미쳤다구?" 퍼시가 쾌화하게 말했다. "저 분은 천재야! 세상에서 최고의 마법사라구! 하지만 좀 미치긴 했지, 그래. 감자 먹을래, 해리?" 해리는 입이 딱 벌어졌다. 앞에 있는 접시들에는 어느새 음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그는 한 테이블에 먹고 싶은 음식이 그렇게 많이 차려져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구운 쇠고기, 구운 닭고기, 돼지 갈비살과 양 갈비살, 소시지, 베이컨과 스테이크, 삶은 감자, 구운 감자, 감자 튀김, 요크셔 푸딩, 콩, 당근, 그레이비 소스, 케첩,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페퍼민트 박하사탕까지 없는 게 없었다.

더즐리 가족은 엄밀히 말해 해리를 굶긴 건 아니었지만, 해리는 한번도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본 적이 없었다. 두들리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해라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 먹었다. 해리는 박하사탕을 빼고는 모든 음식을 조금씩 접시에 잔뜩 담은 뒤 먹기 시작했다. 뭐든지 정말 맛있었다.

"그것 참 맛있어 보이는군." 주름 깃옷을 입은 유령이 해리가 스테이크를 자르는 것을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다.

"드실래요?"

"나는 거의 400 년 동안 먹지 않았어." 유령이 말했다. "난 물론 먹을 필요가 없지만, 아쉽긴 하지. 참, 날 소개했던가? 니콜라스 드 밌시 포르핑턴 경이야. 잘 부탁해. 그리핀도르 탑에 사는 유령이지." "누군지 알아요!" 론이 갑자기 말했다. "형들이 말해 줬어요. 목이 달랑달랑한 녀석이죠!" "그보다는 날 니콜라스 드 밌시 경이라고 불러 주면 좋겠구나....." 유령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하자, 황토 빛깔 머리카락을 가진 시무스 피니간이 끼어들었다.

"목이 달랑달랑하다뇨? 어떻게 목이 달랑달랑할 수 있죠?"니콜라스 경은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원했던 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인지 아주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가 통명스럽게 말하며 왼쪽 귀를 쪽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의 머리통이 목 한쪽에서 뚝 떨어져 나오더니 경첩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깨 위로 늘어졌다. 누군가가 그의 목을 베려고 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을 보고 재미있어하면서 머리는 다시 목으로 획 던져 올리고,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핀도르들이군! 우리가 금년에 기숙사 챔피언이 되도록 도와주길 바래요. 그리핀도르는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 슬리데린이 6년 동안 줄곧 우승컵을 거머쥐었지! 피투성이 바론이 거들먹거리는 건 이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는 슬리데린의 유령이야."슬리데린 테이블을 넘겨다 본 해리는 그곳에 은빛 피로 얼룩진 망토를 입은 무서운 유령 하나가 멍한 눈에, 무시무시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걸 보았다. 그는 말포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녀석이 좌석 배치에 아주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자, 해리는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저 유령은 왜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거죠?" 시무스가 관심이 많은 듯 물었다.

"물어본 적 없어."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우아하게 말했다.

모두가 먹을 만큼 먹자, 음식은 접시가 반짝거릴 정도로 자취도 없이 싹싹 비워졌다. 잠시 뒤 후식이 나왔다. 각종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과, 애플파이, 당밀 타트(과일 등이 들어 있는 파이 : 옹긴이), 초콜릿 에클레어(가늘고 긴 초콜릿에 슈크림을 뿌린 것 : 옹긴이), 잼 도너츠, 트라이플(포도주에 담근 카스텔라 류 : 옹긴이), 딸기, 젤리, 쌀 푸딩.....

해리가 당밀 타트를 먹을 때, 대화가 가족 이야기로 바뀌었다.

"난 반반이야." 시무스가 말했다. "아빠는 머글이서. 엄마는 두 분이 결혼하신 뒤에도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빠에겐 약간 충격이었지."다른 아이들이 소리내어 웃었다.

"너는 어떠니, 네빌?" 론이 물었다.

"난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 마녀야." 네빌이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랫동안 내가 완전히 머글이라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동생되는 앨지 할아버지는 내가 방심하는 사이 계속해서 내게서 어떤 마법을 끌어내려고 애쓰셨어. 한 번은 블랙플 부두 끝에서 날 밀어내기도 하셨지. 하지만 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앨지 할아버지가 저녁을 드시러 오셔서, 갑자기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이층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았어. 그때 갑자기 에니드 대고모가 와서 할아버지께 머랭(설탕과 달걀 흰자위 등을 섞어 구워서 파이 등에 입힌 것 : 옹긴이)을 드리자, 잘못해서 그만 손을 놓고 말았어. 그런데 내가 정원으로 살짝 뛰어 내린 거야. 모두들 정말로 기뻐하셨지.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 너무 기뻐서 말야.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얼굴을 너희들이 봐야 했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곳에 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셨거든. 앨지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내게 두꺼비를 사주셨던 거야."해리 맞은 편에서는 퍼시 위즐리와 헤르미온드가 수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난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난 특히 변신술에 관심이 있어요.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 말예요. 물론 그건 아주 어렵겠지만요.") "너희들은 아마 작은 것, 성냥을 바늘이나 뭐 그런 걸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거야.")해리는 몸이 따듯해지자 졸린 눈으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해그리드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덤블도어 교수와 얘기하고 있었다. 이상한 터번을 쓴 퀴렐 교수는, 매끄러운 까만 머리에, 매부리코, 그리고 살갗이 누르스름한 어떤 선생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 매부리코 선생인 퀴렐 선생의 터번 너머로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자, 해리의 이마에 난 흉터에 날카롭고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야!" 해리는 손으로 머리를 탁 쳤다.

"왜 그러니?" 퍼시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냐."

통증은 곧 온데간데없어졌다. 해리는 그 선생의 표정에서 받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해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퀴렐 교수님과 말하고 있는 선생은 누구죠?" 해리가 퍼시에게 물었다.

"퀴렐은 이미 알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긴장하는 것도 당연하지. 저분은 스네이프 교수야. 마법의 약을 가르치지만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모두들 그가 퀴렐 교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스네이프 교수는 어둠의 마법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어."해리는 스네이프를 한참 쳐다보았지만,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마침내 후식도 다 없어지자,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일어섰다. 연회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에헴. 우리 모두 먹고 마셨으니 이제 몇 마디 더 할까 합니다. 학기 초에 여러분이 주의해 주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학년들은 정원의 모든 숲이 전교 학생들에게 출입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학년 몇 명도 그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덤블도어의 눈이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있는 쪽을 향해 번쩍었다.

"또한 학교 관리인인 필치 씨께서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는 어떤 마법도 부려선 안 되다는 걸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퀴디치 팀 선발 시험은 학디 둘째 주에 열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숙사를 위해 경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후치 부인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우측 3층 복도가 출입 금지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리는 웃었지만, 웃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농담이죠?" 해리가 퍼시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일걸." 퍼시가 덤블도어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 그 분은 보통 어디를 들어가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꼭 말해 주시거든. 예를 들어, 숲은 위험한 짐승이 널려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야. 그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말야. 난 적어도 우리 반장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 이제, 자러 가기 전에 다함께 교가를 부릅시다!" 덤블도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미소를 띠고 있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덤블도어가 마치 지팡이 끝에 붙은 파리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처럼, 요술지팡이를 확확 가볍게 치자, 지팡이에서 기다란 황금빛 리본이 훑날리더니, 테이블 위로 노이 올라가, 뱀처럼 비틀리면서 노래 가사로 변했다.

"모두들 아무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락으로 부르세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러면 시작!" 전교생이 고향지르듯 노래를 불렀다.

"호그와트, 호그와트, 호기 와티, 호그와트,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노인이건 대버리이건 무릎에 때가 낀 어린애들이건, 머리에 채울 것이 필요해요, 아주 재미있는 걸로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파리 시체와 솜털만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러니 배울 만한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잊었던 것을 알려 주세요, 그저 최선을 다해 주세요, 나머지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머리가 썩어 버릴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울게요."

모두들 각자 다른 시간에 교가를 마쳤다. 결국, 위즐리 쌍둥이 형제만이 남아 매우 느린 장송 행진곡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마지막 몇 소절은 요술지팡이로 지휘를 했고 그들이 노래를 마치자, 큰 소리로 박수를 쳐 주었다.

"오, 음악." 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진 마법이야! 자 이제, 취침시간. 모두 출발!" 그리핀도르의 1 학년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 퍼시를 따라 연회장을 빠져 나온 뒤 대리석 계단으로 올라갔다. 해리의 다리는 다시 납처럼 무거웠는데, 이번에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찌나 졸렸던지 복도를 지나갈 때 벽에 걸려 있는 초상화 속 인물들이 속닥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에도, 퍼시가 그들을 벽에 걸린 패널과 융단 뒤에 숨겨진 출입구로 데리고 간 것에도 놀라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품을 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갔고, 해리는 얼마나 더 가야 기숙사에 도착하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머리 위에는 지팡이 한 묶음이 뚝뚝 떠다니고 있었는데 퍼시가 그것들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그 지팡이들이 그에게 날아오기 시작했다.

"피브스야." 퍼시가 1학년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의 요정이지."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피브스, 모습을 보여봐!"그러자 풍선에서 바람이 새는 것 같은 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저 피투성이 바론에게 갔으면 좋겠어?"

그러자 평 하더니, 장난기 있는 까만 눈에 커다란 입을 가진 작은 남자 하나가 지팡이들을 움켜잡은 채, 책상다리를 하고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우우우!" 그가 고양이처럼 짹 짹 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꼬맹이 1학년들이로군!

재미있다!"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덤벼드는 바람에 학생들은 모두 허리를 책 속여야 했다.

"저리 가, 피브스, 그렇지 않으면 바론에게 말할거야. 정말이야!" 퍼시가 크게 호통쳤다.

피브스는 허를 쏙 내밀더니 네빌의 머리 위에 지팡이들을 떨어뜨리고는 갑옷 스치는 것 같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라져 버렸다.

"모두들 피브스를 조심해야 해" 다시 출발하면서 퍼시가 말했다. "피브스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피투성이 바론뿐이야. 그는 반장들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자 이제 다 왔다."복도 저 끝에 핑크빛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주 뚱뚱한 부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암호?" 부인이 말했다.

"캐롯 드레이코니스."

퍼시가 이렇게 말하자 초상화가 빙그르르 돌면서 벽에 동그란 구멍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급히 서둘러 들어가자 - 네빌은 다리가 걸릴 뻔했다 - 폭신평신했던 안락의자로 가득 찬 아늑하고 둥근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이 나타났다.

퍼시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각자 다른 문 쪽으로 안내했다. 나선형으로 감겨진 계단을 다 올라가자..... 그들은 그 여러 탑 가운데 어느 한 탑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침대가 나타났다. 사주식 침대(커튼이나 달집을 단 침대 : 웬만한) 다섯 개에 진한 자주빛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가방은 이미 도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말도 많이 하지 않은 채, 잠옷을 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맛있는 음식이었지?" 론이 커튼을 통해 해리에게 중얼거렸다. "저리 가, 스캐버스! 녀석이 내 시트를 갹아먹고 있어."해리는 론에게 당밀 타트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있지만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해리는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가 퀴렐 교수의 터번은 쓰고 있었는데, 그 터번은 그에게 계속해서 슬리데린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그의 운명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해리가 그 터번에게 슬리데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터번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벗어 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플 정도로 꼭 조여지기만 했다. 그리고 그 터번을 벗어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를 말포이가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는 말풍드는 곧 매부리코 선생인 스네이프가 되었는데, 그의 웃음소리는 한 층 더 높고 차가웠다. 그때 갑자기 초록색 불빛이 나타났고, 해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잠에서 깨어났다.

해리는 뒤척대다가 다시 잠들었고, 다음날 깬 때는 그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제 8 장 마법의 약 선생님

"저기, 봐."

"어디?"

"빨간 머리 아이 옆에."

"안경 쓰고 있어?"

"얼굴 봤어?"

"흉터 봤어?"

다음날 해리가 기숙사를 나온 순간부터 아이들은 줄곧 해리를 보고 수군댔다. 아이들은 그를 한 번 보려고 교실 밖에 죽 늘어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거나, 복도에서 그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급히 몸을 돌려 다시 달려와 뻘뻘 쳐다보기 일쑤였다. 해리는 그들 때문에 교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애들이 자기를 그냥 모른 척하기를 바랐다.

호그와트에는 142 개의 계단이 있었다. 넓고 단단한 것도 있었고, 좁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것도 있었다. 금요일에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통하는 것도 있었고, 반쯤 올라가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고 뛰어내려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공손하게 부탁하지 않거나, 특정한 곳을 문지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과, 진짜 문이 아니라 딱딱한 벽에 그저 문처럼 만들어져 있는 문도 있었다. 또한 모든 게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것 같았으므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초상화에 있는 인물들도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므로, 해리는 감옷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유령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열려고 하는 문 앞에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 소스라치게 놀라기가 일쑤였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새로 들어온 그리핀도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걸 기쁨으로 여겼지만, 소리의 요정 피브스는 수업에 늦은 학생을 만나면 문 두 개를 잠가 두거나 속임수 계단을 만들어 골탕을 먹이곤 했다. 그는 또 쓰레기통을 학생들 머리 위로 떨어뜨리거나, 닫고 서 있는 용단을 잡아 당기고, 분필을 집어 던지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몰래 다가가 코를 잡고는 "코 잡았다!" 하고 외치곤 했다.

피브스보다 훨씬 더 심한 장난을 치는 건, 학교 관리인 아구스 필치였다. 해리와 론은 첫날 아침에 바로 필치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이 문을 억지로 뚫고 지나가려는 걸 필치가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문은 공교롭게도 3층의 출입 금지 복도로 가는 문이었던 것이다. 필치는 길을 잃었다는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그 문을 부수려던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하 감옥에 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쿨렐 교수의 도움으로 해리와 론은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필치는 '노리스 부인'이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꼬 자기 주인처럼 툭 불거지고 등불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비쩍 마르고 뿌연 갈색을 띤 녀석이었다. 그 고양이는 혼자서 복도를 순찰하며 돌아다녔는데, 그 앞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털끝만치라도 벗어났다가는 당장 가서 필치에게 일러바쳤고, 그러면 잠시 뒤 필치가 씨근거리며 나타나곤 했다. 필치는 그 학교의 비밀 통로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아마도 위즐리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다면) 유령만큼이나 불쑥불쑥 나타났다. 학생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으므로 '노리스 부인'을 발로 세게 걷어차 보는 게 많은 학생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일단 우여곡절 끝에 교실을 찾아가도, 수업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시련이었다. 해리는, 마법에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몇 마디 우스꽝스런 주문을 외우는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자정에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별의 이름과 행성의 움직임을 배워야 했다. 또 일주일에 세 번씩, 스프라우트 교수라는 땅딸막한 마녀와 함께 성 뒤에 있는 온실에 나가 약초에 대해 공부해야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기이하게 생긴 식물과 곰팡이를 가꾸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 쓰임새도 익혔다.

물론 가장 재미 없는 수업은 유일하게 유령이 가르치는 '마법의 역사'라는 과목이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빈스 교수는 교무실 난로 앞에서 그대로 숨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몸은 남겨 둔 채 일어나 바로 수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빈스는 학생들이 이름과 날짜를 쓰는 동안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강의를 하닥, 악마 에머리스와 괴짜 마법사 유리스를 혼동하는 실수를 했다.

'마법' 수업 선생인 플리트웁 교수는 키가 너무 작아서, 교탁 너머로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쌓아 놓고 올라서야만 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출석을 불렀는데, 해리의 이름을 보고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딛고 올라선 책더미가 흔들거리더니 교탁 너머로 고꾸라져 버렸다.

반면에 맥고나걸 교수는 달랐다. 그녀가 절대로 웃을 것 같지 않다는 해리의 생각은 아주 적중했다. 엄격하고 목소리가 나는 그녀는,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변신술은 여러분이 호그와트에서 배워야 할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마법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수업 시간에 빈둥거릴 사람은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돼지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다. 모두 매우 감동받았으므로 얼른 시작하고 싶어 안달을 했지만, 그들은 곧 가구를 동물로 바꾸려면 한참이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복잡한 필기를 많이 한 뒤, 그들에게는 성냥 한 개씩이 주어졌고 바늘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성냥을 조금이라도 달라지게한 사람은 오직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뿐이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학급 아이들에게 성냥이 어떻게 완전히 은빛이 되고 끝이 뾰족하게 되었는지 보여준 뒤 헤르미온느에게 얇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정말로 고대해 왔던 수업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었는데, 퀴렐 교수의 수업은 알고 보니 아주 재미있었다. 그의 교실에서는 강한 마늘 냄새가 났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건 그가 루마니아에서 만난 흡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며, 흡혈귀가 그를 잡아 먹으러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 터번은 골칫거리 좀비(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하는 영력, 혹은 그 힘으로 되살아난 영혼이 없는 인간: 옴간이)를 없애 준 사례로 아프리카의 왕자가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시무스 피니간이 퀴렐 교수가 좀비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듣고 싶다고 하자, 퀴렐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날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은 터번 주위에서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챘는데,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퀴렐 교수가 어디를 가든 흡혈귀를 막을 수 있도록 터번 안에 마늘을 잔뜩 넣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는 자신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마음이 놓였다. 아이들이 머글 가족 출신이었고, 해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이 마녀나 마법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배울 게 어찌나 많은지 온 가족이 마법사인 론과 같은 아이들조차도 그다지 유리한 게 없었다.

금요일 아침은 해리와 론에게 중요한 날이었다. 마침내 연회장까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내려갔던 것이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지?"

해리가 음식에 설탕을 치며 론에게 물었다.

"슬리데린 학생들과 함께 듣는 '마법의 약' 수업이 있어."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기숙사의 담당교수야. 그 교수는 그쪽 학생들만 좋아한다는데, 정말인지 봐야겠어." "맥고나걸 교수님이 우리에게도 친절하면 좋을 텐데."

해리가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담당교수였지만, 전날에도 그들에게 숙제를 산더미같이 내주었다.

바로 그때, 우편물이 도착했다. 해리는 이제는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첫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주인을 발견할 때까지 테이블 둘레를 돌다가 편지와 소포를 제각기 주인의 무릎 위에 떨어뜨린 건 약간 충격적이었다.

헤드위그는 해리에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져온 적이 없었다. 헤드위그는 때로 날아 들어와 해리의 귀를 물어뜯고 토스트를 조금 먹은 뒤, 학교의 다른 부엉이들과 부엉이 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헤드위그는 마멀레이드 잼과 설탕 그릇 사이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해리의 접시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해리는 그것을 단숨에 뜯어 보았다. 그 편지엔 아주 난잡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해리에게, 금요일 오후엔 네가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쯤 와서 나랑 차 한잔 마시지 않을래? 네가 이곳에서 첫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든 걸 듣고 싶어. 헤드위그에게 답장을 돌려보내.

해그리드

해리는 론의 깃펜을 빌려, 그 편지 뒷면에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라고 쓴 뒤 헤드위그를 날려 보냈다.

수업 후 해그리드와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런 기대마저 없었다면 그는 수업 시간 내내 거북해서 못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마법의 약' 수업은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서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학기초 연회에서, 해리는 스네이프 교수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나갈 즈음,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스네이프는 해리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해리를 엄청나게 싫어했다.

마법의 약 수업은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있었다. 그곳은 지상의 성보다 훨씬 더 추워서, 굳이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진 동물들이 벽을 따라 주르르 늘어선 유리병 속에 담겨 동동 떠다니지 않았다 해도, 오싹오싹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스네이프는 플리트워치처럼 출석을 부르는 걸로 수업을 시작했고, 플리트워치처럼 해리의 이름에서 잠시 멈췄했다.

"아, 그렇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리 포터. 우리의 새로운.....

유명인사로군."드레이크 말포이는 친구인 크레이브와 고일과 함께 킁킁거리며 숨죽여 웃어댔다. 스네이프는 출석을 다 부르고 나서 학급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해그리드처럼 까맣지만 해그리드의 눈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두 눈 모두 차갑고 공허했으며 어두운 터널을 생각나게 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신비한 과학과 더불어 마법의 약의 정확한 조제법을 배울 것입니다."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지만, 학생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아들었다. 스네이프도 맥고나걸 교수와 마찬가지로, 힘들이지 않고 학급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멍청한 짓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법이라는 걸 거의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희미한 연기를 뿜어 내며 부드럽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혈관으로 슬금슬금 흘러 들어가 정신을 홀리고, 감각들을 무디어지게하는 그 연한 액체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명성을 얻고, 영화를 누리며, 죽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지껏 가르쳤던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바보들만 아니라면 말입니다."이 말을 할 때는 교실이 더 조용해졌다. 해리와 론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는 의자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그 바보가 아니라는 걸 빨리 입증하고 싶어 못 견뎌하는 표정이었다.

"포터!" 스네이프가 갑자기 불렀다. "썩 우려낸 물에 수선화 뿌리를 갈아 넣으면 뭐가 되지?"뭐 우려낸 물에 뭐의 뿌리를 갈아 넣는다고? 해리는 론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그 역시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전 모르겠는데요." 해리가 답했다.

"쫂쫂..... 확실히 이름값을 못하는군."

그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무시해 버렸다.

"다시 한 번 해보자. 포터, 위석(胃石, 위나 장에 생기는 돌과 같은 덩어리:웁킨이)을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하지?"헤르미온느는 자리에 앉은 채로, 팔을 있는 힘껏 높이 들었지만, 해리는 위석이 뭔지 알지 못했다. 해리는 배를 움켜쥐고 웃어대고 있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모르겠는데요."

"넌 오기 전에 책도 한 번 들춰 보지 않았니, 포터?"

해리는 그의 차가운 눈을 계속 똑바로 바라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더즐리 집에서 교과서들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그가 《1000 가지 약초와 곰팡이》에 나오는 걸 모두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했던 걸까?스네이프는 여전히 헤르미온느의 떨리는 손을 무시하고 있었다.

"포터, 투구꽃무리와 투구꽃의 차이는 뭐지?"

이번에는, 헤르미온느가 벌떡 일어서서, 손을 지하 감옥 천장 쪽으로 쭉 뻗어 올렸다.

"모르겠어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애에게 물어보지 그러세요?"대여섯 명이 픽 하고 웃었다. 시무스는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웅크를 했다. 스네이프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앉아." 그가 헤르미온느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참고가 되도록 말해 준다면, 포터, 수선화와 썩을 섞으면 아주 강력한 수면제가 되므로 '살아 있는 죽음의 약'으로 알려져 있다. 위석이란 염소의 위에서 꺼낸 돌로 가장 독한 독약으로부터도 생명을 구할 수 있지. 투구꽃무리와 투구꽃은 동일한 식물로 독초라고도 불린다. 자, 모두들 이걸 그대로 필기해 두어라."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며 깃펜과 양피지 찾는 소리가 났다. 그 소음 너머로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 네 건방진 태도 때문에 그리핀도르가 1점 감점을 받게 될 것이다, 포터."마법의 약 수업이 계속 될수록 그리핀도르에게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스네이프는 학생들을 모두 두 명씩 짝지어 놓고 종기를 치료하는 간단한 약을 혼합하도록 했다. 그는 긴 까만 망토를 입고 확확 지나다니며, 학생들이 마른 썰기풀과 뱀 송곳니 가루의 무게를 다는 걸 지켜보았고, 그가 좋아하는 것 같은 말포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흠을 잡았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이 초록빛 산성 연기와 쉬쉬거리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을 때에도

스네이프 교수는 모두에게, 말포이가 뿔 모양의 민달팽이들을 얼마나 완벽한 모양으로
삶았는지 보라며 그를 추켜세울 뿐이었다.

한편 네빌이 어리석게도 시무스의 냄비를 녹여 일그러뜨려놓는 바람에, 악물이 돌 바닥으로
똑똑 떨어져, 사람들의 신발에 구멍을 냈다. 잠시 후엔, 학급 학생 전체가 의자 위에 서
있어야 했고, 다 일그러진 냄비의 악물을 뒤집어 쓴 네빌은 갑자기 팔다리에 온통 성난 빨간
종기들이 돋아나자 아파서 끄끙거렸다.

스네이프가 요술지팡이를 한 번 휘둘러 그 옆질러진 악을 치워 버리면서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

"멍청한 녀석! 불을 끄기 전에 고슴도치 바늘을 넣은 거 아니냐?" 네빌은 코 여기저기에
종기가 생겨나자 훌쩍거리며 울었다.

"이 녀석을 병동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스네이프가 시무스에게 내뱉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네빌 옆에서 실험하고 있던 해리와 론에게로 돌아섰다.

"너, 포터, 그 녀석에게 왜 바늘을 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 녀석이 잘못하면 네가 잘나
보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 때문에 그리핀도르는 또 1점 감점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했으므로 해리가 따지려고 했지만, 론이 냄비 뒤에서 그를 발로 툭 차며 소곤거렸다.

"그러지 마, 스네이프가 아주 심술궂게 굴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소릴 들었어." 한 시간 뒤

계단을 올라가 지하 감옥에서 나오자 해리는 허탈하고 맥이 빠졌다. 첫 주였는데 자기 때문에

그리핀도르가 벌써 2점이나 감점을 당한 것이다. 스네이프는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걸까?" 기운 내."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프레드와 조지 형에게도 늘 감점을 해. 그런데

나도 같이 가서 해그리드를 만나도 되니?" 2시 55분에 그들은 성을 나와 정원 쪽으로 향했다.

해그리드는 금지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자그마한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현관 밖에는

석궁(石弓)과 비올 때 방수용으로 구두 위에 신는 덧신이 있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개 짖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다.

그리고는 "들어가, 팽, 들어가." 하고 말하는 해그리드의 큰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그리드가 문을 잡아 당겨 열자마자 털이 많은 그의 큰 얼굴이 나타났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들어가, 팽."

그는 엄청나게 큰 까만 사냥개의 목줄을 계속 잡고 있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그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방은 하나뿐이었다. 천장에는 햄과 꿩이 매달려 있었고, 구리 주전자는 덮개가 없는 난로
위에서 끓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누비이불이 덮여진 커다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안히 앉아."

해그리드가 이렇게 말하면서 팽을 놓아 주자 그 개가 론에게 곧장 뛰어 올라 귀를 핥기

시작했다. 해그리드와 마찬가지로, 팽도 겉모습처럼 사납지는 않았다.

"얘는 론이에요." 해리가 커다란 찻주전자에 끓는 물을 붓고 접시에 록 케이크를 놓고 있는
해그리드에게 소개했다.

"위즐리 가문 출신이지?" 해그리드가 론의 주근깨를 흘끗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네 쌍둥이
형들이 숲에 들어가지 못하게 쫓아다니느라 내 인생의 반을 보냈어." 록 케이크는 이빨로
깨물면 거의 부서지는 울퉁불퉁한 과자로 건포도가 들어 있었는데, 해리와 론은 맛있는 척
하면서 해그리드에게 그들의 첫 수업에 대해 모두 말했다. 팽은 해리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는
망토에 침을 질질 흘렸다.

해리와 론은 해그리드가 필치를 '멍청한 늑은이'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있지. '노리스 부인' 말야. 언젠가는 그 고양이에게 팽을 소개시켜

줘야겠다. 내가 학교에 올라갈 때마다 날 졸졸 따라다니거든? 하지만 그 고양이를 없애버릴

순 없어. 필치가 그 고양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거든." 해리는 해그리드에게 스네이프의
수업에 대해 말했다. 해그리드는 론과 마찬가지로, 스네이프는 어떤 학생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날 정말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가 왜?"

그러나 해리는 해그리드 이 말을 할 때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네 형 찰리는 어떻게 지내니?" 해그리드가 론에게 물었다. "난 찰리를 아주 좋아했지.

동물에 관해 아주 잘 알았거든." 해리는 해그리드가 화재를 일부러 바꾼 게 아닐까 생각했다.

론이 해그리드에게 찰리의 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는 동안, 해리는 탁자

위에서 찾잔의 보온 커버 밑에 놓여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것은 《예언자 일보》에서 오려 낸 것이었다.

그린고트 은행 침입 사건

어둠의 마녀나 마법사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7월 31일에 일어난 그린고트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린고트 도깨비들은 오늘,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둑이 침입했던 금고는 사실 바로 그 날 비워졌다는 것이다.

"그 금고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참견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오후 그린고트의 대변인 도깨비가 말했다.

해리는 기차관에서 론이 누군가가 그린고트를 털려고 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났지만, 론은 그 날짜까지 말하지는 않았다.

"해그리드!" 해리가 말했다. "저 그린고트 침입 사건은 내 생일날에 일어난 게 분명해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해그리드는 분명 해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툭툭거리며 그에게 록 케이크를 하나 더 주었다. 해리는 그 기사를 다시 읽었다. 도둑이 침입했던 금고는 사실 바로 그 날 비워졌다. 해그리드는 713번 금고를 비우고, (그걸 비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더러운 작은 꾸러미를 꺼냈었다. 도둑들이 찾고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을까? 저녁을 먹으러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리와 론의 주머니는 그들이 예의를 차리며 사양했던 록 케이크들로 축 늘어져 있었다. 해리의 머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해그리드와 만났을 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그리드가 그 꾸러미를 도둑이 훔쳐가기 직전에 가지고 나왔던 걸까? 그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해그리드는 스네이프에 대해 해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제 9장 한 밤의 결투

해리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들리보다 더 싫어하는 아이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핀도르 1학년들은 마법의 약 수업만 슬리데린 학생들과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포이를 도저히 참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비행(飛行)' 수업마저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이 함께 듣게 되었다는 벽보가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 게시판에 나붙자, 그들은 하나같이 투덜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해리가 음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말포이 앞에서 빗자루를 타고 바보짓을 하게 되다니." 해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걸 배우게 되길 고대해 왔었다.

"바보짓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지." 론이 분별 있게 말했다. "어쨌든, 말포이는 자기가 쿼디치를 잘한다며 떠들고 다니지만, 난 그게 다 말뿐이라는 걸 알아." 말포이는 확실히 '비행'에 대해 계속 떠들고 다녔다. 그는 1학년들이 기숙사 쿼디치 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큰 소리로 불평하다가, 끝에는 항상 그가 헬리콥터에서 머글들을 아슬아슬하게 구출했다는 등의 허풍스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 놓았었다.

하지만 말포이만 그런 게 아니었다. 시무스 피니간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빗자루를 타고 시골을 날아다니며 보냈다고 했다. 심지어 론조차도 찰리 형의 낡은 빗자루를 타고 날다가 행글라이더와 부딪힐 뻔했다고 말하곤 했다.

마법사 가족 출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쿼디치에 대해 말했다. 론은 벌써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딘 토마스와 축구 얘기를 하다가 큰 말다툼을 벌였었다. 론은 아무도 날지 못하면서 공 하나만 갖고 하는 경기가 뭐 그리 재미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리는 론이 딘의 웨스트 햄 축구팀 포스터를 막대기로 찌르며 그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걸 보기도 했다.

네빌은 지금까지 한번도 빗자루를 타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빗자루 옆에는 가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해리는 그의 할머니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은 두 발로 땅을 밟고 있는데도 수없이 사고를 내는 사고뭉치였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도 네빌만큼이나 나는 것에 겁을 냈다. 이것은 책을 암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목요일 아침 식사 때 그녀는 모든 멍청이들의 비행 이야기에 따분해져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이어 온 퀴디치》라는 책을 빌려 왔다. 네빌은 혹시 나중에 빗자루에 달라붙어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목을 메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헤르미온느의 강의가 우편물 배달로 중단되자 매우 기뻐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편지 이후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는데, 물론 말포이는 눈치 빠르게도 그걸 알아챘다. 말포이의 수리부엉이는 항상 집에서 그에게 과자 꾸러미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란 듯이 슬리데린의 테이블에 펼쳐 놓았다.

외양간 부엉이 한 마리가 네빌에게 할머니가 보낸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다. 그가 흥분해서 그 꾸러미를 풀자 하얀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구슬 크기의 유리공 하나가 나왔다.

"리멤브럴이야!" 네빌이 설명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이걸 네가 잊어버리게 있는지를 알려줘. 봐, 이걸 이렇게 꼭 잡았는데 빨갈게 변하면..... 어....." 리멤브럴이 갑자기 빨갈게 변했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야....." 네빌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해 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드레이크 말포이가 그리핀도르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면, 네빌의 손에서 리멤브럴을 낚아챘다.

해리와 론이 펄쩍 뛰었다. 그럴잖아도 그들은 말포이와 싸울 일이 없나 내심 바라고 있던 터라, 이때다 싶어 한바탕 싸움을 벌여 보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말썽을 찾아내는 것으로 소문난 맥고나걸 교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니?"

"말포이가 제 리멤브럴을 뺏았어요, 교수님."

말포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리멤브럴을 얼른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그냥 본 것 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졸졸 뒤를 따르는 크레이브와 고일과 함께 꿈무늬를 뺐다.

그날 오후 3시 30분에, 해리와 론을 비롯한 다른 그리핀도르 아이들은 첫 번째 비행 수업을 받기 위해 급히 현관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갔다.

그들은 줄을 지어 경사진 잔디밭을 내려가 금지된 숲으로 가는 정원 맞은편의 부드럽고 평평한 잔디밭 쪽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맑았는데 산들바람이 불고 있어서인지 풀이 발밑에서 잔물결을 일으켰다. 멀리 보이는 금지된 숲의 나무들은 험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슬리데린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고, 땅엔은 스무 개의 빗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소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는 학교 빗자루들은 너무 높이 날면 마구 흔들리거나, 항상 조금씩 왼쪽으로만 난다며 불평을 하곤 했다.

비행 수업 선생님 후치 부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키에 백발이었으며, 매처럼 노란 눈을 갖고 있었다.

"자, 모두들 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녀가 크게 호통쳤다. "모두들 빗자루 옆에 서라. 자, 어서!" 해리는 자기 빗자루를 훑듯 보았다. 그것은 작은 가지 몇 개가 이상한 각도로 비어져 나와 있는 낡은 빗자루였다.

"오른 손을 빗자루 위로 나오게 하고." 후치 부인이 앞에서 소리쳤다. "'위로!'라고

말해라. "'위로!'"

모두가 소리쳤다.

그러자 해리의 빗자루는 즉시 손 안으로 날아들었고, 다른 몇 명도 이처럼 보기 좋게 성공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 그레이저의 빗자루는 그저 땅 위로 데굴데굴 굴러갔으며, 네빌의 빗자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빗자루도 말처럼 탄 사람이 무서워하면 그걸 아는 것 같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의 떨리는 목소리로 보아, 그가 땅에서 발을 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후치 부인은 그 뒤 그들에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빗자루에 올라타는 방법을 보여주고는, 앞뒤로 왔다갔다 하며 잡는 법을 바로잡아 주었다. 해리와 론은 후치 부인이 말포이에게 오랫동안 잘못해 왔다고 지적하자 고소해했다.

"자,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땅을 걷어차라, 세계!" 후치 부인이 말했다.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수심 센티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곧장 돌아 내려오는 거야. 자, 호루라기를 분다..... 셋..... 둘....."하지만 네빌은 땅을 떠나는 게 무서워 긴장할 대로 긴장하고 있었으므로, 후치 부인의 입술에 호루라기가 달기도 전에 하늘로 세계 날아올랐다.

"돌아와라, 애야!" 그녀가 이렇게 소리쳤지만, 네빌은 병에서 코르크 마개가 튀어나가듯이 곧장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3미터..... 6미터..... 해리는 하얗게 질린 네빌이 겁먹은 표정으로 멀어지는 땅을 내려다보는 걸 보았고, 잠시 뒤 그가 숨이 넘어갈 듯 놀라서 그만 빗자루에서 거꾸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광!

네빌은 잔디 위에 엎어져 있었다. 그의 빗자루는 여전히 높이, 높이 올라가더니 금지된 숲 쪽으로 빈들빈들 떠가다가 사라져 버렸다.

후치 부인은 허리를 굽혀 네빌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도 네빌의 얼굴만큼이나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손목이 부러졌군." 해리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애야. 괜찮아.

일어나라."그녀는 일제히 네빌을 바라보고 있는 반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병동에 데려갈 동안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도록! 빗자루는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놓아 두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퀴디치'라는 걸 해보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 쫓겨나고 말테니까. 자, 애야."네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목을 부여잡고, 후치 부인의 부축을 받아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그들이 저만치 사라지자 말포이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멍청이의 얼굴 봤니?"

다른 슬리데린 아이들도 끼어들었다.

"임 닥쳐, 말포이." 패르바티 패틸이 날카롭게 말했다.

"오, 너 지금 롱바텀을 두둔하는 거니?" 뽀뽀스러운 슬리데린의 여학생인 팬시 파킨슨이 말했다. "네가 똥똥한 울보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걸. 패르바티.""이것 좀 봐!"

말포이가 쏘팔같이 달려가 잔디밭에서 뭔가를 움켜쥐며 말했다. "롱바텀의 할머니가 보내 준 그 멍청이같은 물건이야."말포이가 리멤브럴을 들어올리자 그것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거 이리 내, 말포이."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말하는 걸 멈추고 해리를 바라보았다.

말포이가 심술궂게 미소지었다.

"난 롱바텀이 찾을수 있는 어딘가에 두려고 하는 거야. 저기..... 나무 위는 어때?""이리 내!"

해리가 소리쳤지만, 말포이는 빗자루 위에 올라타고 날아올랐다.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 잘 날았다. 오크 나무의 맨 꼭대기 가지 근처를 떠다니며 그가 외쳤다.

"와서 가져가, 포터!"

해리는 빗자루를 움켜잡았다.

"안 돼!"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후치 부인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혼나게 될 거야."해리는 그러나 헤르미온느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힘껏 박차고 위로, 위로 날아올랐다. 머리카락과 망토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해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다. 그에게도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비행은 쉽고, 멋졌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빗자루를 약간 잡아당겼을 때 저 아래에서 여자아이들의 비명 소리와 론의 감탄하는 함성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공중에서 빗자루를 급격하게 돌려 말포이 쪽으로 향하게 했다. 말포이는 깜짝놀란 것처럼 보였다.

"이리 내놔." 해리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널 빗자루에서 떨어뜨리고 말겠어!""아, 그래?"

말포이는 애써 코웃음을 치기는 했지만, 불안한 표정이었다.

해리는 마치 빗자루를 오랫동안 타 본 사람 같았다. 그가 몸을 숙이고 양손으로 꼭 잡자 빗자루가 말포이 쪽으로 쏘팔같이 날아갔다. 말포이가 간신히 피하자 해리는 뒤로 돌아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다. 아래에서는 몇몇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 위에는 네 목숨을 구해 줄 크레이브나 고일이 없어. 말포이."해리가 외쳤다.

말포이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간 것 같았다.

"그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말포이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그 유리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버렸다.

해리는 그 공이 마치 솔로 모션처럼,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는 몸을 굽히고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다음 순간 그는 공과 경주하며 아래로 치달고 있었다. 귀를 쫑긋 스키는 바람 소리가, 아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뒤섞였다.

그리고 공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가 손을 쭉 뻗어 공을 잡았다. 지상에서 불과

30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해리는 순간적으로 빗자루를 일으켜 세워 리멤브럴을 주먹 속에 안전하게 움켜 쥐고는 잔디밭 위로 구르듯이 부드럽게 착륙했다.

"해리 포터!"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강하할 때보다 더 심했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한번도..... 내가 호그와트에 온 이후 한번도....."맥고나걸 교수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미친 듯이 번득였다.

".....어떻게 겁도 없이.....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해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수님....."

"조용히 해요, 패틸양."

"하지만 말포이가....."

"그만하면 됐어요, 위즐리군. 포터, 날 따라와요, 당장."해리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한 번 훑듯 보고는, 성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힘없이 걸어갔다. 해리는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달리다시피 해야 했다. 이제 끝장이다. 학교에 들어 와서 이 주일도 버티지 못하다니. 10 분 후면 가방을 싸고 있겠지. 자신이 현관에 나타나면 더즐리 가족이 뭐라고 할까?현관 계단을 올라가, 내부의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는데도, 맥고나걸 교수는 여전히 그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비틀어 열고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갔고, 해리는 처량하게 그녀 뒤를 총총걸음으로 따라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어쩌면 나를 덤볼도어 교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해리는, 쫓겨났지만 사냥터지기로 남게 된 해그리드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해그리드의 조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론과 다른 아이들은 마법사가 됐는데 자신은 해그리드의 가방을 들고 정원을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속이 뒤틀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어떤 교실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실례합니다, 플리트웍 교수님, 잠시 우드를 데려가도 될까요?"우드? 해리는 어리둥절해졌다.

우드는 나를 매질할 회초리일까?하지만 알고 보니, 우드는 억세게 생긴 5 학년짜리 소년이었다. 그는 당황해하면 플리트웍의 교실에서 나왔다.

"너희 둘 다 따라와라."

맥고나걸 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우드는 신기한 듯이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안으로."

맥고나걸 교수는 피브스가 혼자서 칠판에 정신없이 음란한 말들을 쓰고 있는 교실을 가리켰다.

"나가요, 피브스!"

그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피브스는 분필을 쓰레기통에 큰 소리 나게 던져 넣고는 욕을 하며 나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문을 광 닫고 두 소년에게 돌아섰다.

"포터, 이쪽은 올리버 우드다. 우드, 내가 우리 팀 수색꾼을 데려왔다."우드의 표정이 당황에서 환희로 바뀌었다.

"정말이세요, 교수님?"

"그럼." 맥고나걸 교수가 힘있게 말했다. "이 아닌 타고난 퀴디치 선수다. 난 여지껏 이런 재주를 본 적이 없다. 빗자루를 타 본 게 오늘이 처음이었니, 포터?"해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후들거리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애는 놀랍게도 16 미터를 급강하한 뒤에 떨어지는 구슬을 잡았단다." 맥고나컬 교수가 우드에게 설명했다. "그런데 몸에 굵긴 데 하나 없단다. 찰리 위즐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우드는 이제 그의 모든 꿈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퀴디치 경기 본 적 있니, 포터?"

우드가 흥분해서 물었다.

"우드는 그리핀도르 팀의 주장선수란다."

맥고나컬 교수가 설명했다.

"이 아인 딱 수색꾼 체격이네요." 우드가 이제 해리 쪽으로 걸어가 그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말했다. "가볍고..... 민첩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빗자루를 사 주셔야겠어요, 교수님..... 님부스 2000 이나 클린스웜 세븐이 좋겠군요." "덤블도어 선생님에게 말해서 1 학년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금년에 맹세코 작년보다 우수한 팀이 필요해. 작년 시합에서 슬리데린에 패배한 뒤로, 난 몇 주 동안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말야....." 맥고나컬 교수가 안경 너머로 해리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해리. 그렇지 않았단간 마음을 바꿔 네게 벌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그분은 뛰어난 퀴디치 선수였거든."

"거짓말 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해리는 지금 막 론에게, 맥고나컬 교수를 따라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었다. 론은 스테이크 한 조각과 강낭콩 파이를 입으로 반쯤 가져가다가, 입을 벌린 채로 그만 먹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다.

"수색꾼?" 그가 말했다. "하지만 1 학년들은 절대로..... 너 아마..... 최연소 선수일 거야....." ".....100 년 만에." 해리가 입에 파이를 밀어 넣으며 말했다. 그는 오후 내내 흥분해서인지 다른 껌보다 훨씬 더 많이 배가 고팠다. "우드가 말해줬어." 론은 어찌나 놀라고 감동했던지, 그저 앉아서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해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훈련은 다음 주에 시작해." 해리가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하니까." 그때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해리를 발견하고는 허둥지둥 다가왔다.

"잘했어." 조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드가 우리에게 말해 줬어. 우리도 팀원이거든. 물이꾼이지." "금년엔 확실히 우리가 저 퀴디치 우승컵을 따게 될 거야." 프레드가 말했다.

"우린 찰리 형이 졸업한 이후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지만 금년 팀은 멋지게 해낼 거야. 네가 정말로 잘 하나 보던데, 해리. 우드는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말할 때 거의 광충광충 뛰다니피했거든." "어쨌든, 우린 그만 가 봐야겠어. 리 조던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새로운 비밀 통로 하나를 찾았다고 난리거든." "그건 보나마나 우리가 첫 주에 찾아낸 저 역겨운 그레고리 동상 뒤에 있는 걸거야." 프레드와 조지가 가 버리자마자 전혀 반감지 않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말포이가 양쪽에 크레이브와 고일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난 것이다.

"최후의 만찬 중이니, 포터? 머글 세계로 돌아가는 기차는 언제 탈 거니?" "땅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훨씬 더 용감하군." 해리가 냉담하게 말했다. 물론 크레이브와 고일은 덩치가 큰 놈들이었지만, 한쪽에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려보기만 했다.

"언제라도 혼자서 너와 대결하겠어." 말포이가 말했다. "원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좋아. 마법사의 결투법으로. 요술지팡이만 갖고 하는 거야. 몸싸움 없이. 이의 없지? 마법사의 결투법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들어봤지." 론이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빙 돌리면 말했다. "난 해리의 2 번 타잔데, 너의 2 번 타자는 누구니?"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크레이브야." 그가 말했다. "자정이야, 알았지? 트로피 보관실에서 보자. 그곳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포이가 가 버리자, 론과 해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법사의 결투법이란 게 뭐니?" 해라가 물었다. "그리고 네가 나의 2 번 타자라는 것은 또 뭐야?" "그러니까 2 번 타자란 네가 죽으면 대신 싸울 사람을 말해." 론이 다 식어버린 차가운 파이를 베어 물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러나 해리의 얼굴 표정을 보자, 얼른 뒷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마법사 결투법으로 싸울 때만 죽어. 진짜 마법사들하고 싸우는 것 말야. 너와 말포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서로에게 불꽃을 보내는 것뿐이야. 너희 둘 다 진짜 손상을 입힐 만큼 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야. 내가 볼 때 그녀석은 네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 "내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렀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걸 던져 버리고 그 녀석의 코를 한 방 날리는 거지." 론이 말했다.

"잠깐 실례할게."

그들 둘 다 위를 올려다보았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였다.

"밥은 좀 편안히 먹을 수 없겠니?" 론이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를 본체만체하고 해리에게 말했다.

"너와 말포이가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데 말야....." "그랬겠지." 론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밤에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다가 들켜서, 아니 반드시 들키겠지만, 너 때문에 또 감점을 받게 될 그리핀도르를 생각해 봐. 그건 정말로 이기적이야."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냐." 해리가 말했다.

"잘 가." 론이 말했다.

해리는 딘과 시무스가 잠꼬대 하는 소리를 들으며(네빌은 병동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훨씬 늦게까지 자지 않고 누워서, 오늘은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론은 저녁 내내 "그 녀석이 네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면, 얼른 몸을 피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저주를 어떻게 막는지 잘 모르겠거든."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해리는 필치나 고양이 '노리스 부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또 다른 무덤을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포이의 비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계속 어렴풋이 나타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말로 말포이에게 본때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걸 놓칠 수는 없었다.

"11시 반이야." 론이 마침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는 게 좋겠어." 그들은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로, 지팡이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간 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로 들어갔다.

벽난로에는 타다 남은 깡부기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서, 안락의자가 둥글둥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출구인 뚫뚫한 여인의 초상화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의자 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렇게 행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해리."

전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가 핑크빛 가운을 입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너!" 론이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가서 잠이나 자!" "난 이미 네 형에게 말했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퍼시는 반장이니까, 너희를 말할 수 있을 거야." 해리는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빨리." 그가 론에게 말했다. 그는 그 뚫뚫한 여인의 초상화를 밀어 열고 그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헤르미온느는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론을 따라 그 초상화 구멍으로 들어가며, 꼭 성난 거위처럼 투덜거렸다.

"너희들은 그리핀도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니? 너희는 자신들만 중요한거니? 난 슬리데린이 우승컵을 타길 바라지 않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변신 주문을 외워서 맥고나걸 교수에게 어렵게 받은 점수들을 몽땅 잃게 될거야." "저리 가."

"좋아. 하지만 난 경고했어.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뒤에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희들은 정말....."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뚫뚫한 여인의 초상화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 그림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뚫뚫한 여인은 야간 산책을 하러 가고 없었으므로, 헤르미온느는 그리핀도르 탑 밖에 그냥 있어야 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알 바 아니지." 론이 말했다. "우린 가야 해. 늦었어." 그들이 복도 끝에 미처 다 가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쫓아 왔다.

"나도 같이 갈래." 그녀가 말했다.

"안 돼."

"그럼 내가 여기 밖에 서서 필치가 날 잡도록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우리 셋을 모두 발견하면 난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막으려 했다고 말야. 내 말이 틀리다고는 못할걸." "대단하셔." 론이 큰 소리로 날카롭게 말했다.

"조용히 해, 둘 다!" 해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소리가 났어."그건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같았다.

"노리스 부인?"

론이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건 노리스 부인이 아니었다. 네빌이었다. 네빌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갑자기 깨어났다.

"고맙게도 너희들이 날 찾았구나! 난 이 바깥에서 몇 시간이나 있었어. 침실로 들어가는 새 암호가 생각이 안 나서 말야." "목소리 낮춰, 네빌. 암호는 '돼지 코'지만 지금은 못 들어가. 그 동보 여인이 어딘가로 사라졌거든." "팔은 어떠니?" 해리가 물었다.

"좋아." 네빌이 팔을 보여주면 말했다. "폼프리 부인이 단번에 고쳐 주셨어." "잘됐다. 이봐, 우린 어디 좀 가야 해. 그럼 나중에 보자....." "날 두고 가지 마!" 네빌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난 여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피투성이 바론이 벌써 두 번이나 지나갔단 말야." 론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화가 나서 헤르미온느와 네빌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우릴 들키게 했다가는, 쿨렐이 말했던 악령의 주문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써먹고 말테니까 알아서 해."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악령의 주문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 주려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해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높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 때문에 창살 무늬가 생긴 복도를 사뿐히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해리는 필치나 노리스 부인과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운이 좋았다. 그들은 재빨리 3층으로 올라가 까치발을 들고 트로피 보관실로 갔다.

말포이와 크레이브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크리스탈 트로피 케이스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우승컵과 우승패와 각종 조각품들이 어둠 속에서 때때로 은빛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방 양쪽에 있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벽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다. 해리는 말포이가 뛰어들자마자 시작할 경우를 생각해 요술지팡이를 꺼내들었다. 시간이 지나갔다.

"그 녀석이 늦는데, 어쩌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선 건지도 몰라."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때 옆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 모두 깜짝 놀랐다. 해리가 지팡이를 막 들어 올렸을 때,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말포이가 아니었다.

"냄새를 맡아 봐, 녀석들이 한쪽 구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노리스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 필치였다. 해리는 공포에 휩싸여 다른 세 명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미친 듯이 손짓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필치의 목소리에서 멀리 있는 문 쪽으로 종종걸음 쳐 달려갔다. 네빌의 망토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필치가 트로피 보관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녀석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들은 필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숨어 있겠지." "이쪽이야!" 해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 모양을 만들어 말하자, 그들은 겁에 질려서 감옷으로 가득 찬 긴 진열실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필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왔다. 네빌이 갑자기 앙앙 우는 소리는 내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빌은 곧 걸려 넘어지며 론의 손목을 잡는 바람에 둘 다 어떤 감옷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첼커덩, 쿵!

성 전체를 깨울 것으나 같은 커다란 소리가 났다.

"달려!"

해리가 소리쳤고, 그들 넷을 필치가 따라오고 있는지 뒤돌아 보지도 않고 진열실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그들은 문설주를 빙 돌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리를 선두로 복도를 뛰어갔다. 어떤 벽걸이 융단을 북 찢어 덮고 들어가나 비밀 통로가 나왔고, 통로를 정신없이 달려가자 마법 수업을 드는 교실이 나타났다. 그제서야 그들은 트로피 보관실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안 쫓아 오는 것 같아."

해리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혈떡거리며 이마를 훔쳤다. 네빌은 엎어진 채로, 씹씹거리며 푸푸 소리를 냈다.

"그것..... 봐." 헤르미온느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내가 뭐랬어." "그리핀도르로 탑으로 돌아가야 해." 론이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말포이가 널 속인거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이제 알았니? 그 녀석은 널 만나러 오지 않을 거야. 필치는 트로피 보관실에 누군가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말포이가 일러바친 게 분명해." 해리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자."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그들이 열 발짝쯤 갔을 때 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움직이며 앞 교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피브스였다. 피브스는 그들을 발견하자 기빠서 소리를 뱉 질렀다.

"조용히 해, 피브스..... 제발..... 놀라서 자빠지겠다." 피브스가 꺾꺾대며 웃었다.

"1학년들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 쫓쫓쫓. 버릇없군, 버릇없어. 너흰 들킬거야." "네가 말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피브스. 제발." "필치에게 말해야 해, 그래야 하구말구." 피브스는 성직자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심술궂게 빛났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저리 비켜." 론이 피브스를 힘껏 치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게 큰 실수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왔어요!"

피브스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와서 여기 마법 교실 복도에 있어요!" 그들은 피브스 밑으로 몸을 껍 숙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조금전 광 달았던 문이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끝장이야!" 그들이 어찌해 볼 수도 없이 애꿎은 문만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 론이 투덜거렸다. "우린 결판났어! 이것으로 끝장이야!" 그들은 필치가 피브스의 고함소리가 난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좁혀서 서." 헤르미온드가 딱딱거렸다. 그리고는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잡고 자물쇠를 두드리며, '알로호모라!'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 자물쇠가 딸깍 하더니 문이 확 열렸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가 열린 문을 닫고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귀를 기울였다.

"녀석들이 어느쪽으로 갔지, 피브스?" 필치가 말하고 있었다. "빨리 말해."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엉터리 같은 짓 말고, 피브스, 자 녀석들이 어디로 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피브스가 흥얼거리며 귀에 거슬리게 말했다.

"좋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하하하! '제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그들은 피브스가 확 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필치가 화가 나서 욕을 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나봐." 해리가 속삭였다. "이제 관촬을 것 같아..... 이거 좌, 네빌!" 왜냐하면 네빌이 조금 전부터 해리의 가운 소매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해리는 확 돌아섰다..... 그리고 그 무엇을 아주 명확히 보았다. 잠시 그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했다. 지금 그들은 방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복도에 있었다. 바로 출입 금지된 3층 복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이 왜 출입금지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천장과 마룻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괴물 같은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개는 머리가 세 개였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세 쌍의 성난 눈. 그들 쪽을 향해 쉴룩쉴룩거리고 있는 세 개의 코. 누런 송곳니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세 개의 입.

그 개는 여섯 개의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해리는 자기들이 벌써 시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자기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에 그 개가 깜짝 놀랐기 때문일 뿐, 개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는 것을 우레같은 저 으러렁거림으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손으로 더듬어 손잡이를 찾았다. 필치와 죽음 사이라면, 필치를 택할 것이다.

그들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해리가 문을 광 달자 온 힘을 다해 복도로 다시 달려 나왔다. 필치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들을 정신없이 찾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그들은 그저 그 괴물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은 7층에 있는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달리는 걸 멈췄다.

"너희들 모두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그녀가 그들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운과 땀에 젖어 상기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상관 말아요..... 돼지 코, 돼지 코." 해리가 헐떡거리며 말하자 그 초상화가 앞으로 흔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학생 휴게실로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락의자에 폭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네빌은, 정말로, 다시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교에 그런 괴물을 가둬 두다니,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개라면 모두가 운동이 필요할 텐데 말야." 헤르미온느도 숨을 돌리자 제 나쁜 성깔이 돌아왔다.

"눈은 뵈다 뒤에 쓸래?"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개가 뭘 밟고 서 있는 지 보지도 못했니?" "마룻바닥?" 해리가 물었다. "나 그 개의 발은 보지 못했어. 머리 세 개를 보는 데도 정신이 없었던 말야." "아냐, 마룻바닥이 아냐. 그건 지하실 문을 밟고 서 있었어. 그건 분명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일어서서 그들을 노려 보았다.

"이제 됐니? 우리 모두 쫓겨날 수도 있었어. 아니 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었다구. 자, 괜찮다면, 난 이만 가서 자야겠어." 론이 입을 벌린 채, 멀어져 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어서 가서 자." 그가 말했다. "누가 저더러 따라오라고 했나, 원 기가 막혀서."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가는 해리에게 뭔가 또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그 개는 뭔가를 지키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뭐라고 말했지? 그린고트는 어떤 것을 숨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마 호크와트를 제외하면.

해리는 713번 금고에서 꺼낸 그 더러운 작은 꾸러미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 듯했다.

해골 포터에게

-학생들이 쓴 편지 모음

나도 부엉이가 있었으면...

나도 너처럼 부엉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신비한 고양이나 쥐가 더 갖고 싶어. 꺼안고 만지는 데는 그것들이 부엉이보다 더 좋을 테니까 말야. 내게 만약 신비한 애완동물이 있다면 난 내 방에 숨겨두고 녀석이 마법을 부려서 우리 엄마나 언니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론 위즐리의 쥐 스캐버스처럼 녀석을 주머니 속에 넣어서 학교에 데려갈 거야. 내 시험, 답안도 모두 옳게 작성하도록 시켜야지, 낄낄. 녀석은 내 숙제도 할 수 있을 거야.

잘 지내. 그리고 퀴디치 우승컵을 또 타게 되길 바랄게.

- 칼 크레이머

나도 너처럼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았으면...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건 틀림없이 힘들 거야. 마법을 거는 거며, 마법의 약 만드는 거며, 이상한 식물들을 키우는 거며, 지팡이로 결투하는 거며, 배울 게 너무 많잖아.

네 친구 헤르미온느는 정말로 똑똑해. 그 애를 알았으면 좋겠어. 친구가 되고 싶어. 론에게 그 애에게 더 상냥하게 굴라고 좀 말해 줘. 나도 너처럼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할 거야. 흥미로운 게 보이면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구 말야.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날아오면 되잖아.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부디 몸조심.

-제인 알리노

해리에게, 난 네가 마법 학교에 가기 전처럼 괴로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호그와트에서 머글 연구 수업을 꼭 듣도록 해. 넌 틀림없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마법사들은 아마 영국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걸. 신비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숲도 많고 너희들에게 고기나 삶은 감자 같은 것들을 먹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야. 우리 생선과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거든.

혹시 미국에 오게 되면 꼭 우리 학교에 찾아와주길 바래.

-안드레아 브랜트

나는 퀴디치 수색꾼을 맡을 거야

난 퀴디치처럼 멋진 경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경기를 할 수 있다니 넌 정말 행운아야. 내게 만약 그런 행운이 주어진다면 너처럼 수색꾼을 맡을 거야. 날아다니며 경기를 지켜보다가 황금빛 스니치를 발견하면 확 잡아야지! 그러면 우리 팀이 150 점을 얻을 거 아냐.

다음 책은 온통 퀴디치에 대한 거고 다른 마법사 학교의 퀴디치 팀들도 나온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넌 그런 팀들과도 경기하겠구나.

다른 팀이나 다른 선수들에 대해 잘 몰라서 혹시 겁나지 않니? 좀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해. 다른 학교들의 퀴디치 시합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들어보는 것도도움이 될 거야. 전략은 그 뒤 짜도 될 거야.

행운을 빌게 !

-버디 싱클레어

마법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네 인생은 정말 멋져. 나도 그랬음 좋겠어. 넌 귀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퀴디치는 정말 잘하고 모두들 널 황홀한 눈으로바라보잖아. 헤르미온드는 자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멍청하기 그지없어, 너 같은 아이를 흠잡잖아.

나도 마법을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더 나이 들어 보이게변신해서 파티 같은 데 갈 수 있을 거 아냐. 만약 마법을 부릴수 있다면 난 내 머리카락을 온통 눈부신 황금빛으로 만들고는 주위는 초록빛으로 번득이게 할 거야. 그리고 5 분마다 색깔이 변하는 마법의 드레스를 입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날 브리태니 같은 유명한 스타라고 생각하겠지.

난 네가 더즐리 가족에게도 마법을 걸어서 그들을 정말로멍청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 다음 책에서도 행운을 빌게

-안젤리카 애도니

해리에게, 나와 내 친구들 모두 널 굉장히 동경하고 있어. 네 이모와이모부, 두들리는 널 좋아하지 않지만, 넌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선생님들조차 널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좋을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고, 용들을 슬쩍 훔치고, 마법의 사탕도 먹고.

또 모두 다르게 생긴 공들과 다른 선수들이 동시에 공중을날아다니는 퀴디치도 할 수 있고, 항상 이기잖아.

나도 너처럼 마법사가 되어 즐겁게 보내고 싶어.

잭 힐번

나도 마법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마법사가 된다는 건 틀림없이 신나는 일일 거야! 난 네 책을 읽기 전부터 너에 대해 많은 게 알고 싶었어

넌 퀴디치에서 수색꾼으로 뛰는 게 좋으니? 다른 역할들도좋아했을까? 님부스 2007 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그 빗자루가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네 친구들 론과 헤르미온드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야.

산더미 같은 트롤과"싸우고 퀴렐 교수와 싸우다니 너희들정말 용감했어.

나도 마법사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새로운 모험에 대해 빨리 읽고 싶어.

-미셀 부티스

정말 멋진 모험담이었어

너의 첫 번째 모험담을 정말로 재미있게 꿰었어.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던 네가 그토록 기이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

마법사가 되는 게 힘들까? 두 번째 모험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넌 누굴 만나게 될까? 더 위험한 적들이 나타날까? 네가그들과 싸울 더 좋은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될까?

아직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들도분명 첫 번째 책만큼이나 재미있을 거야.

그런 멋진 모험을 보여주어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읽을 책이 없었을 거야.

제이드 윌리엄스

벌 받지 않도록 해!

네가 어둠의 마왕 볼드모트에게서 안전하게 빠져 나왔다는 말을 들었어. 위험하고 강력한 악한이 쫓아다니는 기분은 어떤 걸까?

다음에 나오는 책에서는 어떤 모험이 펼쳐지니?

퀴디치 경기를 즐기니? 그리핀도르 팀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니?

내가 듣기론 네가 퀴디치 우승컵을 거의 탈 뻔했다고 하던데, 어쩌다 그걸 놓친 거니? 내년에는 틀림없이 더 열심히할 거야.

그럼, 경기할 때 조심하고 벌받지 않도록 해 !

-브라이언 정

도서명: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제 1 권 하

저자명: 조앤.K.롤링

역자명: 김혜원

출판사명: 문학수첩

출판년도: 1999 년

출판사 전화: 02-790-5999

목자책의 페이지: 235

입력자명: 스캔입력

교정자명: 문헌정보팀

제작: 부산맹인복지관 문헌정보팀

주소: 부산시 북구 구포 3 동 1254-3

전화: 338-0017-9

차례

제 10 장 할로윈

제 11 장 퀴디치

제 12 장 소망의 거울

제 13 장 니콜라스 플라멜

제 14 장 노르웨이 리지백 노버트

제 15 장 금지된 숲

제 16 장 지하실 문을 지나서

제 17 장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웬간이의 말

'해리포터'에 대한 찬사 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 하

제 10 장 할로윈

말포이는 해리와 론이 조금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여전히 호그와트에걸 보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사실,그 다음날 71 해리와 론은 머리가 셋 달린 개를 만났던 게 아주 멋험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모험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가지 들었다. 그 사이에 해리는 그린고트에서 호그와트로 1:것 같은 그 꾸러미에 대한 이야기로 론을 신나게 했고,으 그렇게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떠 시간을 보냈다.

정말로 귀중한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것일거야"론이 말했다.

"아니면 둘 다든지,"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수수께끼 물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것은 그것의 길이가 5 센티미터 정도 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실마리를 찾기 전엔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도리가 없었다.

네빌이나 헤르미온드는 그 개와 지하실 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네빌은 그저 다시는 그 개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헤르미온드는 이제 해리와 론에게 말을 걸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으스스대며 아는 체하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그들은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건 말포이에게 앙갚음하는 방법이었고, 기쁘게도 약 1주일 뒤 그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부엉이들이 예전처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몰려왔을 때, 모두의 관심은 즉시 킁킁거리는 커다란 부엉이여섯 마리가 들고 온 길고, 가느다란 꾸러미로 집중되었다. 그런데 해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커다란 소포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부엉이들이 날아와 바로 자신 앞에 그 소포를 떨어뜨리자, 너무나 놀라 그만 베이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부엉이들이 퍼덕거리며 날아가 버리자마자 또 다른 부엉이가 소포 위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해리는 먼저 편지를 뜯었는데 그건 천만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포를 테이블에서 뜯지 말아라.

안에는 님부스 2000 이 들어있는데. 네가 빗자루를 갖고 있다는 걸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빗자루를 가진 걸 보면 모두들 갖고 싶어할 테니 말이다. 올리버 우드가 오늘 밤 7 시에 쿼디치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거다. 오늘부터 첫 훈련에 들어갈 거다

해리는 기쁨을 감추려고 애쓰며 론에게 그 편지를 건네주었다.

'검부스 00!' 론이 부러워서 공공했다. '난 만져본 적도 없어 ,'

그들은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빗자루를 몰래 풀어보려고 얼른 연회장을 나와 현관 쪽으로 갔는데 크레이브와 고일이 이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말포이가 해리에게서 그 소포를 뺏아채 만져보았다.

"빗자루로군." 그가 질투와 심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걸 해리에게 다시 던지며 말했다.

"이번엔 그것 때문에 걸려들 거야, 포터, 1 학년들은 그걸 갖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

론은 참을 수가 없었다.

◎건 보통 빗자루가 아냐." 그가 말했다. "그건 님부스 2 點 0 이라구 너도 집에 괴미트 270 하나 갖고 있다고 했지, 말포이?" 론이 해리에게 씩 웃어 보였다. "카미트는 같은 번드르해보이지만, 님 부스에는 비할 게 못되지."

'네가 그것에 대해 뭘 알아, 위즐리, 넌 그 빗자루의 반도 살돈이 없잖아.' 말포이가 되받아쳤다. '너와 네 형들은 한 가닥씩 사모아야 할걸.'

론이 막 대답하려는 순간, 플리트웁 교수가 말포이 옆에 나타났다.

"싸우고들 있는 건 아니겠지?" 그가 킁킁거리며 말했다.

◎처에게 빗자루가 우송되었어요, 교수님." 말포이가 얼른 말했다.

◎썰, 그래, 맞다. " 플리트웁 교수가 해리에게 환하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께서 그 특수 상황에 대해 내게 모두 말씀하셨단다. 포터. 그런데 모델명이 뭐지?'

'검부스 2700 이에요, 선생님' 해리는 일그러지는 말포이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했다. ◎리고 제가 빗자루를 갖게 된 건 정말로 여기 있는 말포이 덕분이예요." 그가 덧붙였다.

해리와 론은 이층으로 올라가면서, 말포이의 얼굴에 나타났던 분노와 당황해 하는 표정을 떠올리며 배꼽이 빠져라 웃었다.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들이 대리석 계단 위에 도착했을 때 해리가 좋아서 깔깔거리며 말했다. "그 녀석이 만약 네빌의 리멤브럴을 훔치지 않았다면 난 그 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 77....."

"그래서 넌 그게 규칙을 어긴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들 바로 뒤에서 뽕뽕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헤르미온드가 해리의 손에 들린 소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 해리가 물었다.

"그래, 그렇게 계속 가." 론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헤르미온드는 코를 높이 쳐들고 걸어갔다.

해리는 그날 좀처럼 수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자꾸 새로운 빗자루가 침대 밑에 놓여있는 기숙사 방이나, 이따밤에 그가 퀴디치 경기를 배우게 될 경기장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는 그날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게 저녁을 후딱 먹어치우고는 론과 이층으로 달려가 마침내 님부스 70을 풀어보았다.

"와." 그 빗자루가 해리의 침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론이◎떨선 탄성을 질렀다.

빗자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해리에게조차도 그것이 매혹릉해 보였다. 마호가니 손잡이가 달린 그 빗자루는 매끄러운 광택이 났으며 긴 꼬리부분에는 깔끔하고 곧은 작은 가지들이 모여 있었다. 또 윗부분에는 황금색으로 님부스 2000 이라고 적혀 있었다.

7시가 다 되어 가자, 해리는 성을 나와 어둠을 뚫고 퀴디치경기장으로 출발했다. 그는 스타디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경기장 주위의 관람석에는 수백 석의 좌석이 구경꾼들이 경기 상황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경기장 양쪽 끝에는 맨 꼭대기에 등근 고리가 달린 황금빛장대 세 개가 있었다.

해리는 그 장대들을 보자 그 높이가 1미터 정도라는 것만 빼고는, 꼭 머글 아이들이 비누 거품을 불 때 쓰는 작은 플라스틱 막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는 어찌나 다시 날고 싶었던지 우드를 기다리지 못하고,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걷어찼다. 굉장한 기분이었다. 그는 공중에서부터 골대 속으로 휙 날아 들어갔다 나온 뒤 속도를 내어 경기장에 내렸다. 님부스 70은 살짝만 건드려도 그가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것 봐, 포터, 내려와!"

올리버 우드가 도착했다. 그는 팔 밑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해리는 그의 옆에 착륙했다.

'멋졌어.' 우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님의말뜻을 알겠어..... 넌 정말로 타고난 재주꾼이야. 오늘 저녁엔경기 규칙을 가르쳐 줄게. 앞으로 넌 일주일에 세 번, 팀 연습에 참가해야 할 거야.'

그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공 네개가 들어있었다.

우드가 말했다. "퀴디치의 규칙은 아주 간단해. 경기하그렇게 쉽지 않지만 말야. 한 팀에 일곱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중 세 명은 추격뿐이라고 해 "

"세 명의 추격꾼.' 해리가 되풀이하여 말할 때,우드가 축구공크기의 연한 빨간색 공 하나를 꺼냈다.

"이 공은 웨이플이라는 거야." 우드가 말했다. ◎격꾼들은웨이플을 던져 골대 안으로 넣어 득점하지."

해리가 복창을 했다. ◎써니까- 그건 여섯 개의 골대를가지고 빗자루를 타고 경기하는, 일종의 농구와 같은 거로군요, 안 그래요?"

"농구가 뭐지?" 우드가 신기한 듯이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그런데, 각 팀에는 파수꾼이라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어-난 그리핀도르의 파수꾼이야.내가 할 일은 우리 골대들 주위를 날아다니며 상대팀이 득점하는 걸 막는 거야."

◎뀐꾼 세 명,파수꾼 한 명.'해리가 그 모든 걸 확실히 기척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선수들은 웨이플을 가지고 경기한다 이거죠. 알겠어요.그런데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그가 상자 안에 남아 있는 공 세 개를 가리켰다.

"이제 보여줄 거야."우드가 말했다. "이걸 받아."

그는 해리에게 짧은 야구 방망이처럼 생긴,작은 방망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겉씨저가 무얼 하는지 보여 줄게." 우드가 말했다. "이 두"자," 우드가 말했다. "퀴디치의 규칙은 아주 간단해.경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말야. 한 팀에 일곱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중 세 명은 추격뿐이라고 해."

"세 명의 추격꾼." 해리가 되풀이하여 말할 때,우드가 축구공크기의 연한 빨간색 공 하나를 꺼냈다.

"이 공은 웨이플이라는 거야." 우드가 말했다. '추격꾼들은웨이플을 던져 골대 안으로 넣어 득점하지."

해리가 복창을 했다. ◎써니까- 그건 여섯 개의 골대를가지고 빗자루를 타고 경기하는, 일종의 농구와 같은 거로군요, 안 그래요?"

"농구가 뭐지?" 우드가 신기한 듯이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런데, 각 팀에는 파수꾼이라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어-난 그리핀도르의 파수꾼이야.내가 할 일은 우리 골대들 주위를 날아다니며 상대팀이 득점하는 걸 막는 거야.'

"추격꾼 세 명, 파수꾼 한 명." 해리가 그 모든 걸 확실히 기억했다는 듯 말했다. ◎띠고 선수들은 케이플을 가지고 경기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그가 상자 안에 남아 있는 공 세 개를 가리켰다.

"이제 보여줄 거야." 우드가 말했다. "이걸 받아."

그는 해리에게 짧은 야구 방망이처럼 생긴, 작은 방망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결썬저가 무얼 하는지 보여 줄게." 우드가 말했다. "이 두개가 불러저야."

그는 해리에게 케이플보다는 약간 작은, 까만색의 똑같은 공 두 개를 보여주었다. 해리는 그것들이 상자 안에서 벗어나려고 용쓰고 있는 걸 알아챘다

◎거 서." 우드가 해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가 상체를 굽혀 불러저 하나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그 까만 공이 즉시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해리의 얼굴로 곧장 떨어졌다. 순간

해리는 자신의 코가 깨질까봐 얼른 공을 방망이로 쳐냈다. 그러자 공은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는 그들의 얼굴 주위에서 붕소리를 내며 돌다가 우드에게로 돌진했는데 우드가 그 위로 뛰어올라가 땅에다 메다꽃았다.

"알겠어?" 우드가 혈떡거리며, 발버둥치는 불러저를 다시 나무 상자 속으로 억지로 넣고 가죽끈으로 안전하게 잡아맸다.

결썬저들은 로켓처럼 곧장 위로 날아올라 선수들을 빗자루에서 떨어뜨리려고 해. 팀마다 물이꾼이 두 명씩 있는 건 바로그 때문이야-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우리 팀의 물이꾼이야- 자기편을 불러저들에게서 보호하고 그것들을 쳐서 상대팀 쪽으로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임무지.자-다 이해할 수 있겠니?"

'세 명의 추격꾼은 케이플로 득점을 시도하고, 파수꾼은 골대를 지키고, 물이꾼은 불러저가 자기 팀에 오지 못하게 한다.' 해리가 거침없이 술술 이야기했다.

기주 좋아," 우드가 말했다.

"어- 불러저들이 사람을 맞혀 죽인 적이 있나요?" 해리가 무심코 한 질문처럼 들리길 바라며, 물었다.

"호그와트에서는 한번도 없었어. 두어 번 턱뼈가 부러지긴했지만 그 이상 심자한 부상은 없었지.자 이제, 팀의 마지막구성원이 수색꾼이야. 바로 너지. 넌 케이플이나 불러저들에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에 맞아 머리가 깨지면 어떡해요."

"걱정 마, 불러저들은 위즐리 형제의 경쟁상대가 아니니까-내 말은 그들이 한 쌍의 인간 불러저들과 같다는 말야, '우드는 나무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남은 공을 꺼냈다. 케이플이나 불러저들에 비해 그 공은 아주 작았는데 커다란 호두 크기만 했다. 그것은 밝은 황금색이었으며 팔랑팔랑대는 작은 은빛 날개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우드가 말했다. "골든 스니치인데,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이지 그 공은 아주 빠른

데다 잘 보이지 않아서 잡기가 아주 힘들어.그걸 잡는 게 바로 수색꾼의 임무야.넌 상대팀의 수색꾼보다 빨리 그것을 찾기 위해 추격꾼, 물이꾼, 불러저, 케이플을 누비고 다녀야만 해.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수색꾼이 그 스니치를 잡으면 150 점의 추가 득점을 하게 되어 거의

항상 이기게 되기 때문이지. 수색꾼들이 반칙을 그렇게 많이 범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야.퀴디치 게임은 스니치가 잡힐때만 끝나므로,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어-난 그

기록이 3 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선수들이 수면을 좀 취할 수있도록 계속해서 후보 선수들을 데려와야만 했대.자,그게 다야- 질문 있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알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을 실제로 해낸다는 것은 큰 문제인것 같았다.

"우린 아작은 스니 치로는 연습을 하지 않을 거야." 우드가그것을 그 나무 상자 속에 다시 넣고 조심스럽게 닫으며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잃어버릴지도 모르거든. 그럼 몇 가지만시험해 보자."

그는 주머니에서 보통 골프공 가방을 꺼냈다. 잠시 후,그들

밋자주를 막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우드는 그 골프공들을

사방으로 세게 던져가며 해리에게 잡는 연습을 시켰다.

해리가 단 한 개도 놓치지 않고 공을 받아내자. 우드는 매우만족한 웃음을 지어덜었파.

그러나 渤분이 지나자 날이 너무어두워졌으므로 연습을 계속할 수가 畿談다.

"금년엔 저 퀴디치 우승컵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거야.'성으로 터벅터벅 돌아갈 때 우드가 유쾌히 말했다. '건 분명찰리 위즐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용을 쫓아 가버리지않았다면 영국 대표 선수로도 나갈 수 있었을 만큼 뛰어난 선수였지."

숙제하라 일주일에 3일 저녁을 퀴디치 연습을 하라 너무 바쁜 탓이기도 했지만, 해리는 호그와트에 온 지가 어느 새 두달이 되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성이 프리벳가보다 더 집 같은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수업도 기초가 숙달되자점점 더 재미 있어지고 있었다.

할로윈 데이 아침에 그들은 복도를 통해 풍겨오는 호박을굽는 맛좋은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더욱 더 신나는 일은 플리트워 교수가 마법 수업 시간에, 이제 물건들을 날아다니게 하는 실험을 해보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교수님이 네빌의 두꺼비를 교실 위로 붕 뜨게 한 것을 본 이후 죽고것을 몹시 하고 싶어했었다. 플리트워 교수는 연습을 할 수있도록 학생들을 돌씩 짝 지워 주었다. 해리의 짝은 시무스 피니간이었다(정말 다행스러웠다, 왜냐하면 네빌이 계속해서 그와 시선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론은 그러나헤르미온느 그레이н저와 짝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론이나 헤르미온느 중 어느 쪽이 더 화가 났는지는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해리에게 빗자루가 생긴 이후 그들에게 한 마디도하지 않았었다.

"자,우리가 연습해 왔던 손목 운동을 잊지 말도록!"플리트워 교수가 평상시처럼 책 더미 위에 올라서서 꺾꺾거리며 말했다. '칠두르고 치고, 기억해, 휘두르고 치고. 그리고 주문을적절히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f(에프)'를 '3(에스)'로 잘못 말했다가 몰소 밑에 깔렸던 바루피오 마법사를 절대 잊어선 안돼."

그것은 아주 어려웠다. 해리와 시무스가 지팡이를 휘둘러 가볍게 탁 쳤지만,위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깃털은 그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시무스는 그것을 지팡이로 찔러 불을 질러 177 렸다- 해리는 모자로불을 ;fI 야만 했다. 옆 테이블에 있는 론에게도 운은 잘 따라주지 않았다.

'병각턱웁 렌빅오삭.1"그가 긴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소리쳤다.

'주문을 잘못 말하고 있잖아." 해리는 론에게 잔소리를 하는헤르미온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왕-가㉸끼웁 레비-오우-사야. '가르'라고 부드럽고 길게 소리내야 한다구."㉸런게 똑똑하면 네가 해." 론이 딱딱거렸다.

헤르미온느는 망토 소매를 돌돌 걸어붙이고, 지팡이를 치며말했다. '꺾긴르딘웁 린빈오우산.1"

그러자 깃털이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머리 위 1미터 정도의높이에서 흐느적거렸다.

"오, 잘했다!" 플리트워 교수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모두여기를 봐요,그레이н저 양이 해냈어요!"

론은 수업이 끝날 즈음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기무도 그 애를 배견내지 못하는 게 당연해." 복잡한 복도로 나가면서 그가 해리에게 말했다.

"그 앤 솔직히 악몽이야."아이들이 해리 옆으로 서둘러 지나갈 때 누군가가 그와 부딪혔다.

헤르미온느였다. 그런데 그녀를 흘끗 쳐다본 해리는그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애가 네가 한 말을 들은 것 같아."

'㉸래?" 론이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 앤 자신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걸 좀 알아야 해"

헤르미온느는 그 다음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내내보이지 않았다. 해리와 론은 할로윈 파티를 하러 식당으로 내려가다가, 패르바티 패틸이 친구 라벤더에게 헤르미온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며 혼자 있고 싶어한다고 말하는 걸우연히 듣게 되었다. 론은 이것 때문에 훨씬 더 거북해 보였지만,잠시 후 멋진 할로윈 장식이 되어 있는 연회 장으로 들어가자헤르미온느에 대한 생각은 씻은 듯이 잊어버렸다.

벽과 천장에서는 천 마리쯤 되는 진짜 박쥐들이 퍼덕거리고있었고, 다른 천 마리쯤의 박쥐들이 마치 검은 구름처럼 식탁들 여기저기를 덮고 호박 촛불들을 흔들리게 했다. 그때 학기초 연회에서처럼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 담긴 황금 접시들이나타났다.

해리가 구운 강자를 먹고 있는데 퀴렐 교수가 터번을 비스듬히 눌러쓰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회장 안으로 달려왔다.

모두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덤블도어 교수의 의자로 달려가더니, 테이블에 폭 엎어지면서혈떡거리며 말했다. "트롤이-지하 감옥에- 아셔야만 할 것같아서요.'" 그는 그리고는 기절하여 마룻바닥으로 쓰러졌다

갑자기 식당 안이 떠들썩해지자 덤블도어 교수의 지팡이 끝에서 터지고 있던 자줏빛 폭죽의 소리가 멈춰졌다.

'반장들.'" 그가 나직이 울리는 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을 즉시 기숙사로 안내해요!'"

퍼시는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랄 따라와! 1학년생들은 같이 행동해!내 명령을 따르면 트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자,내 뒤에 딱 붙어 있어. 길을비켜주세요, 1학년생들이 지나갑니다! 실례합니다. 전 반장이예요!'"

"트롤이 어떻게 들어왔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해리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은 아주 멍청한 녀석들인데 말야.'"론이 말했다. '저쩌면 피브스가 할로윈 장난을 치느라 들어오게 했는지도 몰라.'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맞닥뜨렸다. 그들이 당황한 후플푸프 사람들을 과감히헤치고 나아갈 땡, 해리간 갑자기 론의 팔을 잡았다.

"금방 생각났는데 말야- 헤르미온느.'

"그 애가 어떻다고?'"

"그 애는 트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잖아.'

론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 맞아.'" 그가 얼른 말했다. 기지만 퍼시 형에게 들키지않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은 머리를 꼭 숙이고,후플푸프 사람들 속에 끼어 다른길로 가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복도로 스르르 빠져나가, 여자 화장실 쪽으로 급히 갔다 모퉁이를 돌아마자 뒤에서 빠른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퍼시 형이야!" 론이 쏙 하고 해리를 커다란 그리핀(독수리의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을 한 괴수: 옮긴이) 석상 뒤로 잡아끌며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그는 퍼시가 아니라 스네이프였다. 그는 그 복도를 가로질러 시야에서 사라졌다.

'찢 하고 있는 거지?" 해리가 속삭였다. '그는 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지?"

'잘게 뭐야.'

그들은 가능한 한조용히,사라져 가는 스네이프의 발자국을따라 옆 복도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7층으로 가고 있군.' 해리가 말했다. 그때 론이 손을 들어코를 쥐었다.

"무슨 냄새 안 나니?"

해리가 코를 킁킁거리자 현 양말과 더러운 공중 변소 냄새를 합한 것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 뒤 그들은 낮은 불평 소리와 거대한 발이 질질 끌리는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뭔가 거대한 물체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론이 왼쪽 통로 끝을 가리켰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그것이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3미터가 넘는 키에, 연한 잿빛 살갗,그리고 옥돌처럼 육중하고 둔탁한 몸집 위에 코코넛같이올려져 있는 작은 대머리,나무 세 개를 합쳐 놓은 것만큼 두점고 짧은 다리에 붙어있는 평평한 각질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로 지독했다. 그것은 커다란 나무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팔이 어찌나 길었던지 방망이가 마룻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 트롤은 현관 옆에 멈추더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좀 망설이는가 싶더니 길다란 귀를 흔들며, 어기적어기적 안으로 들어갔다.

"열쇠가 자물쇠에 끼어 있어.'" 해리가 비밀스레 말했다. "괴물을 안에 가두자."

'좋은 생각이야.' 론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 트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열린 문 쪽으로 살금살금 나아갔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해리는 한번에 펄쩍뛰어 그 열쇠를 잡고는 문을 꽁 닫고 잠갔다.

성공이다?'"

그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그 통로를 다시 달려나오기 시작했는데,모퉁이에 도달했을 때쫘 심장을 멎게 하는,공포에 질린커다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들이 막 잠근 바로그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꼭,이럴 수가.'론이 피투성이 바론처럼 창백해져서 말했다.

"거기가 바로 여자 화장실이었어!" 해리는 숨이 막혔다.

'힌르민온느.1'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얼른 방향을 돌려 그 문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듬거리며 열쇠를 돌렸다. 해리가 문을 핵 잡아당겨 열자마자 그들은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맞은편 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트롤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벽에 붙어 있는 세면대들을 차례로 깨뜨렸다.

"정신없게 만들어봐!" 해리가 생각다못해 론에게 이렇게말하자,그가 떨어진 수도꼭지를 주워 있는 힘껏 벽으로 던졌다.

그러자 트롤이 헤르미온느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무엇이 그 소리를 나게 했는지 보려고 멍청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쿵쿵 걸어 다니다가 해리를 발견하고는 심술궂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괴물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방망이를 들어올리고 해리 쪽으로 향했다.

"야,얼간야!" 론이 방 저쪽에서 외치며 트롤에게 금속 파이프를 던졌다. 트롤은 그 파이프가 어깨를 때리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그것이 고함소리에 다시 멈칫하며 못생긴 코를 론에게 돌리는 사이, 해리가 얼른 달아났다.

'떠서,달려. 달궂락구.1'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문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도"거기가 바로 여자 화장실이었어!" 해리는 숨이 막혔다.

'리르민온느.1' 그들은 동시에 외쳤다.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얼른 방향을 돌려 그 문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 더듬거리며 열쇠를 돌렸다. 해리가 문을 핵 잡아당겨 열자마자 그들은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헤르미온느 그레이저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맞은편 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트롤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벽에 붙어 있는 세면대들을 차례로 깨뜨렸다.

"정신없게 만들어봐!" 해리가 생각다못해 론에게 이렇게말하자,그가 떨어진 수도꼭지를 주워 있는 힘껏 벽으로 던졌다.

그러자 트롤이 헤르미온느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리고 무엇이 그 소리를 나게 했는지 보려고 멍청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쿵쿵 걸어 다니다가 해리를 발견하고는 심술궂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괴물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방망이를 들어올리고 해리 쪽으로 향했다.

"야, 얼간야!" 론이 방 저쪽에서 외치며 트롤에게 금속 파이프를 던졌다. 트롤은 그 파이프가 어깨를 때리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그것이 고함소리에 다시 멈칫하며 못생긴 코를 론에게 돌리는 사이, 해리가 얼른 달아났다.

"어서, 달려, 달궂락구.1'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문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도못하고,겹에 질려 입만 벌린 채 벽에 딱 붙어 있었다.

고함소리와 메아리들이 트롤을 광포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다시 으르렁거리더니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론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때 해리는 용감 무쌍한 일을 했다. 그는 달려가 트롤에게로 펄쩍 뛰어올라 뒤에서 트롤의 목을 조였다. 트롤은 해리가 매달려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아무리 트롤이라도 긴 나무 막대로 코를 쑤신다면야.

그런데 트롤에게로 뛰어오른 해리의 손에는 마침 요술지팡이가 들려 있었다-그리고 그 요술지팡이가 트롤의 한쪽 콧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다.

어찌나 아팠던지 트롤은 마구 울부짖으며 방망이를 휘둘러댔지만,해리는 죽어라 매달려 있었다. 트롤은 금방이라도 그를 떼어내 방망이로 한방 갈길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겹에 질려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론은 요술지팡이를 꺼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그는 머리에 처음으로 떠오른 주문을 외치고 있었다. '병 7◎턱움 렉 7 켈우사!"

그러자 그 방망이가 갑자기 트롤의 손에서 벗어나,저 위로올라가더니 탁 하며 그 주인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러자 트롤이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더니 방 전체를 흔들어버릴 것 같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쿵 하고 넘어졌다.

해리가 일어섰다. 그는 벌벌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론 L 지팡이를 여전히 들어올린 채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한 7· 뻥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말한 사람은 헤르미온느였다

"저게- 죽었을까?"

◎런지 않을 거야...해리가 말했다...그냥 기절한 것뿐일 거 77,"

그는 허리를 굽혀 그 트롤의 코에서 지팡이를 빼냈다. 그것은 회색빛 풀 덩어리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으으- 트롤의 코딱지야."

그는 그것을 트롤의 바지에 속 댔었다.

그 때 갑자기 쿵쿵 하는 커다란 발소리가 났다. 그들 셋은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만,아래층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쿵쿵거리는 소리와 트롤의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게 틀림없었다.

별안간 맥고나걸 교수가 들어닥쳤고, 곧 이어서 스네이프가,그리고 퀵렐이 맨 뒤에 따라 들어왔다. 퀵렐은 그 트롤을 한번보더니 겁에 질려 신음소리를 내고는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앉아 가슴을 움켜잡았다.

스네이프는 허리를 굽혀 트롤을 보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론과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그녀가 그렇게 화난 걸 본적이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리핀도르에게 50 점을 따게 해줄 거라는 희망이 해리의 마음속에서썩 가졌다.

◎째체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맥고나걸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론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왜 기숙사에 있지 않았니?"

스네이프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해리를 흘끗 바라보았다. 해리는 마룻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론이 지팡이를 내리기를바랐다.

그 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맥고나걸 교수님- 그 애들은 절 찾고 있었어요."◎세인저 양!"

헤르미온느가 마침내 간신히 일어섰다.

'건 그 트롤을 찾으러 갔었어요. 왜냐하면 전- 전 혼자서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그것들에대해 읽은 적이 있거든요."

론이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선생님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긴길 그 애들이 절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 지금쯤 죽었을거예요 해리는 자기 지팡이로 트롤의 코를 찔렀고 론은 트롤의 방망이로 저 괴물을 쓰러뜨렸어요.그 애들은 누구를 데려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 애들이 도착했을 때 전 죽기 직전이었어요"

해리와 론은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글쎄- 그렇다만...'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 셋을 뵈히 보며말했다. '◎레인저 양, 이 어리석은 아가씨야, 어떻게 혼자서산더미만한 트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헤르미온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대로 규칙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는 헤르미온느가,그런 그녀가,그들을 곤란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 규칙을 어긴 척하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것 같았다.

'◎레인저 양, 이 문제를 일으킨 벌로 그리핀도르에서 5 점감점하겠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패단히 실망했어.다친 데가 없다면,그리핀도르 탐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학생들이 각자의 기숙사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테니까.'

헤르미온느가 떠났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와 론에게 돌아섰다.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말이 없구나.완전히 자란 산더미만한 트롤과 대결할 수 있었던 1 학년생들은 많지 않으니까 말야. 그러니까 각각에게 5 점씩 주도록 하겠다.

덤볼도어교수님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럼 가봐.'

그들은 그 방에서 급히 나왔지만 두 층을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트롤의 냄새에서, 아니 눈앞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이려고 애썼다.

"글쎄- 그렇다만...'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 셋을 뵈히 보며말했다 "그레인저 양, 이 어리석은 아가씨야, 어떻게 혼자서산더미만한 트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헤르미온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대로 규칙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는 헤르미온느가,그런 그녀가,그들을 곤란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 규칙을 어긴 척하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것 같았다.

'◎레인저 양, 이 문제를 일으킨 벌로 그리핀도르에서 5 점 7 점하겠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대단히 실망했어. 다친 데가 없다면, 그리핀도르 탑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학생들이 각자의 기숙사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테니까.'

헤르미온드가 떠났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와 론에게 돌아섰다.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말이 없구나. 완전히 자란 산더미만한 트롤과 대결할 수 있었던 1 학년생들은 많지 않으니까 말야. 그러니까 각각에게 5 점씩 주도록 하겠다.

덤블도어 교수님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럼 가봐.'

그들은 그 방에서 급히 나왔지만 두 층을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트롤의 냄새에서, 아니 눈앞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린 10 점 이상을 받았어야해." 론이 투덜거렸다.

◎점 이상이지. 헤르미온드가 감정 당했으니까."

"그 애 말야, 우릴 그런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다니 참 착하기도 하지" 론이 인정했다.

'그렇지만 잘 들어, 우리가 그앨 구한 거야.'

씩끼가 트롤을 그 애와 함께 가두지 않았다면 우린 그 애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거야.'

해리가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똥보 여인의 초상화 앞에 도착했다.

'패지 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며 들어갔다.

학생 휴게실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고 몹시 시끄러웠다. 모두들 올려 보내진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미온드는 문가에 홀로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매우 당혹스러운 순간이 흘렀다. 그리곤 그들 모두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일제히

"고마워."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접시를 가지러 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즉, 헤르미온드 그레이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세상에는 함께 했을 때 반드시 서로를 좋아하게 만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산더미만한 트롤을 쓰러뜨리는 것도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1 월이 되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학교 주변의 산은 싸 1.

그 늘한 젖빛으로 변했고 호수는 얼음장 같았다. 아침마다 땅은 서리로 뒤덮였다. 이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해그리드가 퀴디치 경기장에서 긴 두더지 가죽 코트에, 토끼털 장갑 그리고 엄청나게 큰 비버가죽 부츠를 신고 빗자루들의 서리를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퀴디치 경기 시즌이 시작되었다. 토요일이면, 해리는 몇 주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경기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의 경기였다. 만일 이번에 그리핀도르가 이긴다면 기숙사 선수권 대회에서 2 위로 올라설 것이다.

아무도 해리가 경기하는 걸 보지 못했던 것은 우드가 해리를 비장의 무기로

생각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색꾼을 맡고 있다는

소식은 어느새 새어나가, 그가 훌륭한 수색꾼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트리스를 들고 밑에서 뛰어다녀야 할 거라고

빈정대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는 어느 쪽도 탐탁스럽지 않았다.

해리가 헤르미온드를 친구로 삼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최근에는 우드가 퀴디치 연습을 어찌나 혹독하게 시켰던지 그녀가 없었다면 아마 그 모든 숙제를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 '오랫동안 이어온 퀴디치' 라는 책을 빌려주었는데, 읽어 보니 굉장히 재미있었다.

해리는 퀴디치에는 반칙을 범하는 방법이 700 개가 있는데 1473 년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 반칙이 모두 범해졌었다는 걸 알았다. 또 수색꾼들은 대개 체구가 가장 작고 날렵한 선수가 많다는 것과, 경기중에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비록 퀴디치 경기를 하다가 죽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는 했지만, 심판들은 간혹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가 몇 달 뒤 사하라 사막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헤르미온드는 해리와 론이 그 산더미만한 트롤로부터 구해준 이후 웬만한 규칙 위반에 대해선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내기가 수월했다.

해리의 첫 번째 퀴디치 경기 전날 그들 셋은 쉬는 시간에 안마당으로 나갔는데, 바깥 날씨가 너무 춥자 그녀가 마법을 · "서 잼 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하늘색 난로 하나를 만들어 달" 그들이 그 난로에 등을 대고 서서, 온기를 쬔고 있을 때 스네이프가 마당 앞으로 지나갔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절뚝거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그 난로가 보이지 않도록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죄지은 것 같은 그들의 표정이 스네이프의 눈에 띄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아직 그난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잔소리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게 뭐지, 포터?"

그건 '오랫동안 이어진 퀴디치'였다. 해리가 그 책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서관 책들은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돼."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 책을 이리 내, 그리핀도르에서 5점 감점이다. "◎는 그 규칙을 막 만들어낸 거야," 스네이프가 절뚝거리며 저쪽으로 걸어가자 해리가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런데 그의 다리가 왜 그런 거지?"

"몰라. 하지만 그가 정말로 아팠으면 좋겠어." 론이 쌀쌀맞게 말했다.

그날 저녁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은 아주 소란스러웠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창가에 함께 앉아 있었다. 헤르미온드가 해리와 론의 마법 숙제를 점검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숙제를 베끼게 하지는 않았지만('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배울래?'), 한번 읽어주는 것은 기꺼이 해주었고, 그들은 어쨌든 올바른 답을 찾아갔다.

해리는 불안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온 퀴디치'를 빨리 되돌려받고 싶었다. 내일 다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왜 스네이프를 무서워하는 걸까? 그는 일어서면서 론과 헤르미온드에게 책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스네이프에게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동시에 말했지만, 해리는 다른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스네이프가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교무실로 내려가 노크를 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노크를 또 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스네이프가 혹시 그 책을 저 안에 두었을까? 그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었다. 그는 조금 열려있는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안에는 스네이프와 필치 단둘뿐이었다. 스네이프는 망토를 무릎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피투성이였는데, 난도질이라도 당한 듯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필치는 스네이프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었다.

"제기랄." 스네이프가 말하고 있었다. "머리 셋을 어떻게 한번에 볼 수 있겠어?"

그런데 해리가 문을 조용히 닫으려고 하는 순간-

"포터 !"

스네이프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열린 망토를 내려 다리를 가렸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 그저 제 책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_5." '나가! 나가라니까!'

해리는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에서 또 감점할까봐 부리나케 나왔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이층으로 달려갔다.

찾았어?" 해리가 돌아오자 론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는 그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할로윈 때 머리가 세 개인 저 개를 지나가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그를 봤을 때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라구- 그는 그 개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내 빗자루를 걸고 말하는데 저 트롤을 들어오게 한 것도 분명 그가한 짓일 거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말야!'

헤르미온드의 눈이 커졌다.

기야- 그러실 분이 아냐."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덤불도어 교수님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걸 훔치려고 했을 리가 없어.'

"솔직히, 헤르미온드, 너 모든 선생님들이 성인이나 뭐 그런것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난 해리와 생각이 같아. 스네이프는 능히 그럴 수 있어. 그런 온느가 해리와 론의 마법 숙제를 점검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숙제를 베끼게 하지는 않았지만('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배울래?'), 한번 읽어주는 것은 기꺼이 해주었고, 그들은 어쨌든 올바른 답을 찾아갔다.

해리는 불안했다. 그는 '오랫동안 이어온 퀴디치'를 빨리 되돌려받고 싶었다. 내일 다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왜 스네이프를 무서워하는 걸까? 그는 일어서면서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책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스네이프에게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동시에 말했지만, 해리는 다른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스네이프가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교무실로 내려가 노크를 했다. 아무 응답이 없었다. 노크를 또 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스네이프가 혹시 그 책을 저 안에 두었을까? 그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었다. 그는 조금 열려있는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안에는 스네이프와 필치 단둘뿐이었다. 스네이프는 망토를 무릎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의 한쪽 다리는 피투성이였는데, 난도질이라도 당한 듯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필치는 스네이프에게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었다.

'체기랄' 스네이프가 말하고 있었다. '떠리 셋을 어떻게 한번에 볼 수 있겠어?'

그런데 해리가 문을 조용히 닫으려고 하는 순간-

"포터 !"

스네이프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얼른 망토를 내려 다리를 가렸다.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 그저 제 책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_S_." '나가! 나가라니까!'

해리는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에서 또 감점할까봐 부리나케 나왔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이층으로 달려갔다

'갓았어?' 해리가 돌아오자 론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는 그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할로윈 때 머리가 세 개인 저 개를 지나가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그를 봤을 때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라구-그는 그 개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내 빗자루를 걸고 말하는데 저 트롤을 들어오게 한 것도 분명 그가 한 짓일 거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말야!"

헤르미온느의 눈이 커졌다.

"아냐- 그러실 분이 아냐.'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가 좋은 · 뉘끼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덤불도어 교수님이 안전하보관하고 있는 걸 훔치려고 했을 리가 없어."

"솔직히, 헤르미온느, 난 모든 선생님들이 성인이나 뭐 그런 7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해리와 생각이 같아. 스네이프는 능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게 뭘까?' 해리는 머리 속이 온통 론과 똑같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네빌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지만, 해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을 비우려고 했다-그는 수면이 필요했다. 자야만 했다. 몇 시간 후면 그는 첫 퀴디치 시합에 나가게 될 것이다-하지만 해리가 그의 다리를 보았을 때 스네이프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은 매우 맑고 추웠다. 연회장은 맛있는 소시지 튀김 냄새와 멋진 퀴디치 시합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유쾌한 잡담으로 가득했다.

"아침 좀 먹어."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아.'

'◎스트 한 쪽이라도 좀 먹어.'" 헤르미온느가 구슬렸다.

'배고프지 않아."

해리는 두려웠다. 한 시간 후면 그는 경기장 위를 걷고 있을 것이다.

"해리, 힘 내.' 시무스 피니간이 말했다. "상대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수색꾼뿐이니깐."

"고마워, 시무스." 시무스가 소시지에 케첩을 뿌리는 걸 보며 해리가 말했다.

11 시쯤이 되자 퀴디치 경기장 주변의 관람석에는 전교생이나와 있는 것 같았다. 많은 학생들이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좌석은 높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경기를 보기가 어려웠다.

론과 헤르미온드는 맨 윗줄에 있는 웨스트 햄에 자리잡은네빌과 시무스와 딘 옆에 앉았다. 해리가 보면 놀라겠'지만, 그들은 스캐버스가 못쓰게 만들어버린 시트로 커다란 현수막을미리 만들어 두었다

그 현수막에는 '잘친칼 ◎털'라고 쓰여 있었고, 또 그림을잘 그리는 딘이 그 밑에 커다란 그리핀도르 사자까지 그려놓았다. 그 그림은 헤르미온드가 숨씨 좋게 마법을 부려서 여러가 77 색깔로 반짝거렸다.

그 동안, 라커룸에서는, 해리와 나머지 팀원들이 진홍색 퀴디치 망토(슬리데린은 초록색을 입고 경기할 것이다)로 갈아입고 있었다.

우드는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헛기침을 했다.

"자, 선수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 체이서 안젤리나존슨이 말했다.

◎씨고 여자 선수들," 우드가 동의했다. '따로 이거야."기장 막강한 팀." 프레드 위즐리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것이지." 조지가 말했다.

"우린 올리버의 말을 다 외웠어."프레드가해리에게 말했다.

"우린 작년에도 팀에 있었거든."

'◎용히 해, 너희 둘." 우드가 말했다. "이번 팀은 그리핀도르가 오랜만에 갖는 최고의 팀이야.우린 이길 거야_확실해."그는 꼭 ◎렇지 않았다면'이라고 말할 것처럼 그들 모두를노려보았다.

"좋아. 시간이 됐다. 행운을 빈다, 모두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를 따라 라커룸 밖으로 나왔고 다리가부러지지 않길 바라며, 커다란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경기장으로 걸어나갔다.

후치 부인이 심판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빗자루를 손에 들고 양팀 선수들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자, 멋지고 공평한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위로 다모여서자 그녀가 말했다. 해리는 그녀가 특히 슬리데린의 주장인, 6학년 마커스 플린트를 주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걸 알아챘다. 해리는 플린트의 몸속에 꼭 트롤의 피가 흐르고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 위 높은 곳에서 펄럭이며, 번쩍거리고 있는 현수막을 훑듯 보았다. 그의 두 눈에 '잘해라 포터'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더 기운이 나는 걸 느꼈다.

"뗏자루에 올라타세요"

해리는 님부스 2 霜 0 위에 올라탔다.

후치 부인이 은빛 호각을 크게 한번 불었다

15 개의 빗자루들이 높이높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방금 그리핀도르의 안젤리나 존슨 선수가 퀘이플을 가로챘습니다- 저 여자 선수는 정말로 뛰어난 추격꾼입니다. 매력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조던 !"

기송합니다. 교수님."

위즐리 쌍둥이 형제의 친구, 리 조던이 맥고나컬 교수 옆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아, 알리샤 스피넛에게 멋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넛 양은 올리버 우드가 발굴해낸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엔 그저 후보 선수에 불과했었죠-

다시존슨에게로 그리고- 아니, 슬리데린 선수들이 퀘이플을 가져갔군요, 슬리데린의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그 퀘이플을 갖고출발합니다- 플린트가 저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고

있습니다-그가- 아니, 그리핀도르의 파수꾼 우드의 뛰어난 수비에 의해 저지

당했군요. 그리핀도르 선수들이 퀘이플을 가지고있습니다-저기 저 선수는 그리핀도르의 추격꾼 케이티 벨입 7다. 플린트에게로 멋지게 급강하하다가, 경기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아-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블러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시 슬리데린이 퀘이플을

가져갔습니다- 에이드리언 푸시가 골대 쪽으로 질주하고 있군요, 하지만 또다시 블러저에 막혔습니다-프레드와조지 위즐리가 보낸 거로군요- 어쨌든 그리핀도르 물이꾼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존슨이 다시 퀘이플을 가졌군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그녀가

정말로 날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블러저를 날쌔게 피하고 있군요- 골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안』 나- 파수꾼 블레츨리가 뛰어듭니다- 놓쳤습니다- 그

"조던 !"

"죄송합니다, 교수님."

위즐리 쌍둥이 형제의 친구, 리 조던이 맥고나걸 교수 옆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아, 알리샤 스피넛에게 멋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넛 양은 올리버 우드가 발굴해낸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엔 그저 후보 선수에 불과했었죠- 다시존슨에게로 그리고- 아니, 슬리데린 선수들이 케이플을 가져갔군요, 슬리데린의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그 케이플을 갖고출발합니다- 플린트가 저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고 있습니다-그가- 아니,그리핀도르의 파수꾼 우드의 뛰어난 수비에 의해 저지 당했군요 그리핀도르 선수들이 케이플을 가지고있습니다-저기 저 선수는 그리핀도르의 추격꾼 케이티 벨입니다. 플린트에게로 멋지게 급강하하다가, 경기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아-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블러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시 슬리데린이 케이플을 가져갔습니다- 에이드리언 푸시가 골대 쪽으로 질주하고 있군요, 하지만 또다시 블러저에 막혔습니다- 프레드와조지 위즐리가 보낸 거로군요- 어쨌든 그리핀도르 몰이꾼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존슨이 다시 케이플을 가졌군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그녀가 정말로 날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블러저를 날쌔게 피하고 있군요-골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이제,안젤리나- 파수꾼 블레츨리가 뛰어듭니다- 놓쳤습니다- 그그는 꼭 '그렇지 않았단간'이라고 말할 것처럼 그들 모두를노려보았다.

"좋아. 시간이 됐다. 행운을 빈다. 모두들."

해리는 프레드와 조지를 따라 라커룸 밖으로 나왔고 다리가부러지지 않길 바라며,커다란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경기장으로 걸어나갔다.

후치 부인이 심판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빗자루를 손에 들고 양팀 선수들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자,멋지고 공평한 경기가 되길 바래_a." 그들이 주위로 다모여서자 그녀가 말했다. 해리는 그녀가 특히 슬리데린의 주장인 6 학년 마커스 플린트를 주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걸 알아챘다. 해리는 플린트의 몸속에 꼭 트롤의 피가 흐르고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 위 높은 곳에서 펄럭이며,번쩍거리고 있는 현수막을 훑듯 보았다. 그의 두 눈에 '잘해라 포터'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더 기운이 나는 걸 느꼈다.

"빗자루에 올라타세요"

해리는 님부스 2070 위에 올라탔다.

후치 부인이 은빛 호각을 크게 한번 불었다.

15 개의 빗자루들이 높이높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갱금 그리핀도르의 안젤리나 존슨 선수가 케이플을 가로챘습니다- 저 여자 선수는 정말로 뛰어난 추격꾼입니다. 매력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조던 !"

"죄송합니다. 교수님."

위즐리 쌍둥이 형제의 친구, 리 조던이 맥고나걸 교수 옆에서 경기 해설을 하고 있었다.

◎처가 위로 올라가는군요, 아, 알리샤 스피넛에게 멋진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넛 양은 올리버 우드가 발굴해낸 좋은 선수입니다. 작년엔 그저 후보 선수에 불과했었죠-

다시존슨에게로 그리고-아니,슬리데린 선수들이 케이플을 가져갔군요, 슬리데린의 주장 마커스 플린트가 그 케이플을 갖고출발합니다- 플린트가 저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고 있습니다-그가- 아니,그리핀도르의 파수꾼 우드의 뛰어난 수비에 의해 저지 당했군요.그리핀도르 선수들이 케이플을 가지고있습니다-저기 저 선수는 그리핀도르의 추격꾼 케이티 벨입니다. 플린트에게로 멋지게 급강하하다가, 경기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아-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블러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시 슬리데린이 케이플을 가져갔습니다- 에이드리언 푸시가 골대 쪽으로 질주하고 있군요, 하지만 또다시 블러저에 막혔습니다-프레드와조지 위즐리가 보낸 거로군요-어쨌든 그리핀도르 몰이꾼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존슨이 다시 케이플을 가졌군요.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그녀가 정말로 날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블러저를 날쌔게 피하고 있군요-골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이제,안젤리나- 파수꾼 블레츨리가 뛰어듭니다- 놓쳤습니다- 그리핀도르 득점 !"

그리핀도르의 함성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열기로 가득 채웠다. 슬리데린에서는 불평과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위로 조금만 가!"

"해그리드!"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려고바짝 붙어 앉았다.

'빈은 내 오두막에서 보고 있어.' 해그리드가 목에 걸린 커다란 쌍안경을 두드리며 말했다.
◎개도 이렇게 군중 속에 앉아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지. 스니치가 나타날 기미는 아직
없니?"

"아뇨.' 론이 말했다. "해리는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계속해서 위험을 면하는 것, 그게
중요해!" 해그리드가 쌍안경을 들어 하늘로 쳐들고 작은 점처럼 된 해리를 보았다.

해리는 저 높은 곳에서 스니치가 나타날까 결심하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위쪽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건 우드와 함께 짠 경기 작전의 일부였다.

"스니치를 발견할 때까지 넌 물려서 있어." 우드가 말했었다.

'네가 괜히 공격 받았단 큰일나니까 말야.'

안젤리나가 득점했을 때, 해리는 너무나 기뻐서 곡에 비행을 두어 번 했었다. 이제 그는 다시
눈을 부릅뜨고 스니치를 찾고 있었다. 한번 황금 불빛을 보았지만, 그건 그저 위즐리
쌍둥이형제 가운데 한 명이 끼고 있는 손목시계에서 반사된 빛에 불과해 불러져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해리 7

? 불러져를 잡싸게

피하는 사이, 프레드 위즐리가 쫓아왔다.

"괜찮니, 해리?" 그가 그 불러져를 마커스 플린트 쪽으로 7f1

게 쳐내며 소리쳤다.

"슬리데린이 갖고 있습니다." 리 조던이 말하고 있었다... 추격꾼 푸시가 두 불러져와,
위즐리 형 71 와, 추격꾼 벨을 피해달리고 있음- 잠깐- 저게 스니치였나요? .

으뵐 ◎린언 푸시가 그의 왼쪽 귀로 스쳐 지나간

황금 불빛

을 찾는 데 정신이 팔려 퀘이플을 떨어뜨리자 군중

속에서 불

평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리는 그것을 보았다. 그는 밀려오는 흥분 속에 그 화금 불빛을 따라 아래로 돌진했다.

슬리데린의 수색꾼 테렌스 학스도 그것을 보았었다. 그들은 스니치를 향해 나란히 날아갔다-

모든 추격꾼들이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은 듯 공

중에 떠서 지켜보고 있었다.

해리가 학스보다 더 빨랐다-그는 그 작고

동그란 공이 날

개를 퍼덕거리며 앞으로 쏘살같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었

다-그는 젓 먹던 힘까지 내어 속도를 냈다-

광! 아래의 그리핀도르 쪽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와 74 마커스 플린트가 일부러 해리를
막아서는 바람에, 해리의 뗏자루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었던 것이다. 해리는 죽을 힘을 다 학
빛자루를 잡고 있었다.

'반칙!' 그리핀도르들이 소리쳤다.

후치 부인이 플린트에게 주의를 주고는 그리핀도르에게 골대에서 자유투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런 소동을 피우는 사이, 황금 스니치는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아래 관람석에서는 딘 토마스가 고향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석을 쫓아내세요, 심판! 레드
카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딘?" 론이 말했다. "레드 카드 말야!"

면이 곡가 나서 말했다. ◎구에서는 717 드 카드를 받게 빅면경마빅삭 홈터박맴록긴

"하지만 이건 축구가 아냐, 딘.' 론이 그를 상기시켰다.

해그리드는 그러나 딘의 편이었다.

'◎칙을 바꿔야 해. 플린트는 해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

플린트가 부정 행위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리조던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냉정하게 해설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잠시 잊고 말았다.

"그러니까- 저 너무나 명백하고 메스꺼운

질러진 뒤-"

◎뒹!" 맥고나걸 교수가 호통을 쳤다.

"제 말은.저 의도적이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라는 뜻입니다-"
'조던, 경고하겠어요

사기 행각이 저

반칙이 있는 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플린트는 하마터면 그리핀도르의 수색꾼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핀도르에게 자유투를,스피넛이 가져가서,갖고 있군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그리핀도르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해리가 블러저를 또 한번 피했다. 그것은 빙글탱글 돌며 날아가다가 아슬아슬하게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빗자루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한순간 그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텃자루를 양손과 무릎으로 꼭 잡았다. 그는 그런아찔한 기분을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은 또 일어났다. 빗자루가 꼭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님부스 2000 이 갑자기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 건 좀 이상했다. 해리는 그리핀도르 골대쪽으로 돌아서려고 했다-그는 우드에게 중간 휴식을 요구할생각이었다-그런데 그 때 그의 빗자루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빗자루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다. 빗자루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빗자루는 공중에서 지그재그로왔다갔다하는가 하면 그를 꼭 떨어뜨릴 것처럼 가끔씩 격렬하게 흔들렸다

리는 여전히 해설을 하고 있었다.

◎기데린이 가졌군요- 플린트가 케이플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피넛에게 패스-벨에게 패스-블러저에 얼굴을 세계맞았군요, 그의 코가 깨졌으면 좋겠군요- 농담입니다. 교수님 - 슬리데린 득점- 아 이럴 수가 . . "

슬리데린이 환호하고 있었다. 해리의 텃자루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텃자루가 갑자기 획획 움직이거나 썰룩썰룩거리며 그를 천천히 더높이,더 멀리 데려가고 있었다.

'해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그는 쌍안경으로 보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그가 텃자루를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 . . 하지만 그가 설마 . . . '

갑자기 사람들이 관람석 저 위에 있는 해리를 가리켰다. 그의 텃자루가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가까스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 뒤 모두의 숨을 멎게 하는 일이벌어졌다.

해리의 텃자루가 세계 최 움직였고 해리는 간신히 매달려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빗자루를 한 손으로만 잡은 채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플린트가 그를 막았을 때 텃자루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 시무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해그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켓자루에해를 끼칠 수 있는 건 강력한 어둠의 마법 뿐이야-아이들은절대 님부스 2070 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이 벌어지기가 무섭게,헤르미온드가 해그리드의 쌍안경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리를 올려다보지 않고,극도로흥분해서 군중을 살펴보고 있었다

"뭐하고 있는 거야?" 론이 창백해져서 투덜거렸다.

'◎럴 줄 알았어." 헤르미온드가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체이프야- 봐."

론이 쌍안경을 잡았다. 스네이프는 그들 맞은편 관람석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해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은 소리로 쉬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뭔가를 하고 있어-빗자루에 좋지 못한 마법을 걸고있는 거야.'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어떻게 하지?"

'내게 맡겨.'

론이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드는 벌써 사라지고없었다. 론은 쌍안경을 다시 해리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의텃자루가 어찌나 세게 흔들리고 있던지,그가 더 이상 매달려있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군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겁에질려 바라보고 있을 때 위즐리 형제가

날아올라 해리를 자신들의 빗자루 위로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그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갈 때마다 그 빗자루가 더 높이 뛰어올랐던 것이다.

그들은 그가 떨어질 경우 잡기를 바라며, 그 아래로 내려가빙빙 돌았다. 마커스 플린트가 케이프를 잡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득점을 다섯 번이나 했다.

"어서, 헤르미온느." 론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헤르미온느는 인파를 헤치고 스네이프가 서 있는 관람석 뒷줄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퀵릴 교수와 부딪혀서 그를 앞줄로 곤두박질치게 했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지팡이를 꺼내고는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그러자 하늘색 불꽃이 그녀의 지팡이에서 스네이프의 망토 자락으로 튀어나갔다.

스네이프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30 초 정도가 걸렸다. 갑작스런 비명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자신의 마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진 불꽃을 주머니 속에 든 작은 병에 담아 다시 기어 나왔다-스네이프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전혀 알지 못할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중에서는, 해리가 어느새 자신의 빗자루 위로 다시 기어오르고 있었다. '네빌, 이제 봐도 돼!' 론이 말했다. 네빌은 지난 5분여 동안 해그리드의 재킷 속에서 훑적거리고 있었다.

해리가 땅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군중들은 그가 마치 토하려는 것처럼 손을 입에다 갖다대는 걸 보았다- 그는 경기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엎드려서는 기침을 했다- 황금색의 무언가가 그의 손에 툭 떨어졌다.

'◎니치를 잡았다!' 그가 그것을 머리 위로 흔들며 소리쳤고, 경기는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는 잡은 게 아냐, 거의 삼킬 뻔했다구.' 뉘븐 뒤 플린트가

여전히 악을 쓰고 있었지만,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해리는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고 리 조던은 여전히 쾌활하게 그결과를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었다-그리핀도르가 170 대 關으로 이겼다. 해리는 그러나 함성 때문에 최종 경기 결과를 알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진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네이프가 그랬어,' 론이 설명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와 내가 보았어. 그는 네게서 눈을 떼지 않고, 뭐라고 중얼거리며네 빗자루를 저주하고 있었어.'

"쓸데없는 소리." 해그리드가 그의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 마디도 듣지 못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스네이프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전 그에 대해 뭔가를 알아냈어요." 그가 해그리드에게 말했다. "그는 할로윈 때 저 머리가 셋 달린 개를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개에게 물렸죠. 그 개가 지키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걸 훔치려 했던 거예요."

해그리드가 찻주전자를 떨어뜨렸다.

'너희들이 플러피를 어떻게 알지?' 그가 말했다

'플러피 라뇨?'

◎때- 그 개는 내 거야- 작년에 술집에서 만난 그리스 녀석에게서 샀지- 난 그 개를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빌려주었어-'◎개요?' 해리가 말했다.

"이제, 더 이상은 묻지 마."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건 1급 비밀이니까, 말하자면.'

기치만 스네이프는 그걸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게없는 소리" 해그리드가 다시 말했다. "스네이프는 호그와트의 선생이야, 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써면 그가 왜 해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날 오후의 사건이 화실히 스네이프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했던 것 같았다.

"전 좋지 못한 주문은 보면 알아요, 해그리드, 전 그것들에 대해 다 읽어보았다고요! 눈을 계속 맞추고 있어야만 하죠 스네이프는 눈을 조금도 깜박이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보았다고요!"

'내 말 잘 들어, 네가 틀렸어!' 해그리드가 흥분해서 말했다.

"해리의 빗자루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나도 몰라,하지만스네이프는 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편 없는 사람이 아냐! 자,잘 들어,너희 셋 다 너희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그건위험해. 저 개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그것이 무얼 지키고 있는지도 잊어버려. 그건
덤볼도어 교수와 니콜라스 플라멜 사이의 일이니까-"
사람이 관련되어 있군요?"

"아하!" 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퀴 디 치

해그리드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아하!" 해리가 말했다. '◎러니까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사람이 관련되어 있군요?"
해그리드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소망의 거울

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아
침,호그와트는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호

수는 꿈꿨 얼어붙었고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눈덩이 몇 개에마법을 걸어 퀴렐의 터번 뒤를
치고 튀어나오게 한 죄로 벌을받았다. 폭풍우가 올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날아온 부엉이 몇 마리는 다시 날아가기 전에 해그리드에 의해 양호실로
실려가 간호를 받아야 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 휴일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과 연회
장에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외풍이 심한 복도들에는 냉기가 돌았으며 사나운
바람이 교실 창문들을 뒤흔들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스네

" 52 ?

소망의 거울

'』

이프 교수의 수업이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에서는 숨을 쉬면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으므로 아이들은 가능하면 뜨거운냄비에 가까이 있으려고 했다.

"정말 안타까워." 한번은 마법의 약 수업 시간에 드레이코말포이가 말했다. "집에서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크리스마스를 호그와트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야."

그는 말하면서 해리를 보고 있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이 키득거렸다. 해리는 모르는 체하며,
가루로 뿜은 사자물고기의 등뼈 무게를 잴다.

말포이는 퀴디치 시험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심술궂어 졌다.

슬리데린이 졌다는 게 너무 분했던 그는 다음 시험에는 해리대신 입 큰 청개구리를
수색용으로 쓰는 게 어떨겠느냐며 모두를 웃기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자, 그는
해리가전혀 말을 듣지 않는 빗자루를 끈질기게 타고 있었던 것에 모두들 아주 감명받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말포이는 질투심도 나고 화도 나서,해리에게 가족다운 가족이 없다는 점을
들먹였던 것이다.

해리가 크리스마스에 프리벳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맥고나걸 교수가
일주일 전에 와서 휴일동안머물러 있을 학생들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해리가 제일
먼저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쩌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몰랐다. 론과그의 형제들도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위즐리 부부가
찰리를

" i3 f

뉴 킥 포터 와 마법 사의 돌

'』

만나러 루마니아에 가기 때문이었다.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나 지하 감옥을 떠날 때, 그들은 커다란 전나무 한 그루가 복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발견했다. 바닥에 771 죽이 나와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발과 혈떡이는 커다란 숨소리로 보아 그 뒤에 해그리드가 있는 게 분명했다.

"안녕, 해그리드, 도와드릴까요?" 론이 나뭇가지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아냐, 괜찮아, 고마워, 론."

"길 좀 비켜줄래?" 그들 뒤에서 말포이의 차갑고 점잔때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니, 위즐리? 호그와트를 졸업하면 넌 사냥터지기가 되면 좋겠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은 네 가족이 살았던 곳에 비하면 궁전 같을 거야.' 론이 말포이에게 덤 베풀었을 때 스네이프가 다가왔다.

"위즐리 !"

론이 잡고 있던 말포이의 망토를 놓았다.

'◎애가 먼저 약을 올렸습니다, 스네이프 교수님.' 해그리드가 털이 많은 얼굴을 나무 뒤에서 빼죽이 내밀며 말했다. "말포이가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있었어_a."

"그렇다 해도, 싸움은 호그와트 규칙에 어긋나요, 해그리드,'스네이프가 구변 좋게 말했다.

'그리핀도르에서 5점 감점이다.

위즐리, 더 많이 감점되지 않은 걸 고맙게 여겨라. 자 어서들가라, 너희들 모두,'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나무를 난폭하게 밀고 지나가

? 54 ?

소망와 거울

'』

며, 바늘 모양의 잎들을 여기저기에 흩어놓았다. 그들은 히죽히죽 웃고 있었다.

"저 녀석을 그냥." 론이 말포이의 등에다 대고 이빨을 갈며 말했다. '조만간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난 말포이하고 스네이프 둘 다 싫어.' 해리가 말했다.

"자, 기분 풀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해그리드가 말했다. "저 말이야, 나랑 연회장으로 가 보자, 기분 전환이 될 거야."

해그리드와 함께 연회장으로 가자, 맥고나걸 교수와 플리트윅 교수가 바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었다.

"아, 해그리드, 정말 멋진 나무로군요- 저쪽 구석에 놔 줄래요?"

연회장은 눈이 부셨다. 벽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용 꽃줄과 겨우살이가 매달려 있었고, 작은 고드름이 반짝거리거나, 수백 개의 촛불로 반짝반짝 빛나는 迷개나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빙 둘러 서 있었다.

'휴일까지 며칠 남았지?' 해그리드가 물었다.

'단 하루요' 헤르미온드가 대답했다. '◎라고 보니 생각나는데- 해리, 론, 점심 먹기 전에 勞분밖에 없어, 우리 도서관에가기로 했잖아"

"아 그래, 맞았어." 지팡이에서 보글보글거리는 황금빛 거품들을 새로운 나무의 가지들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플리트윅 교수에게서 눈을 떼며 론이 말했다.

◎거실?" 해그리드가 연회장 밖으로 그들을 따라나오며 말했다. 패길이 시작되기 전날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니?"

"아, 저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해◎가 그에게 밝게 말했다. '니콜라스 플라멜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 죽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웬 했다구?' 해 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잘 들어- 내가 말했지- 잊어버리라구.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건 너희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어."

"저흰 그저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재주치면 저희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요?" 해리가 덧붙였다 "저흰 벌써 책을 수백 권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그냥 힌트만 좀 주세요- 제가 분명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읽었다구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해그리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런 저희들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뭐" 론이 말했고, 그들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해그리드를 내버려둔 채 급히도서관으로 갔다.

그들은 정말로 해그리드가 실수로 그 말을 내뱉은 이후 족책들을 뒤지며 플라멜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 말고는 달리 親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플라멜이 어떤 일을 해서 책에 실리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므로 어디서부터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努세기의 위대한 마법사'나, '우리 시대의 주목할 만한 마법사들'에도 없었다. 그는 또 '현대의 중요한 마술적인 발견들'과 현대 마법의발달 연구' 책에도 빠져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자료를찾아보고 있는 곳은 수만 권의 책과,수천 개의 책꽂이와,수백 개의 좁다란 통로가 있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었다.

헤르미온드가 찾아보기로 한 주제와 책 제목의 목록을 꺼내는 동안 론은 책시렁 쪽으로 걸어가 책들을 닦치는 대로 잡아 7 다.

해리는 제한 구역 쪽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플라멜이 저기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한된 책들을 業어보려면 선생님이 서명한 특별한 편지가 필요했고,그걸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들은 호그와트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이 들어있는 책들로,어둠의 마법을 막는 고등 방어법을 공부하는 고학년들만이 읽었던 것이다.

"뭘 찾고 있는 거지?"

"아무 것도 아녜요." 해리가 말했다.

사서인 핀스 부인이 깃털 총채를 그에게 휘둘렀다.

◎런 나가는 게 좋겠다. 어서- 나가!"

해리는 진작 거짓말을 꾸며내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며, 그도서관을 나왔다. 그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이미 핀스 부인에게에는 플라멜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다. 그녀에게서 원하는대답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스네이프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위험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다른 두 사람이 무엇이든 찾아냈는지 보려고 복도밖에서 기다렸지만,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작업을 시작한 지는 2 주나 되었지만,수업 시간사이사이에 남는 쪼가리 시간에만 조사했으므로 아무 것도 찾지 못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핀스 부인의 끈질긴 감시 없이 오랫동안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5 달쯤 뒤, 론과 헤르미온드가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왔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내가 없는 동안 계속 조사할 거지?'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뭐라도 찾으면 내게 부엉이를 보내 줘."

'◎럼 넌 네 부모님께 혹시 플라멜이 누군지 알고 계신지좀 물어볼 수 있겠다.' 론이 말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게안전할 거야.'

"아주 안전하지, 두 분 다 치과 의사시니까 말야."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휴일이 시작되자, 론과 해리는 너무 즐겁게 보내느라 플라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기숙사엔 그들 둘뿐이었고 학생 휴게실은 텅 비어 있다시피 해서, 난로 가에 있는 폭신한안락의자는 완전히 그들 차지였다.

그들은 토스트 굽는 긴 포크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거-빵, 잉글리시 머핀, 마시멜로(전에는 마시멜로 뿌리에서, 지금은 녹말,시럽,젤라틴 등으로 만드는 과자: 옹긴이)-나'먹으며한 시간이고 앉아서 말포이를 쫓아낼 계획들을 짜곤 했는데,그런 계획들이 설령 효과가 없다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 있었다.

론은 또한 해리에게 마법사 체스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인물들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제외하면 머글 체스와 똑같았다.

론의 체스 세트는 오래 써서인지 아주 낡고 초라했다. 그가갖고 있는 다른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것도 한때는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쓰던 것이었다-이 경우엔,그 체스의전 주인은 그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늙었다고 해서 장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론은 그인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휘하는 데 전혀 곤란을 겪지 않았다.

해리는 시무스 피니간이 그에게 빌려준 것들로 놀았는데, 그인물들은 그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아직 체스를 잘하지 못했고, 그들이 충고한답시고 그에게 각기 다른 충고를 해했으므로 정신이 없었다. '랄 거기로 보내지 마,넌 저 나이트도 안보이니?그를 보내라구,우린 그 녀석 없이도 잘해나갈 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해리는 다음날 먹게 될 음식과 즐거움을 고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선물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었을 때 그가 가장 처음 본 것은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꾸러미들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가 침대에서 기어나와 가운을 입자론이 아직 졸린 듯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가 말했다. "이것 좀 볼래? 나 선물받았어 !"

◎뎀 월 기대했는데, 순무 뿌리?" 론이 해리 것보다 훨씬큰 자신의 꾸러미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해리는 맨 위에 있는 소포를 집었다. 그것은 두꺼운 갈색 포장지로 싸여 있었는데 해리에게, 해그리드가'라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여있었다. 안에는 대충 깎은 나무 피리가 들어 있었다. 해그리드가 직접 깎아서 만든 게 분명했다. 해리는 한번불어보았다-꼭 부엉이가 짹짹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두 번째의 아주 작은 소포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페가 보낸 전갈은 잘 받았고 여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봉한다. 버는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가.

그 편지에는 黠펜스짜리 동전이 붙여져 있었다.

"친절하시군." 해리가 말했다.

론은 黠펜스에 열을 빼앗겼다.

"인상한다.1"그가 말했다 '모양이 기막힌데! 이게 돈이야?' '너 가져도 돼." 해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론을 보고 웃으며말했다. "해그리드와 이모와 이모부-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보낸 거지?"

'저건 누가 보낸 건지 알 것 같아." 론이 얼굴을 붉히며 을통불통한 소포를 가리켰다. 씩씩 엄마야. 엄마께 네가 어떤선물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거든.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그가 투덜댔다. "엄마가 네게 위즐리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어."

해리가 그 소포를 뜯자 손으로 뜯 두꺼운 에메랄드빛 스웨터와 집에서 만든

퍼지(설탕,버터,우유,초콜릿으로 만든 물렁한캔디 : 옴긴이)가 나왔다.

"엄마는 매년 우리에게 스웨터를 떠 주셔." 론이 자기 것도풀며 말했다. '내 것은 언제나 밤색이야."

"정말 좋으신 엄마다. " 해리가 퍼지를 맛있게 한입 먹으며말했다.

그의 다음 선물에도 사탕 과자가 들어있었다. 헤르미온느가보낸 커다란 개구리 초콜릿 상자였다.

이제 한 소포만 남아 있었다. 해리는 살짝 접혀져 있는 그것을 집어들고 만져보았다. 무게는 가벼웠다. 그는 소포를 풀었다.

그러자 뭔가 부드러운 은회색 물질이 마룻바닥으로 주르르미끄러져 내렸다. 론은 놀란 나머지 숨을 쉬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그가 헤르미온느가 보낸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 상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라면-그건 진짜 귀하고, 진짜 값비싼 거야."

"그게 원데?"

해리는 마룻바닥에서 그 반짝이는 은빛 옷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촉감도 이상했다.

'그건 투명 망토야.' 론이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확실히- 한번 입어봐,'

해리가그 망토를 어깨에 걸치자 론이 비명을 질렀다.

"맞아! 아래를 봐!"

해리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지만,발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거울로 달려갔다. 확실히 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머리만공중에 떠있는 그의 영상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망토를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 입자 그의 영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편지가 있어!" 론이 갑자기 말했다. "망토에서 편지가 떨어졌어 !"

해리는 망토를 급히 벗고 편지를 집었다. 그것은 그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좁다랗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쓰여 있었다.

네 아버지가 풍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내게 딸기셨다

이제 네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쓴 사용하거라.

떼려 크리스마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해리는 그 편지를 뚫어지게 보았다. 론은 그 망토에 감탄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난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그가 말했다. "무슨 짓이라도. 왜 그래?"

지무 것도 아냐.' 해리가 말했다. 그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누가 그 망토를 보냈을까?그게 정말로 한때 그의 아버지 것이었을까?

그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기숙사 문이 왈칵 열리며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뛰어들어왔다. 해리는 얼른 그 망토를 보이지 않게 쑥서 넣었다. 아직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얘길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봐- 해리도 위즐리 스웨터를 가졌지 !"

프레드와 조지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하나에는노란색으로 커다랗게 『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G라고 쓰여 있었다.

◎핀데 해리의 스웨터가 우리 것보다 더 좋군.' 프레드가해리의 스웨터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건 우리 가족이 아니기때문에 엄마께서 더 공을 들으신 게 분명해"

'넌 왜 스웨터를 입고 있지 않니,론?" 조지가 물었다 "자,어서 입어, 따뜻하고 좋아."

'난 밤색이 싫어.' 론이 스웨터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서 입으며 전혀 내키지 않는 듯 투덜거렸다.

'네 스웨터엔 문자가 안 쓰여 있네," 조지가 말했다. '건 네이름을 잊어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야.그렇다고우리가 멍청하다는 건 아냐- 우리도 우리 이름이

그레드와포지(장난으로 프레드와 조지의 첫 문자 『와 G를 바꾸어서 발음한것잉 : 옮긴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니?"

퍼시 위즐리가 못마땅한 얼굴로 문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프레드에게 잡힌 팔에 울퉁불퉁한 스웨터가 들려 있는 것으로봐서 그 역시 선물들을 풀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반장이라는 뜻의 딜네! 입어,퍼시 형, 어서,우리 모두 스웨터를 입고 있잖아, 해리도 있단 말야."

'난- 입고 싶지- 않아-' 쌍둥이 형제가 그의 머리 위로 그 스웨터를 억지로 입히려다가,

안경이 비뚤어지자 퍼시가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설마 반장들과 지낼 일은 없겠지." 조지가 말했다.

◎띠스마스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잖아.'

그들은 퍼시의 스웨터로 그의 양팔을 뒤로 묶고 방에서 걸어나가게 했다.

해리는 평생 그런 크리스마스 저녁식사를 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Im마리의 살진 칠면조 구이와 산더미 같은 구운감자와 삶은 감자, 타원형의 큰 접시에 담긴 가늘고 작은 소시지,웁퉁한 그릇에 담긴 버터 바른 콩,은빛 배에 담긴 진한그레이리 소스와 크렌베리 소스-그리고 테이블에 몇 센티미터마다 놓인 마법사의 폭죽 더미.

이런 환상적인 파티의 선물들은 더즐리 가족이 보통 사는,안에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과 論은 종이 모자가 들어있는 연약한 머글의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해리가 프레드와 함께 마법사의 폭죽 하나를 잡아당겼는데 그것은 그냥 탕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대포 같은 폭발음을 내며 터져 모두를 푸른연기 구름 속으로 빨아들였고,그 사이 안에서는 해군 소장의모자와 살아있는 하얀 쥐 몇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들이 알아계신 상석에서는 덤블도어가 마법사 모자 대신 여자아이들이 쓰는 꽃무늬 모자로 바러 쓰고, 플리트웁 교수가 막 읽어준 농담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칠면조 요리에 이어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푸딩이 나왔다. 퍼시는 그의 푸딩 조각에 파묻혀 있던 은 시클 때문에하마터면 이빨이 부러질 뻔했다. 해그리드는 또 연거푸 포도주를 마시더니 얼굴이 점점 더 새빨개져서, 마침내 맥고나걸교수의 볼에 입을 맞추었는데, 해리는 그녀가 모자를 한쪽으로 기울어뜨린 채 얼굴을 붉히며 낄낄거리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테이블을 떠날 때,해리의 양손에는 터지지 않는 투명한 풍선과, 흑 만들기 세트와, 새로운 마법사 체스 세트를포함해,꼭죽에서 나온 물건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하얀 쥐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해리는 그것들이 노리스 부인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정원에서 격렬한 눈싸움을 하며 신나는 오후를 보냈다.

그 뒤,그들은 폭 젖어서 덜덜 떨며, 숨이 차서 헐떡이며 그리핀도르 학생 휴게실의 난롯가로 돌아왔다. 해리는 그곳에선새 체스 세트를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론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말았다. 그는 그러나 퍼시가 옆에서 엉터리 훈수를 들지만않았어도 그렇게 크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칠면조 고기 샌드위치와, 핫케이크와,트리플과,크리스마스케이크를 먹은 뒤라, 모두들 배가 너무 부르고 졸렸으므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그저 퍼시가 그의 반장 배지를 훔친프레드와 조지를 잡으려고 그리핀도르 탑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오늘은 해리 인생의 최고 크리스마스였다 그러나 온종일 그의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었다.

그는 침대로 기어들어가서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 마음놓고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도대체 그에게 투명 망토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칠면조 고기와 케이크를 잔뜩 먹은 데다 풀어야 할 수
흐르드그

수ক্ষে 같은 게 전혀 없었으므로, 침대 커튼을 끌어내리자마자 깊이 잠들어버렸다. 해리는 침대 한쪽으로 몸을 굽히고 밑에서 그 망토를 꺼냈다.

아버지의 맑◎·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망토였다. 망토는 비단보다 부드럽고, 공기처럼 가벼웠다. 잘 삭용학진칼 그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침대에서 빠져 나와그 망토로 몸을 감쌌다. 다리를 내려다보자 달빛과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다.

잘 사용하거라.

갑자기 해리는 잠이 번쩍 깨는 기분이 들었다. 이 망토만 있으면 호그와트 전체가 그에게 열려 있었다. 어둠과 정적 속에그렇게 서 있자 흥분이 밀려왔다. 이 망토를 입으면 그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필치는 절대로 알지 못할것이다.

론이 꿈을 꾸는지 툭툭거렸다. 그를 깨워야 할까?잠시 망설여졌다-아버지의 망토-한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그 무엇이 느껴지는 듯했다-처음이었다-그는 그 망토를 혼자 사용하고 싶었다.

그는 살금살금 기숙사를 빠져 나와, 계단 아래로 내려갔고,학생 휴게실을 지나,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나갔다.

"거기 누구세요?"똥보 여인이 큰소리로 투덜거렸다. 해리는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했다.

어디를 가야 하지?그는 멈춰서 생각했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퍼뜩 그 생각이 떠올랐다. 도서관의 제한 구역.

그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플라멜이 누군지 알아낼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투명망토를 몸 쪽으로 잡아끌고 출발했다.

도서관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어두웠다. 해리는 죽 늘어선책들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다. 그 등불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고, 팔이 그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있었음에도, 그 광경은 섬뜩했다.

제한 구역은 도서관 바로 뒤에 있었다. 이들 책과 도서관의나머지 책들을 구별하는 줄 너머로 조심스럽게 넘어간 뒤,그는 책 제목들을 읽기 위해 등불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제목들을 보아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벗겨떨어지고, 빛깔이 바랜 그 책들의 황금색 글자들은 해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단어였다. 아예 제목이 없는 것도있는가 하면 어떤 책에는 피처럼 보이는 거무스름한 얼룩이묻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리고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웬일인지 그 책들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흘러나오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있다는 걸 그것들이 알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등불을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부터 차례차례 훑었다. 까만색과 은색으로 장정된 커다란 책 한

권이눈에 들어왔다 책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간신히 꺼냈는데, 한쪽 무릎엔 올려 놓으려고 하는 찰나 책이 그만 바닥으로 툭 떨어졌던작 팔뚝전하
귀를 찢는 듯한,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가 그 정적을 깼다-책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해리는 책을 확 덮었지만,귀청이찢어질 듯한 높은 비명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가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등불을 뒤집어엎자, 언제 그랬냐는 듯 비명 소리가 툭 멈췄다. 허둥대던 그는 바깥 복도를급히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그는 비명을 지른 책을 다시 책꽂이에 쏙셔 넣고,소리나는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문간에서 필치를 지나쳤다. 필치의 사나운 눈이 그를 똑바로 보았지만 해리는 필치의 똬친 팔뚝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복도로 내달았다. 귀에서는 여전히 그 책의 비명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갑옷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도서관을 빠져나오는 데 급급해서,그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않았던 것이다. 어두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주방 근처에 갑옷이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위인 5층에 있는 게 분명했다.

"누구든 밤에 돌아다니면 곧장 말해달라고 하셨죠,교수님.

누군가가 도서관에 왔었습니다- 제한 구역예요.'

해리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럽고, 알랑거리는 필치의 목소리가 점점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지름길을 알고 있는 게분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그 말에 대답한 사람은 스네이프였다.

"제한 구역예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잡을있을 거예요,'

필치와 스네이프가 앞에 있는 복도로 걸어오자 해리는 꼼짝않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물론 그를 볼 수 없었지만, 그 복도는좁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조금 더 가까이 온다면 그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다-투명 망토를 입었다고 몸이 물렁물렁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는 할 수 있는 한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잘 살펴보니 왼쪽에 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문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아무 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곧장 지나갔다. 해리는 벽에 기대어,심호흡을 하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가 자신이 숨어든 방으로 눈을 돌린 건 몇 초가 지나서였다.

그곳은 사용되지 않는 교실처럼 보였다. 책상과 의자 같은거무스름한 형상들이 벽에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뒤집혀있었다-그런데 맞은편 벽에,애초에 그곳에 없었던 것 같은,마치 누군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곳에 치워놓은 것 같은무언가가 기대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천장까지 달는 커다란 거울이었는데, 테두리가 화려한 황금 장식으로 꾸며져 있고,두 개의 親족한 다리가 달려있었다. 맨 위에는 '엔픽스드 스트락 엔루오익트 우에 캅푸루오인트 온 뵘신'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필치와 스네이프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으므로 해리는 그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런 영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의 가슴은 제한 구역의 책이 비명을 질렀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뛰고 있었다-왜냐하면 그 거 t 깐 나타난 영상에는 그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많은 다른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방엔 분명 아무도 없었다. 그는 헐떡이면서, 천천히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뒤에는 적어도 열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해리는 어깨를 넘겨다보았다-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아니면 그들도 모두 보이지

않는걸까?그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방에 있는것이고,이 거울의 재주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습을 비추는 것알◎

그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의 영상 바로 뒤에 서 있는 어떤 여자가 그에게 미소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머리 뒤로 손을 뻗어 휘저어보았다. 만일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다면,그녀를 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상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인지,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아니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거울 속에만 존재그녀는 아주 아름다웠다. 머리카락은 진한 빨간색이었고 눈은-내 눈과 똑같네,해리는 그 거울 앞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서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와 똑같은 모양의 연한 초록색 눈. 하지만 그 때 그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동신에 울고 있었던.

옆엔◎ 캣킷 펄고다혈고란질◎꿀킨 익◎◎갸카 ◎◎클케팔을 두르고 서 있었다. 그는 안경을 썼으며,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꼭 해리의 머리처럼 뒤로 쪽 빼어져 나와있었다. 해리는 코가 거의 거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엄마?"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들은 미소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 짓물엔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본 해리는 그의 눈썹 똑같은 초록빛 눈과, 그의 코와 똑같은 다른 코들을 보았고, 심지어 해리와 똑같이 무릎이 우툴두툴한 것처럼 보이는 약간 나이 든 사람도 보았다-해리는 생전 처음으로 그의 가족을 보고 있었다.

포터 부부가 해리에게 미소지으며 손을 흔들자 그는 마치그 거울 속으로 떨어져 그들에게 가고 싶기라도 한 듯 양손을거울에 바짝 대고 열심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과 무서운 슬픔이 뒤섞인 강한 통증 같은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영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희미한 소음으로 다시 정신을차리게 될 때까지 로고 또 보았다. 그는 이곳에 계속 머무를수가 없었다. 빨리 침실로 돌아 77 는 길을 찾았지만 鷹픽_ _B 는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며 '7 시 올게요'라고 속삭이고는그 방에서 급히 나왔다.

날 깨웠어야지." 론이 뿌루통하게 말했다.

'너 오늘 밤에 갈 수 있지, 난 다시 갈 거거든, 그 거울을 보여줄게."

'라도 네 엄마와 아빠가보고 싶어."론이 간절히 말했다.

"론, 난 너의 가족도 모두 보고 싶어, 위즐리 집안의 온 가족말야, 넌 너의 다른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내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지겹도록 볼 수 있어." 론이 말했다. "이번 여름에우리 집에 놀러오기만 해.

어쨌든, 그 거울은 어쩌면 죽은 사람들만 보여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플라멜을 찾았어야 하는건데 말야. 베이컨이나 뭐 좀 먹을래, 왜 아무 것도 먹지 않는거니?'

해리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보았고 오늘밤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플라멜은 안중 71 도 없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머킬 셋 달린 개가 무엇을 지키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스네이프가 그것을 정말로 훔친다 해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던 말영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희미한 소음으로 다시 정신을차리게 될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이곳에 계속 머무를수가 없었다. 빨리 침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며 '디시 올게요'라고 속삭이고는그 방에서 급히 나왔다

'랄 깨웠어야지,' 론이 뿌루통하게 말했다.

7◎◎밤빈 갈 수 있지, 난 다시 갈 거거든, 그 거울을 보

'7 도 릭 엄운썩 굴틀가 보고 싶딴:' 론인 간절히 말한 7F.

"론, 난 너의 가족도 모두 보고 싶어, 위즐리 집안의 온 가족말야, 넌 너의 다른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내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지겹도록 볼 수 있어," 론이 말했다. "이번 여름에우리 집에 놀러오기만 해.

어쨌든, 그 거울은 어쩌면 죽은 사람들만 보여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플라멜을 찾았어야 하는건데 말야. 베이컨이나 뭐 좀 먹을래, 왜 아무 것도 먹지 않는거니?"

해리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보았고 오늘밤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플라멜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머리 셋 달린 개가 무엇을 지키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스네이프가 그것을 정말로 훔친다 해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던 말영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희미한 소음으로 다시 정신을차리게 될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 그는 이곳에 계속 머무를수가 없었다. 빨리 침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며 '7 시 올긴일라고 속속이하고는그 방에서 급히 나왔다.

'갈 깨웠어야지." 론이 뿌루통하게 말했다.

'너 오늘 밤에 갈 수 있지, 난 다시 갈 거거든, 그 거울을 보여줄게."

'나도 네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론이 간절히 말했다.

"론, 난 너의 가족도 모두 보고 싶어, 위즐리 집안의 온 가족말야. 넌 너의 다른 형기들과 모든 사람을 배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지겹도록 볼 수 있어.' 론이 말했다. "이번 여름에우리 집에 놀러오기만 해.

어쨌든,그 거울은 어쩌면 죽은 사람들만 보여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플라멜을 찾았어야 하는건데 말야. 베이컨이나 뭐 좀 먹올래, 왜 아무 것도 먹지 않는거니?"

해리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보았고 오늘밤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플라멜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머리 셋 달린 개가 무엇을 지키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스네이프가 그것을 정말로 훔친다 해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천찮니?' 론이 말했다. '너 일상해 보썩'

해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그 거울 방을 다시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그 다음날 밤에는 그 망토를 론과 함께 덮어쓰고 있었으므로 훨씬 더 천천히 걸어야 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부터 해리가 갔던 길을 다시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거의 한 시간 동안인난 어두운 통로를 헤매고 있었다.

'◎워 죽겠어.' 론이 말했다; "그냥 돌아가자."

"안돼!" 해리가 불만을 터뜨렸다. 결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거 야.'

그들은 맞은편에서 획 움직이는 키 큰 마법사의 유령을 지나쳤지만,그 밖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론이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다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을 때.해리가 그 갑옷을발견했다.

"여기야- 바로 여기- 맞았어 !"

그들은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어깨에서망토를 내리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봤니?" 해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꼭 1. 그들을 모두 란…… 많잖◎ . ∴'

'너밖에 안 보여,"

'자세히 들여다 봐, 어서, 내가 있는 곳에 서."

해리가 옆으로 비켜서고,론이 거울 앞에 섰다. 그러나 론은 7 의 가족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페이지즐리직(가는 곡선을 짜 넣은 부드러운 모직물: 울긴이) 잠옷을 입고 있는 자신모습만을 볼 뿐이었다.

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상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랄 봐!" 그가 말했다.

게 주위에 서 있는 가족이 모두 보이니?"

"아니-난 혼자야-그런데 난 달ㄹ 7 늑어 보여-그리고

내가 학생 회장이야!"

'뭐 77?"

재가- 내가 빌이 달고 다니곤 했던 배지를 달고 있어

그리고 내가 기숙사 우승컵과 퀴디치 우승컵을 들고 있어난 또 퀴디치 주장이야!"

론은 이 놀라운 광경에서 고개를 돌려 흥분한 얼굴로 해리를 보았다.

"이 거울이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지 않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어-나 한번더 보 71-"

'건 어젯밤에 혼자서 해봤잖아,나조금만 더 볼게."

'건 그저 퀴디치 우승컵을 들고 있을 뿐이잖아,그게 뭐 그리 대단하니? 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단 말야."

'밀지 마—"

그때 복도 밖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리자 그들은 소스라치게놀라 얼른 싸움을 멈췄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말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빨리 !"

그들이 그 망토를 뒤집어쓰자마자 문에 노리스 부인의 반짝이는 눈이 나타났다. 론과 해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며 조용히서 있었다. 그 망토가 고양이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한참인 것같은 시간이 지난 뒤,노리스 부인이 돌아서 나갔다.

"아직 안전한 건 아냐- 어쩌면 필치에게 간 건지도 몰라,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

그리고 론은 해리를 잡아끌고 그 방을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도 눈은 여전히 녹지 않았다.

"체스 할래, 해리?" 론이 물었다.

"아니."

"우리 해그리드한테 갈까?"

"싫어…… 너나 가……"

'네가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다 알아,해리,저 거울이지.오늘 밤엔 가지마."

○○○"

'7도 몰라,그냥 예감이 좋지 않아-그리고 어쨌든 넌 이미 아슬아슬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

필치와 스네이프와 노리스 부인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들이 아무리 널 보지 못한다해너와

부딪히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니? 네가 뭔가를 뒤':엎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구?'

'꼭 헤르미온느 같은 소리 하네."

'난 진지해, 해리, 가지마."

하지만 해리의 머리 속에는 그 거울 앞으로 다시 가는 것,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론은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전보다 길을 더 빨리 찾았다. 그는 너무빨리 걷고 있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큰 소음을 내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만나지는 않았다.

그의 엄마와 아빠는 다시 그에게 미소짓고 있었고 할아버지'1분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해리는 그 거울 앞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가 여기에서 그의 가족과 밤새도록 머무는 걸 막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무 것도.

단지-

'◎래서- 다시 왔구나, 해리?'

해리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벽 옆에 있는 책상 위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앉아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머지 그를 알아채 지도 못하고 지나쳤던 게 틀림없었다.

"전- 전 선생님을 보지 못했어_5."

"투명해지면 눈도 나빠지는 게 신기하지.'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그가 미소짓고 있는 것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러니까," 덤블도어가 책상에서 내려와 해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너도, 앞서 다녀갔던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소망의 거울에서 기쁨을 발견한 게로구나.'"전 그 거울의 이름이 그건지 몰랐어요"

◎淵만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는 지금쯤 깨달았을 것 같은데?''◎건- 그러니까- 그건 저의 가족을 보여줘요—"

◎띠고 학생 회장이 된 네 친구 론의 모습도 보여 주었지.""어떻게 아셨어요—"

'난 굳이 망토를 입지 않아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단다.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소망의 거울이 우리 모두에게 무얼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뽕 내가 설명해주지.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의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단다. 즉,그것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말이다. 도움이 됐니?'해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건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구나."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 바로 그것을 보여준단다. 넌 네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네 주위에 그들이서 있는 걸 보았고,론 위즐리는 항상 형제들에게 가려져 있었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그 거울이 보여주는 게 진짜인지 혹은심지어 가능한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자신들이 본 것에 낚을잃거나,미쳐서,그 거울 앞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냈지.

그 거울은 내일 새로운 집으로 옮겨질 예정이란다. 해리. 그러니 그것을 다시는 찾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구나.그리고 만일 그 거울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게다. 꿈 7 쪽 현꼴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P바란다. 자 이제,저 훌륭한 망토를 다시 입고 침실로 돌아가는 게 어떨겠니?"

해리는 일어섰다.

'덤블도어 교수님? 뭐 좀 여쭙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방금 물었잖니." 덤블도어가 미소지었다. "하지만하나 더 물어도 좋다. "

"교수님이 그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나?나는 두꺼운,양모 양말 한 켤레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해리가 뻗히 바라보았다.

"양말은 많을수록 좋거든." 덤블도어가 말했다. '◎리스마스가 또 왔다갔는데 양말은 한 켤레도 받지 못했단다. 사람들은 끝까지 내게 책 선물만 주려고 할 거야."

해리는 침대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덤블도어가 어쩌면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는 스캐버스를 베개에서 밀어내며,그것은 아주 사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했다.

리가 소망의 거울을 다시는 찾아 나서지 않을 거라는

덤블도어의 생각대로, 남은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그

망토는 그의 가방 속에 양전히 접혀져 있었다. 해리는 거.: 보았던 것을 빨리 잊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좀처럼 잊 · 1 가 않았다.

린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초록 불빛 속서 사라지고,오만한 목소리가 깔깔대며 웃고 있는 꿈을 계속해선 꾸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말이 맞아,저 거울은 널 미치게 할 수도있어.' 해리가 이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드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날 돌아왔는데, 다른 건 1 리가 소망의 거울을 다시는 찾아 나서지 않을 거라는덤블도어의 생각대로, 남은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그

투명 망토는 그의 가방 속에 양전히 접혀져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서 보았던 것을 빨리 잊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초록 불빛 속에서 사라지고,오만한 목소리가 깔깔대며 웃고 있는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말이 맞아,저 거울은 널 미치게 할 수도있어.'" 해리가 이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드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날 돌아왔는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녀는 해리가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가 3 일 밤을연달아서 학교를 돌아다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율을("필치에게 들켰다면 어떡할 뻔했니!"),그리고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조금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나타냈다.

신간인 진날수록 ◎선실 책에선 플작멜이란 이름을 발견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해리는여전히 그 이름을 어딘가에서 읽었었다고 확실히 믿었다. 일단 학기가 시작되자, 그들은 쉬는 시간沿분 동안 책들을 대강 훑어보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곧 퀴디치 훈련이다시 시작되었으므로 해리는 다른 두 사람보다 시간이 더 없었다.

우드는 그 팀에게 어느 때보다도 힘든 강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눈이 그치고 비가 끝없이 내리는 나쁜 날씨에도 그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위즐리 형제는 우드가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미쳐가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해리는 우드 편이었다. 만일 후플푸프와의 다음 경기를 이긴다면, 그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슬리데린을 제치고 기숙사 우승컵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해리는 이기고 싶다는 것과는 별개로, 훈련으로 지쳐있을 때는 악몽을 덜 낫다는 걸 알고 훈련에 열심히 매달렸다

그 뒤,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고 질퍽한 어느 연습시간에, 우드는 팀에게 조금 좋지 못한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로 급강하하며 빗자루에서 떨어진 척하는 위즐리 형진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너희들 바보짓 좀 그만 할 수 없어?' 그가 소리쳤다. "그런식으로 했다간 시험에서 지기가 십상이야! 이번에는 스네이프가 심판을 볼 거란 말야.그는 그리핀도르의 점수를帝아내리기 위해 어떤 트집이라도 잡을 거라구!"

이 말을 듣자 조지 위즐리는 빗자루에서 정말로 떨어졌다.

"스네이프가 심판을 본다구?" 그가 흠이 가득 담긴 입으로푸푸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가 퀴디치 시험 심판을 언제 봐보기라도 했나? 그는 우리가 슬리데린을 추월하려고 하면 공평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머지 팀원들도 조지 옆으로 내려와 불평을 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냐." 우드가 말했다. "우린 그저 깨끗한경기를 한다는 확신만 가지면 돼, 스네이프가 우리의 흠을 들춰 구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말야."

해리 생각에는 모두 좋은 얘기였다. 그러나 그에겐 퀴디치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 스네이프가 근처에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나머지 팀원은 연습이 끝나자 평상시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리는 곧장 그리핀도르 학생 휴게실로 갔다. 그곳에서는 론과 헤르미온드가 체스를 하고 있었다. 체스는 헤르미온드가 지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해리와 론은 그녀에게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잠시만 내게 말 시키지 마" 해리가 론 옆에 가서 앉자 그가 말했다. "집중해야 하니까 말◎' 그가 해리의 얼굴을 보았다.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말이 아니다. "

해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갑자기 퀴디치의 심판이 되겠다고 나선 스네이프의 음흉한 요구에 대해 말해주었다.

"경기하지 마." 헤르미온드가 즉시 말했다.

"아프다고 해 " 론이 말했다.

'7리가 부러진 척해 "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정말로 네 다리를 부러뜨려," 론이 말했다.

'그럴 수 없어." 해리가 말했다. "후보 수색꾼이 없단 말야.

만일 내가 빠지면 그리핀도르는 경기를 할 수 없어."

바로 그 때 네빌이 비틀거리며 학생 휴게실 안으로 넘어졌다. 그가 어떻게 그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었는지가 모두의 의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두 다리가 7리 룩기주문'에 걸려 딱 달라붙어 버렸다는 걸 그들 모두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리핀도르 탑까지 오는 동안 내내 토기 뿜으로 왔을 게 틀림없었다.

모두가 뿜어져 웃고 있는데, 헤르미온드만은 달려가 그 주문을 푸는 반대

◎-7◎◎

덜 떨어 일어섰다.

시도했다. 다리가 탁 떨어지자 네빌이 덜

일이니?" 헤르미온드가 그를 데리고 와 해리와 론 옆

에 앉히며 물었다.

"말포이." 네빌이 떨어 말했다. "도서관 밖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그 주문을 실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 '맥고나걸 교수에게 가!" 헤르미온드가 네빌을 부추겼다.

"그 녀석의 잘못을 말씀드려야지 !"

네빌이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의 말썽은 바라지 않아." 그가 중얼거렸다.

'넌 그 녀석에게 용감히 대항해야 해, 네빌!" 론이 말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으니까 녀석이 더 날뛰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녀석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당당히 맞서야 한다구" '너까지 나 같은 겁쟁이는 그리핀도르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 말포이가 이미 말했으니까." 네빌은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리는 망토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더듬어 찾더니 개구리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헤르미온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에게 준 상자에서 남은 마지막 초콜릿이었다. 그는 꼭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네빌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말포이 같은 녀석 열두 명보다 네가 나아." 해리가 말했다.

"마법의 분류 모자가 널 그리핀도르로 선택했잖아, 안 그래? 그리고 말포이는 어디에 있지? 비열한 슬리데린에 있잖아." 개구리 초콜릿을 뜯고 있는 네빌의 입술이 讀은 미소로 빨거렸다.

'◎마워, 해리..... 난 그만 자러 가야겠어..... 카드 가질래, 너 모으잖아, 그렇지?"

네빌이 일어나가자, 해리는 그 유명한 마법사 카드를 바라보"또 덤블도어야.' 그가 말했다.

'내가 처음 뜯었던 것도 그였데 ◎'

는

바로 그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카드의 뒷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리곤 론과 헤르미온느를 올려다보았다.

'썩았탁.'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플라멜을 찾았어! 내가 전에 어디선가 그 이름을 읽었다고 했지, 바로 여기로 오는기차 안에서 읽었던 거야- 이걸 들어봐' 덤블도어는 특히 19 脚년에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물리친 것과, 용의 피의 12 가지 사용법을 발견한 것과, 그쪽 축트년 닌콜릭스 플락멀추된금술을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7'

헤르미온느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제일 첫 번째 숙제에대한 평점을 받았을 때 이후 그렇게 흥분해 본 적이 없었다.

"거기 있어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여자 기숙사로 가는 계단을 급하게 올라갔다 해리와 론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녀가 양팔에 굉장히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왔다.

'난 이 책을 살펴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 책은 내가 3 주 전에 가볍게 읽어보려고 도서관에서 갖고 나온 거야.'

'간담겠 f' 론이 말했지만, 헤르미온느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조용히 하라고 말하고는, 극도로 흥분해서 중얼중얼거리며, 페이지를 휙휙 넘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찾고 있던 게 보였다.

"이럴 줄 알았어 ! 이럴 줄 알았어 !"

"우리 이제 말해도 되니?" 론이 심술이 나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그런 그를 무시해버렸다.

'니콜라스 플라멜은,' 그녀가 연극 대사를 읊듯이 말했다.

마법사의 돌을 만든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몹시 흥분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전혀 못 알아들은 듯 그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뭐라구?" 해리와 론이 말했다.

"야, 너희 둘은 눈도 없니?봐-여길 읽어봐, 여기."

그녀가 그 책을 그들에게 밀자, 해리와 론이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고대의 연금술 연구는 놀라운 힘을 가진 전설의 물질인, 마법사의 돌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돌은 어떤 금속이라도순금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속하는 잘로 장수 익을 만들어낸다.

수색직신 걸쭉 만땀작와 돌인 낱한 말은 _보고가 業崙직 많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마법사의 돌은 저명한 연금술사이 자 오레라 애호가인 니콜라스 플라멜이 갖고 있다. 플라멜 씨는 작년에 7 脚번째 생신을 보냈으며, 아내 피레널(6 覽제)와 함께 데본에서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알았어?" 해리와 론이 다 읽었을 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 개는 플라멜의 마법사의 돌을 지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가 덤블도어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게분명해.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 사이이고 누군가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가 그 돌을 그린고트에서 옮겨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 !"

"금을 만들고 77 람을 영원꿍 죽진 않낀 하는 돌 of 란,'1"꿀린가 말했다. ◎제이프가 그걸 찾고 있는 것도 당연하군! 누구라도 그걸 갖고 싶을 거야."

◎리고 우리가 '최근의 마법의 발달 연구'라는 책에서 플라벨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해."론이 말했다. ◎리 나이가 665 세라면 최근 사람은 분명 아니니까 말야, 안 그래?"

다음날 아침 '어둠의 마법 방어법' 시간에 늑대 인간에게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필기하는 동안에도, 해리와 론은 여전히 마법사들이 마법사의 돌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론이 쿼디치 팀을 하나 사겠다고 말하자 해리는 그제서야 까맣게 잊고 있던 스네이프와 다가오는 시험 생각이떠올랐다.

'간 시험에 나갈 거야." 그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슬리데린이 모두 내가 스네이프와 맞서기를 두려워해서 라고 생각할 거야. 난 그들에게 보여주겠어... 반드시 이겨서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사라지게 하겠어."제가 경기장에서 싹 사라지는 일만 없길 바래."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나 시험이 점점 더 다가오자,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한 것과는 상관없이,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 팀의 나머지 선수들도 침착하지는 못했다. 기숙사 최고의 팀을 뽑는 경기에서 슬리데린을 추월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생각이었다. 하지만 7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었다.

더욱이 그렇게 불공평한 심판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리는 그저 자신의 상상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스네이프와 우연히 만나는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스네이프가 그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마법의 약 수업은 일종의 고문으로 변하고 끝났다. 스네이프가 곱피믹게 너무나 무섭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스네이프는 그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알아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는 때로 스네이프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름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라커룸 밖에서 그들이 해리에게 행운을 빌고 있을 때, 그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를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식의 인사는 그러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 해리는 쿼디치 망토를 입고 님부스 2077을 집어들 때 우드가 하는 격려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 사이 론과 헤르미온느는 관람석에서 네빌 옆에 자리를 잡았었다. 네빌은 그들이 왜 그렇게 불길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들이 왜 둘 다 시험에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7리 뉘기 주문'을 몰래 연습해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말포이가 그것을 네빌에게 사용한 것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스네이프가 해리를 다치게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그 주문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자, 잊지마, 그건 로코모토르 포르딜스야." 론이 소맷자락에서 지팡이를 미끄러지게 하자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알아,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잔소리 좀 하지 마."

라커룸에서는, 우드가 해리를 옆으로 데려갔다.

"네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포터, 만일 우리가 스니치를 일찍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이야. 스네이프가 후플푸프를 지나치게 편들기 전에 경기를 끝내버려!" "전교생이 와 있어!" 프레드 위즐리가 문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심지어-와-덤블도어 교수까지 보러 왔어!"

해리는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

'7 볼도민 교수 77r' 그가 정말인지 보기 위해 문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프레드 말이 옳았다. 저 은빛 수영은 분명 덤블도어의 것이었다.

해리는 마음만 먹었다면 안도감으로 크게 웃을 수도 있었을 777다. 그는 안전했다.

덤블도어가 지켜보고 있다면 스네이프가 감히 그를 다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 양 팀이 경기장으로 행진해 나올 때 스네이프가 그렇게 화나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다. 론도 무언가를 알아챘다.

'딘네이프가 저렇게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 그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봐- 그들이 나온다. 아 77!"

누군가가 론의 뒤통수를 찔렀다. 말포이였다.

"아, 미안, 위즐리,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노골적으로 씩 웃어 보였다. "이번엔 포터가 얼마나 오랫동안 텃자루 위에 머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내기할 사람? 넌 어때, 위즐리?"

론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지 위즐리가 친 블러저가 스네이프에게 맞자 그가 후플푸프에게 막 자유투를 주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손가락을 깎지켜서 무릎에 올려놓고, 마치 매처럼 휘휘 돌며 스니치를 찾고 있는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들이 어떻게 그리핀도르 사람들을 뽑는지 아니?"

몇 분 뒤 말포이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스네이프가 후플푸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또 한번의 자유투를 주었다. '그건 불쌍한 사람들이야. 알다시피, 포터가 있잖아, 그 앤 부모가 없잖아. 그리고 돈이 없는 위즐리 형제들도 있지-너도 당연히 그 팀에 있어야 해, 롱바텀, 넌 뇌가 없으니까."

를

얼굴이 벌개진 네빌이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려 말포이노려보았다.

'난 너 같은 녀석 열두 명보다 나아, 말포이.'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은 껄껄대며 웃었지만, 론은 게임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재, 네빌. "롱바텀, 만일 뇌가 금이라면 넌 위즐리보다 더 가난해, 정말 엄청나지.'

론의 신경은 해리에 대한 불안으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있었다.

'너 조심해, 말포이- 한 마디만 더 했다간—'

"론!" 헤르미온드가 갑자기 소리쳤다. "해리-!"

"뭐야? 어디?"

해리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를 하자 사람들이 놀라며 환호를 보냈다. 해리가 총알처럼 땅으로 내달자 헤르미온드가 깍지깍 손으로 입으로 올리고 일어섰다.

'너 운좋다, 위즐리, 포터가 땅에서 돈을 발견했나보지!' 말포이가 말했다.

론이 달려들었다. 말포이가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론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탔다. 네빌은 주저주저하다가 의자 뒤로 기어올라가 거들었다.

"어서, 해리 !"

해리가 스네이프에게로 곧장 내달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헤르미온드가 좌석 위로 후다닥 뛰어오르며 소리쳤다-그녀는 말포이와 론이 좌석 밑에서 ◎굴고 있는 것도, 네빌과 크레이브와 고일이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 소리와 고함소리가 오가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저 높이에서는, 스네이프가 진홍색의 무언가가 바로 옆으로 휩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른 텃자루를 돌렸다-그 다음 순간, 해리는 강하 자세에서 수평 비행으로 돌아가며 의기

양양하게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손에는 스니치가 쥐어져 있었다.

관람석에서 폭발과도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기록이었다. 스니치가 그렇게 빨리 잡힌 예는 없었다.

"론! 론! 어디 있니? 경기가 끝났어! 해리가 이겼어! 우리가 1 졌다구! 그리핀도르가 선두야.'

헤르미온드가 좌석 위에서 강충강충 뛰어 돌아다니다가 앞줄에 있는 패르바티 패틸을 꺼안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지상 9센티미터 정도의 높이가 되자 텃자루에서 펄쩍 뛰어 내렸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해냈다-경기는 끝났다. 경기는 채 7 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핀도르

선수들이 주르르 경기장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스네이프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옆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그 뒤 해리는 어깨 위에 손이談혀지는 것을 느끼고 올려다보았다. 덤블도어가 환하게 미소짓고 있었다.

"잘했다. " 덤블도어가 해리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저 거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 . 계속 바빴겠구나 . .

훌륭했다 . . ." 스네이프가 땅에 침을 탁 뱉었다.

해리는 얼마 후 라커룸에 혼자 남아, 님부스 2070 을 빗자루창고에 갖다 놓으러 갔다. 그는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다니-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그에게 이름값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선했다. 그는 축축한 잔디 위를 걸으며, 이제는 행복한 추억이 되어버린 흐릿한 기억의 지난한 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달려와 그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었다. 론과 헤르미온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있었고, 론은 코피를 심하게 흘리면서도 환성을 지르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한 해리는 나무문에 기대어 석양에 창문들이 빨물들어가고 있는 호그와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핀도르 선두가 되었다. 그가 그것을 해냈다. 그는

스네이프◎.....스네이프에 대해 말하면.....

두건을 쓴 어떤 사람이 성의 현관 계단으로 재빨리 내려왔그리고 남들이 보길 바라지 않는 듯, 서둘러 금지된 숲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을 보자 해리는 승리로 가졌던 기쁨이 싹 가시는 걸 느꼈다. 그는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모두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네이프가 숲으로 숨어들고 있었다-무슨 일일까?

해리는 님부스 2000 에 다시 펄쩍 뛰어올라 이륙했다. 성 위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면서 그는 스네이프가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따라갔다.

나무들이 울창해서 한동안 스네이프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가 원을 그리며 점점 더 내려가다가,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스쳤을 때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날아가 키 큰 너도밤나무 위에 조용히 내려 앉았다.

그리고 빗자루를 꼭 잡고 한쪽 가지로 조심스럽게 기어올라가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다보았다. 아래, 어두운 공터에 스네이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퀴렐도 거기에 있었다. 해리는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귀찮게 물들어가고 있는 호그와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핀도르가 선두가 되었다. 그가 그것을 해냈다, 그는 스네이프가... 스네이프에 대해 말하면...

두건을 쓴 어떤 사람이 성의 현관 계단으로 재빨리 내려왔다. 그리고 남들이 보길 바라지 않는 듯, 서둘러 금지된 숲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을 보자 해리는 승리로 가졌던 기쁨이 싹 가시는 걸 느꼈다. 그는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다. 모두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네이프가 숲으로 숨어들고 있었다-무슨 일일까?

해리는 님부스 2000 에 다시 펄쩍 뛰어올라 이륙했다. 성 위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아가면서 그는 스네이프가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따라갔다.

나무들이 울창해서 한동안 스네이프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가 원을 그리며 점점 더 내려가다가,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스쳤을 때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날아가 키 큰 너도밤나무 위에 조용히 내려 앉았다.

그리고 빗자루를 꼭 잡고 한쪽 가지로 조심스럽게 기어올라가 나뭇잎들 사이로 내려다보았다. 아래, 어두운 공터에 스네이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퀴렐도 거기에 있었다. 해리는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 씨런 고-곳 다 봐 ◎파두고 왜 여기서 7 ㅏ 만나자고 해-했는지 모-모르겠군,

세베루스.....

"아, 그건 이 만남을 비밀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서지." 스네이프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이 마법사의 돌에 대해 알면 안 되니까 말야.'

해리는 몸을 앞으로 굽혔다. 퀴렐이 무슨 말인가를 웅얼웅얼거리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핀데 저 해그리드의 짐승을 지나가는 방법은 알아냈나?" 하 ◎ㅏ 하지만 세베루스, 난 ◎

'내가 적이 되는 건 원치 않겠지, 퀴렐.' 스네이프가 그에게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난-난 자네가-월-몰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텐데.'

부엉이 한 마리가 크게 부엹부엹 울자, 해리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을 때 스네이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의 간단한 주문이지. 그럼 기다리겠네.'

"하 품 ㅏ 하지만 난 7 ◎ 아무 거-것도 모-모-몰라-"

"좋아." 스네이프가 말을 탁 끊었다. "조만간 다시 얘기하지."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고 누구 편인가를 결정하게."

그는 망토를 급히 머리 위로 걸치고 그 공터를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날이 저물어 주위가 어두웠지만, 해리는 퀴렐이 겁에 질려 꼼짝 않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허닉, 너 어디 갔었니?" 헤르미온드가 킁킁거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구!" 론이 해리의 등을 퍽 툼 치며 소리쳤다

'내가 말포이를 한방 갈겼는데 글썽 네빌이 크레이브와 고일을 혼자서 말으려고 했지

워야! 그는 아직도 뻔어 있지만 폼프리 부인이 그러하는데 괜창을 거래- 슬리데린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 주었지! 모두들 학생 휴게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파티를 하려고 말야,

프레드와 조지가 주방에서 케이크와 먹을 것을 조금 훔쳐 왔거든.'"이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해리가 숨가쁘게 말했다.

'빈방이나 찾아보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랄 거야.....그는 피브스가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고 그들,,게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았어, 그건 마법사의 돌이었고, 스네이프는 퀴렐에게 억지로 그걸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스네이프는 퀴렐이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어- 그리고 그는 퀴렐의 '주문'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내 생각에플러피 말고도,다른 것들이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많은 마법들이겠지.그리고 퀴렐이 어둠의 마법을 막는 어떤 주문을 걸어놓았을 거야, 스네이프가 그걸 깨뜨려야 하구◎'에 질려 꼼짝 않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해리,너 어디 갔었니?" 헤르미온드가 깉깉거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구!" 론이 해리의 등을 퍽 퍽 치며 소리쳤다.

'내가 말포이를 한방 갈겼는데글쎄 네빌이 크레이브와 고일을 혼자서 말으려고 했지 뭐야!그는 아직도 뻘어 있지만 폼프리 부인이 그러시는데 괜찮을거래- 슬리데린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 주었지! 모두들 학생휴게실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어, 파티를 하려고 말야, 프레드와 조지가 주방에서 케이크와 먹을 것을 조금 훔쳐 왔거든.'"이젠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해리가 숨가쁘게 말했다.

'빈방이나 찾아보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랄 거야.....그는 피브스가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닫고 그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해주었다.

◎써니까 우리가 옳았어, 그건 마법사의 돌이었고, 스네이프는 퀴렐에게 억지로 그걸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스네이프는 퀴렐이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어- 그리고 그는 퀴렐의 '주문'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내 생각에플러피 말고도,다른 것들이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아마 많은 마법들이겠지.그리고 퀴렐이 어둠의 마법을 막는 어떤 주문을 걸어놓았을 거야, 스네이프가 그걸 깨뜨려야 하구-'◎러니까 네 말은 퀴렐이 스네이프에게 용감히 대항하는한은 그 돌이 안전하다는 거지?" 헤르미온드가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마 며칠 못갈 거야." 론이 말했다.

" 78 ?

노르웨이 픽 지백 노버트

「렐을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용감했던 게 틀림없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창백해지

고 수척해지는 것 같았지만,아직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3층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플러피가 여전히 안에서 으르렁대고 있는지 살피곤 했다 스네이프는 평상시처럼 심술궂은 표정으로 지나다니고 있었는데,그건 확실히 그 돌이 안전하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요즘 퀴렐을 지나칠 때마다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고,론은 말더듬는 퀴렐을 비웃는다고 사람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드에게는 그러나 마법사의 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녀는 공부 계획을 짜고 모든 노트들을 색 코드로 분류하는 일을 시작했었다. 해리와 론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그들도 똑같이 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헤르미온드, 시험은 아직 멀었어,"

'加주야." 헤르미온드가 날카롭게 말했다. ◎건 오래도 아냐,니콜라스 플라멜에게 그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린 600·쏘이 아니잖아.' 론이 그녀를 상기시켰다.

'그런데 넌 뭘 공부하고 있는 거니,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뭘 공부하느냐구?너

미쳤니?우린 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걸 모르니?

그것들은대단히 중요하다구, 난 한 달 전에 공부를 시작했어야 했어,나도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유감스럽게도, 선생님들은 헤르미온드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어찌나 많은 숙제를 내 주었던지 부활절 휴일은 크리스마스 휴일만큼 재미있지가 않았다. 용의 피에 대한 열두 가지 사용법을 열거하거나요술지팡이 휘두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헤르미온드를 옆에 두고 편하게 쉬기란 힘들었다.

불평하고 하품을 하면서도, 해리와 론은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도서관에서 그녀와 함께 보내며, 그 모든 공부를 해내려고 애썼다.

"이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론이 어느 날 오후 깃판을 던지고 동경하는 눈초리로 도서관 창밖을 내다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 날은 정말로 몇 달 만에 찾아온 화창한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물방초는 파랗게 피어났으며 햇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을 느낄 수 있었다.

해리는 ◎70 가지 마법의 약초와 곰팡이' 책에서 '꽃 박하' 부분을 훑어보고 있다가, 론이 "해그리드! 도서관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해그리드가 등 뒤에 뭔가를 숨긴 채,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더지가죽 코트를 입고 있었다.

'◎냥 보는 거야." 그가 단번에 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의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니들은 뭐하는 거니?" 그가 갑자기 수상쩍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아직도 니콜라스 플라멜을 찾고 있는 거니, 어?"

"그가 누군지는 오래 전에 알아냈어요." 론이 인상적으로 말했다. ◎띠고 우린 저 개가 뭘 지키고 있는지도 알아요, 마법사의 도—'

"쉬." 해그리드가 얼른 누군가 듣고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씨지르지 마, 너 왜 그러니?"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해리가 말했다.

◎씨피 말고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쉬!" 해그리드가 다시 말했다. "잘 들어— 나중에 찾아와, 뭐든 다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이 안에서 그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는 마, 학생들이 알면 안되니까. 그들은 내가 니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할 거야◎

◎런 나중에 봐요."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가 발을 질질 끌며 나갔다.

'그가 등 뒤에 뭘 숨기고 있었지?" 헤르미온드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떼 그 돌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알아볼게." 론이 공부를 할만큼한 듯 말했다. 그는 잠시 뒤 양팔에 책을 산더미만큼 들고 와서는 탁자 위에 털썩 내려놓았다.

'용익앗.1' 그가 속삭였다. "해그리드는 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어! '영국과 아일랜드의 용 종류', '알에서부터 지옥까지, 용 파수꾼의 안내서' 이런 것들 좀 짹."

'해그리드는 늘 용을 갖고 싶어 했었어,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말해주었어." 해리가 말했다.

◎씩만 그건 우리 마법사 법에 어긋나." 론이 말했다. "용사육은 17 鷗년의 와록스 협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어, 모두 알고 있다구. 우리가 계속 뒷마당에서 용을 사육하고 있으면 머글들이 우리를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거든— 어쨌든, 용을 길들여선 안돼, 그건 위험해. 너희들은 찰리가 루마니아에서 야생 용에게서 받은 화상을 봐야 해."

"영국에는 야생 용이 없니?" 해리가 말했다.

"』

"물론 있지." 론이 말했다. "커먼 웰시 그린과 헤브라이딘 블랙이 있어. 실제로 마법부는 그것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하지.

우리 마법사들은 그것들을 발견한 머글들에게 계속 마법을 걸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해야 해."

'◎런데 해그리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한 시간 뒤 그들은 사냥터지기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다가 모든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해그리드는 "누구세요◎라고 소리친 뒤 그들을 들여놓고는 얼른 문을 닫았다. 안은 숨막힐 정도로 더웠다. 그렇게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벽난로의 연료 받이 쇠살대에는 불이 활활 타고르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차를 끓여주고 흰 담비 샌드위치를 주었지만, 그들은 사양했다.

"그러니까—니들이 내게 뭘 묻고 싶다구?"

"그래요"해리가 말했다. 괜히 빙빙 돌릴 이유가 없었다. '플러피 말고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해그리드가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그럴 수 있지." 그가 말했다. ◎땀, 난 모르니까. 둘째,니들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할 수만 있다면 난 니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저 돌이 여기에 있는 건 그럴만한이유가 있기 때문이야.그건 그린고트에서 거의 훔쳐지다시피한 것이었어-난 니들이 그 모든 걸 알아냈다고 생각하는데?니들이 플러피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야.'

"아, 왜 그러세요,해그리드,혹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고 있잖아요.'" 헤르미온드가 비위를 맞추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의 수영이 쉴룩쉴룩 움직였으므로 그들은 그가 미소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린 그저 누가 위험 방지 장치를 만들었었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헤르미온드가 말을 이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아저씨 말고 또 누구를 신뢰했었는지 궁금할 뿐이라관오'

이 마지막 말을 듣자 해그리드는 가슴이 벅찼다. 해리와 론이 헤르미온드에게 밝게 미소지었다.

"글쎄,니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어디 보자·, 그가 내게서 플러피를 빌려갔어.....그리고 선생들 일부가 마법을 걸었지..... 스프라우트 교수-폴리트워 교수-맥고나걸 교수◎' 그는 하나하나 손꼽으며 말했다. "퀴렐 교수-그리고 덤블도어도 물론 원가를 했지, 잠깐만, 누굴 빼먹었는데. 맞아, 스네이프 교수.'

◎느네 7◎프요◎

'그래- 니들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냐, 어? 스네이프는 그 돌을 보호하는 걸 도왔어, 그는 그것을 훔칠 생각이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드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만일 스네이프가 그 돌을 보호하는 팀에 끼어있었다면, 다른 선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내기쉬웠을 게 틀림없었다. 그는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었는지도모른다-퀴렐의 주문과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만 제외하고.

◎꺼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저씨뿐이죠, 안그래요, 해그리드?"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죠, 그렇지요?

선생들에게조차도요?"'나와 덤블도어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해그리드가 으스대며 말했다.

◎게 중요해요," 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얼거렸다. "해그리드,우리 문 좀 열어도 돼요?더워 죽겠어요."

"안돼,해리, 미안해."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는 그가 불을훔껏 쳐다보는 걸 알아챘다. 해리도 그것을 바라보았다.

"해그리드- 저게 뭐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불 한가운데에, 주전자 밑에, 커다랗고 까만 알이 하나 있었다

"어."해그리드가초조하게 수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건- 어.....

'◎거 어디서 났어요, 해그리드?" 론이 그 알을 더 자세히보기 위해 불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굉장히 비쌌을것 같은데요."

"얻었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어젯밤에.술 한 잔하려고 마을에 내려갔다가 낮선 사람과 카드 게임을 하게 되었지.그런데 그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해서 말야."

"하지만 부화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글쎄,책을 좀 읽어봤는데."해그리드가 베개 밑에서 커다란책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도서관에서 가져온 거야-'즐거움도 주고 돈벌이도 되는 용의 사육'-물론 오래된 책이지만,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어.그 알에 계속 불을 피워라,왜냐하면 그 어미들이 그것들에게 입김을 내뿜으니까 그리고 봐,부화하면 쉔분마다 한 번씩 브랜디 한 양동이에 닭 피를 섞어서 먹이래.그리고 여길 봐-알의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내가 거기서 얻은 건 노르웨이의 리지백이야.아주 희귀종이지.'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헤르미온드는 전혀안 그랬다.

'해그리드,아저씨는 난무로 만든 집에 살고 있어요"그녀가말했다.

그러나 해그리드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불을 때며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겐 이제 걱정할 게 또 하나 생겼다. 해그리드가 사육이 불법으로 되어있는 용을 오두막에 숨기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아낸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불보듯 뻔했다.

"평온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궁금해."

전혀따다 해야 하는 산더미 같은 숙제들을 앞에 쌓아놓고론이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며 말했다. 헤르미온드는 이제 해리와 론을 위한 공부 계획을 짜주기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한번은 아침 식사시간에,헤드위그가 해리에게 해그리드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편지엔 '부화하고 있어'라는 단 두 마디가 쓰여있었다.

론은 약초학을 빼먹고 곧장 오두막으로 달려가고 싶어했지만 헤르미온드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헤르미온드,우리가 살면서 용이 부화하는 걸 몇 번이나 보겠니?"

"수업이 있잖아,벌을 받게 될 거야.그리고 그건 해그리드가하고 있는 일이 들통났을 때 그가 당하게 될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냐~'

'조용히 해 !" 해리가 속삭였다.

말포이가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얼마나 들었을까?해리는 말포이의 얼굴 표정을 보자 웬지 마음이 불안했다.

론과 헤르미온드는 약초학 수업 내내 말다툼을 했고 마침내헤르미온드는 오전 쉬는 시간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가는 데 동의했다.

수업이 끝나고 성에서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셋은 모종삼을 내려놓고 급히 정원을 지나 오두막으로 갔다.

해그리드가 벌개진 얼굴로 흥분해서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거의 나왔어."그가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식탁 위에 올려진 그 알에는 금이 확 가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 모두 식탁 앞으로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갑자기 굵는 소리가 나더니 알이 확 벌어졌다. 그리고 아기용이 식탁 위로 나가떨어졌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 예쁘지는않았다.

해리는 그것이 꼭 구겨진 까만 우산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다.

가시 투성이의 날개는 그 마르고 홀쭉한 몸에 비해 아주 컸고,그것은 넓은 콧구멍이 있는 길다란 코와, 콩초 같은 뿔과 특볼거진 오렌지 빛깔의 눈을 갖고 있었다.

아기 용이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코에서 두어 개의 불꽃이튀어나왔다.

"예쁘지 않니?"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용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이逃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그의 손가락을 덥석 물었다

기끼쿠 짹짹이야, 봐, 녀석이 엄마를 알아보잖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그리드.'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노르웨이 리지백은 얼마나 빨리 자라쥬, 정확히?"

바로그때,막 대답하려고 하던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갑자기 기가 사라졌다-그리고 후다닥 일어서 창가로 달려갔다.

"왜 그래요?"

"누군가가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었어- 아이였어- 학? 급히 달아났어,"

해리는 문으로 튀어나가 내다보았다. 먼 거리였지만 그 녀석게 틀림없었다.

말포이가 그 용을 보았던 것이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말포이의 미속에 숨어있는 음흉한 무언가 때문에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어두운 오두막에서 보내며 해그리 f 설득했다.

'◎냥 놔주세요." 해리가 강력히 권했다. '풀어주라◎인'◎럴 수 없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너무 어려. 죽을 거야."그들은 그 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 3 주 만에 길이가 3 배나 자라 있었다. 코에서는 연연기가 피어올랐다. 해그리드는 그 용을 돌보느라 사냥터기 일을 하지 못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빈 브랜디 병과깃털이 ◎굴었다.

'녀석을 노버트라고 부르기로 했어." 해그리드가 눈물어린-로 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은 정말로 날 알아봐,지극L. 노버트! 노버트! 엄마가 어딴지?"

바로 그때. 막 대답하려고 하던 해그리드의 얼굴에서 갑자기 핏기가 사라졌다-그리고 후다닥 일어서 창가로 달려갔다.

"왜 그래요?"

◎군가가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었어- 아이였어- 학교로 급히 달아났어."

해리는 문으로 튀어나가 내다보았다. 먼 거리였지만 그 녀석인 게 틀림없었다

말포이가 그 용을 보았던 것이다.

그 다음 한 주 동안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말포이의 미소 속에 숨어있는 음흉한 무언가 때문에 안절부절못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어두운 오두막에서 보내며 해그리드를 설득했다.

◎냥 놔주세요." 해리가 강력히 권했다. ◎꺼주라구요"'그럴 수 없어.' 해그리드가 말했다.

'너무 어려. 죽을 거야.' 그들은 그 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 3주 만에 길이가 3배나 자라 있었다. 코에서는 연신 연기가 피어올랐다. 해그리드는 그 용을 돌보느라 사냥터지기 일을 하지 못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빈 브랜디 병과 닭 깃털이 ◎굴었다.

'녀석을 노버트라고 부르기로 했어.'" 해그리드가 눈물어린눈으로 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녀석은 정말로 날 알아봐, 지켜보라구. 노버트! 노버트! 엄마가 어딘지?"

'녀석은 여의주를 잃어버렸어.'" 론이 해리의 귀에 대고 비밀히 말했다.

'해그리드.'" 해리가 큰소리로 말했다. ◎주일만 있으면 노버트의 길이가 이 집채만큼 길어질 거예요 말포이는 언제 어느때라도 덩불도어에게 고자질할 거예요_a."

해그리드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나도 녀석을 이곳에 영원히 둘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그저 녀석을 내다버릴 수 없어, 할 수 없다구.'"해리가 갑자기 론에게 돌아섰다.

"찰리.'" 그가 말했다.

러도 잊어 버리는구나.'" 론이 말했다. '난 론이야, 기억해?'"아니- 찰리-네 형,

찰리. 루마니아에 있는. 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노버트를 그에게 보낼 수 있을거야. 찰리는 녀석을 돌봐준 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기막힌 생각이다!" 론이 말했다. ◎건 어때요, 해그리드?"

그리고 결국, 해그리드는 부엉이를 찰리에게 보내 물어보는데 동의했다.

그 다음 주는 시간이 지리하게 갔다. 수요일 밤에 헤르미온스와 해리는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잠자러 간 뒤에도 오랫동안 학생 휴게실에 단둘이 뭍아 있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치자마자 갑자기 그 초상화구멍이 열렸다. 그리고 난데없이 론이 나타났다. 론은 해리의 투명 망토를 입고 몰래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내려가 노버트에게 먹이 주는 걸 도왔었다. 노버트는 이제 나무 상자 옆에서 죽은 쥐들을 먹고 있다고 했다.

'녀석이 날 물었어!'" 그가 그들에게 피 묻은 손수건으로 싸매진 손을 보여주며 말했다. '간 일주일 동안 깃펜도 잡지 못할 거야. 있잖아, 저 용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동물 가운데 가장 끔찍해. 하지만 해그리드는 꼭 녀석이 복슬복슬한 작은 토끼라도 되는 것만행동해. 녀석이 날 물었을 때 나한테 녀석을 놀라게 하지 말라며 잔소리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떠날 때는, 녀석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

그 때 어두운 창문을 똑똑 치는 소리가 났다.

"헤드위그야!" 해리가 부엉이를 급히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말했다. '◎ 부엉이가 찰리의 답장을 갖고 있을 거야!" 그들 셋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편지를 읽었다.

론에게, 잘 지내니? 편지 고마웠어- 나도 노르웨이 리지백을 데려오면 좋겠지만. 그 녀석을 이리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음 주에 날 찾아올 내 친구들 편에 녀석을 보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문제는 어떻게 불법인 용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가 하는 거야.

그 리지백을 토요일 밤 자정에 가장 높은 탑 위로 가져다놓을 수 있겠니? 내 친구들이 그리로 가서 밤사이 녀석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말야.

가능한 한 빨리 내게 답장을 보내 줘.

찰리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투명 망토가 있잖아." 해리가 말했다. "◎런게 어렵지 않을거야- 그 망토는 우리 둘과 노버트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거 야."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역스러웠던지 다른 두 사람은 그의 의견에 군말 않고 선뜻 동의했다. 노버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었다-그리고 말포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론의 물린 손이 보통 크기보다 두 배나 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폼프리부인에게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용이 문 자국이라는 걸 알아보면 어떡하지?그러나 오후가 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상처가 역겨운 초록빛으로 변했던 것이다. 노버트의 송곳니에 독이 있던 것 같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날이 저물 때쯤 병동으로 급히 달려가보니 론이 심각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 때문만이 아냐."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끼 꼭 떨어져나가려는 것처럼 아프긴 하지만 말야. 말포이가 와서 날한바탕 비 웃어주려고 폼프리 부인에게 내 책을 한 권 빌리고싶다고 말했어.녀석은 계속 날 문 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난 그녀에게 개가 그랬다고 했지만, 내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쿼디치 시험에서 녀석을치지 말았어야 했어,녀석이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애써 론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토요일 자정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헤르미온드가 이렇게말했지만, 이것은 론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럴기는커녕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요일 자정이라우!" 그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어쩌면 좋아-방금 기억이 났어- 말포이가 가져간 책 속에 찰리의 편지가 끼어 있었어. 녀석이 노버트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될 거야."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 순간 폼프리 부인이 다가와 론이 자아 한다면 그들을 내보냈다.

"지금 계획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해리가 헤르미온드에게 말했다. ◎씬에게 부엉이를 또 보낼 시간이 없어.그리고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번 다시 노버트를 없애지 못할 거야.우린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 그리고 우리에게만 투명 망토가 있

그 리지백을 토요일 밤 자정에 가장 높은 탑 위로 가져다놓을 수 있겠니? 내 친구들이 그리로 가서 밤사이 녀석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말야.

가능한 한 빨리 내게 답장을 보내 줘.

찰리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명 망토가 있잖아." 해리가 말했다. "'◎월게 어렵지 않을거야- 그 망토는 우리 둘과 노버트를 충분히 가릴 수 있을거 야,'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역스러웠던지 다른 두 사람은 그의 의견에 군말 않고 선뜻 동의했다. 노버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었다-그리고 말포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론의 물린 손이 보통 크기보다 두 배나 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폼프리부인에게 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용이 문 자국이라는 걸 알아보면 어떡하지?그러나 오후가 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상처가 역겨운 초록빛으로 변했던 것이다. 노버트의 송곳니에 독이 있던 것 같았다. 해리와헤르미온드가 날이 저물 때쯤 병동으로 급히 달려가보니 론이 심각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 때문만이 아냐."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손이 꼭 떨어져나가려는 것처럼 아프긴 하지만 말야. 말포이가 와서 날한바탕 비 웃어주려고 폼프리 부인에게 내 책을 한 권 빌리고싶다고 말했어. 녀석은 계속 날 문 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녀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난 그녀에게 개가 그랬다고 했지만, 내 말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쿼디치 시험에서 녀석을치지 말았어야 했어, 녀석이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애써 론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토요일 자정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헤르미온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론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럴기는커녕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요일 자정이라구!" 그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어쩌면 좋아-방금 기억이 났어-말포이가 가져간 책 속에 찰리의 편지가 끼어 있었어. 녀석이 노버트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될 거야.'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 순간 폼프리 부인이 다가와 론이 자야 한다며 그들을 내보냈다

"지금 계획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해리가 헤르미온드에게 말했다. "찰리에게 부엉이를 또 보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노버트를 없애지 못할 거야. 우리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 그리고 우리에게 투명 망토가 있잖아. 말포이는 그것에 대해선 몰라.' 그들은 해그리드에게 말하러 갔다가 큰 사냥개 팽이 꼬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밖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 해 그리드는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했다.

"들어오면 안돼."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노버트의 성미가 까다로워 졌어- 전혀 통제가 안돼."

그들이 그에게 찰리의 편지에 대해 말하자, 노버트에게 막다리를 물렸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가득 고였다.

"아아! 괜찮아, 내 부츠를 물었을 뿐이니까

그저 장난치고

있는 거라구- 녀석은 결국 아기일 뿐이잖아.'

그런데 그 아기가 꼬리로 벽을 탕 치자, 창문들이 덜커덕덜커덕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토요일이 어서 와주기를 바라며 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만일 들키지 않고 용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렇게 애태우지 만 않았어도 해그리드가 노버트에게 작별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가 조금은 가엾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 날은 매우 어둡고 구름이 잔뜩 긴 밤이었는데, 그들은 벽에 대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 피브스가 현관에서 비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으므로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약간 늦게 도착했다. 해그리드는 노버트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잘 싸서 준비해 놓고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배고프지 않게 쥐와 브랜디를 많이 먹었어." 해그리드가 소리를 죽여 말했다. '◎리고 녀석이 외로울까봐곰 인형도 넣었어 "

나무 상자 안에서는 곰 인형의 머리가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긴썰, 노버트!"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그 나무 상자를 투명망토로 덮은 뒤 그들도 그 밑으로 들어가자 해그리드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널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 나무 상자를 어떻게 성 위로 가져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자정이 다가오자 그들은 노버트를 현관의 대리석 계단 위로 들어올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갔다. 또 다른 계단 위로, 그리고 또- 해리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는 데도 그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그들이 가장 높은 탑 바로 밑에 있는 복도에 도달하자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때 앞에서 뭔가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그들은 하마터면 그 나무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고 어둠 속에 움츠린 채,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거무스름한 윤곽을 뵈히 보았다. 등불 하나가 훑훑 타올랐다.

체크 무늬 잠옷에 헤어네트를 쓴 맥고나걸 교수가 말포이의 귀를 잡아당겼다.

"징계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슬리데린에서 譏점감점이다! 한밤중에 돌아다니 다니, 감히-

'◎르시는 말씀이에요, 교수님. 해리 포터가 올 거예요-그랜 용을 갖고 있다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하니! 자스네이프 교수에게 너에 대해 상담 좀 해야겠다. 말포이!" 그 이후엔 그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가파른 나선형의 계단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았다.

그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와서야 비로소 그 망토를 벗었고, 다시 제대로 숨쉴 수 있는 것이 기뻐다. 헤르미온드는 춤을 추며 뛰어다녔다.

"말포이가 징계를 받았다! 노래라도 부르겠네!"

◎떠지 마." 해리가 그녀에게 충고했다.

상자 속에서 마구 몸부림치고 있는 노버트를 옆에 두고, 그들은 말포이에 대해 킬킬거리며 기다렸다. 猫분쯤 뒤, 빗자루네 개가 어둠 속에서 획 내려왔다.

찰리의 친구들은 명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노버트를 넣어갈 자루를 해리와 헤르미온드에게 보여주었다.

그들 모두 노버트를 그 안에 넣고 안전하게 정죄를 죄는 걸도왔고,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마침내, 노버트는 가고 있었다. , 가고 있었다. . 가버렸다.

그들은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나선형 계단을 미끄러지듯 술술 내려왔다. 노버트가 그들에게서 떠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제 용은 없었다-말포이는 징계를 받았다-이 이상 더 행복할 수는 없었다. 아무 것도 그들의 행복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그들이 계단을 다 내려와 복도로들어갔을 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필치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떡하지,"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큰일났어.'

투명 망토를 탑 꼭대기에 두고 온 것이었다.

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필치는 그들을 1층에 있는 맥고나걸 교수의 서재로 데

려갔고,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서로 한 마디 말없이 기다렸다.

헤르미온드는 떨고 있었다. 해리의 머리 속에서는 변명거리와, 알리바이와, 꾸며낸 이야기들이 마구 떠올랐지만, 모두가 말도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번엔 또 그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어떻게 그 망토를 두고 오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이 한밤중에 침대에서 나와 수업 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가장 높은 천문 탑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노버트와 투명 망토 문제까지 덧붙여진다면, 그들은 차라리 일찌감치 가방을 싸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해리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생각은 틀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네빌과 함께였다.

"해리!" 다른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네빌이 소리쳤다. '주의하라고 말해주려고 너희들을 찾아다녔어. 말포이 녀석이 너희들을 잡으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너희들이 용-"해리는 네빌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개를 세게 저었지만, 맥고나걸 교수가 보고 말았다.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노버트보다도 더 많은 불을 내뿜을 것처럼 보였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필치씨가 너희들이 천문 탑에 있다고 하더구나. 그 땐 새벽 1시였어. 할말 激으런 친왓란"

헤르미온드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은 그 때가처음이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슬리퍼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것 같다. '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안 봐도 뻔하지.

너희들이 드레이코 말포이에게터무니없는 용 얘기를 흘려서, 그 애를 침대에서 나오게 해서꾸지람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겠지. 그 녀석은 이미 잡았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롱바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것도 우습지?"

네빌이 당황스럽고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자, 해리는 네빌의 눈을 보며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게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애썼다. 가엾은 네빌- 해리는 그가

자신들에게 주의를 주어 피하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다녔을지 안 봐도
흔히 알 수 있었다.

'넌더리가 난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룻밤에 네 명의 학생이 침대에서 나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 그레이저, 넌 좀 지각이 있을 줄 알았다. 너, 포터, 너에겐 이런
짓보다 그리핀도르가 더 의미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셋 모두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래, 너
롱바텀도 마찬가지야, 이유야어쨌든 밤에 학교를 돌아다닌 건 잘못이야, 특히 요즘엔, 그건 매우
위험한 짓이야. 그리고 그리핀도르에서 50 점이 감점될 줄알거라.'

'騫점인오 f' 해리는 숨이 막혔다-그들은 그가 지난번 퀴디치 시합에서 따낸 선두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각각 黠점이야." 맥고나걸 교수가 길고 逃족한 코로 힘겨운듯이 숨을 쉬며 말했다.

"교수님- 제발◎

◎새—'

"여러 말 마라, 포터. 자 침대로 돌아들 가, 너희들 모두. 난그리핀도르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실망해본 적이 없다. '150 점 감점.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는 꼴찌였다. 그들이
하룻밤사이에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었다
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네빌이 베개에얼굴을 파묻고 몇 시간동안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해리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네빌도, 그와
마찬가지로, 날이 밝아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핀도르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들이한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기숙사 점수가 적힌 커다란 누각을 지나가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생각했다.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50 점이나
줄어들 수 있을까? 그 뒤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해리 포터가, 두 퀴디치 시합의 영웅인 그 유명한 해리 포터가 두 명의 다른 멍청한
1 학년생들과 함께 그들의 점수를 모두 까먹었다는 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갑자기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래번클로와 후플푸프의 학생들조차 그를 적대시했다. 왜냐하면 모두들
슬리데린이기숙사 우승컵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길 몹시도 바랐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롱바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것도 우습지?"

네빌이 당황스럽고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자, 해리는 네빌의 눈을 보며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게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애썼다. 가엾은 네빌- 해리는 그가
자신들에게 주의를 주어 피하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다녔을지 안 봐도
흔히 알 수 있었다.

'건더리가 난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룻밤에 네 명의 학생이 침대에서 나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 그레이저, 넌 좀 지각이 있을 줄 알았다. 너, 포터, 너에겐 이런
짓보다 그리핀도르가 더 의미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셋 모두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래, 너
롱바텀도 마찬가지야, 이유야어쨌든 밤에 학교를 돌아다닌 건 잘못이야, 특히 요즘엔, 그건 매우
위험한 짓이야. 그리고 그리핀도르에서 50 점이 감점될 줄알거라."

'努점익오 f' 해리는 숨이 막혔다-그들은 그가 지난번 퀴디치 시합에서 따낸 선두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각각 50 점이야." 맥고나걸 교수가 길고 黠족한 코로 힘겨운듯이 숨을 쉬며 말했다.

'교수님- 제발—'

◎때◎"

"여러 말 마라, 포터. 자 침대로 돌아들 가, 너희들 모두. 난그리핀도르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실망해본 적이 없다. "150 점 감점.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는 꼴찌였다. 그들이
하"..吟익릭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 기회들 兪쳐버린 것이었다.

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네빌이 베개에얼굴을 파묻고 몇 시간동안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해리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네빌도, 그와
마찬가지로, 날이 밝아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핀도르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들이한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기숙사 점수가 적힌 커다란 누각을 지나가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50 점이나 줄어든 수 있을까? 그 뒤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해리 포터가, 두 퀴디치 시험의 영웅인 그 유명한 해리 포터가 두 명의 다른 멍청한 1학년생들과 함께 그들의 점수를 모두 까먹었다는 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갑자기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래번클로와 후플푸프의 학생들조차 그를 적대시했다. 왜냐하면 모두들 슬리데린이기숙사 우승컵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길 몹시도 바랐기 때문이었다.

150 점 감점. 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는 꼴찌였다.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었다.

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네빌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몇 시간 동안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해리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네빌도, 그와 마찬가지로, 날이 밝아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핀도르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들이한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기숙사 점수가 적힌 커다란 누각을 지나가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50 점이나 줄어든 수 있을까? 그 뒤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해리 포터가, 두 퀴디치 시험의 영웅인 그 유명한 해리 포터가 두 명의 다른 멍청한 1학년생들과 함께 그들의 점수를 모두 까먹었다는 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갑자기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래번클로와 후플푸프의 학생들조차 그를 적대시했다. 왜냐하면 모두들 슬리데린이기숙사 우승컵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길 몹시도 바랐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그를 욕할때도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슬리데린들은 반면에, 그가 옆으로 지나가면 획 하고 휘파람을 부는가 하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고마워 포터, 네게 빛 하나 졌특!"

그의 곁에는 오직 론뿐이었다.

"몇 주 지나면 그 애들도 다 잊어버릴 거야. 프레드와 조지형도 언제나 점수를 뭉툭뭉툭 까먹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형들을 좋아해."

◎"씩만 그들은 한번에 1 점점을 까먹은 적은 없었잖아, 안그래?" 해리가 비참하게 말했다.

◎"건- 그렇지." 론이 인정했다.

그렇게 큰 감정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기는 했지만, 해리는 이제부터 다시는 자신의 일이 아닌 어떤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몰래 이것저것 살피며 돌아다닌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우드에게 가서 퀴디치 팀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만둔단구 f' 우드가 큰소리로 말했다. '◎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퀴디치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퀴디치조차 흥미를 잃고 말았다. 팀원들은 연습하는 동안 해리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고, 말을 꼭 해야 할 때는 그저 '수색꾼' 이라고 불렀다.

헤르미온느와 네빌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해리만큼 유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도로 힘겹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헤르미온느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꼭 숙이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해리는 시험이 멀지 않았다는 게 차라리 기쁠 정도였다. 공부에 꼭 파묻혀 있으면 그런 비참함을 마음에서 떨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 만나는 걸 피하고, 복잡한 마법의 약 성분들이나, 마법과 주문들을 외우고, 마법의 발견과 도깨비 반란 날짜들을 암기하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다.

그 뒤 시험 시작 예정일 일주일 전쯤, 그와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던

해리의 결심이 예상치 못했던 시험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도서실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앞 교실에서 누군가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퀴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돼- 안돼- 다시는 안돼, 제발◎"

누군가가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더 가까이 갔다.

◎기- 좋아.' 그는 퀴렐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퀴렐이 터번을 똑바르게 매만지며 교실에서 급히나왔다. 그는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저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퀴렐이 그를 알아챘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퀴렐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실 안을 둘러다보았다. 교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맞은편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해리는 그 쪽으로 반쯤 걸어 가다가 다시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스네이프가 막 그 방에서 나간 게 분명했고, 해리가 방금 들은 것으로 판단할 때, 스네이프는 틀림없이 신이 나서 걷고 있을 것이다-퀴렐이 마침내 굴복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도서관으로 갔다. 헤르미온드는 론의 천문학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런다면, 스네이프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얘기군!" 론이 말했다. '판일 퀴렐이 그에게 어둠의 힘을 막는 주문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때도 플러피가 있잖아.'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어쩌면 해그리드의 도움 없이도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는지 도 몰라."

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 권의 책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어딘가에 머리가 셋 달린 거대한 개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해리?" 론의 눈에 다시 모험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해리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검볼도어 교수님에게 가는 거야. 우리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어. 만일 또 우리 맘대로 행동했다면 이번엔 확실히 쫓겨날 거야."

"하지만 아무 증거가 없잖아!" 해리가 말했다. "퀴렐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_그리고 스네이프가 할로윈 때 트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며 3층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시치미 떼면 그만이야- 사람들이 누굴 믿겠니, 그일까 우리일까? 우리가 그를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덤볼도어 교수님은 우리가 그를 파면당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꾸며 냈다고 생각할 거야. 필치는 자신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으니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게 뻔해. 그는 스네이프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기도 하구. 그는 학생들이 처벌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잊지마, 우리 그 돌이나 플러피에 대해 알아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할 거야.'

헤르미온드는 수긍하는 표정이었지만, 론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만일 조금만 친다면—"

"안돼,'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이미 할만큼 했어.' 그는 목성 지도를 끌어당겨 그 달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 테이블에 해리와 헤르미온드와 네빌에게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여러분의 징계는 오늘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필치 씨를 만나세요

맥고나걸 교수

해리는 감점 받은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징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하룻밤 동안은 공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헤르미온드가 불평을 하리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에, 그들은 학생 휴게실에서 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네빌과 함께 현관으로 내려갔다. 필치는 이미 와 있었다-어, 말포이도 와 있네. 해리는 말포이도 징계 받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라라와.' 필치가 등불을 켜고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번 다시 학교 규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가 심술궂은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래...고된노동과 고통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지. 예전의 처벌 방법들이 다 없어져서 안 됐군...손목을 며칠 동안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면 가 뭐 그런 것 말야, 내 사무실엔 아직도 사슬이 있어, 혹시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기름도 잘 쳐두었지...'

)1, 출발하자, 달아날 생각일랑 아예 말고, 그랬다면 더 좋지않을 거야.'

그들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네빌은 계속해서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했다. 아주 끔찍한 것일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썬가 저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다.

달은 밝았지만, 구름이 오락가락하며 달빛을 가렸다. 앞에서, "리는 불이 밝혀진 해그리드의 오두막 창문을 볼 수 있었다때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자넌가, 필치? 서둘게, 나도 빨리 시작하고 싶으니까."해리는 가슴이 떨렸다. 만약

해그리드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避◎뿐◎ 業 7 켓쌔 7◎_? 7!") 77"1777?

xi, 필치가 말했다. "저 멍청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착각하지 마라, 꼬마야-너희들은 숲, 년로 가고 있는 거야. 밀정하게 돌아온다는 건 꿈도 꾸지 마곤"

이 말에, 네빌은 작은 신음 소리를 냈고, 말포이는
멈뚱단.

"숲인란구오 1" 그간 진플언꿀떡 말했단

그의 목소길는 刻 AL

들리지는 않았다 "우린 밤에는 저 안에

시만큼 그렇게 차갑게

들어가면 안 돼요-저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구요-늑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빌이 해리의 망토 소매를 움켜잡고 숨

걸음을 딱

넘어가는 소리를

아, 출발하자, 달아날 생각일랑 아예 말고, 그랬다간 더 좋지않을 거야.'

그들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네빌은 계속해서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했다. 아주 끔찍한 것일 겐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필치가 저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다.

달은 밝았지만, 구름이 오락가락하며 달빛을 가렸다. 앞에서, 해리는 불이 밝혀진 해그리드의 오두막 창문을 볼 수 있었다.

그 때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자넌가, 필치? 서둘게, 나도 빨리 시작하고 싶으니까."해리는 가슴이 떨렸다. 만약

해그리드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안도의 빛이 얼굴에

나타났던지, 필치가 말했다. "저 멍청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착각하지 마라, 꼬마야- 너희들은 숲속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밀정하게 돌아온다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에, 네빌은 작은 신음 소리를 냈고, 말포이는 걸음을 딱멈췄다

◎끼라구요?"그가 되풀이하여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만큼 그렇게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다. "우린 밤에는 저 안에들어가면 안 돼요-저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구요-늑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빌이 해리의 망토 소매를 움켜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떠야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필치는 좋아서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별받을 짓 하기 전에 늑대들에 대해 생각했었어야지, 안 그래?"

해그리드가 어둠 속에서 그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뒤에서 팽이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해 그리드는 커다란 석공을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화살통이 매달려 있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그가 말했다. '간 여기서 諱분 동안 기다렸어. 괜찮니, 해리,

헤르미온느?'

'◎ 애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어선 안되잖아, 해그리드."필치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

애들은 결국 여기에 별받으러 온거니까 말야."

"그래서 늦은 거야?" 해그리드가 필치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애들에게 훈계하느라구? 그건 자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제 자네 할 일은 다 했으니, 여 기서부터는 내가 맡을게."

"새벽에 오겠네." 필치가 말했다. '길 살아남은 녀석이 있다면 말야.' 그는 이렇게 심술궂게 덧붙이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에서 등불을 흔들며 성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돌

말포이가 멀어져가는 필치를 바라보다 해그리드에게 고개를 렸다.

"전 저 숲속에 들어가지 않을래_2_" 해리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호그와트에 머물고 싶다면 들어가야 해.' 해그리드가 사납게 말했다. 길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이건 하인의 일이잖아요, 그건 학생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전 글을 베껴 쓴다던가 뭐 그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시면, 우리 아버지가—" 호그와트에서는 이렇게 해." 해그리드가 성내며 말했다.

"글을 베껴 쓴다구!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같은 벌을 받아도 기왕이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나가야지. 네 아버지가 차라리 네가 쫓겨나길 바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으로 돌아가 짐을 싸. 어서!" 말포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해그리드를 사납게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그러면!" 해그리드가 말했다. "잘 들어, 우리가 밤 할 일은 위험하니까 말야. 그리고 난 아무도 위태롭게 되길 바라지 않아. 잠시 이쪽으로 따라와."

그는 그들을 숲속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어올린 채, 울창한 나무들 속으로 나 있는 좁다랗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리켰다. 숲속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저길 봐." 해그리드가 말했다. '땅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저거 보이니? 은빛 나는 거? 그건 유니콘의 피야. 어쩌면 저 쓰레기통 안에 심하게 다친 유니콘이 있을지도 몰라. 벌써 일주일에 두 번째야. 지난 수요일에는 죽은 유니콘이 발견되었거든. 우리 지금 그 가엾은 동물을 찾으려 가는 거야. 우리 어쩔 그 녀석을 죽여야 할지도 몰라. 마냥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것보단 그 편이 그 녀석에겐 편안할 수도 있거든."

"아무리 다쳤어도 그 유니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면 어떡해요?" 말포이가 여전히 겁에 질린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7 나 팽과 함께 있으면 숲속에서 사는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길을 따라 죽 가다가 두 무리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도처에 핏자국이 있어, 유니콘이 어젯밤부터 비틀거리며 돌아다닌 게 분명해."

'팽은 제가 데려갈게요.' 말포이가 팽의 긴 이빨을 바라보며 얼른 말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녀석은 겁쟁이거든,' 해그리드가 말했다. ◎써면 나와 해리, 그리고 헤르미온드가 한쪽으로 가고, 말포이, 네빌, 팽은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자, 만일 누구든 유니콘을 찾으면, 초록색 불빛을 올려, 알았지? 지팡이를 꺼내 연습해봐- 바로 그거야- 그리고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빨간색 불빛을 올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찾아갈 테니까- 조심해- 가자.'

숲은 어둠침침하고 조용했다. 조금 들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해리와 헤르미온드와 해그리드는 왼쪽 길을 택했고, 말포이와 네빌과 팽은 오른쪽을 택했다.

그들은 땅바닥을 보며 조용히 걸었다. 때때로 나뭇가지들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낙엽들 위에 얼룩진 푸르스름한 은빛 핏무리를 비쳤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매우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았다.

"늑대인간이 유니콘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해리가 물었다.

"늑대인간은 느려서 안돼." 해그리드가 말했다. "유니콘을 잡는 건 쉽지가 않아, 매우 강력한 마법의 생물이거든. 난 여지껏 한 마리도 다친 걸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이끼 낀 나무 그루터기를 지나 계속 걸었다. 흐르는물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운 어딘가에 개울이 있는 게 분명했다.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여기저기에 여전히 유니콘의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괜찮니,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유니콘이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면 멀리 가진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린- 저 나무 뒤로 가!"

갑자기 해그리드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붙잡아 키 큰 오크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화살 하나를 꺼내 석궁에맞추고 들어올려 쏠 준비를 했다.

그들 셋은 귀를 기울였다. 근처 낙엽들 위로 무언가가 스르르 미끄러지고 있었다. 꼭 망토가 땅에 끌리는 소리 같았다.

해그리드는 어두운 길을 흠굴흠굴 보았다. 그런데 잠시 후, 그소리가 사라졌다.

◎런 줄 알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에 뭔가 있어선 안될 게 있는 거야."

"늑대인간이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늑대인간도 아니고 유니콘도 아냐.' 해그리드가 으스스하게 말했다. "좋아, 날 따라와, 하지만 조심궂, 자.'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더조용히 걸었다. 갑자기, 앞에 있는 공터에서, 확실히 뭔가가 움직였다.

"거기 누구야?"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이리 나와라-무기를 가졌다!"

그리고 그 공터에서 그것이 나왔다-사람이었나, 아니 말이었나? 허리까지는 빨간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는데, 그아래는 길고, 불그스름한 꼬리가 달린 희미한 밤색이 도는 말의 몸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입이 딱 벌어졌다.

"오 자네였군, 로◎" 해그리드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잘 있었나?"

그가 앞으로 걸어가 그 켄타우루스(반인반마의 괴물: 옴긴이)와 악수를 했다.

진천하시오, 해그리드:' 로넌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슬픔에 잠긴 듯했다 '랄 쏘려고 한 거요?"

◎싫해요, 로넌." 해그리드가그의 석궁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숲속에 무언가 몹쓸 것이 있으니까 말야. 그건 그렇고, 이쪽은 해리 포터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요. 저 위 학교의 학생들이지. 그리고 이쪽은 로넌이야, 애들아. 켄타우루스지."

"저희도 알아챘어_7-" 헤르미온느가 머무적거리며 말했다.

"안녕." 로넌이 말했다. '학생들이라구?저 위 학교에선 많이배우니◎

"조금이오."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금이라.글쎄, 그게 중요하지." 로넌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뚫어지게 보았다 "오늘 밤엔 화성이 밝군."

'◎래." 해그리드가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것봐, 만나서 정말 기쁘네, 로넌, 왜냐하면 다친 유니콘이 한 마리 있거든- 뭐라도 봤나?"

로넌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히 위쪽을 응시한뒤, 다시 한숨을 쉬었다.

"언제나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야." 그가 말했다. "과거 오랫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맞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런데 뭐라도 봤나, 로넌? 유별난 것이라◎ . . "

"오늘 밤엔 화성이 밝군," 로넌이 또 되풀이해 말하는 동안, 해그리드는 조바심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유별나게 밝아.""맞아, 하지만 난 좀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별난 것을 말하는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써니까 뭐 이상한 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가?"

그러나 이번에도, 로넌은 대답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숲은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

로넌 뒤에 있는 나무에서 뭔가 움직이자 해 그리드는 다시석궁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건 머리와 몸이 까맣고 로넌보다 더 야만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켄타우루스였을 뿐이었다

"안녕, 베인." 해그리드가 말했다. "잘 지내요?"

◎뻘하시오, 해그리드. 잘 지내시겠쥬?"

'◎럼요. 이것 봐요, 로넌에게도 방금 물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뭐 이상한 것 본 적 있소? 다친 유니콘이 한 마리 있어서 말ियो-뭐 아는 것 없어요?"

베인이 걸어와로넌 옆에 섰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화성이 밝군" 그가 꾸밈없이 말했다.

"들었소"해그리드가 심술이 나서 말했다. '◎러면 둘 중 늑구라도 뭔가 보면, 내게 알려쥬요, 그럴 거쥬?우린 이만 가겠소'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그를 따라 그 공터에서 나오며, 나무들이 시야를 가로막을 때까지 어깨 너머로 로넌과 베인을 바라보았다.

"절대로." 해그리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켄타우루스에게서 제대로 된 대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돼. 별이나 보는 몽상가들이라니까. 세상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이 숲속엔 켄타우루스들이 많아요?" 헤르미온드가 물었다.

"어, 몇 안돼... 대체로 남과 잘 사귀려 하지 않지만, 내가 잠"우리가 전에 들었던 게 켄타우루스 소리였을까요?" 해리가했다.

'네게는 그게 발굽소리처럼 들렸니? 아냐, 그들은 유니콘들을 죽이지 않아-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은 뻑뻑하고,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계속 걸었다. 해리는 계속 초조하게 어깨 너머를 넘겨다보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해리는 해그리드와 그가 들고 있는 석공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게 든든하게 여겨졌다. 그들이 길모퉁이를 지나치자마자 헤르미온드가 해그리드의 팔을 잡았다.

개그리드! 봐요! 빨간 불꽃이에요 다른 애들이 위험에 처했나봐요!"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길에 가만히 있어. 다시 돌아올 테니." 그들은 그가 덩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낙엽들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겁에 질려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애들이 설마 다치지는 않았겠지?" 헤르미온드가 작은소리로 말했다.

"말포이가 다쳤다면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네빌에게 무슨일이 있다면... 애초에 그 애가 여기에 온 건 우리의 잘못이었잖아.'

시간이 지리하게 흘렀다. 귀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해리는 산들거리는 바람 소리, 작은 가지에 금가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침내, 저벅저벅 밟는 발자국 소리를 내며 해그리드가 돌아왔다. 말포이와 네빌과 팽도 함께 왔다. 해그리드는 굉장히 성이 나 있었다. 말포이가 몰래 네빌 뒤로 가서 장난으로 그를 놀라게 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네빌이 겁을 집어먹고 그 불꽃을 울렸던 것이다.

'너희 둘이 이렇게 법석을 떨어왔으니, 이제 행여나 뭐라도 잡을 수 있겠냐. 좋아, 그룹을 바꾸자-네빌, 넌 나와 헤르미온드와 있고, 해리, 넌 팽과 이 열간이와 가_미안해'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 녀석은 널 쉽게 놀라게 하진 못할 거야. 우리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해." 그래서 해리는 말포이와 팽과 함께 숲 한가운데로 출발했다. 그들이 한 시간쯤 계속해서 들어가자 숲이 너무 울창해서 더이상 갈 수가 없었다. 해리는 핏자국이 더 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근처 나무 뿌리에는, 그 가엾은 동물이 고통으로 마구 몸부림 쳤었던 듯, 피가 튼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해리는 늙은 오크 나무의 뒤편 가지들 사이로 앞에 있는 공터를 볼 수 있었다.

"봐-" 그가 말포이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땅바닥에 뭔가 밝은 하얀색이 어슴푸레 빛났다. 그들은 조금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정말 유니콘이었다. 고지고 그것은 죽어 있었다. 해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슬픈 건 본 적이 없었다. 유니콘은 그 길고, 가느다란 다리들을 이상한 각도로 쭉 뻗고, 갈기는 거무스름한 이파리들 위에 진주처럼 하얗게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다.

해리가 그쪽으로 한 발짝 더 내딛었을 때 뭔가가 주르르 미고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공터 가장자리에 있는 덩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겹◎ 쓴 형상이 나타났다. 해리와 말포이와 팽은 꿈쩍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망토를 쓴 형상이 유니콘 언젠다가가더니, 그 동물의 옆구리에 난 상처 부위에 머리를 처박고는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다.

"717771777171!"

말포이가 소름끼치는 비명을 지르고는 달아났다-팽도 그랬다. 그러자 두 겹을 쓴 형상이 고개를 쳐들고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그 형상의 앞자락에서는 유니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일어서서 즉시 해리 쪽으로 왔다-그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뒤 그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머리를 조여왔다. 마치 그의 흉터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반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쳤다.

그때 뒤에서 급히 달리는 발굽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해리 위쪽으로 뛰어내려, 그 형상을 공격했다.

머리 통증이 너무 심했으므로 해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1,2분쯤 지났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로넌도 베인도 아닌 켄타우루스 하나가 곁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 켄타우루스는 더 젊어 보였고 흰빛이 도는 금발에 몸은 팔로미노(갈기와 꼬리는 희고 몸통은 담황색인말 미국 남서부삿 옮긴이) 같았다. "괜찮니?" 켄타우루스가 해리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그게 뭐였죠?"

켄타우루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옅은 사파이어 빛깔이었다. 해리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해리의 이마에 난 눈에 띄는 검푸른 흉터에 머물렀다.

"포터의 아들이구나." 그가 말했다. '해그리드에게 돌아가는게 좋겠다. 이런 시간에 숲은 위험하니까-특히 네게는 말야.

탈래? 이 길에서는 그 권이 빠를 거야. 내 이름은 피렌체야.' 그가 해리가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앞다리를 굽히며 말했다.

공터 저쪽에서 갑자기 더 빨리 달리는 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숲에서 별안간 로넌과 베인이 뛰어나왔다. 땀투성이가 된 옆구리가 위 아래로 찢룩거리고 있었다.

"피렌체!" 베인이 고함을 질렀다. "뭐하고 있는 거야?사람

"?

을 태우고! 창피하지도 않아? 자네가 천한 노생간

'이 애가 누군지 아세요?" 피렌체가 말했다. "포터의 아들이

◎온 ◎ ◎ 있 숲류 빨핀 111 낙슬? 졸.177'. '.

신요_ 잇 인 잇 을을 參긴 띠날수-학 7fr7-7·_f7··

◎ 애에게 투스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베인이 투덜거렸다. "기억해, 피렌체, 우리는 하늘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어.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눈치챘잖아?"

로넌이 신경질적으로 앞발로 땅을 찼다.

"피렌체는 분명 그게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

해리가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베인이 화가 나서 뒷발을 찼다.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켄타우루스는 예언되어진 일에 관여해선 안된다구! 우리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아 당나귀들처럼 뛰어다니는건 우리의 일이 아냐!"

피렌체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뒷다리로 일어섰으므로, 해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의 어깨를 꼭 잡아야만 했다.

"저 유니콘을 보지도 못하셨어요?" 피렌체가 베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것이 왜 죽었는지 이해 못하세요? 아니 행성들이 당신에게 저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전 꼭 이렇게 모른 척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 숲에 숨어 있어야 하는 운명에 대항할 거예요, 베인, 그래요, 인간들과 함께 말이예요.' 그리고 피렌체는 몸을 핵 돌렸다. 해리는 있는 힘껏 꼭 잡고있었고, 그들은 로넌과 베인을 뒤에 남겨둔 채 숲속으로 돌진했다

해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

'베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가 물었다. "도대체,당신은 절 무엇에게서 구해준 거죠?"

피렌체는 걸음을 늦추고, 해리에게 낮게 늘어진 나뭇가지들에 걸릴지 모르니 고개를 숙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렌체가한참동안 말이 없었으므로 해리는 그가 자신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주 뻑뻑이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피렌체가 갑자기 멈춰 섰다.

'해리 포터,너 유니콘의 피가 위에 쓰이는지 아니?'

"아뇨."해리가 그 이상한 질문에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흰 7법의 약에는 유니콘 뿔과 꼬리만 사용해 왔어요.'

'그건 유니콘을 죽이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야." 피렌체가 말했다. "자포자기하고 바닥 인생을 사는 놈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일이지.유니콘의 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살아나게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해.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위해 고결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것을 죽게 하면, 그 피가 입에 닿는 순간부터 불완전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거든." 해리는 달빛에 은빛으로 얼룩진 피렌체의 뒤통수를 뵈히 보았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절망적이겠어요?" 그는 이상스러웠다. "영원히 저주받을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피렌체가 동의했다. ◎새 살아봤자 특별플 어떤것을 마실 수 없다면 말야. 강력한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것,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실 수 없다면말야. 포터, 바로 이 순간에 학교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
"마법사의 돌이오! 물론-불로 장수약이죠! 하지만 전 이했한지 못해요 누가—'
"기회를 노리며 삶에 집착해온 사람,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을 전혀 모르겠니?"

마치 강철 주먹이 갑자기 해리의 가슴을 짹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는 살랑대는 나무들 너머에서, 해그리드와 만났던 날밤에 그가 해주었던 말을 한번 더 듣는 기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돼.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거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럼 그게," 해리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77? ? _"

'해리! 해리, 너 괜찮니?'

헤르미온드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해그리드가 혈떡이며 따라오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거의 모곤, 이렇게 말했다. 그 유니콘이 죽어 있었어요, 해그리드, 금씩만 어느 누가 그렇게 절망적이겠어요?" 그는 이상스러웠다.

"영원히 저주받을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렇지.' 피렌체가 동의했다. ◎새 살아봤자 특별한 어떤것을 마실 수 없다면 말야. 강력한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것,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실 수 없다면말야. 포터, 바로 이 순간에 학교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

◎消사의 돌이오! 물론-불로 장수약이죠! 하지만 전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기회를 노리며 삶에 집착해온 사람,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을 전혀 모르겠니?"

마치 강철 주먹이 갑자기 해리의 가슴을 확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는 살랑대는 나무들 너머에서, 해그리드와 만났던 날밤에 그가 해주었던 말을 한번 더 듣는 기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돼.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거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럼 그게," 해리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랄드—"해리!

해리, 너 괜찮니?"

헤르미온드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해그리드가 혈떡이며 따라오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거의 모른 채, 이렇게 말했다. "그 유니콘이 죽어 있었어요, 해그리드, 그건 저기 저 공터에 있어요.'

"이곳에 내려주면 되겠군." 해그리드가 허둥지둥 그 유니콘을 살피러 가자 피렌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하겠다. '

해리는 그의 등에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행운을 빈다. 해리 포터." 피렌체가 말했다. "켄타우루스들조차도 행성들을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으면 좋겠다. '

그는 떨고 있는 해리를 남겨둔 채, 돌아서서 천천히 숲속으로 들어갔다.

론은 어두운 학생 휴게실에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해리가 그를 거칠게 흔들며 깨우자 그가 쿼디치 반칙에 대해 뭐라고 큰소리로 잠꼬대를 했다. 그러나 해리가 헤르미온드에게 숲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자 눈을 번쩍 떴다. 해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벽난로 앞에서 천천히 왔다갔다 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게이프는 볼드모트의 돌을 원하는 거야…… 볼드모트는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그 동안 줄곧 스네이프가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왔어……

"그 이름은 말하지 마!"

론은 마치 볼드모트가 그들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겁에 질려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피렌체가 날 구해 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마 . . . 베인이 몹시 화를 냈거든 . . . 그는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곧 일어날 일에 끼어 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 . ,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볼드모트가 곧 돌아오리라는 걸 알게 된 게 틀림없어 . . . 베인은 볼드모트가 날 죽이도록 피렌체가 내버려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 . . 별들의 움직임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었나봐 ."

'그 익름 좀 말히직 딸락닉카 . 1' 론이 불만스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스네이프가 그 돌을 훔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 ' 해리가 열띠게 계속 말했다 . '그러면 볼드모트가 와서 날 죽일 수 있을 거야 . . . 그러면 , 베인이 행복해할 거야 . ' 헤르미온드는 매우 겁에 질려 보인 듯 했지만,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

'해리, 모두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덤블도어뿐이라고 말해 . 그 사람은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 어쨌든 누가 켈타우루스들의 말을 옳다고 하겠어 ? 내게는 꼭 점쟁이들의 말같이 들리는데 . 그리고 그건 아주 부정확한 부류의 마법이라고 맥고나걸 교수가 말씀하셨잖아 . "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이야기를 멎에 질러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 해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

'픽린치가 날 구해줬는데, 그는 그렇게 한지 말았어야 했어 . , 베인이 몹시 화를 냈거든 . . . 그는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곧 일어날 일에 끼어 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 . . .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볼드모트가 곧 돌아오리라는 걸 알게 된 게 틀림없어 . . . 베인은 볼드모트가 날 죽이도록 피렌체가 내버려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 . . 별들의 움직임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었나봐 ."

'그 인름 좀 말히직 딸란닉칸 . 1' 론이 불만스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스네이프가 그 돌을 훔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 " 해리가 열띠게 계속 말했다 . '그러면 볼드모트가 와서 날 죽일 수 있을 거야 . . . 그러면 , 베인이 행복해할 거야 . " 헤르미온드는 매우 겁에 질려 보인 듯 했지만,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

'해리, 모두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덤블도어뿐이라고 말해 . 그 사람은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 어쨌든 누가 켈타우루스들의 말을 옳다고 하겠어 ? 내게는 꼭 점쟁이들의 말같이 들리는데 . 그리고 그건 아주 부정확한 부류의 마법이라고 맥고나걸 교수가 말씀하셨잖아 . " 하늘 7 「 촌하직 밝아졌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7r77 기를 멎었다 . 그들은 목도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다 .

그러나 그날 밤의 놀라운 사건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

해리가 침대 시트를 들치자 , 그 밑에 그의 투명 망토가 가지런히 접혀져 있었다 . 그리고 망토엔 짧은 편지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

77_ 드모트가 언제라도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는 불안감 속 i 프 에 해리는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몰랐다 . 아마 앞으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는 지나갔고 , 플러피는 여전히 그 잠긴 문 저쪽에서 잘 지 1'- 있었다 .

날은 찌는 듯이 더웠고 , 필기 시험을 보는 커다란 교실은 특히 더 더웠다 . 그들은 '커닝 방지 주문'이 걸린 시험용 특별갓펜으로 퍽뎀을 칠했다 .

실기 시험도 보았다 . 플리트웁 교수는 그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 파인애플이 책상에서 탭댄스를 추도록 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

지웠실 문을 지 나서

.7_ 드모트가 언제라도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는 불안감 속 i 프 에 해리는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몰랐다 . 아마 앞으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는 지나갔고 , 플러피는 여전히 그 잠긴 문 저쪽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

날은 찌는 듯이 더웠고 , 필기 시험을 보는 커다란 교실은 특히 더 더웠다 . 그들은 '커닝 방지 주문'이 걸린 시험용 특별갓펜으로 시험을 치렀다 .

실기 시험도 보았다 . 플리트웁 교수는 그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 파인애플이 책상에서 탭댄스를 추도록 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이 쥐를 휴대용 코담배(콧구멍에 갖다대어 향기를 맡는 가루 담배 옮긴이) 갑으로 변화시키는 걸 지켜보았고 코담배 갑이 얼마나 예쁜가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는데 , 쥐의 수영이 남아있을 경우 감점이 되었다 . 스네이프는 '견망증 약'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들을 궁지로 몰며 모두를 긴장시켰다 .

해리는 숲속을 다녀온 이후 죽 그를 괴롭혀왔던 찌르는 듯한 이마의 통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네빌은 해리가 잠을 자지 못해서 시험에 대해 심한 신경과민 증세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리는 사실 예전처럼악몽 때문에 계속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는 이제 두건을 쓴형상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꿈까지 꾸었으므로 더 꿈찍했다.

그러나 론과 헤르미온드는 그 돌에 대해 해리만큼 걱정하는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그런 그들이 해리가 숲속에서 본 것을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이마에 타는 듯한 흥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볼드모트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건 확실했지만, 꿈속에서까지 시달리지는 않아서인지, 그들은 공부에만 열중할 뿐 스네이프나그 밖의 누군가가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은 마법의 역사였다.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냄비를 발명한 머리가 돈 늙은 마법사들에 대한 시험 문제를 한시간 동안 풀고 나면,그들은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동안 한가해질 것이다. 빈스 교수의 유령이 그들에게 깃펜을내려놓고 양피지를 돌돌 말라고 했을 때, 해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환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 떼지어 나가는 아이들에 끼어 햇별이 잘 드는 정원으로 나왔을 때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IGfr 년의 늑대인간 윤리규정이나 엘프릭 이거의 폭동에 대해서는 외을 필요도 없었다니까."

헤르미온드는 늘 나중에 시험지를 훑어보는 걸 좋아했지만,론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으므로,그들은 호숫가로 내려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다. 위즐리 쌍둥이 형제와 리 조던이 따뜻한 여울에서 햇별을 찌고 있는 커다란 오징어의 촉수들을 간질이고 있었다.

"이제 공부는 땡이네," 론이 잔디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유쾌히 말했다. '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해리,시험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뒤나 되어야 할 텐데,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해리는 이마를 문지르고 있었다.

'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그가 불안간 화를 내며말했다. 경씨 부위가 계속 아파-전에도 그랬었지만,이렇게자주 그런 적은 없었어"

"폼프리 부인에게 가봐." 헤르미온드가 제안했다.

'간 병이 란 게 야냐." 해리가 말했다. 재 생각엔 그게 어떤론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날씨가 너무 더웠다.

'해리, 긴장 풀어, 헤르미온드의 말이 맞아,그 돌은 덤블도어 교수가 있는 한 안전해. 어쨌든, 스네이프가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아무 증거도 없잖아. 그는 한때 한쪽다리가 거의 잘려나갈 뻔했어, 다시는 성급히 시도하려 하지않을 거야.그리고 네빌이 영국 대표로 퀴디치 선수로 뭘 때까지는 해그리드가 덤블도어 교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은 듯한 어떤 미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자,헤르미온드가 말했다. '77 시험 때문이야.난 어젯밤에 잠에서 깨서 변신술 수업 노트를 반쯤 읽고나서야 우리가 그 시험을 벌써 보았다는 걸 기억했어,"해리는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느낌이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부엉이 한 마리가 입에 편지를 물고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학교 쪽으로 날아오는 걸 지켜보았다.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람은 해그리드뿐이었다. 해그리드는 덤블도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결코 누구에게도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그러나-

해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어디 가니?" 론이 졸리는 듯이 물었다.

'방금 어떤 생갈이 떠올랐어," 해리가 말했다. 그는 얼굴이"7◎7i? 있쌌,단 "'씩 현곤◎를 찬씩 핸,잔곤

'왜곤 켄크리온드가 급컷 따라가느라 숨을 한푼씩 말힌탁.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니?" 해리가 풀로 덮인 비탈길을 올라가며 말했다.

"해그리드가 그 무엇보다도 갖고 싶어했던 것이 용인데,마침 주머니에 알을 갖고 있는 낫선 사람이나타난다는 게 말야?마법사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의 알을

갖고 돌아다닐까? 그들이 해그리드를 발견한 건 행운이었어, 안 그래? 내가 왜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론이 물었지만, 해리는 정원을 지나 숲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므로, 대답하지 않았다.

해그리드는 바지와 소매를 둘둘 걷어붙인 채로 집 밖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커다란 그릇에 콩을 까 넣고 있었다.

"안녕." 그가 미소지으며 말했다. "시험 끝났구나? 뭐 마실 거라도 줄까?"

'네, 주세_5.' 론이 이렇게 말했지만, 해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뇨, 우린 바빠요 해그리드,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노버트를 얻었던 그날 밤이오? 카드를 함께 썼다는 그 낯선 사람이 어떻게 생겼죠?"

"몰라." 해그리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는 망토를 벗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깜짝 놀라는 것 같은 그들 셋의 표정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올렸다.

'◎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냐, 호그스 해드에 가면 괴상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거든. 호그스 해드는 마을에 있는 술집이야. 용을 파는 상인이었을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그는 계속 두건을 쓰고 있었거든."

해리는 콩 그릇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에게 무엇에 대해 말했어요, 해그리드? 호그와트에 대해 말했나요?"

'◎런 말이 나왔을지도 몰라." 해그리드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개... 내게 쥐하느냐고 묻길래 이곳월 산냥턴진긴란고 말해주었각... 그는 네가 돌보는 동물들의 종류에 대해 약간 물었고... 그래서 그에게 말해주었어... 그리고 내가 항상 정말로 원했던 것이 용이라고 말했고... 그리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가 내게 계속 술을 사주었거든... 어디 노◎... 그래, 그리곤 그가 용의 알을 갖고 있다고 했고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걸고 카드를 칠 수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내가 그것을 갈들일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했어, 그것이 옛집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에게 말했지, 플러피도 돌봐봤는데, 용은 쉬을 거 리 7... ..

"그리고 그가- 그가 플러피에 흥미 있어 했던 것 같죠?" 해리가 계속 목소리를 침착하게 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글쎄-그래-머리 셋 달린 개를 얼마나 많이 봤었느냐고 물었어, 호그와트 주변에서 말야.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지, 플러피를 갈들이는 건 진정시키는 방법만 알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저 음악을 조금만 연주하면 곧바로 잠들어버린다고 말야-"

해그리드가 갑자기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다.

'간 너희들에게 그걸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불쑥 말했다. '내가 그걸 말했다는 걸 잊어버려! 이것 봐-어디들 가는 거야?"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는 현관 안의 넓은 홀에서 멈출 때까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원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홀은 매우 좁고 어두워 보였다.

'덤블도어 교수님께 가야만 해."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낯선 사람에게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말했다지만, 망토를 뒤집어쓴 사람은 분명 스네이프나 볼드모트일 거야-일단 해그리드를 술에 취하게 만들자, 모든 게 쉬웠을 게 분명해. 난 그저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의 말을 믿어주길 바랄 뿐이야.

피렌체는 베인이 막지 않는다면 기꺼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덤블도어 교수님의 방이 어디지?"

그들은 마치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을 보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그들은 덤블도어가 어디에 사는지 들어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가 그를 만나러 가봤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우린 그냥-" 해리가 말을 막 시작했을 때, 현관 맞은편에서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셋 그 안에서 뭐하니?"

그건 맥고나걸 교수였다. 그녀는 책을 한 아름 들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을 뵙고 싶어서요.'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해리와 론은 그녀가 상당히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을 뵙는 다구?"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의 행동이 매우 수상쩍다는 듯이 되풀이하여 물었다. "왜?"

해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이제 어찌지?

'비밀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곧 괜히 말했다 싶었다. 왜냐하면 맥고나걸 교수의 콧구멍이 팔때기 모양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臍分 전에 떠나셨는데.'"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뚱부가 보낸 긴급한 부엉이를 받고 즉시 런던으로 날아가셨지.'

'그 분이 가버리셨다구요?' 해리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지금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매우 훌륭한 마법사란다, 포터, 근무 시간 외에도 많은 문의를 받지—' ◎씩만 이걸 중요해요.'

'네가 해야 할 말이 마법부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니, 포터?"

'교수님,' 해리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건 마법사의 돌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은 맥고나걸 교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들고 있던 책들이 팔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그녀는 집어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다.

'◎수님, 제 생각에- 전 알아요- 스네- 누군가가 그 돌을 훔치려고 해요 덤블도어 교수님께 말씀드려 야만 해요' 그녀가 그에게 충격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일 돌아오실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네가 그 돌에 대해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안심해라, 아무도 그걸 훔칠 수는 없을 테니, 그건 아주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

"하지만 교수님◎

"포터, 아무 걱정 마라." 그녀가 쌀쌀맞게 말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떨어진 책들을 주워 모았다. "자 모두들 밖으로 나가 햇볕이나 쬐거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 밤이야." 일단 맥고나걸 교수가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오늘 밤에 그 지하실 문을 지나갈 거야.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냈어, 그리고 이제 덤블도어 교수님까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가 있게했어. 그가 그 편지를 보낸 거야, 덤블도어 교수가 나타나면 마법부는 깜짝 놀랄 게 분명해."

기지만 우리가 뭘—"

헤르미온드는 숨이 막혔다. 해리와 론이 빙 돌아섰다.

거기에 스네이프가 서 있었다.

◎똥." 그가 구변 좋게 말했다.

그들은 그를 뻘히 바라보았다.

"이런 날엔 안에 있으면 안 되지.'" 그가 이상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흰—' 해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을 꺼냈다.

'너희들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스네이프가 말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희들이 뭔가 못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니까 말야_ 그리고 그리핀도르는 정말로 더 이상의 점수를 잃어선 안 되잖니, 안 그래?"

해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들이 돌아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스네이프가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웠다.

'◎심해라, 포터- 한번만 더 야밤에 돌아다녔다가는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쫓아내고 말 테니까. 잘 가라.'

그는 교무실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돌계단 위로 나왔을 때, 해리가 그들에게 돌아섰다.

"맞았어, 이렇게 하면 돼."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우리 중하나가 스네이프를 감시하는 거야- 교무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가 떠날 때 따라가는 거야. 헤르미온드, 네가 하는 게 낫겠다. "

"왜 나지?"

'뻔하지.'" 론이 말했다. '건 플리트웍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척할 수 있잖아.' 그가 목소리 톤을 높여 헤르미온드의 흥내를 내며 말했다. '오 플리트웍 교수님, 전 너무 걱정돼서요, 문제 14b가 틀린 것 같아요 . , "

기끄러워."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네이프를 감시하는 데 동의했다.

◎리고 우린 3층 복도 밖에 있는 게 좋겠어." 해리가 론에게 말했다. "자 가자."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플러피가 있는 그 문 앞에 도달하자마자 맥고나걸 교수가 또 나타났고 이번엔, 그녀가 자제력을 잃고 화를 벌컥 냈다.

◎"뺨을 한 보따리 써도 지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녀가마구 고향쳤다. "이젠 이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너희들이여기 근처 어디라도 다시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그리핀도르에서 또다시 50 점을 감점할 테니까! 그래, 위즐리, 바로 내가말고 있는 기숙사에서 !"

해리와 론은 학생 휴게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리가 게르미온느는 지금쯤 스네이프에게 바싹 붙어 있겠지"라고 말하기가 무섭게,그 똥보 여인의 초상화가 핵 열리며 헤르미온느가들어왔다. "미안해,해리!"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제이프가 나와서내게 뭐 하느냐고 묻잖아,그래서 플리트웍 교수님을 기다리고있다고 했더니, 스네이프가 그를 불러줬어, 난 방금에야 나왔어, 스네이프가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

"이제 다 틀렸네 그럼, 안 그래?' 해리가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를 뵈히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고 있었다.

일이 있어도 난 오늘 밤에 여기를 나가서 그 돌을 먼

저 손에 넣겠어."

"미쳤구나!" 론이 말했다.

"안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와 스네이프가말했잖아? 넌 쫓겨날 거야!'"

"그게 어떨다는 거야?' 해리가 소리쳤다. "모르겠니?스네이프가 만일 그 돌을 손에 넣으면,볼드모트가 돌아올 거야! 그가 떠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듣지도 못했니? 그땐 쫓겨날호그와트도 없을 거야! 그는 호그와트를 무미건조하게 만들던지,아니면 어둠의 마법을 배우는 학교로 변화시킬 거야! 감점당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구,모르겠어?그리핀도르가기숙사 우승컵을 거머쥐면 그가 너희들과 너희 가족들을 가만놔둘 것 같아?내가 만일 그 돌을 손에 넣기 전에 잡히면,그러면, 난 더즐리 가족에게로 돌아가 볼드모트가 그곳으로 날찾아오길 기다릴 거야, 난 그저 조금 더 늦게 죽는

것뿐이야,왜냐하면 난 어둠의 세계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테니까! 난반드시 오늘 밤 저 지하실 문을 통과할 거야. 너희들이 무슨말을 해도 소용없어. 절대 날 막지는 못할 거야! 볼드모트는

내 부모님을 죽였어, 생각 안 나?"

그가 그들에게 덤벼들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말이 맞아,해리."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투명 망토를 사용할 거야." 해리가 말했다. '◎걸 되찾은건 정말 다행이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셋을 모두 가려줄까?" 론이 말했다.

'◎두- 우리 셋 모두라니?"

"오,쓸데없는 말은 그만둬,우리가 널 혼자 가게 할 거라고생각했니?"

"물론 안 되지." 헤르미온느가 힘차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없이 그 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난 가서 책들을훑어보는 게 좋겠어, 뭔가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야.....

◎"씩만 우리가 잡히면, 너희 둘도 쫓겨날 거야."

'나는 괜찮을걸.' 헤르미온느가 자신있게 말했다. ◎리트웍교수님이 내게 살짝 말해주었는데 그의 시험에서 내가 1霸퍼센트를 받았대.그들은 절대 날 차버리지 않을 거야.'

저녁을 먹은 뒤 그들 셋은 학생 휴게실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리핀도르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해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것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헤르미온느는 이번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마법들을 하나라도 발견하'늦론

내 부모님을 죽였어, 생각 안 나?"

그가 그들에게 덤벼들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말이 맞아,해리."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투명 망토를 사용할 거야."해리가 말했다. '◎걸 되찾은건 정말 다행이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셋을 모두 가려줄까?" 론이 말했다.

'◎두- 우리 셋 모두라니?"

"오,쓸데없는 말은 그만둬,우리가 널 혼자 가게 할 거라고생각했니?"

◎◎ 할 꾸곤'』꿀◎꾸은느자 春 if◎ 를꾼글. ◎떤곳 우리없이 그 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난 가서 책들을훑어보는 게 좋겠어, 뭔가 유용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야…… ◎淵만 우리가 잡히면, 너희 둘도 雲겨날 거야."

'나는 괜찮을걸.'" 헤르미온느가 자신있게 말했다. ◎리트웁교수님이 내게 살짝 말해주었는데 그의 시험에서 내가 120 퍼센트를 받았대.그들은 절대 날 차버리지 않을 거야."

저녁을 먹은 뒤 그들 셋은 학생 휴게실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귀찮게 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리핀도르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해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것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헤르미온느는 이번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마법들을 하나라도 발견하길 바라면서. 노트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둘 모두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침대로 돌아가면서 휴게실이 서서히 비워졌다.

"망토를 가져오는 게 좋겠어.'" 리 조던이 마침내 기지개를켜고 하품을 하며 떠나자 론이 비밀히 말했다. 망토를 꺼내던해리의 시선이 갑자기 해그리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플루트에 쏠렸다. 그는 전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지만,플러피에게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학생 휴게실로 달려갔다.

"망토를 여기서 입어보는 게 좋겠어,우리 셋을 모두 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야- 만일 필치가 우리들의 발 하나가그 주인을 따라 돌아다니고 있는 걸 발견하면—'

'너희들 뭐하니?" 휴게실 구석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네빌,마치 또 한번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은두꺼비 트레버를 잡고 한 안락의자 뒤에서 나타났다.

"아무 것도 아냐, 네빌, 아무 것도." 해리가 그 망토를 급히뒤로 숨기며 말했다.

네빌은 땀뻑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너희들 또 나가는구나.'" 그가 말했다.

"아냐,아냐, 아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냐,우린 안 나가. 너 잠자러 안 가니, 네빌?"

해리가 문 옆에 있는 괘종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스네이프는 지금 플러피가 잠들도록 연주를 파◎ 消을직◎ 몰참쑈

'러희들 나가면 안돼.'"네빌이 말했다. '7시 잡힐 거야.그리핀도르는 훨씬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구."

'넌 이해 못해.'" 해리가 말했다. "이건 중요해."

하지만 네빌은 그들을 막는 일이라면 목숨을 건 어떤 짓이라도 하기로 다부지게 마음먹고 있었다.

'난 저희들기 그렇게 하도록 꺾두지 않을 거야.'" 그가 급히초상화 구멍 앞으로 가서 막아서며 말했다. '간-난 너희들과싸울 거야!"

'깰빌.'"론은 감정이 폭발했다. '그 구멍에서 비켜 서,얼간이처럼 굴지 말고—'

"얼간이라고 부르지 마!" 네빌이 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규칙을 어겨선 안돼! 그리고 내게 사람들에게 용감히 대항하라고 말한 건 바로 너였잖아!"

◎쑈, 하지만 우리에게 대항하란 말은 아니었어." 론이 몹시화가 나서 말했다. '네빌, 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딛자 네빌이 두꺼비 트레버를 떨어뜨렸다. 두꺼비는 팔짝팔짝 뛰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버렸다.

"자 어서, 날 쳐봐!" 네빌이 양 주먹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난 각오하고 있어 !"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떨겐 좀 친욕,'"그가 생각다못해 말했다.

헤르미온느가 앞으로 걸어나갔다.

'네빌,'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그녀가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렸다.

'핀트킵픽쿠스 토탈루스.f'"그녀가 지팡이를 네빌에게 가리키며 외쳤다.

그러자 네빌의 두 팔이 옆구리에 철썩 붙고 두 다리가 꼬여버렸다. 그리고는 몸 전체가 뻗뻗하게 굳은 채로,제자리에서흔들거리더니 나무토막처럼 바닥으로 엎어졌다.

헤르미온드가 얼른 달려가 그를 뒤집었다. 턱이 짓눌려져 있어서 네빌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어떻게 한 거야?' 해리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건 완전한 '동작' 그만이야.'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오, 네빌, 정말 미안해."

"우린 가야만 해, 네빌, 설명할 시간이 없어," 해리가 말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네빌.' 그를 넘어가 투명 망토를 입으면서 론이 말했다.

하지만 네빌을 마룻바닥에 움직이지 않게 누워있도록 내버려두는 건 왠지 좀 꺼림칙했다.

몹시 긴장하고 있어서인지, 모든 조각상의 그림자가 필치처럼 보였고, 멀리서 들리는 산들바람 소리는 꼭 피브스가 그들을 내리덮치는 소리 같았다.

첫 번째 계단 밑에서, 그들은 노리스 부인이 계단 꼭대기 근처를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 한번만 저 고양이를 발로 차버리자." 론이 해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지만,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노리스 부인 주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그 고양이가 등불 같은 눈을 그들에게 돌렸지만, 아무 짓도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중간쯤 가자 불쑥 피브스가 나타났는데, 그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카펫을 느슨하게 하고 있었다.

"거기 누구야?" 그들이 그 쪽으로 다가가자 피브스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는 심술궂은 까만 눈을 가늘게 떴다. '걸 볼 수는 없지만, 거기 있다는 거 다 알아. 송장 먹는 귀신이나 아니면 유령이나 아니면 꼬맹이 학생 녀석이나?"

그를 공중으로 떠올라 등등 떠다니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을 ◎런궂혔다.

◎씨를 불러야겠군,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가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있어."

그때 해리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퍼브스." 그가 쉼 목소리로 말했다. '피투성이 바론이 보이지 않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네."

피브스는 놀라서 공중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계단에서 쉼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공중을 떠돌았다.

"아이구 죄송해요, 바론 님." 그가 알랑거리며 말했다. '제 실수예요, 제 실수-보지 못했어요-물론 보지 못했죠, 보이지 않으시니까-이 늙은이 피브스를 용서하세요.'

'난 여기서 불일이 있네, 피브스.' 해리가 쉼 목소리를 냈다.

◎씨니 오늘 밤은 이곳에 있지 말게."

'◎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피브스가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며 말했다.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바론 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그는 획 내달았다.

"훌륭헌믹, 해리 !" 론이 속삭였다

잠시 뒤, 그들은 3층 복도 바깥에 있었다-그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거봐 그렇다니까.'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네이프가 별써플러피를 지나갔다구."

열린 문을 보는 건 어쨌든지 간에 그들 셋 모두를 긴장시켰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같았다. 망토 밑에서, 해리는 다른 두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다.

'한일 너희들이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탓하지 않을게." 그가 말했다. "망토를 가져가도 돼, 난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어리석게 굴지 마" 론이 말했다.

'우린 갈 거야.'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해리가 그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뻐걱거릴 때. 나직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개는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코는 세 개가 모두 그들이 있는 방향에서 미친 듯이 쿵쿵거렸다.

틀

"저 개의 발에 있는 저게 뭐지?" 헤르미온드가 속삭였다.

"하프 같은데." 론이 말했다. "스네이프가 거기에 놓아둔 게림없어."

'플러피는 연주를 멈추자마자 깨어날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러면, 자 시작이다 . . ."

그가 해그리드의 플루트를 입에 대고 불었다. 그것은 어떤가락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첫 음부터 그 짐승의 눈이 처지긴 쓴학힌글.해리는 갇힌 숨을 쉴 수있 없었다.천천히,1각의 오르렁거리는 소리가 멈추었다-그것은 네 발로 서서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더니, 땅바닥으로 퍽 쓰러져, 잠들어버렸다.

"계속 연주해.' 그들이 망토를 벗고 지하실 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갈 때 론이 해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거대한 머리들 가까이로 다가가자 그 개의 입김에서 뜨겁고,고약한 냄새가 났다.

"문을 잡아당겨 봐.열 수 있을 것 같아.' 론이 개의 등을 주의해서 보며 말했다. "먼저 갈래,헤르미온느?"

"아니, 난 싫어 !"

"좋아.' 론이 뿌드득하고 이를 한번 갈더니 조심스럽게 그

'7;

개의 다리를 넘어갔다. 그리고 그가 몸을 굽혀 지하실 문의 고리를 잡아당기자, 위로 획 열렸다.

"뭐가 보이니?'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 것도 안 보여-그냥 새까매-내려가는 길도 없어,그냥 떨어져야 할 거야."

여전히 플루트를 불고 있는 해리가 론의 주의를 끌기 위해손을 흔들며 그 자신을 가리켰다.

'네가 먼저 가겠다구? 정말이야?' 론이 말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는 나도 몰라. 그럼 그

개가 계속 잠잘 수 있도록 그플루트를 헤르미온느에게 줘."

해리가 그 플루트를 넘겨주었다. 잠시 잠잠하던 개가 오르렁거리며 씩씩씩씩 몸을 움직였지만,

헤르미온느가 다시 불기시작하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해리는 그 개를 넘어가 지하실 문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바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그 구멍 속으로 내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는 론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따라오지마. 곧장 부엉이 방으로 가서 헤드위그를

덤볼도어교수에게 보내, 알았지?"

"알았어,' 론이 말했다.

"조금 있다 보자, 그럼....."

그리고 해리는 손을 놓았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에게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스쳐왔다-

털썩.그는 이상하게 소리도 나지 않고 그저 털썩 하며 뭔가부드러운 것 위에 내렸다. 그는

일어나 앉았다. 눈이 아직 어둠에 익숙지 않았으므로 손으로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어떤식물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그가 이제 우표 크기만 하게 보이는 열린 지하실문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안전해, 뛰어내려도 돼 !"론이 즉시 따라왔다. 그는 내려와,팔다리를 쭉 펴고 해리 옆에

누웠다.

"이게 뭐지?" 그의 첫마디였다.

"몰라, 무슨 식물 종류 같아. 떨어지는 충격을 막아주는 건가봐. 어서 내려와, 헤르미온느!"

어렴풋한 음악소리가 멈쳤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헤르미온느가 어느새

뛰어내렸다. 그녀는 해리 맞은편으로내렸다.

'학교에서 몇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는 거 같아.'" 그녀가 말했다.

"이 식물이 여기에 있어서 다행이야,정말' 론이 말했다.

'단형인긴.r"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 둘 좀봐!"

그녀는 획 일어나 발버등치며 축축한 벽 쪽으로 갔다. 발버등쳐야 했던 건 그녀가

내려오자마자,땀 같은 덩굴손이 발목에 감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해리와 론의

경우.그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 발이 긴 덩굴 식물로 단단히 묶여져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그 식물이 껍 잡기 전에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녀는 남자아이 둘이 그 식물을 떼어내려고 싸우는 모습을겉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았지만,몸부림치면 칠수록.그것이그들 주위로 더 단단히 그리고 더 빨리 감겼다.

©직이지 마!" 헤르미온느가 그들에게 말했다. '간 이걸 알아- '악마의 덫'이라는 식물이야!"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알아서 참으로 다행이야,이름을 안다는 건 대단히 유용하거든." 론이 그 식물이 목 주위로 감겨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몸을 뒤로 젖히며 딱딱거렸다.

'조용히 해, 그것을 죽일 방법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니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서둘러, 숨을 쉴 수가 없어 !' 그 식물이 가슴으로 감겨 올라가자 해리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악마의 뿔, 악마의 뿔…… 스프라우트 교수가 뭐라고 말했더라?- 그건 어둠과 축축한 걸 좋아한다—"

◎씨니까 불을 붙여 !" 해리는 숨이 막혔다.

◎씨- 물론- 하지만 나무가 없어 !" 헤르미온드가 양손을 꼭 쥐며 외쳤다.

'너 정신 나갔니?' 론이 고향을 질렀다. '너 도대체 마녀니 아니니?'

"아. 그렇지 !"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그녀가 요술지팡이를 핵고집어내 휘두르며 뭐라고 중얼거리자, 스네이프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푸른색 불꽃이 그 식물에게로 뿔어졌다. 그리고 그 식물이 빛과 온기를 피해 달아나자 두 소년은 순식간에 그 조임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것은 꿈틀거리기도 하고 도리깨질하듯이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그들의 몸을 놔주었다.

'네가 약초학을 잘 보아두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어, 헤르미즈즈 ?

온느.' 해리가 얼굴에서 땀을 훔치면서, 그녀가 있는 벽로 걸어갔다.

"그래," 론이 말했다. ◎리고 해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은 것도 말야-그런데 정말이지 나무는 없었어.'""이쪽으로 가자." 해리가 하나밖에 없는 돌 통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 말고는 벽을 타고 똑똑 떨어지는 부드러운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통로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해리는 그린고트가 생각났다. 가슴이 불쾌하게 마구 두근거리면서, 용들이 마법사 은행의 금고들을 지킨다는 말이 생각났다. 만일 그들이 용과, 완전히 다 자란 용과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노버트는 정말 고약했었다……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가 귀를 기울였다. 앞쪽 위에서 살랑대고 땡그랑대는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유령일까?"

'◎르겠어 . , 난 날개소리처럼 들리는데."

'잘엔 불빛이 있어-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여.'

그 통로 끝에 도달하자 찬란히 밝혀진 방이 나타났다. 천장은 높게 아치 모양이었다. 방을 한가득 메운 보석처럼 밝은 색의 작은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제비를 하고 있었다. 방맞은편에는 육중한 나무문이 있었다.

◎끼가 지나가면 새들이 공격할까?' 론이 물었다.

◎런지도 모르지." 해리가 말했다. ◎런게 심술궂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새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리 덮친다면……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어…… 달려야지."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팔로 얼굴을 가린 뒤 전속력으로 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언제라도 그를 쥐어뜯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문에 도달해 손잡이를 당겼다. 문은 잠겨있었다.

다른 두 사람이 뒤이어 왔다. 그들은 그 문을 힘껏 잡아당겨보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여 보기도 했다. 그러나 문은 헤르미온드가 시도한 알로 호모라 마법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어떡하지?" 론이 물었다.

"이 새들은 . . 그것들은 여기에 그저 장식을 위해 있을 리가없어."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그들은 새들이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반짝거리 며-반짝거 리 며 ?

◎건들은 새가 아냐!" 해리가 갑자기 말했다. "그것들은 열쇠야! 날개 달린 열쇠들- 자세히 봐.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다른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그 많은 열쇠를 결눈질하는 동안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았다.

" . . 씨씨- 봐! 빗자루들이야! 우리 그 문의 열쇠를 잡아야만 해!"

기지만 수백 개잖아!"

론이 그 문의 자물쇠를 살폈다.

"커다란 구식 열쇠를 찾으면 돼- 어쩌면 손잡이처럼 은색일지도 몰라."

그들은 각각 빗자루를 잡고 공기를 발로 힘껏 차며, 구름 떼처럼 몰려있는 열쇠들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그들은 손을 쪽뻗어 잡아채려고 했지만, 마법에 걸린 그 열쇠들이 어찌나 빨리 달 77 나 7 진 도진꿍 잡을 수가 없었던.

그러나해리는 역시 1關年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최연소 수색꾼다웠다. 그는 어떤 사물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소용돌이치는 갖가지 색깔의 깃털을 쫓고 1분 정도 진지한 마음으로 일에 착수한 뒤, 그는 마치 이미 잡혀서 열쇠구멍에 거칠게 쑤셔 넣어졌던 것 같은, 한쪽 날개가 구부러진 커다란 은빛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저거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다. "저 큰 것- 저기- 아니, 저기- 하늘색 날개가 달린 것- 깃털들이 모두 한쪽으로 늘어져 있는 것.'

론은 해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급히 질주하다가, 천장에 부딪혀서, 하마터면 빗자루에서 떨어질 뻔했다.

"가까이 가야 해!" 해리가 손상된 날개가 달린 열쇠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소리쳤다. '를, 난 위에서 공격해-헤르미온느, 난 아래에서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구- 난 그걸 잡도록 해볼게. 알았지, 지금이야!"

론이 급강하하고,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위로 솟아오를 때 그 열쇠가 재빨리 옆으로 피하자 해리가 그것을 잡으러 질주했다. 그것이 급히 벽 쪽으로 달아나자, 해리가 얼른 상체를 굽히더니 어느새 그걸 잡아 돌에 대고 꼼짝 못하게 눌렀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환성이 그 높은 방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부리나케 내려와 문앞으로 달려갔다. 열쇠는 해리의 손에서 발버등치고 있었다.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밀어 넣고 돌렸다-효과가 있었다. 자물쇠가 딸각하고 열리는 순간, 열쇠는 다시 날아갔다. 그 열쇠는 두 번이나 잡혀서인지 매우 지치고 초라해 보였다.

◎기됐니?" 해리가 한쪽 손을 문손잡이에 놓고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그 다음 방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빛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와 놀라운 광경을 드러냈다.

그들은 거대한 체스 판 가장자리에서, 검정 체스의 말들 뒤에 서 있었다. 그 말들은 모두 그들보다 컸는데 검정 돌 같은 물질에 모양을 새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방 맞은편에서 하얀 체스 말들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약간 떨렸다-그 커다란 하얀 색의 말들은 눈, 코, 입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해리가 속삭였다.

'뻔하지 않아?" 론이 말했다. "그 방을 지나가려면 체스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 하얀 말들 뒤에 있는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생각엔.' 론이 말했다. ◎끼가 체스의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는 검정 나이트(기사, 騎士)에게로 걸어가 손을 내밀어 그 나이트의 말을 만졌다. 그러자 그 돌이 금방 생기를 되찾았다.

그 말은 땅을 앞발로 긁었고, 나이트는 헬멧 쓴 고개를 돌려론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어- 지나가려면 당신 팀에 끼어야 하나요?'

검정 나이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론이 다른 두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가 말했다. ◎기가 검정말 세 개를 대신해야만 할 것 같아 . ."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론이 생각하는 걸 지켜보며 가만히 있마침내 그가 말했다. '◎렇다면, 화내거나 뭐 그리지는하지만 너희 둘 다 체스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

컨단골 한향 석좌 말들은 는.7_ 입인

"이제 어떻게 하지?" 해리가 속삭였다.

'뻔하지 않아?' 론이 말했다. '그 방을 지나가려면 체스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 하얀 말들 뒤에 있는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 생각엔." 론이 말했다. "우리가 체스의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안"

그는 검정 나이트(기사, 騎士)에게로 걸어가 손을 내밀어 그

47 쪽 릴 額?]77◎ ?7? ?뎌◎ 駱諦

그 말은 땅을 앞발로 긁었고, 나이트는 헬멧 쓴 고개를 돌려론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어-지나가려면 당신 팀에 끼어야 하나요?"

검정 나이트가 고개를 끄덕이자 론이 다른 두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가 말했다. "우리가 검정말 세 개를 대신해야만 할 것 같아."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론이 생각하는 걸 지켜보며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렇다면, 화내거나 뭐 그러지마, 하지만 너희 둘 다 체스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 "화내지 않을게." 해리가 얼른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만 해."

◎써면, 해리, 넌 저 비숍(주교의 모자 꼴로서 비스듬히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음: 옮긴이)의 자리로 가고, 헤르미온드, 넌 그의옆으로 가서 저 성장(域將)을 대신해.'

◎런 넌?"

'난 나이트가 될 거야.' 론이 말했다.

체스의 말들은 죽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 말이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이트 하나와 비숍 하나와 성장 하나가하얀 체스 말들에게 등을 돌리고 체스 판에서 걸어나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드가 들어갈 빈칸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체스에서는 하얀 색이 항상 먼저 시작해" 론이 체스 판을건너다보며 말했다. ◎써.....
봐.....

하얀 졸 하나가 앞으로 두 칸 움직였었다.

론은 검정 체스 말들에게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어디로 보내든 아무 말 않고 움직였다. 해리의 무릎이 떨리고있었다. 지면 어떡하지?

'해리- 오른쪽 대각선으로 네 칸 움직여.'

나이트 하나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얀 여왕이 그를 세게 때려 땅바닥으로 넘어뜨리더니얼굴을 푹 숙이고 판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를 질질 끌고 나갔다.

"어쩔 수 없었어." 론이 자신감을 잃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해야 널 내버려두고 저 비숍을 가져가니까,헤르미온드,계속해."

그들의 말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하얀 말들은 인정사정이없었다. 곧 죽은 검정 말들이 체스 판 바깥에 죽 늘어서게 되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론이 두 번씩이나 겨우 구해주기도 했다. 그는 체스 판으로 여기저기를쓴살같이 뛰어다니며,그들이 잃은 검정 말 만큼의 하얀 말들을 죽여버렸다.

'거의 다 왔어.' 그가 갑자기 비밀히 말했다. '잠간만...생각좀 해보고...'

하얀 여왕이 멍한 얼굴을 그에게로 돌렸다.

◎써.....론이 조용하게 말했다 '그 길밖에 없어.....내가 죽어야 해."

"안돼 !" 해리와 헤르미온드가 소리쳤다.

"체스는 그런 거야!"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어떤 희생을치려야만 한다구!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그녀가 날 잡아갈 거야-그래야 네가 자유롭게 되어 저쪽 왕을 저지하는거 77,
해 리 !

◎띠만—'

'너 스네이프 막고 싶은 거니 아니니?"

"론—"

"이것 봐,네가 서두르지 않으면,그 사이 그가그 돌을 가져갈 거야!"

달리 방도가 없었다.

◎기됐니?' 론이 큰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결연해 보였다. '그럼 간다-자, 일단 네가 이기면 꾸물거리지 마."

그가 앞으로 발을 내딛자, 그 하얀 여왕이 와락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론의 머리를 돌 팔로 세게 내려치자,그가 마룻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헤르미온드는 제자리에 선 채 비명을 질렀다-그 하얀 여왕은 론을 한쪽으로 끌어냈다. 그는 기진맥진해진 것처럼 보였다.

해리는 벌벌 떨면서, 왼쪽으로 세 칸 옮겼다.

하얀 여왕이 왕관을 벗어 해리의 발로 던졌다. 그들이 이긴것이였다. 체스의 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더니 허리를 굽혀절을 했다. 이제 앞에 있는 문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드는 론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뒤, 그문으로 달려가 다음 통로로 올라갔다.

'그가 만일-?'

"괜찮을 거야.' 해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며 말했다. '박음줄까?"

"스푸라우트의 마법이 있었는데, 그건 악마의 짓이었어. 열쇠들에 마법을 건 사람은 틀림없이 플리트웁이었을 거야. 맥고나걸은 체스의 말들이 살아 있도록 변신시 켜어.그렇게 되면 퀴렐의 주문이 남아, 그리고 스네이프의 것은.....

그들은 또 다른 문에 도달했다

"괜찮아?" 해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썰, 열어."

해리가 문을 밀어 열었다.

고약한 냄새가 물씬 났으므로, 그들은 둘 다 망토를 끌어올려 코를 막았다. 지독한 냄새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트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 녀석과 싸울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 트롤의 육중한 한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넘어가며 해리가 말했다. "어서 가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가 그 다음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은 그다지 겁낼 필요가 없었다-안에는 그저 다른 모양의 병 일곱개가 한 줄로 늘어선 테이블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제이프의 주문이군." 해리가 말했다. "웬 해야 하지?" 문턱을 넘어가자마자, 그들 뒤에 있는 문간에 갑자기 자줏빛불길이 솟아 올랐다. 그건 평범한 불이 아니었다. 동시에, 앞으로 가는 문간에는 검은 불꽃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것이었다.

"봐!" 헤르미온드가 그 병들 옆에 놓여있는 종이 두루마리를 잡았다.

해리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그것을 읽었다.

우리 일곱 개 가운데 하나는 당신을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뒤로 가게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두 개에는 그저 채기풀 술이 담겨 있지만, 세 개는 독약으로, 어딘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잇곳엑 영원히 머물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딱실직 골라킬.

그리고 선택하는 데 다음 네 개의 실마리를 이용하라.

첫째, 독약이 제아무리 몰래 숨어 있다 해도, 채기풀 술 왼쪽에서는 항상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쪽 끝에 서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르지만, 가로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둘 다 위험하다.

셋째, 보는 것처럼, 모두의 크기가 다르다.

젠일 작은 덩이낙 피일 큰 덩이는 죽음인 들먹 있지 涉탈첫째, 왼쪽 두 번째와 오른쪽 두 번째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인 그 맛은 똑같다.

헤르미온드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해리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랍게도 미소를 짓고있었다.

'훌륭해.'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이건 마법이 아니야- 논리지- 수수께끼. 많은 위대한 마법사들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했어,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까?"

"물론 아냐."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이 종이에 다 있어. 일곱 개의 병에. 세 개는 독약이고, 두 개는 술이고, 하나는 검은 불을 안전하게 뚫고 지나가게 하고, 하나는 자줏빛 불을 뚫고 돌아가게 해줄 거야."

◎띠만 어느 걸 마셔야 할지 어떻게 알아?"

"잠깐만 기다려 봐."

헤르미온드는 그 종이를 일곱 번 읽었다. 그리고는 주르르늘어선 병들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혼자중얼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녀가 손뼉을 쳤다.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가장 작은 병이 검은 불을 지나가게 해줄 거야-그 돌이 있는 쪽으로.'

해리가 그 작은 병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마시면 딱 좋겠어." 그가 말했다. "한 모금도 안돼 .'

그들은 마주 바라보았다.

"자줏빛 불꽃을 쫓고 돌아가게 하는 건 어느 병이야?"

헤르미온드가 오른쪽 끝에 있는 동그란 병을 가리켰다.

'네가 그걸 마셔.' 해리가 말했다. "아냐, 잘 들어,론에게로돌아가.날아다니는 열쇠 방에서 텃자루들을 잡아타면 지하실문에서 나와 플러피를 지나갈 수 있을 거야-곧장 부엉이 방으로 가서 헤드위그를 덤블도어에게 보내,우린 그가 필요해.

내가 잠깐은 스네이프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그를 당할 수 없어, 정말로.'

◎띤만 해리-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떡하지?"

◎썰- 난 한번은 운이 좋았는데, 안 그래?" 해리가 그의흉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또 운이 좋을지도 모르지"

헤르미온드의 입술이 떨리더니, 그녀가 갑자기 해리에게로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헤르미온드!"

"해리- 넌 훌륭한 마법사야."

'간 너만큼 훌륭하진 않아.'" 그녀가 그를 놓자,해리가 무안해서 말했다.

'내가!'"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책! 그리고 똑똑함!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우정과 용기야-오, 해리- 조심해!"

'너 먼저 마셔.' 해리가 말했다. '건 어느 게 어느 건지 확실히 알잖아, 안 그래?"

"물론이지." 헤르미온드가 말했다. 그녀가 끝에 있는 동그란병을 쪽 들어켜더니 진저리를 쳤다.

"독약은 아니지?"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냐- 하지만 얼음 같아."

'빨리, 가, 약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행운을 빌게- 몸조심해-"

'가!'"

헤르미온드가 돌아서서 그 자줏빛 불길 속으로 곧장 걸어갔다.

해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작은 병을 집었다. 그는 검은 불꽃을 향해 돌아섰다.

'자 간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작은 병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정말로 마치 얼음이 몸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병을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검은 불꽃이 날름거리는 걸 보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잠시 어두운 불길만 보일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그 뒤 그는 반대편에 있는,마지막 방에 와 있었다. 그곳엔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그러나 그건 스네이프가 아니었다. 그건 심지어 볼드모트도 아니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건 퀵렐이었다.

' "아니!"해리는 숨이 막혔다.

퀵렐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전혀 씩씩거리지도 않았다.

◎썰,나다. "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난 혹시 널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포터.'

◎썩만 전 스네이프가-"

"세베루스?" 퀵렐이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평상시 떨리는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렇지, 세베루스는 그런 타입처럼 보이지,안 그래?그래서 꼴사나운 박쥐처럼 덤벼들게 하는 데 유용하지.그 사람 말고,누가 부◎L_불쌍하고, p◎말더듬는 퀵렐 교-교수를 의심하겠니?"

해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네이프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널 죽이려고 한 건 나였어.네 친구 그레이저가 저 퀵디치 시험 때 급히 스네이프에게 불을 지르려다가 잘못해서 나를 치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너에게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어.몇 초만 더 있었더라면 널 텃자루에서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말야.만일 스네이프가 널 구하려고 반대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난 그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제이프가 절 구하려고 했었다구요?"

"물론이지," 퀵렐이 냉정하게 말했다. "왜 그가 너의 다음 시험 심판을 자청했다고 생각하니?그는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우습지,정말...그는 괜한

걱정을 했던 거였어. 덤블도어가 지키고 있어서 난 아무 짓도 할 수가없었거든. 하지만 다른 선생들은 모두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모두 평소에 그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고나 할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기는 했지만,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오늘 밤 널 죽이게 됐군.'

퀴렐이 손가락들을 탁 하고 소리나게 했다. 그러자 희박한공기 속에서 갑자기 밧줄들이 튀어나오더니 저절로 해리의 몸을 단단히 감았다.

'넌 너무 시끄러워서 살아있으면 안돼, 포터. 할로윈 때 그렇게 돌아다니 다니,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러 오는 나를네가 보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말야.'

'◎럼 당신이 그 트롤을 들여놓았던 말예요?'

"물론이지. 난 트롤들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지- 너도내가 저 방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았을걸?공교롭게도,다른사람 모두가 트롤을 찾으러 뛰어 돌아다니고 있는데, 스네이프는 날 의심하고 가로막기 위해 곧장 3층으로 갔지-그런데내 트롤이 널 때려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 셋 달린저 개도 스네이프의 다리를 제대로 물어뜯지 못했어.

자,조용히 기다려,포터. 난 이 흥미로운 거울을 좀 살펴봐야 하니까."

해리는 그제서야 퀴렐 뒤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건 소망의 거울이었다.

"이 거울이 그 돌을 찾는 열쇠야." 퀴렐이 그 거울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짓을 한 걸 알면 덤블도어가 어김없이 복수하겠지..... 하지만 그는 런던에 있어.....그가돌아올 때쯤이면 난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해리는 그저 퀴렐에게 계속 말을 시켜서 그 거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전 당신과 스네이프가 숲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가불쑥 말했다.

는 나를 내내 의심했어. 날 위협하려고도 했지- 그랬음에도불구하고, 볼드모트 경을 내편으로 만들자..."

퀴렐은 다시 거울 앞으로 나와 거울을 탐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 돌잇 보க்..... 려간◎것을 ㄱ ◎승곡힌 ◎킬◎ 있타그런데 저긴 어디지?'

해리는 친친 감겨오는 밧줄들과 싸웠지만, 역부족인었다. 그는 계속해서 퀴렐이 그 거울에 온 정신을 쏟고 있지 못하게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늘 절 너무나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오,그랬지." 퀴렐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그랬어그는 호그와트에 네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몰랐니?그들은 서로 양숙이었지. 하지만 그는 결코 네가 죽기를 바라진 않았어."

'그런데 전 며칠 전에,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스네이프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퀴렐의 얼굴에 언뜻 불안감이 스쳤다.

"가끔,' 그가 말했다. '간 내 스승의 지시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지-그는 위대한 마법사이고 난 허약한◎'"그러면 그가 저 교실에서 당신과 함께 있었던 말예요?' 해리는 숨이 막혔다

'그는 내가 어딜 가든 함께 있지." 퀴렐이 조용히 말했다.

'난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그를 만났어. 그 때 난 선과 악에 대해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어리석은 젊은이에 불과했지. 볼드모트 경은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었어.선과 악은 없으며,오직 권력만 있다고,그리고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 때 이후 난 그를 충실히 섬겼어, 때로는 그를 여러 번 실망시키긴 했지만 말야.

그는 내게 아주 모질게 굴었지." 퀴렐이 갑자기 벌벌 떨었다.

'◎는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않아.내가그린고트에서 그 돌을훔치지 못했을 때,그는 대단히 화를 냈었어.그는 나를 난폭하게 다루었◎. 그래서 나를 더 가까에서 지켜보기로 한 거야.....

퀴렐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해리는 다이애건 앨리에 갔던 걸생각해내고 있었다-그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었을까?그는 바로 그날 퀴렐을 만나 리키 콜드런에서 그와 악수를 했었다. 퀴렐은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난 이해 못하겠어.....그 돌이 거울 안에 있다구?그럼 그 거울을 깨야 한단 말야?'

해리는 생각에 몰두했다.

자로 이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건 퀴렐이 찾기 전민 그 돌을 찾는 직알 그는 생각했다. 딱딱석 직울을 들꺽틱보견, 난 내 자신이 그것을 찾은 모습을 보아야 해- 그건

바로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퀴렐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거울을 볼 수 있을까?

그는 퀴렐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거울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발목에 감긴 밧줄들이 너무 짝조여 있어서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퀴렐은 그저 모르는 체했다. 그는 아직도혼자 말하고 있었다.

"이 거울은 뭘 하는 거죠?어떻게 사용하는 거죠?도와주세요, 스승님 !"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는 퀴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다.

해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소년을 이용해라..... 그 소년을 이용해 . .

퀴렐이 해리를 돌아보았다.

◎개- 포터- 이리 와."

그가 손뼉을 한번 탁 치자, 해리를 친친 감고 있던 밧줄들이떨어져 내렸다. 해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리 와." 퀴렐이 되풀이해 말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보이는 것을 내게 말해."

해리가 그를 향해 걸어갔다.

진짓말을 한알만 한,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보아는 것엔대해 거짓말을 해야만 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퀴렐이 그의 뒤에 바싹 붙어있다. 퀴렐의 터번에서 이상한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거울 앞으로 걸어간뒤, 다시 눈을 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상을 보았다. 처음에는 창백하고 겁먹은듯한 표정이었지만 잠시 뒤,그 영상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영상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새빨간 돌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왕크를 하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그리고 마치 그 영상이 그렇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해리는 뭔가 목직한것이 그의 진짜 주머니 속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다. 아무튼-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그는 그 돌을 갖고 있었달

◎써면?' 퀴렐이 조바심 내며 말했다. "뭐가 보이니?"

해리는 용기를 냈다.

"제가 덤블도어와 악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가 거짓말로 꾸며냈다. "제가-제가 그리핀도르를 위해 기숙사 우승컵을 따냈어요"

퀴렐이 다시 욱지거리를 했다.

"저리 비켜," 그가 말했다. 옆으로 움직일 때, 해리는 그 마법사의 돌이 다리에 닿는 걸 느꼈다. 그가 설마 그 돌을 찾아 거울 속으로 돌진할까?

하지만 그가 채 다섯 발도 가지 않았을 때, 퀴렐의 입술은움직이지도 않는데도 어떤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터,다시 이리로 와!" 퀴렐이 소리쳤다. "진실을 말해! 월봤지?"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에게 말하지.....마주 보고 . . ."

◎◎님, 아직은 힘이 충분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해리는 마치 악마의 덫이 그를 그 자리에서 꿈쩍도 못하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돌처럼 굳어져서,퀴렐이 손을뻗어 터번을 푸는 걸 지켜보았다.

어떻게 돼가는 걸까?터번이 사라졌다. 터번이 없는 퀴렐의머리는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그 뒤 그가 그 자리에서 천천히돌아섰다.

가능했다면 해리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퀴렐의 뒤통수였어 야 할 곳에, 어떤 얼굴이,해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얼굴 중 가장 끔찍한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노려보는 눈과 뱀처럼 틈만 있는 콧구멍을 가진 분필처럼 새하얀 얼굴이었다.

러덜 포터..... 그것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않았다.

'내 꼴을 좀 보렴," 그 얼굴이 말했다.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난 또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만 존재할 수있지..... 하지만 항상 나로 하여금 기꺼이 그들의 지성과 감정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왔지..... 유니콘의 피는 지난몇 주 동안 날 강하게 만들었어.....

너도 보았지, 충실한 퀴렐이숲속에서 날 위해 그걸 마시는 걸 말야. 일단볼로 장수약만갖게 되면, 난 내 자신의 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제.....네 주머니에 있는 돌을 내게 주는 게 어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느낌이 갑자기 해리의 다리에 밀려들어왔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어리석게 굴지 마." 그 얼굴이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 '네목숨을 구하고 내게 오는 게 좋을 거야.....그렇지 않으면 너도네 부모와 똑같은 종말을 맞게 될 테니.....그들은 내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다 죽었어.....'

'거짓말쟁이 !' 해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퀘렐은 볼드모트가 해리를 볼 수 있도록,뒤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악마의 얼굴이 이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렇게 감동적일 데가..... 볼드모트가 야유하듯 말했다. '난항상 용감함을 높이 평가하지....그래,애야,네 부모는 용감했다.... 난 네 아버지를 먼저 죽였어,그는 용감하게 싸웠어....하지만 네 어머니는 죽일 필요가 없었지....그녀는 널 보호하려고 했었어.... 자 그 돌을 내게 다오,그녀의 죽음이 헛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말야."

"절대로 안돼요!"

해리는 갑자기 까만 불길에 있는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볼드모트가 "잡아!"라고 소리치자마자,퀴렐의 손이 그의 손목을단단히 쥐는 게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해리의 흉터를 스쳤다. 머리가 마치 돌로 툇개지는 것 같았다. 그가 온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소리쳤고 놀랍게도 퀴렐이 그를 놔주었다. 머리의 통증이 줄어들었다-그는퀴렐이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통증으로 등을 등글게 구부리고,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다-그의 눈앞에서 손가락들에 물집이 생기고 있었다.

"잡아! 녀석을 잡아!"

볼드모트가 다시 날카롭게 소리치자,퀴렐이 돌진해 해리를때려눕히고는,그의 위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해리의 목을 졸랐다-해리는 흉터의 통증이 심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퀴렐이 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만은 볼 수 있었다.

◎송님, 그를 붙들 수가 없어요- 내 손이- 내 손이 !"

여전히 무릎으로 해리를 땅바닥에 눌러 꼼짝못하게 하고 있었음에도,퀘렐은 그의 목을 졸랐던 자신의 손을 들여다 보며괴로워했다-해리는 그의 손바닥이 마치 탄 것처럼, 껌질이벗겨져 속살이 나오고,벌겋게 번들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러면 그를 죽여, 멍청아, 그러면 끝나니까!" 볼드모트가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퀴렐이 해리를 죽일 주문을 외우려고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 해리가 본능적으로 손을 찢어 퀴렐의 얼굴을 잡았 7-

"71717171!"

퀴렐이 그에게서 떨어져 데굴데굴 굴렀다. 그의 얼굴에서도물집이 부풀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해리는 알았다. 퀴렐은 자신이 맨살을 만지면 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따라서 퀴렐을 계속 붙잡아서,그가 주문을 외우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 퀴렐의 팔을 꼭 잡고, 있는 힘껏 매달렸다. 퀴렐이 비명을 지르며 해리를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썼다-해리의 머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다-그는 볼 수가 없었다-그는 퀴렐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죽여! 그를 죽이라구!"라고 소리치는 볼드모트의 외침소리와 해리의 머리 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해리! 해리!"라고 외치는 다른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퀴렐의 팔이 그의 손에서 비틀어 빠져나가는 걸 느꼈고, 모든 게 헛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암흑 속으로 떨어졌다.....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황금색의 무언가가 그의 몸 바로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스니치 !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했지만, 팔이 너무 무거웠다.

그는 눈을 깜박거렸다. 그것은 스니치가 아니었다. 그것은안경이었다. 정말 이상했다.

그는 눈을 다시 깜박거렸다. 미소를 짓고 있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똥, 해리.'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그를 뻘히 보았다. 그리곤 기억이 났다. "선생님! 그돌이오! 그건 퀴렐이었어요! 그가 그 돌을 가졌어요! 선생님,빨리요!"

◎똥하거라,애야,그 때 이후 시간이 좀 지났단다. " 덤블도어가 말했다. "퀴렐은 그 돌을 갖고 있지 않단다. "

"그럼 누가 갖고 있죠? 선생님, 전—"

'해리, 제발 마음을 편안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폼프리 부인이 날 쫓아낼 테니까 말이다. " 해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병동에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하얀 리넨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워있었고,침대 옆에 놓인 탁자 위에는 마치 과자 가게처럼 과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네 친구들과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거란다. " 덤블도어가 밝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너와 퀴렐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되었단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전교 학생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지.네 친구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는 네게 화장실변기를 보내려고 했단다. 그렇게 하면 네가 웃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 다만,폼프리 부인은 그것이 대단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압수해 버렸단다. "

'제가 이곳에 얼마나 있었죠?"

'사흘. 네가 돌아온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할 사람들은 론 위즐리 군과그레인저 양이야,몹시 걱정들 했었거든. '

'그런데 선생님, 그 돌은—'

"이제 정신이 든 것 같구나.좋아,그 돌.퀴렐 교수는 그것을네게서 가져가지 못했단다. 내가 때마침 도착해 그걸 막긴 했지만, 네가 혼자서 아주 잘하고 있었단다, 정말 잘했다. "'그곳에 오셨어요? 헤르미온드가 보낸 부영이를 받으셨어요?'◎런 아마 공중에서 엿갈렸던 것 같더구나.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난 내가 가야 할 곳이 방금 떠나온 이곳이라는 걸 알았단다. 퀴렐이 널 떼어냈을 때 마침 내가 도착했지—"'◎게 선생님이셨군요."

'너무 늦을까봐 걱정했었단다. "

"아슬아슬하게 오신 거예요,조금만 더 늦으셨어도 전 그들그 돌에서 더 이상 떨어져 있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그 돌이 아니라, 너지, 이 녀석아—그렇게 애쓰다가 하마터면 네가 죽을 뻔했잖니. 그 돌은 말이다, 파괴되었단다. "'파괴되었다구요?' 해리가 멍하니 말했다. ◎씩만 선생님의친구- 니콜라스 플라멜—'

"아,니콜라스에 대해 아니?" 덤블도어가 아주 기쁜 듯이 말했다.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냈구나.사실 니콜라스와는 벌써얘기가 되었단다. 모든 게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데 동의한 거 71."

◎똥만 그건 그와 그의 아내가 죽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안그런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적절히 마무리지를 시간만큼의 불로 장수약은 마련해 두었단다, 그 뒤엔, 그래, 그들은 결국 죽겠지."

덤블도어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해리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너처럼 어린아이에게는,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니콜라스와 피레벨은, 아주 아주 긴 세월을 살았기에 정말로 쉬러가고 싶을 거야. 결국, 위대한 마법사에게는, 죽음이란 그저 또하나의 위대한 모험에 불과하단다 그 돌은 사실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니란다. 원하는 만큼의 돈과 오랜 삶! 대부분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겠지- 문제는, 인간들이란 꼭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것들을 선택하는 나쁜 버릇을갖고 있다는 것이지." 해리는 할말을 잃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덤블도어는콧노래를 부르며 천장을 보고 미소지었다.

◎똥님?" 해리가 말했다. "생각해 보았는데요..... 선생님그 돌이 사라져버렸다 해도, 볼드-, 제 말은, 그 사람—"볼드모트라고 부르거라.해리.사물에는 항상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단다. 어떤 이름에 대한 공포심은 그 사물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커지게 하니까 말이다. ' '네, 선생님. 그런데 볼드모트는 돌아올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겠죠, 안 그런가요? 제 말은, 그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지◎

'◎래,해리,그는 사라지지 않았단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있단다. 함께 할또 다른 몸을 찾으면서 말이다.....그는 정말로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죽임을 당할 수가 없단다. 그는퀴렐을 죽도록 내버려두었단다. 그는 적뿐만 아니라 추종자에게도 전혀 인정을 베풀지 않는단다. 하지만, 해리, 너는 그가예전의 힘을 다시 찾는 시간을 조금 늦춰 놓았단다. 앞으로도누군가 그와 싸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방해한다면 그는 아마 영원히 힘을 되찾지 못할 게다. '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얼른 멈췄다.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 때 그가 말했다.
"선생님,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단만 . .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 . . "진실." 덤블도어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아름답고도 끔찍한것이이지, 그러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 져야만 한단다. 그러나, 말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네 질문에
기꺼이 대답해 주마 단 대답해 주지 못할 땐,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난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게다. "

"그러면 . . . 볼드모트는 저의 어머니를 죽인 이유가 단지 그가 절 죽이려는 걸 그녀가 막았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애당초 그가 절 죽이고 싶어했던 거죠?"

이번엔 덤블도어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를 어쩌지, 그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구나. 오늘은 안돼. 지금은 안된다. 하지만
알게 될 게다. 언젠가는 . .

그러니 당장은 생각지 말거라, 해리. 나이가 더 들면 . . . 이런말 듣길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 . . 네가 준비가 되면, 알게 될

해리는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퀴렐은 왜 저를 만치지 못했던 거죠?"

'네 어머니는 널 구하기 위해 돌아가셨단다. 만일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란단다. 그는 너에 대한 네 어머니의 사랑처럼 강력한 사랑이 그나름의
독특한 자국을 남긴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지. 흉터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흔적도
아니지만 . . . 그렇게 깊은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우릴 영원히 보호해
준단다. 그러한 흔적은 네 몸 전체에 담겨있단다. 증오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 볼드모트와 영혼을 공유하고있었던 퀴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만질 수 없었을 게야.
그렇게 아름다운 무언가의 흔적이 남겨진 사람을 만지는 건심한 고통일 테니까. "

해리는 덤블도어가 창턱 바깥에 있는 새를 바라보는 사이시트로 눈물을 훔쳤다. 해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말했다.

'◎리고 투명 망토 말예요-그것을 제게 보낸 사람이 누군지아세요?"

"어- 네 아버지가 어쩌다 그것을 내게 맡기고 돌아가셨는데, 난 네가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덤블도어의 눈이 반짝였다. '쓸모있는 것들이지 . . . 네 아버지는 이곳에 계실때
그것을 쓰고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곤했단다. "

'그리고 또 있어요

"뭐든 서슴없이 해 보라. "

"퀴렐은 스네이프가—"

'◎네이프 교수라고 해라, 해리. "

'네, 그분이-퀴렐은 그분이 절 싫어하는 이유가 제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그들이 서로를 몹시 싫어하긴 했었지. 너와 말포이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당시, 네
아버지는 스네이프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었던단다. '

"무슨 일인데요?"

'네 아버지가 그의 생명을 구했단다. '

'777'요 f"

◎개 덤블도어가 꿈결같이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참 우습지,
안 그러니? 스네이프 교수는네 아버지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걸 견딜 수 없어
했단다 . , 금년에 그가 널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건 그렇게 해야 그와 네
아버지가 대등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빛을 갇은 후라면 다시 옛날처럼 네
아버지를 미워하며 편안히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

해리는 이것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으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란 하나만?"

'제가 그 거울에서 어떻게 그 돌을 나오게 한 거죠?"

"아, 그 질문을 해 줘서 정말 기쁘구나. 그건 나의 아주 훌륭한 생각들 중에 하나였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대단한 생각이었던단다. 그러니까, 그 돌은 찾고 싶어했던 사람만이- 찾기만 할
뿐, 사용하지는 않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금을 만들고 있거나 불로 장수약을 마시고 있는 모습만 보게 되겠지, 내 머리는 때로 나
자신조차도 놀라게 하거든 . . . 자, 이만하면 충분히 물었겠지. 그럼 이 과자들 줌

먹어보려무나.아!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로군! 젊었을 때 공교롭게도 우연히 메스꺼운 맛이 나는 젤리를 먹었는데,그 때 이후 난 혹시라도 이 젤리가 싫어질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맛좋은 태피엠티, 버터,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옮긴이)라면 괜찮겠지?"

그는 미소지으며 황금빛 갈색 젤리를 입 속으로 톡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목이 메어서 말했다.
"아, 이럴 수가! 귀지 맛이야!"

간호사인 폼프리 부인은 좋은 여자였지만, 매우 엄격했다.

'단 5 갈 만요' 해리가 간청했다.

"절대로 안돼."

'덤블도어 교수님은 들어오게 하셨잖아◎·',"

"글쎄, 물론, 그 분은 교장이시잖니, 아주 달라. 넌 휴식이 필요해."

"전 쉬고 있어요,보세요,이렇게 누워 있잖아요.오,제발,폼프리 아줌마·..."

"아, 좋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단 5 분 만이야."

그리고 그녀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들여 보내주었다.

'해 리 !'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로 달려와 양팔로 다시 안을 준비를한 것 같았지만, 그는 머리가 아직도 쭈셨으므로 그녀가 자제한 것이 기뻐다

"아,해리,우린 확실히 네가- 덤블도어 교수가 얼마나 걱정했는타◎

'학교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하고 론이 말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해리는 그들에게 퀴렐과 거울과 그 돌과 볼드모트에 대해모든 걸 말해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다. 긴장된 대목이 나올 때마다 숨을 죽였으며,퀴렐의 터번 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는, 헤르미온느가큰소리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씨니까 그 돌은 사라진 거야?" 론이 마침내 말했다. "플라멜이 곧 죽을 거라구?"

'바로 그거야,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워라더라..... 응,위대한 마법사에게는 죽음이 그저 또 하나의 위대한 모험일 뿐이 래.'

'그는 미쳤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 론이 그의 이상인 덤블도어의 미친 정도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너희 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니?" 해리가 물었다.

"글쎄,난 잘 돌아왔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론을 정신차리게 하고-한참이 걸렸지만 말야- 덤블도어 교수님께 연락하려고 부엉이 방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그를만난 거야-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그는 '해리가 그를 잡으러 갔지, 안 그러니?라고 말하고는 확 3 층으로 올라가버렸어 ."

'덤블도어 교수님이 계획적으로 네가 이렇게 하도록 꾸민게 아닐까?" 론이 물었다. '네게 네 아버지의 망토를 보낸 것하며 모든 것이 말야?"

◎씨,'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며 말했다. ◎게 정말이라면-끔찍한 일이야- 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

"아냐,그건 그렇지 않아."해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재미있는 분이야.그는 내게 기회를 주고 싶어했던 것 같아.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우리가 시도하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막는 대신,우리를 돕기 위해 충분히 훈련시켰던 것뿐이야.그가 내게 그 거울에 대해 알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그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볼드모트에 맞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래,덤블도어는 미쳤다니까,맞아.'" 론이 거만하게 말했다.

"잘 들어, 내일 연말 파티에는 참석해야 해. 점수가 최종 집계됐는데 물론 슬리데린이 이겼어-네가 지난번 퀴디치 시합에빠졌잖아, 우린 네가 없어서 래번클로에게 지고 말았어- 하지만 음식은 맛있을 거야."

바로 그 때, 폼프리 부인이 재촉을 했다.

'너희들 거의 15 분이나 있었다,이제 나가거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잠 푹 자고 나자,해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기분이 들었다.

'처 파티에 가고 싶어요.' 폼프리 부인이 그의 과자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갈 수 있죠, 그렇지요?" 덤블도어 교수는 네가 가도 좋다고 하시는구나."

그녀는 마치 덤블도어 교수가 파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듯이 코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런데 문병객이 또 왔단다. "

"아, 그래_2_" 해리가 말했다. "누군데요?"

그가 말할 때 해그리드가 옆걸음질을 쳐서 문으로 들어왔다.

여느 때처럼 실내에 있는 해그리드의 모습은 너무 커 보였다.

그는 옆에 앉아서 해리를 한번 쳐다보더니,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게- 다- 바보 같은- 내- 잘못이야!"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내가 그 나쁜 녀석한테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말해주었어! 내가 그에게 말했다구! 그는 그것만 모르고 있었는데,내가 그에게 말했어! 네가 죽을 수도있었잖아! 용의 알 하나 때문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1. 나 같은 놈은 쫓겨나선 먼길로 살도록 해야 핵 1,""해그리드!"

해그리드가 비탄과 후회로 몸을 떨며, 눈물을펍펍 쏟고 있는 걸 보자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그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알아냈을 거예요, 볼드모트잖아요, 아저씨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알아냈을 거예_7."

'네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해그리드가 훌쩍었다. '그리고그 이름은 말하지 마!"

'눅드모트!" 해리가 그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하자, 해그리드는 너무 충격을 받아 울음을 툇 그쳤다. "전 그를 만났었고 앞으로 그를 그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제발 기운 내요,해그리드, 우린 그 돌을 구했잖아요, 그건 파괴되었지만요. 어쨌든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개구리 초콜릿 하나 드세요,많이 있어요 . , "

해그리드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건 보니 생각난다. 나도 선물 하나 가져왔어.'

"흰 담비 샌드위치는 아니죠?" 해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해그리드가 마침내 살짝 웃었다.

"아냐.덤블도어가 어제 이걸 준비하라고 하루를 쉬게 해주잖아. 당연히 날 해고했어야 했지만 말야- 어쨌든,네게 이걸주게 되어서 기뻐 . . ."

그것은 표지가 가죽으로 된 좋은 책처럼 보였다. 해리는 호기심에서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마법사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페이지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네 부모의 옛 학교 친구들에게 모두 부영이를 보내서,사진을 좀 달라고 부탁했지.....네게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맘에 드니?"

해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해그리드는 충분히이해할 수 있었다.

해리는 그날 밤 혼자 연말 파티로 향하고 있었다. 폼프리 부인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야단법석을떠는 바람에 그가 좀 늦어서인지, 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연회장은 슬라이데린이 7년 동안 연이어 기숙사 우승컵을 타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슬라이데린의 색깔인 초록색과 은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슬라이데린의 뱀을 보여주는 커다란 깃발이 상석 뒤의 벽을 뒤덮고 있었다.

해리가 걸어 들어가자,갑자기 잠잠해졌지만 사람들이 다시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일어서고 있다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앉아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의 자리로 살짝 들어가 앉았다.

다행히, 잠시 뒤 덤블도어가 도착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жат아들었다.

'◎ 한 해가 갔군요!" 덤블도어가 기분 좋게 말했다. ◎띤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이 늙은이가 여러분들에게 부질없는 말한 마디 해야겠군요.굉장한 한 해였어요! 아마 여러분의 머리가 모두 조금씩은 더 찻을 것입니다.....내년 학기가 시작되것 전엔 먼런분들윗 떡킵를 간식 정 빅윳덜꼐 석름 송후을 근맞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숙사 우승컵을 수여해야겠군요 최종 합계 점수는 4 위에, 312 점을 받은 그리핀도르. 3 위에 謠2 점을 받은 후플푸프. 래번클로는 425 점을 받았고, 슬라이데린은 47 점입니다. "슬라이데린 테이블에서 갑자기 우레 같은 박수 갈채와 발 구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리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잔을 테이블에 두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구역질나는 광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슬라이데린."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이 참작되어야 합니툇'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슬라이데린의 미소가 약간 시들해졌다.

게hem." 덤블도어가 말했다. '나누어주어야 할 막바지 점수가있어요. 어디 보자. 그래..... 첫 번째- 론 위즐리 군은...'론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꼭 햇빛에 잘못 태워 빨갯게 되어버린 얼굴 같았다.

"...호그와트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체스 게임을 했으므로,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50 점을 드립니다."

그리핀도르의 갈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법에 걸린 천장을 거의 들어올릴 정도였다. 머리 위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같았다. 퍼시가 다른 반장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동생이야, 알지! 내 막내동생이라구! 맥고나걸의 거대한 체스세트를 지나갔어!'

마침내 다시 잠잠해졌다.

◎째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양..... 불길 앞에서 훌륭한논리를 폈으므로,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50 점을 드립니다."헤르미온느는 팔에 얼굴을 묻었다. 해리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리핀도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그들의 점수가 1驗점이나 올라간것이였다.

'넷째로- 해리 포터 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실내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순수한 정신력과 뛰어난 용기를 보여주었으므로,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脚점을 드립니다.

'함성 소리로 귀가 멍멍해졌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점수 계산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핀도르가 472 점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슬리데린과 똑같은 점수였다. 그들은 기숙사 우승컵 경쟁에서 동점이 된 것이였다-만일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1점만 더 주었더라면.

덤블도어가 한쪽 손을 들어올렸다. 실내가 점차 조용해졌다.

◎끼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덤블도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적들에게 용감히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만한 용기 없이는 친구들을 용감히 지켜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빌 롱바텀 군에게 10 점을 드립니다."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서 터져 나온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만약 연회장 바깥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면 아마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있을 때 네빌은 충격 받은 듯 얼굴이 새 하얘져서 그를 껴안는 사람들 더미 밑에 파묻혔다. 그는 여지껏 그리핀도르를위해 단 1점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리는 여전히 환호하면서,론의 옆구리를 슬쩍 찔러 말포이를 가리켰다. 아마 '동작그만' 주문에 걸렸다 해도 그보다 더 어리벙벙하고 충격받은모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래번클로와 후플푸프조차 슬리데린의 실패를 축하하고 있는 우레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덤블도어가 큰소리로 말했다. "약간의 장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그가 손뼉을 딱 쳤다. 잠시 후,초록색 벽걸이들은 자줏빛으로 은색은 황금빛으로 바뀌었다. 거대한 슬리데린의 뱀은 사라지고 커다란 그리핀도르의 사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스네이프는 소름끼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맥고나걸과 악수하고 있었다. 그와 살짝 눈이 마주친 해리는 그에 대한 스네이프의 감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해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다. 내년에는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물론 호그와트 기준으로 보았을때 말이다.

그날은 쿼디치를 이겼던 때보다도,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산더미만한 트롤들을 쓰러뜨렸을 때보다 더 좋은, 해리의 인생최고의 저녁이였다... 그는 오늘 밤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해리는 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지만, 성적은 나오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와 론 모두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 헤르미온느는 물론 1 학년에서 최고 점수를받았다. 턱걸이를 하긴 했지만 심지어 네빌도 시험을 통과했다. 마법의 약 성적이 무척 나쁘기는 했지만 다행히 약초학 성적이 좋아 만회가 났었다,고일은 심술궂은 만큼이나 어리석었으므로 떨어지기를 바랐지만.그 역시도 통과했다. 너무나 쓰라린 일이었지않 론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갑자기 그들의 웃장이 비워지고, 짐이 꾸러졌으며, 화장실한쪽 구석에서는 네빌의 두꺼비가 발견되었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방학 동안에 마법을 써서는 안 된다("제발 우리에게 이말을 하는 것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프레드 위즐리가 슬프게 말했다)고 경고하는 통신문이 나누어졌다. 또 그들을 배에태워 호수를 건네주기 위해 해그리드가 왔다. 그들은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탈 것이다. 웃고 떠드는 사이 시골 풍경은 점점더 푸르러지고 점점 더 산뜻해졌다.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를 먹으면서 그들은 머글 마을들을 급히 지나쳐 갔다. 마법사 망토를 벗고 재킷과 코트로 갈아입었다. 킹스 크로스 역 9와 3/4 번 승강장에 들어왔다.

그들 모두가 승강장에서 내리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들이 한꺼번에 딱딱한 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머글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글꾸글한 늪은 차장이 개찰구 옆에 서서 그들을 두세 명씩 내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번 여름에 꼭 놀러와." 론이 말했다. '너희 둘 다-부엉이를 보낼게.'

"고마워." 해리가 말했다. '7도 기대를 갖고 기다릴 무언가가 필요할 거야.'

그들이 머글 세계로 돌아가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갈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밀치며 지나갔다.

◎똥, 해리 !"

"잘 가, 포터."

"여전히 유명하군." 론이 그에게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갈 곳에서는 아냐, 장담해.' 해리가 말했다.

그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출입구를 함께 지나갔다.

"저기 있어, 엄마, 저기 있어, 봐!"

그건 론의 여동생 지니 위즐리였지만, 그녀는 론을 가리키고있지 않았다

"해리 포터야!" 그녀가 소리쳤다. "봐, 엄마! 난 보여—"◎各司 해, 지니, 손가락질을 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야." 위즐리 부인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따쁘게 보냈니?' 그녀가 말했다.

'대단히요' 해리가 말했다. ◎씩와 스웨터 감사했어요, 아줌마"

"오,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뻐니?"

그건 버논 이모부였다. 여전히 보랏빛 얼굴에, 여전히 코밑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는 보통 사람들이 가득 찬 역에서 새장속에 넣은 부엉이를 들고 있는 해리의 뻔뻔스러움에 여전히 몹시 화난 것처럼 보였다. 그의 뒤에는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가 서 있었는데 해리를 보자 겁에 질린 것 같았다.

"해리의 가족들이시군요!"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런 셈이죠." 버논 이모부가 말했다. "서둘러라, 애야, 하루종일 걸리겠다. " 그리고는 그는 걸어갔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나누기 위해 머뭇거렸다.

"여름 지나고 보자, 그럼."

'방학- 어- 잘 보내길 바래.' 헤르미온느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에 충격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는 표정으로 버논 이모부의 뒤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의 얼굴에 퍼지는 웃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우리가 집에서 마법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몰라. 난 이번 여름을

두들리와 재미있게 보낼 거야.....

7 제 2 권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

f 業 권에서 계속됩니다

요즘 전세계 출판계는 가난에 시달리던 한 이혼 여성을 일약 신데렐라로 만들어놓은 동화 해리 포터 시리즈 신드롬에 휩싸여 있다. 현재 勢 개 언어로 135 개국에서 출판돼 2 천만 부이상 팔려 나가면서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리즈는 아동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물을 제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 년 전인 지난 7 년 6 월 영국의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무명작가」 교 롤링의 처녀작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for◎ 只沈訂 ah? 77e 刃涼 79p7fr 'S Sf7He; 미국판은 刃 37y

f7 街 faHs the S7r771er 'S StGHe)'은 발간되자마자 단숨에 인기 고공비행을 시작해 올해의

어린이도서상과 스마티즈상 금상 등 영

국의 어린이도서상을 휩쓸었으며, 곧 독자와 평론가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다음해에 나온 해리 포터 시리즈의 두 번째 책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777y f77er rind He C7am77r 7f Se7ts)' 도 역시대히트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해리 포터 선풍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등유럽 각국으로 이어져 계속됐으며 심지어 자국에서의 출판을기다리지 못하고 영국으로 인터넷 주문을 하는 극성 팬들도늘어났다.

그 세 번째 책인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777y f37?anti He atsru? 7? 7777an)'가 첫선을 보인 지난 7 월 8 일에는어린이들이 그 책을 사기 위해 학교를 무단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출판사가 학부모들의 바람에 따라 그 출시 시기를 오후로 미루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또 그날 하룻동안미국의 애틀랜타 시내에서만 팔린 양이 무려 5 만 권이었다고하는데, 이 판매량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 瑞위권 소설이 1 년간 팔리는 수치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소설의 인기가 얼마나대단한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이 책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

른들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블룸스베리에서는 지하철에서 어른들이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읽을 수 있도록 알록달록한 표지를 수정해 2 파운드를 더 들여점장은 성인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단번에 3 만 5 천 부가 팔려나갔다.

영국보다 늦게 출판된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 책이 나오자마자 첫 주에 바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 위를 올라섰고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 권과 2 권이 나란히 베스트셀러 2 위와 3 위를 기록하는 등 1, 2 탄 모두 미국 주요 일간지의 일반도서목록 베스트셀러 부문에서 수위를 유지하며 통련하고 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현재 미국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1,73 위.한 작가의 동화 작품들이 동시에 이 신문 베스트 셀러 최상위 권에 오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더 타임즈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으로 해리 포터 신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전망을 못하고 있다.

해리 포터 선풍은 미국 사회에 '해리 포터 현상', '해리 포터 증후군'을 몰아왔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마다 '해리 포터'동화집을 밤새워 읽기 일쑤며 학교에서도 해리 포터' 시리즈

읽기 시간만을 고집한다고 한다. 또 아이들은 스스로가 마치신나게 마술을 부리는 '해리 포터'인양 행동하고 사고하는 등온통 '해리 포터'이다. 미국의 많은 학부모들은 비디오와 텔레비전 등에 빠져 책읽기를 외면했던 어린이들이 동화집 '해리 포터' 때문에 다시 책으로 돌아오자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있다. 영국의 블링킷 교육부장관은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아이들을 걱정하여 특별히 모든 학교가 매일같이 독서시간을갖도록 지시한기도 했었는데,그런 어린이들이인 해리 포터시리즈 때문에 다시 책보는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게 놀라웠던 것은,작가 롤링이 무명이었었고,그녀의 책이 블룸스베리의 의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몇 개의 출판사들에 의해 거절당했기 때문이었다. 광고의 역할을 무시할수는 없겠지만,만일 그 책들이 재미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까지 책벌레로 변신시킬 정도로어린이들을 매료시키고 어른들까지 그녀의 상상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 장문의 소설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권선징악의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법사 이야기답

게 황당무계하지만 서양의 여러 신화들이 섞여 있어 낯설지않고 모험이 빠르게 전개돼 순식간에 읽힌다. 또한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만 이웃 중엔 마법사들이 있으며 그들이나름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독특한 설정은 이 소설의 흥미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둘째,해리 포터의 소설에는 자유가 있다. 고아를 소재로 한아동 소설이 보통 그렇듯 주인공 해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선과 악,충성과 배반 사이에서 그 나름대로의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선택을 해나간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건그 안에 내포된 자유 때문이다. 아이들 스스로에게 책임을진는 방법을 보여주는 힌린씩 같은 인물은 착속 필요로 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리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읽을 거리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그들 역시도 그 책을 즐겁게 읽게 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셋째,악과 싸우는 롤링의 영웅들에치는 또 품위가 느껴진다. 그들은 용감하다. 그들은 신뢰할 만하다. 그들은 친구들을위해 위험에 맞선다. 그들은 용서한다.
넷째, 그 모험들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흐름, 즉각 책마다 끝으로 가면서 명확해지는 미묘한 교훈과 깊숙이
",』

흐르는 감동들이 있다.
다섯째, 책마다 기적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발견하고 이미존재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잠재적 요소들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컴퓨터 게임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흡인력 있으며 매력적인 독특한 전개방식이 그것이다. 누구라도 이렇게신나고 기이한 모험과 상상력 넘치는 이 소설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고아소년 해리 포터가 친척집에 맡겨져 천대받다가 마법 학교에 입학하면서 마법사 세계의 영웅이 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는 모험과 환상을 중심으로 한 성장소설이다.
작고 마른 체구에 가름한 얼굴을 하고 흐트러진 까만 머리와 초록빛 눈을 가진 해리 포터, 이마에 번개 모양의 가느다란 흉터가 있는 그는 늘 헐렁한 헌옷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인안경을 끼고 다닌다.
해리는 한 살 때,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마왕을 물리친 위대한 영웅이지만, 안전을 위해 머글인 페투니아 이모와 버논이모부 가족에게로 보내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온갖 멸시와 학대와 모욕을 당하며 계단 밀벽장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열한 번째 생일날에 해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호그와트라는 영국 최고의 마법 학교에 입학하라는 통지서를 받는다.
그는 커다란 냄비와 요술 지팡이를 들고, 런던 킹스 크로스역의 9 와 3/4 번 승강장에서 진홍색 증기 기관차를 타고 매혹적인 외딴 성에 있는 마법 학교에 도착한다.
호그와트에서 해리는 마법의 약 제조법, 약초학, 변신술,어둠의 마법을 막는 방어법,요술지팡이 사용법, 마법의 역사들을 배운다. 또 뱀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경기하는 스릴 만점의 퀴디치 게임에서 스타가 되며, 머리가 셋 달린 개,거대한 거미, 용, 유니콘, 켄타우루스, 바실리스크, 히포그리프(말 몸에 독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진 괴물) 등 신비한 동물들과 마주치며 계속해서 악마의 힘으로부터 학교와 마법사 세계를 구한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수업시간에 가장 먼저 손이 올라가고 아는 체하며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공부벌레인
,?'

헤르미온드는 사실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초로 한것이였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두꺼운 안경을 낀 멍청이 공부벌레로 묘사하며, ◎녀는 나를 풍자한 것이다. 난 헤르미온드처럼 똑똑하지도 성 가시지도 않았다. 적어도 난 내가 그럴지 않았길 바란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불타는 듯한 빨강머리를 해리의 친구 위즐리 형제들에게 주었다.
그녀에겐 또한 그녀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떤 영예도 되지않았던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어주었던 가까운 친구 몇 명이있다. '그 시기를 통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이 시리즈에서 유명한 해리의 단짝 친구로등장하는 론의 성격은 정작 어려울 때는 믿지 못할 친구였던손이라는 인물에 기초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그러나 가난에서 부로 이어진 작가의동화 같은 삶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 해리의 인생만큼이나 극적이다.
1965 년 7 월 영국 웨일스의 시골에서 태어난 작가 조앤 롤링은 2 년 전까지만 해도 딸아이를 데리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무

토끼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언제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희한한 사건이나 모험담을 꾸며내어 들려주는 등 일찍부터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보였다.

롤링은 동네 종합 중등학교에서 교육 받았으며 그 뒤 엑세터 대학에서 불문학과 고전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고 졸업한 뒤에는 국제 사면위원회에서 임시 직원으로 몇 년간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다. 그녀가 카페와 술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였다. 하지만 1990년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직장마저 잃게 되자 그녀는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기자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1997년에 결혼해 그 다음해에 딸 제시카를 낳았다. 하지만 그 결혼은 3년도 되지 못해 파경을 맞게 된다. 그녀는 생후 4개월짜리 딸을 안고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든버러에 초라한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 정착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일자리를 구하려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했지만 보육비가 없었던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3년여 동안 주당 7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생활보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야 했다. 낡은 매트리스로 덮인 침대 하나가 쿨쿨한 방을 다 차지하고 있는 어둡침침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축한과 찜통 더위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사치였다. 어린 딸을 굶기지 않는 것이 더 급했다. 보조금이 떨어져 아이가 보챌 때는 맹물로 우유를 대신해야 했고, 자신의 눈물방울이 섞인 물을 젖처럼 빨아대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롤링은 스물 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굴욕감을 느꼈다. 갑작스런 가난은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항상 작가의 꿈을 키워 왔으면서도 남몰래 글을 써왔던 그녀는 마침내 오래 전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간에서 생각해냈던 해리 포터 이야기를 끝마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글쓰기에 매달렸다. 위대한 시리즈의 출발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춥고 초라한 아파트를 나와 딸 제시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으로 갔고 해리 포터 이야기의 줄거리를

구상하며 이리저리 걸어다니곤 했다. 그리고는 아이가 잠들면 탁자와 의자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곤 했다. 아이가 잠든 동안에만 글을 쓸 수 있었으므로 일본 일초가 소중했다. 운이 좋은 날에는, 2시간 동안도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녀는 한 잔의 커피로 몇 시간이고 머물 수 있었던 니콜슨이라는 카페를 가장 좋아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일단 제시카가 잠들고 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글을 썼다.

1996년 6월, 그녀는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다. 하지만 복사비가 없었던 그녀는 그 원고를 런던에서 일할 때 커파운드를 주고 샀던 낡은 타자기로 두 번 쳤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 연감에서 고른 런던의 두 에이전트에게 보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실망스럽게도 어린이 책으로는 1,000파운드 이하의 원고가 너무 길다며, 원고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녀가 시도한 두 번째 에이전트는 독점계약을 바란다는 반가운 답장을 보내왔고 볼룸스베리 출판사를 알선해주었다. 그녀는 그 출판사로부터 1,000파운드의 선금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러나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의 한 출판사는 저작

료로 1,000,000파운드를 지불했다. 아동 도서로는 전례가 없는 선금이었다.

하지만 (피터 팬)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린이를 위한 불멸의 고전이 탄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리즈를 그녀가 처음 계획했을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린이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들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재미있는 것을 썼다.

그녀는 궁핍한 생활 속에서 황량해지거나 미치지 않기 위해 그저 자신을 위해 글을 썼을 뿐이며 해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면 마치 친한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첫 번째 책의 원고뿐만 아니라 7「글프인 다음 여섯 권좌 아웃라인을 들고 출판사에 갔다는 사실이었다. 각 책의 줄거리는 이미 다 짜여져 있으며, 모든 인물은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롤링은 11살짜리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를 떠나는 17세까지 1년 동안의 모험담을 각기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모두 7권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리 포터의 중년의 위기나 노인 마 "7'

법사 해리 포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한 권 꼴로 출간될 예정인 이 시리즈의 후속편을 기다리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리 포터 팬클럽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까지 했는데 팬은 "호그와트의 명예 학생이며, 해리포터의 친구이며, 어둠의 세계에 대한 맹렬 반대자이며 아주 착한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학생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공 해리의 이마에 그려져 있는 흉터 번갯불 표시는 어린이 독자들 세계에선 인기있는 표상이 되고 있어 이미 독일에서만 液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워너브라더스 사는 해리 포터 시리즈의 영화 판권과 캐릭터 사업을 엄청난 거액에 사들였는데 이들 시리즈는 앞으로 차례차례 영화화될 예정이다. 영화 '썬들러 리스트'를 감독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을 계획이지만 '나 홀로 집에'의 크리스 콜럼버스, '양들의 침묵'의 조나단 드미 등 쟁쟁한 감독들이 이 소설의 영화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두고보아야 할 상황이다. 시나리오를 이미 스티븐 크로브가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롤링은 현재 다섯 살이 된 제시카와 함께 에든버러 중심가

에 있는 방 세 개짜리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며 이제는 더 이상 미쳐 아이의 신발을 살 돈을 모으기도 전에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못 신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이제 더 없이 행복하다.

이런 좋은 작품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문학수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원고를 꼼꼼히 읽어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준 남편에게 더 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잘 놀아주지 못한 엄마를 이해해주고 씩씩하게 생활해준 딸 우연과 우정에게 이 책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 ■

김 혜 원

마법사의 돌에 대한 찬사

"놀라운 처녀작이다.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도처에서 쥐어나오기는 하지만, 로날드 달과 마찬가지로 조앤 롤링은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과, 공포와, 성공을 인간의 척도에 맞추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그 책은 멋지고, 익살맞은 유머로 가득 차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감명 깊을 정도로 입체적(때때고, 7f卜전편이기도 하터!)-7_? _EI"7f7"」 77f "I"「~「 긴's에 걸쳐 매끄럽게 움직여나간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그 작품 이면에 있는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인』順갈 친 7◎? ??? 翫패린 翫7翫◎

닌고 있으면, "◎쿠 특별한 목표론 위핵 령'證친 거글빅 세걱틀넘어 높이 날아올랐다. "-뉴욕 타임스 북 리뷰

지주 재미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뛰어난 소설이다..... 영예로운 데뷔작이며, 굉장히 우스꽝스런 즐거움을 주고 현기증이 날것 같은 상상 여행을 하게 하는 책이다. 롤링의 재능과 장래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틀림없이 위대한, 진정으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

-보스턴 선데이 글로브

"해리 포터의 마법은 마법사나 어린아이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

-USA 투데이

"이 책에 담긴 이야기는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전율을 느낄 정도로 흥미롭다. "

-시카고 트리뷴

'많은 등장인물들이 풍부한 액션과 유머와 익살이 넘치는 공상적인 배경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독자들을 확실히 사로잡을 것이다. ."-시애틀 타임즈

"독자들은 p. L. 트레버스와 로날드 달에 버금가는 영국 작가의 이 데뷔 소설에 폭 빠져들 것이다. 황홀감과, 서스펜스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만족시킬

-퍼블리셔즈 위클리, 우수도서 리뷰

'건을 빼앗는 이 공상소설을 읽은 뒤, 독자들은 자신들도 만일 킹스 크로스 역에서 9와 3번 승강장을 찾을 수만 있다면, 호그와트 학교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

-학교 도서 잡지, 우수 도서 리뷰

결령의 첫 번째 소설은 마술적 이라는 그 줄거리의 토대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영국의 학교 이야기들 요소를 편입시켜 기막힌 상상력으로 멋지게 쓰여진 공상소설이다.

사실, 그녀의 이 매혹적인 소설이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스포츠와, 학생들의 경쟁과, 별난 교사에 대한 그녀의 탁월한 공상 때문이다. "

-북리스_7, 우수 도서 리뷰

"감동적인 처녀작이다..... 이 대단히 재미있는 공상소설은 이상한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에서부터 벽난로 바닥에서부터 화하는 용의 알에 이르기까지, 상상력이 넘치는 묘사들로 가득하다. '

-커커스 리뷰

"익살이 넘치는 놀라운 소설이다. 이번에는 말로 로날드 달의 명작들에 비견될 만한 작품을 보게 되었다. '

-더 선데이 타임즈

"... 길과 마법사 해리 포터는 고전명작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롤링은 예민한 직감과 독창성이 가득한 고전적 서술 기법을 이용해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는 스릴러 형태로 표현해내었다. 그녀는 1급 아동문학작가이다"-더 스코트맨

"독창적인 기지로 쓰여진 멋진 데뷔 소설이다. '

'대단히 훌륭한 읽을 거리이며 놀라운 처녀작이다. "

'대단히 훌륭한 소설이다. '

-더 가디언

-웬디 쿨링

더 선데이 텔레그래프

'조앤 롤링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책을 만들어냈다.

2770 년쯤에는, 수많은 애독자들이 다이애건 앨리와 쿼디치 경기를 들먹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

-더 타임즈

'길 마법이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리포터가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그의 마법은 어른들에게도 매력적 이다. "

-제임스 노턴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선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기술을 연마해 가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장입니다. 긴 까만 망토가일상적인 마법사 복장이긴 하지만, 많은 마법사들은 색깔 있는 망토도 입습니다. 아서 왕의 개인 마법사였던 그 유명한 멀린은 점성술의 기호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려져 있는 망토를입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주문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망토를 선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공중으로 날아서 이동할 때는하늘색 망토를 입고,불꽃을 일으킬 때는 주홍색 망토를 입는거죠.

여러분은 또 마법사 모자가 필요할 거예요. 끝이 駱족하고테가 납작한 원뿔형의 모자 말예요 모자 끝이 逃족한 것은 그

모자를 쓴 마법사에게 던져진 주문들을 뗏나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종류의 모자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중세(때로 암흑기라고도 하죠) 유럽의 마법사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마법사의 모자는 보통 까만 색이지만, 반드시 그것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마법사들은 기호나 고대 문자들이 그려져 있는 모자를 쓰기도 했답니다. 다음은 요술지팡이에요. 요술지팡이들은 보통은 버드나무가지처럼 휘두르기 쉬운,유연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요술지팡이 마법은 여러분의 솜씨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마법사의 복장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다 그렇듯이, 요술지팡이도 다른 마법사가 미리 만들어둘 수는 없습니다.

종종 마법사들은 발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고 있기는 하지만,그것은 필수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마법사들은 고무창 운동화를 신고 있으니까요! 발끝을 뾰족하게 만든것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의 주문들이 먼 거리까지 미칠 수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복장을 다 갖춰 입었으니,마법을 걸거나 마법사 입문서를 읽기 전에 몇 가지 언어를 배워야겠군요. 마법사들이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헤브루어이긴 하지만, 많은 마법사 지식은 마법사들만의 기호로 표기되어 있거나 수수께끼와 철자를 바꾼 말들로 표시되어 있습니 7, "?

마법사들은 또한 기호와 고대 문자를 사용합니다. 일부 주문들,특히 방어 마법을 쓸 때는 그 마법을 거는 사람은 주문을외우기 전에, 땅바닥에 이러한 기호들을 동심원들로 그린 뒤,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마법에 사용되는 약초와 식물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자라며 음식의 독특한 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들의 사용법을 모릅니다.

마법사들뿐 아니라, 무당이나 민간 치료사들은 그것들을 이용해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주며, 약까지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느도서관에서든 그러한 약초들이 자라는 곳과 식별법을 설명해주는 약초에 관한 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을 조제하는 건 특별한 기술입니다. 빵을 구을 때와 마찬가지로,마법의 약을 만들려면

재료의 양을 정확히 재어야 하며, 대용품을 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어떤 약은

잠들어버리게할지도 모르고,어떤 약은 사랑에 빠지게 할지도 모르니까요!물론,어떤 마법의 약은 실제로 맛이 좋습니다. 설탕과 향료와달걀 노른자를 넣은 사과술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맛좋은 마법의 약이겠지만,그것을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 데 이용하는지는 마법사밖에 모릅니다.

어떤 마법사들은 점성술이나, 손금 보거나,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거나, 차 잎을 해독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걸 배웁니다.
점성술가들은 어떤 사람의 생일날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

간에 지구에서 보이는 별들의 지도를 만듭니다. 그들은 각 행성이나 별이 지닌 힘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의 상호간 위치의 의미를 근거로 예측을 합니다.
수상술, 즉 손금 보기는 사람들의 손에 나타나는 다양한 선과 주름의 의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는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고 다가올 일들을 예언할지도 모릅니다. 차 잎을 해독하기 위해서, 마법사는 차를 다 마신 뒤 찻잔에 남겨진 차잎 조각들을 살핍니다. 마법사는 그 차 잎 조각들이 어떤 물체와 닮았는지 에 주목하고, 그러한 물체들의 상징성에 바탕을두어 예측을 합니다.

독자가 보내온 「마법사가 되는 멋진 방법」에서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지 보고 싶어요우린 해리가 퀴디치 경기를 멋지게 펼쳐서 퀴디치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가 새 뗏자루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 슬리데린 팀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해리는 조만간 여자친구를 갖게 될 거예요, 론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네이프 교수가 어둠의 마법 방어법 선생님이 되거나, 해리가 그를 압도하거나, 그가 해리를 좋아하게 되길 바래요. 드레이코 말포이가 호그와트에서 쫓겨났으면 좋겠어요.
더즐리 가족이 해리의 진가를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호그와트에는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되고, 해리는 새로운 종류의 마법을 배울 거예요
해그리드는 행복해야 해요 그에게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

목을 다시 맡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또 해그리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용을 되찾을 거예요
우린 지니와 론과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지만, 퍼시는 졸업해서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요 헤르미온드가 어떤 걸 배우는지 알고 싶어요
2 권에는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가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심술들을 부린다. 그리고 결코 끝날 것 같진 않던 방학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도비라는 집 요정 기 나타나 해리에게 학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물론, 해리는 똥담안 듣지 않는다. 그러나 호그와트는 그가 방학 내내 고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학생하나가 차갑게 굳어버린 채로 발견되고, 그 뒤 또 한 명이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그리고 웬일인지 해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된다. 해리 포터는 과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슬리데린의 후계자일까?
여자 화장실에 자주 나타나는 망령 모우닝 머틀과 지나치게 잘난 체하는 신임 교수 질데로이 록허트, 그리고 오래 전에 호그와트의 학생이었던 톰 리들의 소름끼치는 일기장 등 여러 가지 사건이 해리와 그의 친구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나간다.